|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 간 | 등 | 록 | 번 | 호 | | | 11-1051000-000020-10 | | www.moef.go.k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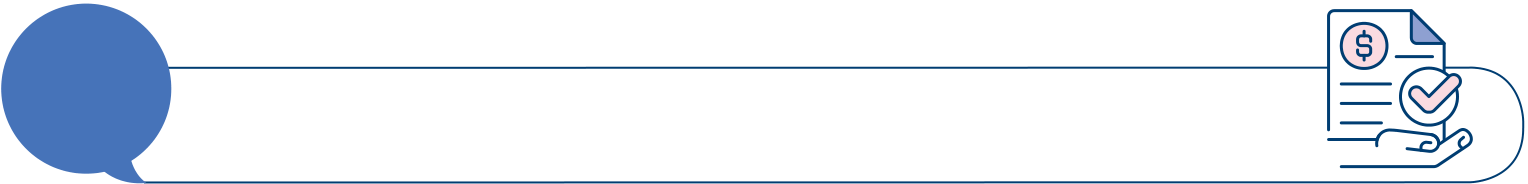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  |  |
| --- | --- |
| 나라살림 | **ㅣ예산개요ㅣ**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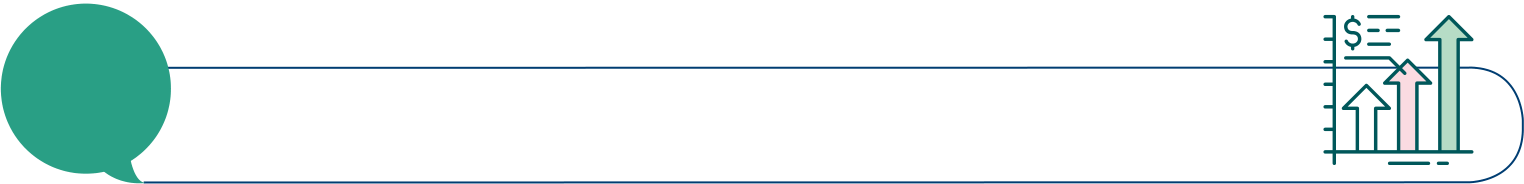


CONTENTS



|  |  |  |
| --- | --- | --- |
| 1부 |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07 |
| 제1장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 대통령 시정연설 |
| 2부 | 27 |
| 제2장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
|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
| 2024년도 나라살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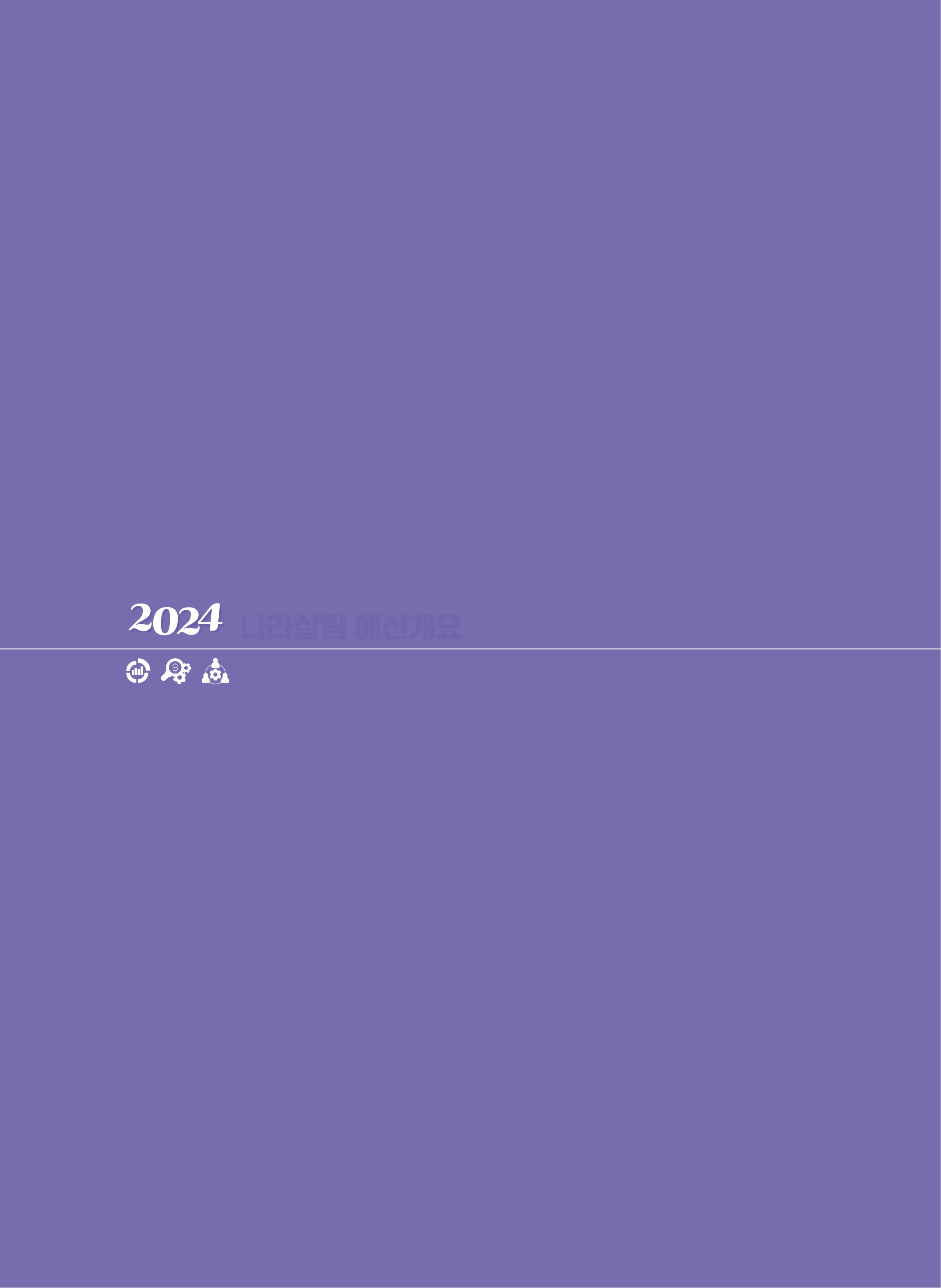
|  |  |
| --- | --- |
| 제1장 2024년도 나라살림 종합 1. 재정운용 여건 2. 세입 규모 3. 지출 규모 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제2장 재정운용 방향 1. 재원배분 방향 2. 중점 추진과제 3.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1. 보건·복지·고용 분야 2. 교육 분야 3. 문화·체육·관광 분야 4. R&D 분야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41  43  44  50  54  59  61  65  110  111  113  138  146  162  170 |



|  |  |
| --- | --- |
|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
| 6. SOC 분야 | 17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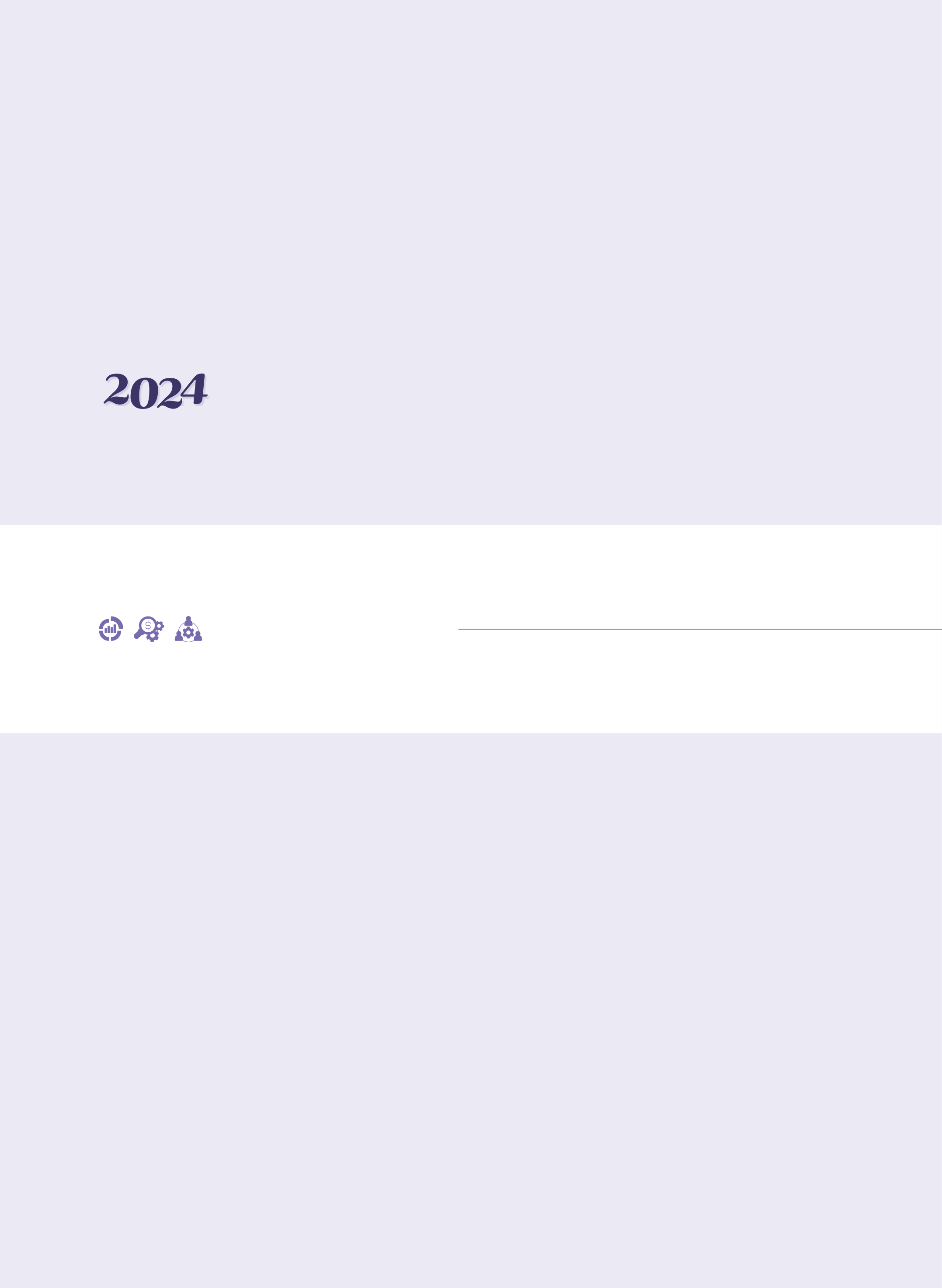
|  |  |  |
| --- | --- | --- |
| 3부 | 7. 농림·수산·식품 분야 | 190 |
| 8. 환경 분야 | 201 |
| 9. 국방 분야 | 211 |
| 10. 외교·통일 분야 | 216 |
| 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224 |
|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 236 |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  |  |  |
| --- | --- | --- |
| 제1장 2024년도 예산 1. 2024년도 예산총칙 2. 일반회계 (General Accounts)  3. 특별회계규모 및 개요 (Special Accounts)  4. 계속비 (Multiyear Expenditure)  5. 명시이월비 (Authorized Carryover Expenses) 6. 국고채무부담행위 (Debts from National Treasury)  제2장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1. 기금요약 (Summary of Funds)  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Size of Fund Management) 3. 기금 수입 (Fund Revenues)  4. 기금 지출 (Fund Expenditures) | | 247  249  254  288  290  291  292  293  295  297  298  302  307  309 |
| 별첨 |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
|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 |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  |  |  |  |
| --- | --- | --- | --- |
| |  | | --- | | 제 1 부 | |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 제1장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  제2장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 |



나라살림   
예산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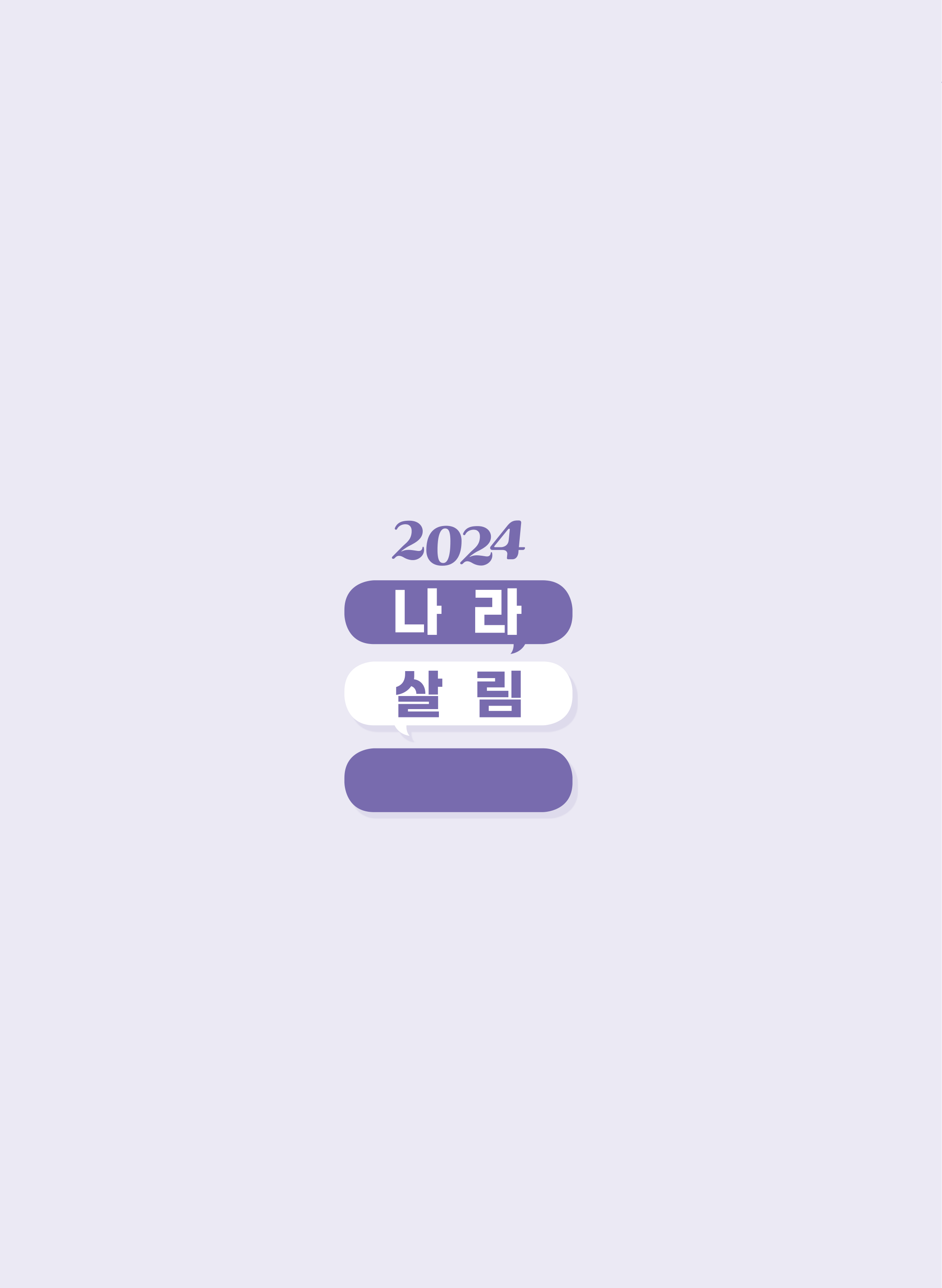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  |
| --- |
| 제 1 장 |

|  |
| --- |
| 2024년도 |

|  |
| --- |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  |
| --- |
| 대통령 시정연설 |



예산개요

8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자리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9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확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10



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거시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11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왔습니다.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껏 매진해 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12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13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여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습니다.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4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으나,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하여  
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15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  
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  
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AI, 우주와 같은 첨단 분야의   
전략 동맹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하였고,  
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  
통화 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

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6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서로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되어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다자 및 양자 회담을 하였고,  
미국, 일본, 베트남, 폴란드,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을 방문하여 양자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중동 3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시에  
양국 기업들 사이에 792억 달러, 약 107조 원의   
수출과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17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  
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넓히기 위해  
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입니다.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18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 24시간 지원 체제로 확대하여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9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가구 모든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게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을 보강하여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21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22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을 인상하여  
총 1조 5천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23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70만 명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와  
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4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 법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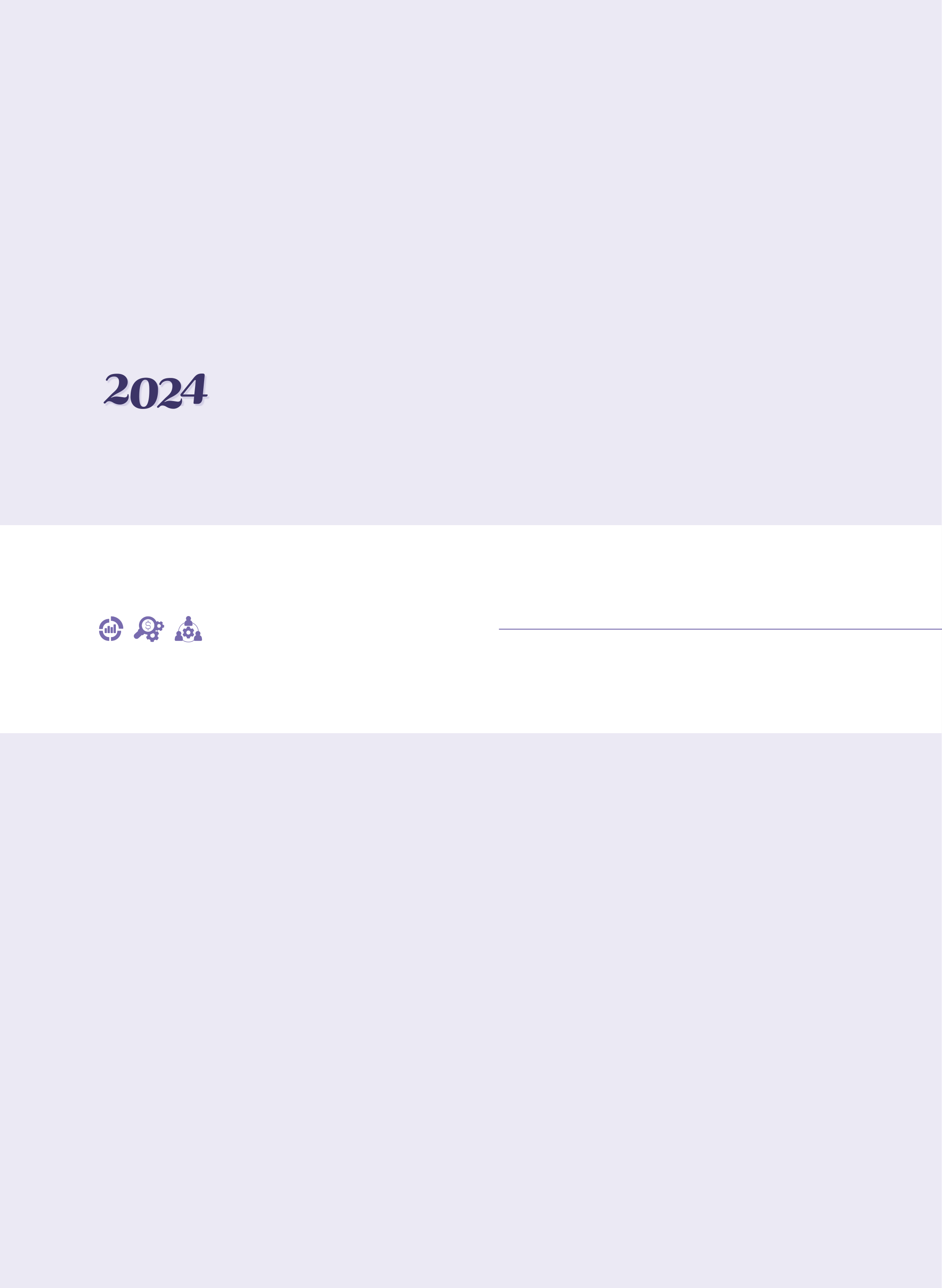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대통령 윤 석 열

25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  |
| --- |
| 제 2 장 |

|  |
| --- |
| 2024년도 예산안 및 |

|  |
| --- |
|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

|  |
| --- |
| 기획재정부 장관의 |

|  |
| --- |
| 제안설명 |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님,   
국민의힘 송언석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배경 및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9월 산업활동동향의 경우, 39개월만에 최초로  
생산·소비·투자 등 전 부문이 증가하였고,   
10월에는 13개월만에 수출이 플러스 전환되고,   
20개월만에 수출과 무역수지가 동반 플러스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호전 등을 감안시 회복 흐름이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28



다만, 중동 지역 불안, 글로벌 긴축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높은 체감물가 등으로 민생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세 가속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하였고,  
이미 크게 확대된 재정적자 폭으로 인해   
당분간 채무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금년과 내년은 세수 여건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할 경우,  
물가 안정과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빚을 전가하여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은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재정보다는  
‘경제의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위해  
건전재정으로 회복하는 것이 긴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어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하였습니다.

29

IMF 등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옳은 정책’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IMF, 9.5일)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적인 재정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Right set of policies) (Fitch, 10.17일) 한국 정부의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하지만,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폐지·삭감하는 한편,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지원과 미래준비 등에  
제대로 배분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추구하는 건전재정은  
단순히 돈을 안쓰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을 줄여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함으로써  
국민 세금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서는  
❶약자복지 강화, ❷경제 활성화와 미래대비 투자,   
❸국민안전 등 국가 본질기능 뒷받침의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



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입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 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하여  
약자복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지원하였습니다.

우선, 생계급여 지원액을 역대 최대수준인  
월 21만 3천 원 증액하여   
123만 가구에게 월 183만 4천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 5년간의 총 인상액   
19만 6천 원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지원대상도 2015년 제도설계 이후 최초로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 7천 명 확대하여  
천만 노인 인구의 10%인 103만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018년 이후 동결되었던 노인일자리 수당도   
7% 인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원예산은   
금년 5.8조 원에서 내년 6.3조 원으로,   
8.6%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31

특히, 최중증 발달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는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취업을 단념한 니트(NEET) 청년(5만 명)의 경우  
상담과 훈련, 일 경험과 직장 적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돕겠습니다.

취약 소상공인 12만 명의 경영 부담도 완화합니다.

❶저리 정책자금 대환대출(신규 0.5조 원),   
❷고효율 냉난방 기기 보급,  
❸고용보험료 지원 등 정책 패키지를 통해  
최대 연 500만 원 수준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둘째,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산업·중소기업 분야(4.9%), SOC 분야(4.6%),   
농림수산 분야(4.1%)의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4%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금융을 1조 3천억 원 추가 공급하여  
수출과 투자를 뒷받침하고,

모태펀드 신규 출자 예산을  
전년대비 50% 수준 증액한   
1조 169억 원으로 편성하여  
벤처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2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기업, 유턴기업,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투자보조금도 2배 수준 확대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직불 예산도 3조 원 이상(3조 1천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도 강화하였습니다.

신생아 출생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 저리 융자를 신규 지원하여  
연 1천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주택의 분양과 임대에 있어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일과 육아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995년 이후 처음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부모급여를 만 0세 기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신생아 출생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둘째 아이부터는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상향하여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정원 미달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영아반(0~2세)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도 5% 인상하여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33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은  
과학기술인의 땀과 열정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R&D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으로 도약하는 R&D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내년도 R&D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을 실질적으로 창출하도록  
파급력 있는 연구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AI·바이오·양자·우주 등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대규모 flagship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글로벌 R&D 공동 연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 정부기간 중   
R&D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나눠먹기식 R&D, 보조금 성격의 R&D 등  
비효율적인 낭비요인들을 구조조정 하였습니다.

34



이는 향후 R&D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불가피한 성장통이며,  
이 기회를 통해 혁신성과 도전성에 기반한  
R&D 환경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안전 등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입니다.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국가 물 안전 관리 예산을  
전년 대비 24% 증액하여(5조 1천억 원 → 6조 3천억 원)  
댐 신규 건설, 하천 정비와 저수지 준설을   
확대하겠습니다.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군 장병의 처우 및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한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130만 원 → 165만 원)하여  
2025년 ‘병봉급 200만 원’ 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 인상하고,  
노후숙소를 전량 개선하여   
‘녹물 관사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5

전 장병에게 플리스형 스웨터를 지급하고,   
모든 부대에 얼음정수기 1만 5천 개를 보급하여   
보다 나은 병영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 등 국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 ODA 투자도 금년 4조 5천억 원에서   
6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금리, 고유가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와 정부의 협업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예결위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국회는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된 민생사업들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정기한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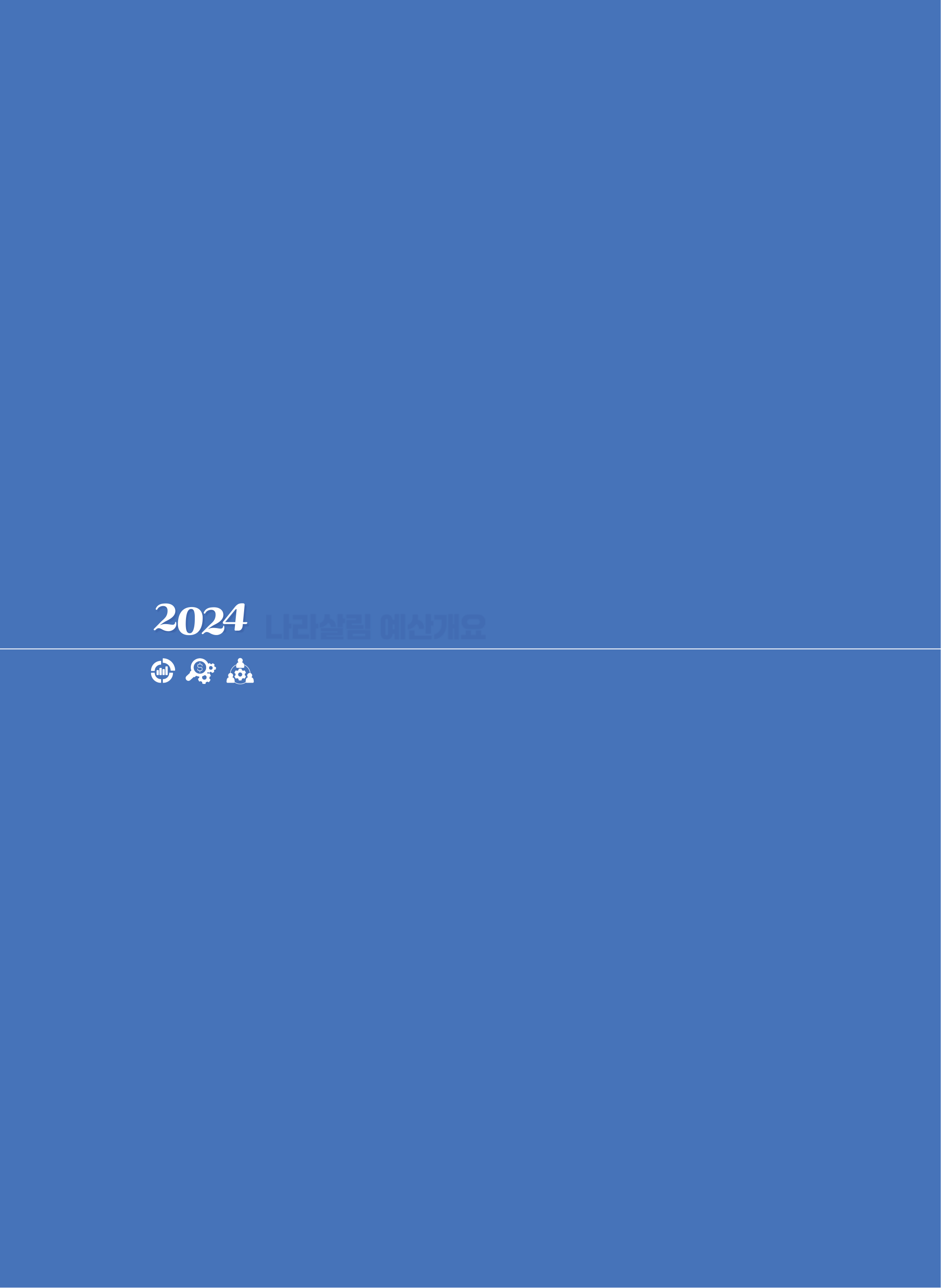
정부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민생사업들이 집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 등 필요한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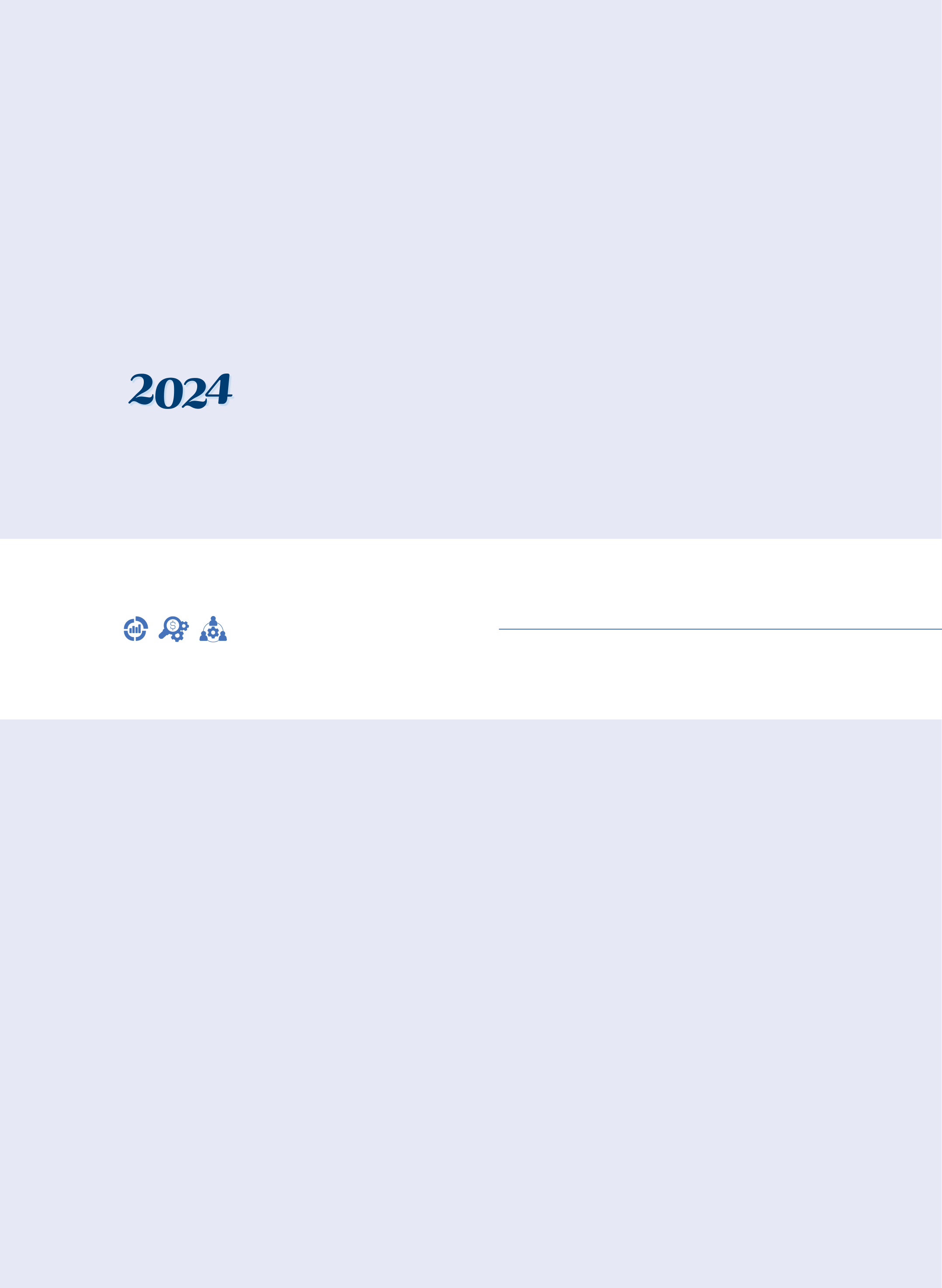
2023년 11월 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 경 호

37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  |  |  |  |
| --- | --- | --- | --- |
| |  | | --- | | 제 2부 | | 2024년도 나라살림 | | 제1장 2024년도 나라살림 종합  제2장 재정운용 방향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 |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  |
| --- |
| 제 1 장 |

|  |
| --- |
| 2024년도 |

|  |
| --- |
| 나라살림 종합 |

|  |
| --- |
| 01. 재정운용 여건 |

02. 세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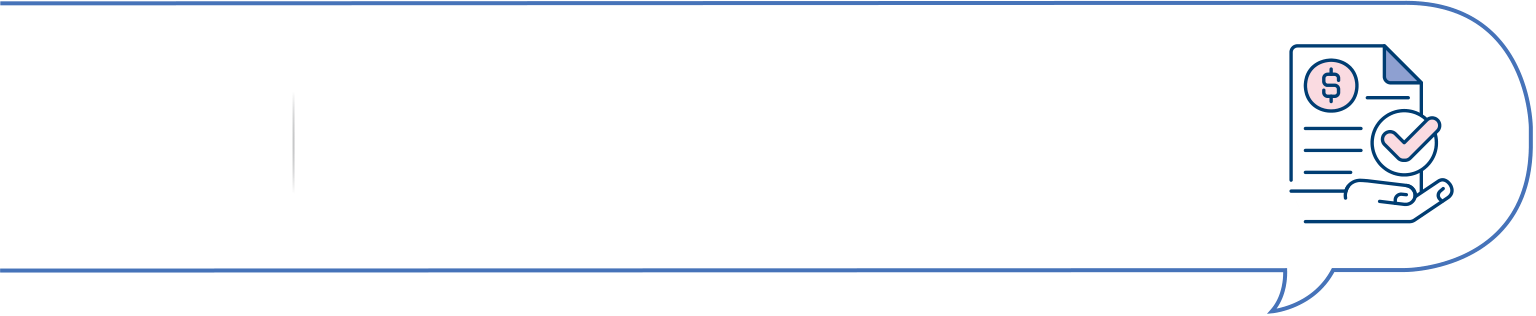
03. 지출 규모

|  |
| --- |
| 0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예산개요

42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  |  |
| --- | --- |
| 01 | 재정운용 여건 |

2024년 세계 경제는 그간 누적된 고금리 영향이 당분간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률이 2023년 대비 뚜렷한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IT 등 제조업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글로벌 교역량이 회복되는 등 글로벌 성장의 중심축이 내수에서 교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지정학적 불안 요인과 공급망 안정 위험, 주요국 정치적 이벤트 및 경제 회복속도의 불확실성 등 다양한 글로벌 하방리스크가 상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계 |  |  |  |  |  |  |  |  |
| 선진국 | 미국 | 유로 | 일본 | 신흥국 | 중국 | 브라질 | 러시아 |
| 2022년2023년2024년 | 3.5  3.0  2.9 | 2.6  1.5  1.4 | 2.1  2.1  1.5 | 3.3  0.7  1.2 | 1.0  2.0  1.0 | 4.1  4.0  4.0 | 3.0  5.0  4.2 | 2.9  3.1  1.5 | △2.1 2.2 1.1 |

자료 : IMF(202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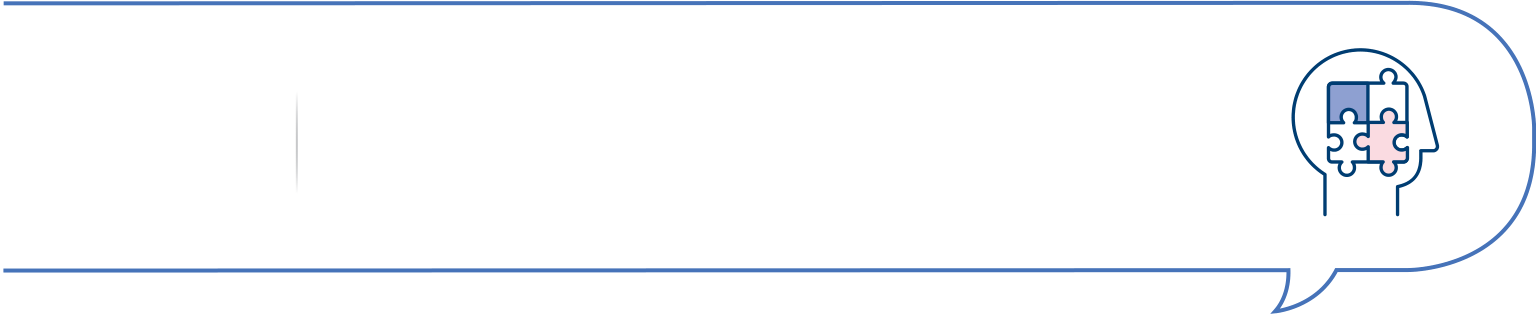
금년 우리경제는 전반적으로 수출 중심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도 점차 안정되며 비교적 고른 성장 흐름이 예상된다. 다만, 상반기까지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 고금리 영향의 누적 등으로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제약되고 내수 및 지역경제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표 1-2] 2024년 경제 전망  
(단위: 연간 %)

|  |  |  |  |
| --- | --- | --- | --- |
|  | 2022년 | e  2023년 | e  2024년 |
| 경제성장률(%) | 2.6 | 1.4 | 2.2 |
| 소비자물가(%) | 5.1 | 3.6 | 2.6 |

자료 : 2023~2024년 경제전망(’24년 경제전망,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43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  |  |
| --- | --- |
| 02 | 세입 규모 |

2-1 **총수입 : 2023년 대비 △2.2% 감소한 612.2조원**



예산과 기금을 합한 나라전체 총수입은 2023년 보다 △2.2% 감소한 612.2조원으로 전망된다.



예산수입은 2023년(425.4조원) 대비 △7.0% 감소한 395.5조원 수준이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2023년(400.5조원) 대비 △8.3% 감소한 367.3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수입이 367.3조원, 특별회계 수입이 28.2조원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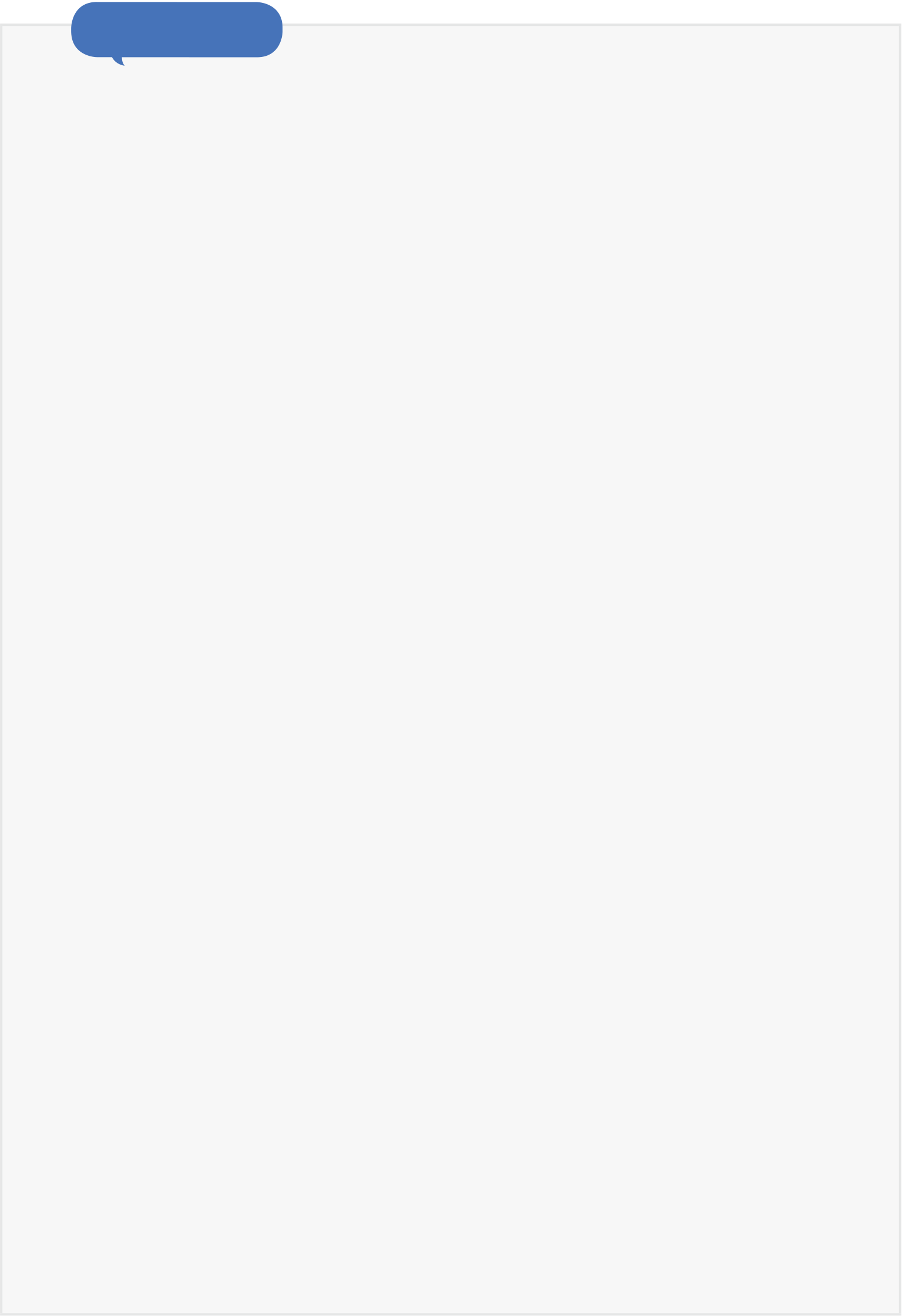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확대 등에 따라 2023년 (200.3조원) 대비 8.2% 증가한 216.7조원으로 예상된다.

[표 2-1] 2024년 총수입 전망  
 (단위: 조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
| (B-A)/A |
| |  | | --- | | 총 수 입 |   ■ 예 산  (국 세)  •일반회계  •특별회계 | 625.7  425.4  (400.5)  400.0  25.4 | 612.2  395.5  (367.3)  367.3  28.2 | △2.2 △7.0 △8.3 △8.2  10.9 |
| ■ 기 금  1」(사회보장성기금) | 200.3  114.6 | 216.7  123.8 | 8.2  8.0 |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4





참고 | 총수입이란 ?

재정수입은 회계·기금별로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회계·기금을 모두 합한 총수입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 5개의 기업특별회계, 16개의 기타특별회계 및 68개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 회계간 전출입 금액 등을 중복 계상하여 실제의 재정수입 전체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총수입은 중앙 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것으로 사실상 IMF가 국제적 비교를 위한 공통 기준으로 제시하는 통합재정 작성방식과 거의 같은 개념이다.

☞ 총수입 = 일반회계수입 + 특별회계수입 + 기금수입 - 내부거래 - 보전거래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이 그룹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각각의 회계, 기금을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로 본다면 총수입은 그룹 전체의 연결재무제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는 이유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단순 합계할 경우 정부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보다 과대 계상된다. 예를 들면, 100원의 조세수입을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이를 기금으로 전출하는 경우, 일반회계 세입은 100원, 기금 수입도 100원이지만 총수입은 내부거래(100원)을 제외한 100원만 계상하여야 실질적인 정부 수입을 정확히 나타낼 수가 있다.

또한 국채발행 수입·차입금 등도 총수입 계산시 제외된다. 국채발행 수입 등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수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정부전체 수입규모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총수입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따라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수입은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것이다. 제3부에서는 회계·기금별로 독립된 규모를 설명하기 위해 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총계 개념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수입을 나타내고 있다.

45



2-2 **예산 수입 : 2023년 대비 △7.0% 감소한 395.5조원**

예산 수입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으로 나뉘고, 수입 원천별로는 소득세·법인세 등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국세수입과 벌금·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회계 세입 : 2023년 대비 △8.2% 감소한 367.3조원



일반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국세수입과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2024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23년(390.3조원) 대비 △8.7% 감소한 356.1조원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23년(9.7조원) 대비 15.2% 증가한 11.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4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23년 대비 △8.7% 감소한 356.1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수입은 2023년 대비 △10.2% 감소한 321.6조원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벌금·가산금 등) 및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 등 경상적인 국세 외 수입으로서, 2023년 대비 15.2% 증가한 11.2조원으로 예상된다.

[표 2-2] 2024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  
 (단위: 조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
| (B-A)/A |
| |  | | --- | | 합 계(Ⅰ+Ⅱ) |   ■ 국세(Ⅰ)  1」  •내국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종합부동산세 | 400.0  390.3  358.0  10.7  11.1  4.7  5.7 | 367.3  356.1  321.6  8.9  15.3  6.2  4.1 | △8.2 △8.7 △10.2 △16.9  37.5  31.1 △28.1 |
| ■ 세외수입(Ⅱ) | 9.7 | 11.2 | 15.2 |

1」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46





 특별회계 세입 : 2023년 대비 10.9% 증가한 28.2조원



2024년 특별회계 세입은 2023년(25.4조원) 대비 10.9% 증가한 28.2조원으로 전망된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세·농어촌특별세 등 국세와 융자회수·부담금 등 자체수입으로 구성된다. 2024년 특별회계 세입 중 국세는 2023년 (10.2조원) 대비 9.7% 증가한 11.2조원으로 전망되며, 자체수입은 2023년(15.2조원) 대비 11.6% 증가한 17.0조원으로 전망된다.

[표 2-3] 2024년 특별회계 세입 전망  
 (단위: 조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
| (B-A)/A |
| |  | | --- | | 합 계(Ⅰ+Ⅱ) |   1」  ■ 국세(Ⅰ) | 25.4  10.2 | 28.2  11.2 | 10.9  9.7 |
| 2」  ■ 자체수입(Ⅱ) | 15.2 | 17.0 | 11.6 |

1」 주세·농어촌특별세 / 2」 각종 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 융자회수, 수수료 등

2-3 **기금 수입 : 2023년 대비 8.2% 증가한 216.7조원**



2024년 기금 수입은 2023년 대비 8.2% 증가한 216.7조원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은 7.2% 증가한 92.3조원, 융자원금 회수는 5.4% 증가한 33.8조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은 10.3% 증가한 90.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금 수입은 크게 사회보장기여금, 융자원금 회수, 기타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사학연금의 연금기여금과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로 구성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2023년 대비 7.2% 증가한 92.3조원으로 전망된다.

47

중소기업 등에 융자한 자금을 만기에 회수하는 융자원금 회수규모는 2023년 대비 5.4% 증가한 33.8조원으로 예상되며,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채무 증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2023년 대비 10.3% 증가한 90.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표 2-4] 2024년 기금수입 전망  
 (단위: 조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증감률 |
| |  | | --- | | 합 계(Ⅰ+Ⅱ+Ⅲ) |   ■ 사회보장기여금(Ⅰ) | 200.3  86.1 | 216.7  92.3 | 8.2  7.2 |
| ■ 융자원금 회수(Ⅱ) | 32.0 | 33.8 | 5.4 |
| ■ 이자수입 등 기타(Ⅲ) | 82.1 | 90.6 | 10.3 |

기금 유형별로는 사업성 기금은 주택도시기금 만기도래 융자원금회수 증가 및 국유재산 토지매각대 증가 등으로 2023년 대비 5.4% 증가한 58.0조원, 사회보험성 기금은 국민연금기금의 기타재산이자수입 증가로 8.4% 증가한 146.6조원, 계정성 기금은 복권기금의 복권판매수입 증가 등으로 21.2% 증가한 12.1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표 2-5] 2024년 기금유형별 수입 전망  
 (단위: 조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증감률 |
| |  | | --- | | 합 계(59개) |   ■ 사업성 기금(49개) | 200.3  55.1 | 216.7  58.0 | 8.2  5.4 |
| 1」 ■ 사회보험성 기금(6개) | 135.2 | 146.6 | 8.4 |
| 2」 ■ 계정성 기금(4개) | 10.0 | 12.1 | 21.2 |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2」 양곡증권정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참고로 앞서 설명한 기금 수입 216.7조원은 통합재정 관점에서의 기금 수입으로서, 국회에서 확정된 68개 전체 기금의 수입(기금운용규모) 1,023.3조원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48



첫째,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에는 회계·기금 등 정부 내부간 거래, 민간차입금, 이미 기금으로 전입되어 여유자금으로 운용되던 것을 회수하는 여유자금회수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자체 수입만을 반영한다.

둘째, 금융성 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순수한 재정활동이라기보다는 금융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통합재정 관점에서의 총수입에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통합재정 관점에서 예산과 기금을 합한 정부전체의 총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59개 기금의 자체수입만을 포함한다.

49



|  |  |
| --- | --- |
| 03 | 지출 규모 |

3-1 **총지출 규모 : 2023년 대비 2.8% 증가한 656.6조원**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8% 증가한 규모이다.



2024년 총지출은 2023년 예산 대비 2.8% 증가한 656.6조원이다. 약자복지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예년에 비해 증가율을 대폭 낮추어 편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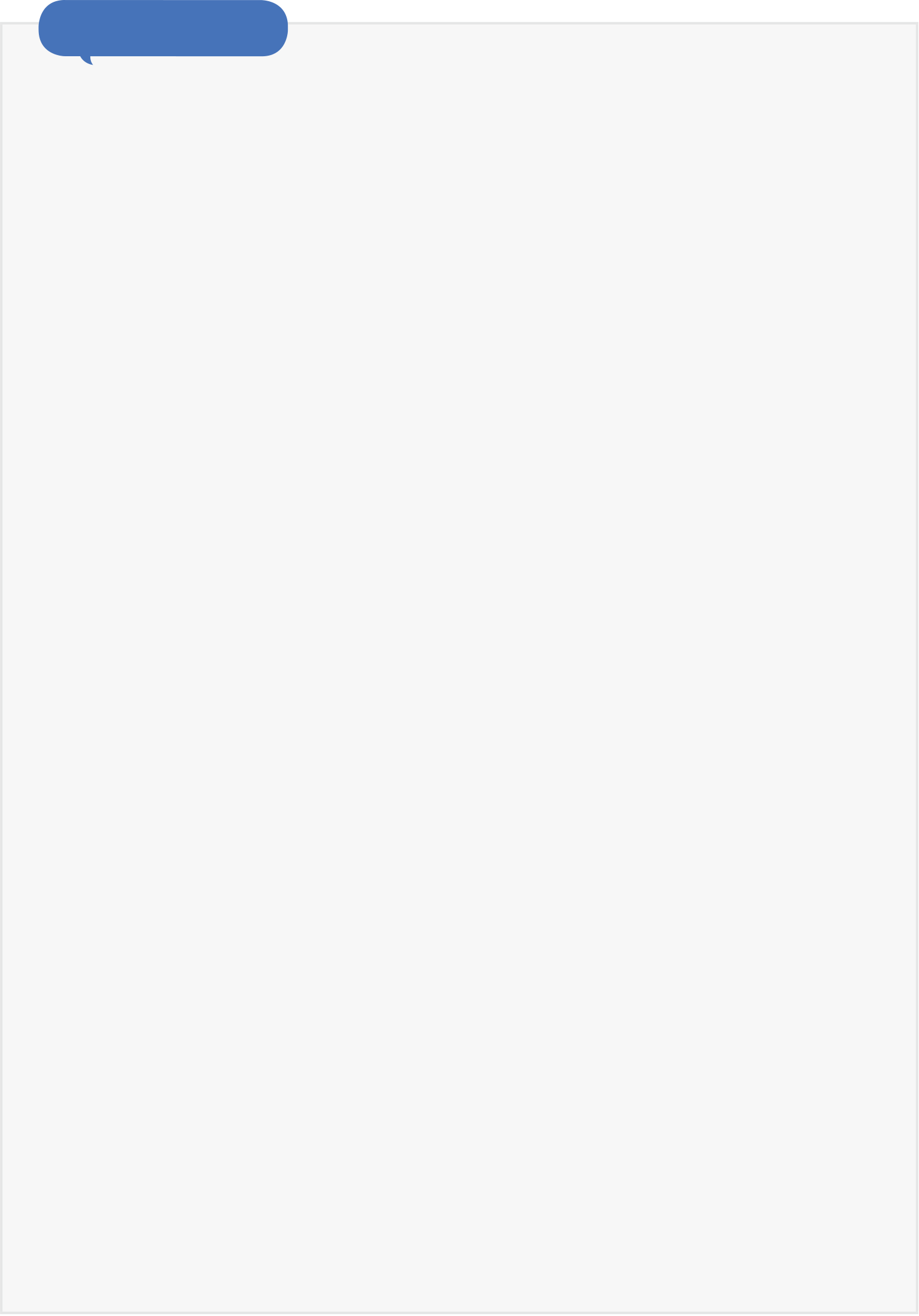
예산 총지출은 438.3조원으로 2023년(441.1조원) 대비 △0.6% 감소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5조원,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2023년 계획 대비 10.5% 증가한 218.4조원이다.

[표 3-1] 2024년 총지출 규모  
 (단위: 조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
| (B-A)/A |
| |  | | --- | | 총 지 출 |   ■ 예 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 638.7  441.1  369.4  71.6 | 656.6  438.3  356.5  81.7 | 2.8 △0.6 △3.5  14.1 |
| ■ 기 금 | 197.7 | 218.4 | 10.5 |

50





참고 | 총지출 규모란 ?

정부의 재정규모는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에 따라 ① 통합재정규모(IMF 기준), ② 총지출 규모, ③ 일반정부 재정규모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재정규모는 예산·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를 말한다.

☞ 통합재정규모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 - 융자수입)

총지출 규모는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뜻하며, 2005년부터 재정운용 계획 수립시 우리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다.

총지출 개념은 국제적으로 재정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을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정부가 국민에 대해 재정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총지출 규모는 통합재정규모가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여 융자거래와 기업 특별회계를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므로 통합재정규모 보다는 항상 규모가 크다.

일반정부 재정규모는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국은 국민계정 작성기준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OECD에서 각국의 공식적인 통계를 취합·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한국은행이 1993 SNA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반정부 통계를 작성해 왔으나, 재정통계 개편안을 마련(2011.9월 국무회의)하여 정부의 국제기구 제출용 재정통계와 한국은행 통계기준을 일치시켰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 포괄범위는 일반정부가 기준이 되며, 제도단위 여부\*와 시장성 기준\*\*등에 따라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관리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된다.

\* 제도단위 : 자율적인 의사결정체계 및 독립적 자금운용계정 보유  
\*\*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면 일반정부, 초과하면 공기업으로 분류

51



3-2 **예산지출 규모 : 2023년 대비 △0.6% 감소한 438.3조원**



2024년 예산 지출 규모는 2023년 대비 △0.6% 감소한 438.3조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5조원,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일반회계는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민생경제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2023년 예산 대비 △3.5% 감소한 356.5조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6개와 기업특별회계 5개의 총 2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예산 대비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예산의 경우 총지출 개념과는 별도로 예산총계에서 예산회계 내부 간 및 계정 간 거래를 제외한 예산순계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산순계의 2023년 예산 대비 지출증가율은 0.9%이다.

[표 3-2] 2024년 예산지출 규모  
 (단위: 조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
| (B-A)/A |
| ■ 예산지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 441.1  369.4  71.6 | 438.3  356.5  81.7 | △0.6 △3.5  14.1 |
| ■ 예산순계 | 484.4 | 488.6 | 0.9 |

52





3-3 **기금지출 규모 : 2023년 대비 10.5% 증가한 218.4조원**



2024년 기금지출 규모는 2023년 대비 10.5% 증가한 218.4조원으로 이 중 사회보장지출은 10.2% 증가한 76.6조원이다.



기금 사업비는 2023년 대비 10.1% 증가한 191.7조원이고, 이 중 사회보험성 기금 사업비는 수급자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지출 확대 등으로 2023년 대비 9.5% 증가한 105.9조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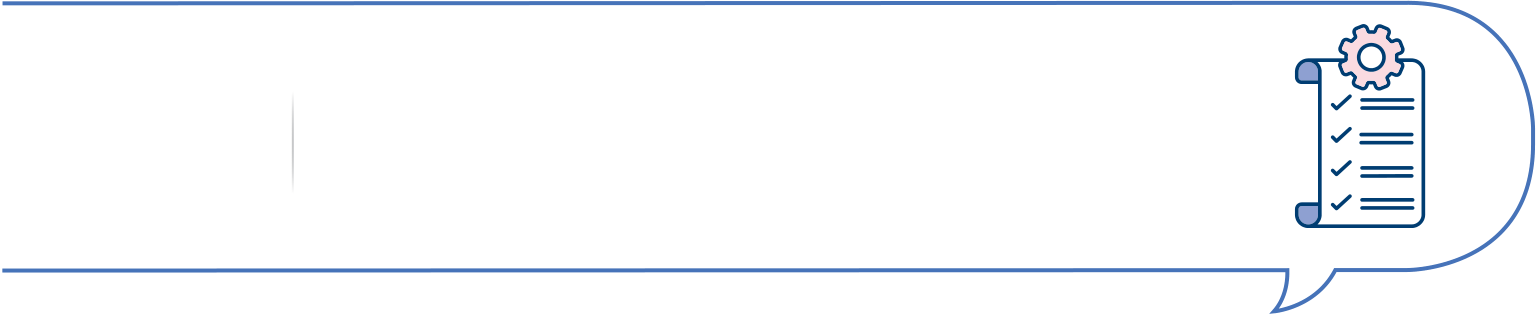
한편, 기금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1.8조원이고, 차입금이자상환은 2023년 대비 14.5% 증가한 24.9조원이다.

[표 3-3] 2024년 기금지출 규모  
 (단위: 조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
| (B-A)/A |
| |  | | --- | | 합 계(59개)  (사회보장지출1」 ) |   ■ 사업비  •사업성 기금(49개)   2」  •사회보험성 기금(6개) 3」  •계정성 기금(4개) | 197.7  (69.5)  174.1  72.5  96.7  4.9 | 218.4  (76.6)  191.7  78.0  105.9  7.8 | 10.5  (10.2)  10.1  7.6  9.5  57.4 |
| ■ 기금운영비 | 1.8 | 1.8 | 0.6 |
| ■ 차입금이자상환 | 21.7 | 24.9 | 14.5 |

1」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지출2」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3」 양곡증권정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53



|  |  |
| --- | --- |
| 04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4-1 **재정수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2024년 통합재정수지는 △44.4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1.6조원 적자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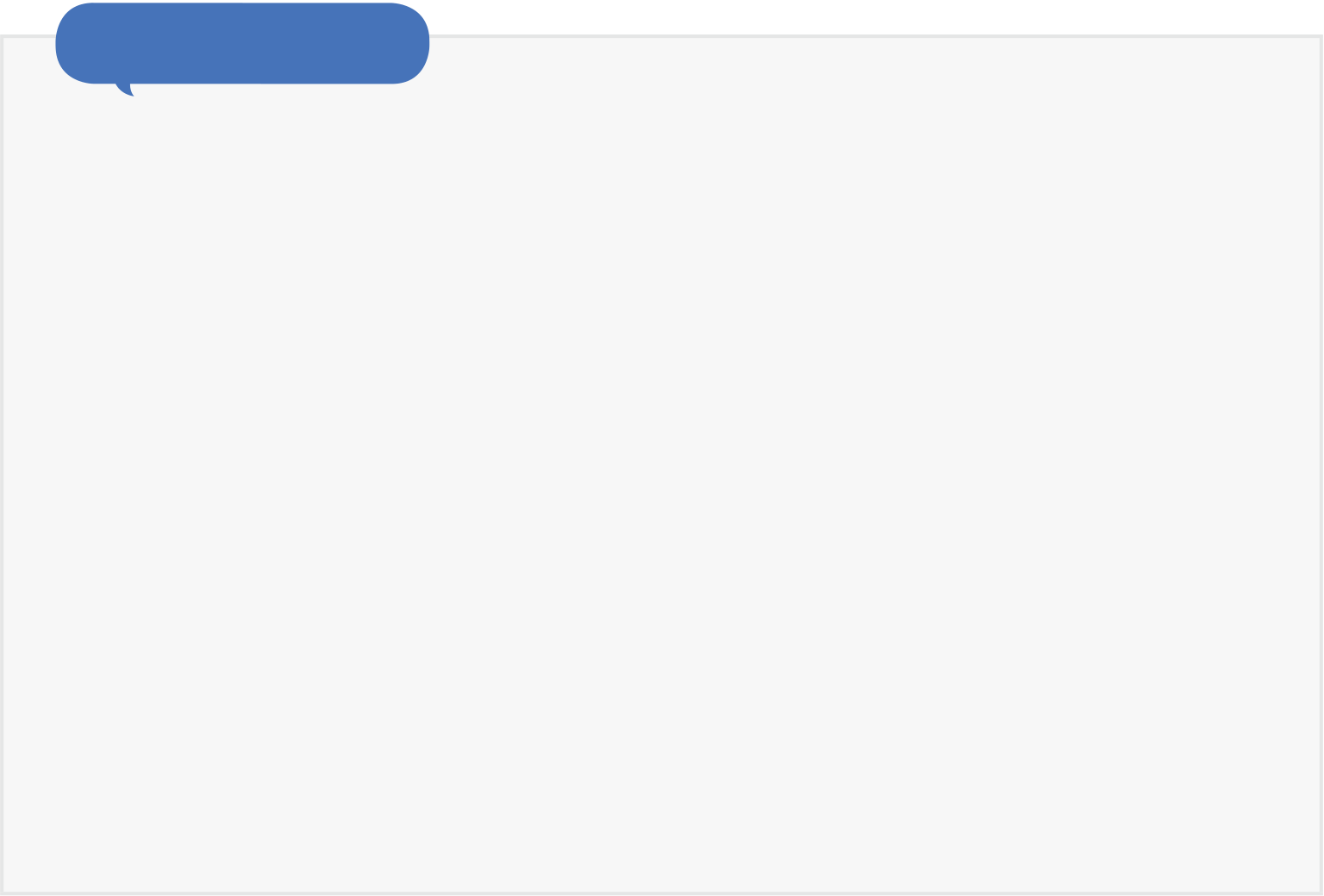
2024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9% 수준(△44.4조원) 적자이고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9%(△91.6조원) 적자로 예상되어, 2023년 통합재정수지 △0.6%(△13.1조원) 및 관리재정수지 △2.6%(△58.2조원)에 비해 일부 악화되었다.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악화를 최소화하였다.

정부는 약자복지, 역동경제 구현, 국민안전 등 재정의 필수적 역할은 지속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관리노력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표 4-1] 재정수지  
 (단위: 조원)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 |
| (B-A) |
| ■ 통합재정수지(Ⅰ)  (GDP 대비, %, %p) •사회보장성기금 수지(Ⅱ) | △13.1 △0.6  45.1 | △44.4 △1.9  47.2 | △31.4 △1.3  2.1 |
| ■ 관리재정수지(Ⅰ-Ⅱ) (GDP 대비, %, %p) | △58.2 △2.6 | △91.6 △3.9 | △33.4 △1.3 |

54





참고 | 관리재정수지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연금 등 장래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등이 시행 초기단계로 구조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실제 국가채무 증가와의 연관성 등을 감안할 때 관리재정수지가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부터 통합 재정수지와 함께 관리재정수지를 발표하고 있다.

55



4-2 **국가채무**



2024년 국가채무는 1,195.8조원(GDP 대비 51.0%)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증가(81.7조원) 등에 기인한다.



2024년 예산의 국가채무 전망치 1,195.8조원 중에서 향후 국민들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6.3% 수준인 792.3조원이며, 나머지 33.7% 수준인 403.5조원은 채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 융자채권 등 자산을 보유한 금융성 채무이다.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총지출 관리 등을 통해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가 속도를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금융성 채무는 외평기금과 주택기금의 채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평기금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로서 현재 외화표시 외평채와 국고채로 조성된 자금에 의한 채무로 구분되며, 한국은행 예치금, 외화위탁자산 등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순수하게 국민부담으로 돌아가는 적자성 채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주택도시기금 채무는 서민주거 안정용 국민주택채를 발행하고, 대출금 형태의 대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금융성채무로 구분된다. 정부는 금융성채무에 대해서도 재정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대응자산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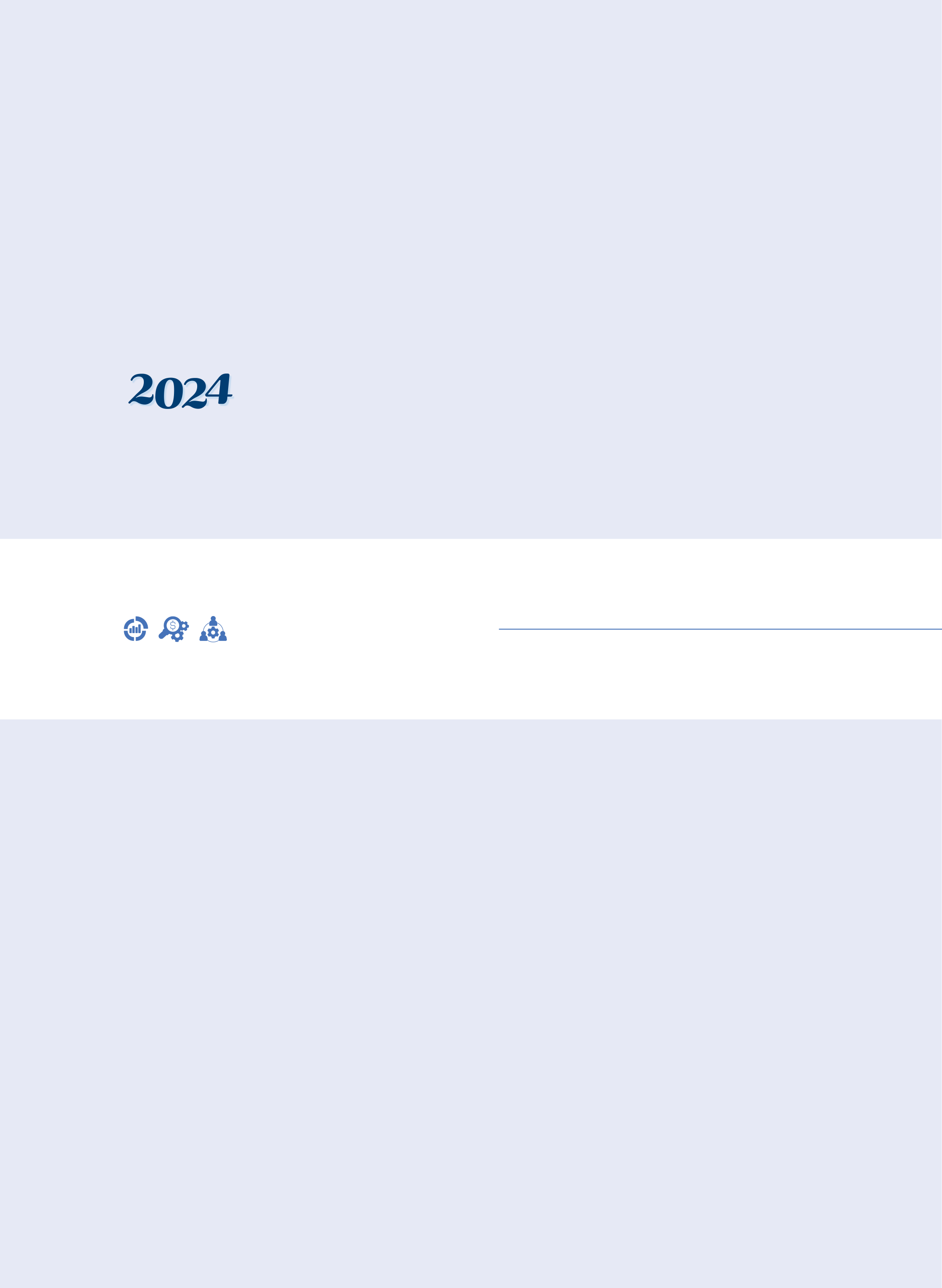
[표 4-2] 국가채무\*   
 (단위: 조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2년 결산 | 2023년 본예산 | 2024년 본예산 |
| ■ 국가채무 (GDP대비, %) | 1,067.4  (49.4) | 1,134.4  (50.4) | 1,195.8  (51.0) |
| ① 적자성 채무 | 676.0 | 721.3 | 792.3 |
| •일반회계 적자보전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 | 605.8  70.3 | 656.6  64.7 | 733.3  59.0 |
| ② 금융성 채무 | 391.3 | 413.0 | 403.5 |
| •외환시장 안정용 •서민주거 안정용 등 | 265.7  125.6 | 278.7  134.4 | 253.4  150.1 |

\* 2023년, 2024년 본예산 국회 확정 기준

2024년 예산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0%이며, 정부는 지출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지속을 통해 2027년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을 목표로 관리할 계획이다.

57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  |
| --- |
| 제 2 장 |

|  |
| --- |
| 재정운용 방향 |

|  |
| --- |
| 01. 재원배분 방향 |

02. 중점 추진과제

|  |
| --- |
| 03.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



60





|  |  |
| --- | --- |
| 01 | 재원배분 방향 |

최근 우리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가계부채 심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잠재성장률, 경제 역동성 저하, 저출산, 고령화 등 여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정건전성은 지키면서도 어려운 민생경제를 위한 투자는 적극 뒷받침하는 고차방정식의 해를 풀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작년에 이어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역동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투자에 집중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1)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에 중점을 두었다.

1-1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이행을 위해 생계급여액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 118만 가구의 월 수급액을 21만 3천원 인상한 183만 4천원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지난 5년간의 인상분인 19만 6천원을 한 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다.

또한, 장애인 지원예산은 2023년 5.8조원에서 2024년 6.4조원으로 9.4%(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3배 초과) 확대하였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하였다.

61



노인 일자리는 천만 노인인구의 ‘일하는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 14.7만명 증가한 100만개를 돌파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일자리 수당은 6년만에 7% 수준 인상하여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였다.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효율 에어컨,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정책자금 대환대출을 0.5조원 규모로 신설하는 한편, 고용보험료 지원도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1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 수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체감형 청년 지원 또한 강화한다.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대 53% 줄이는 K-패스를 도입하고, 노후한 산업단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편의·주거시설을 설치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취업준비 부담완화를 위해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하고, 청년농 농지지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 주택지원 등 청년농 육성을 확실하게 뒷받침 할 계획이다.

1-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신생아 출산 가구에 연 1천만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 저리융자를 신규 지원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 있어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또한,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육아휴직의 유급 지원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부모급여도 0세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태어난 직후 모든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준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가구 아동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은 태어난 때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가입대상은 5만명에서 18만 3천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62





나눠먹기식·보조금 성격의 R&D가 아닌, ‘바이오 난제해결 KARPA-H’, ‘우주 삼각체계 클러스터 프로젝트’ 등 대규모·도전적 과제를 추진하여 혁신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와 변혁적 기술개발을 위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도 수행한다.

민간투자 614조원 규모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한 저리융자, 용수·전력·도로·폐수 등 기반시설 구축, 기업과 대학이 협업한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을 평균 42일분에서 60일분으로 대폭 확대하여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경제안보를 강화하였다.

1-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첨단 서비스 분야의 A, B, C, D, 즉 AI, 바이오, 사이버보안, 디지털플랫폼정부 4개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3조 6천억원에서 4조 5천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서비스산업의 첨단화를 뒷받침한다.

글로벌 OTT의 공세 속에서 K-콘텐츠의 수출 촉진과 지식재산권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K-콘텐츠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정책금융을 8천억원에서 1조 7천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민간과 정부, 지자체가 함께 ‘지역활성화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자체 주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

63



농업직불 예산은 2020년 2조원 수준 달성 이후 단 4년만에 3조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 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인 소득안정과 취약한 농촌구조 전환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1-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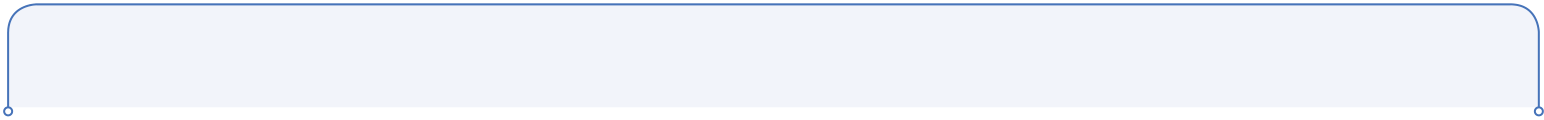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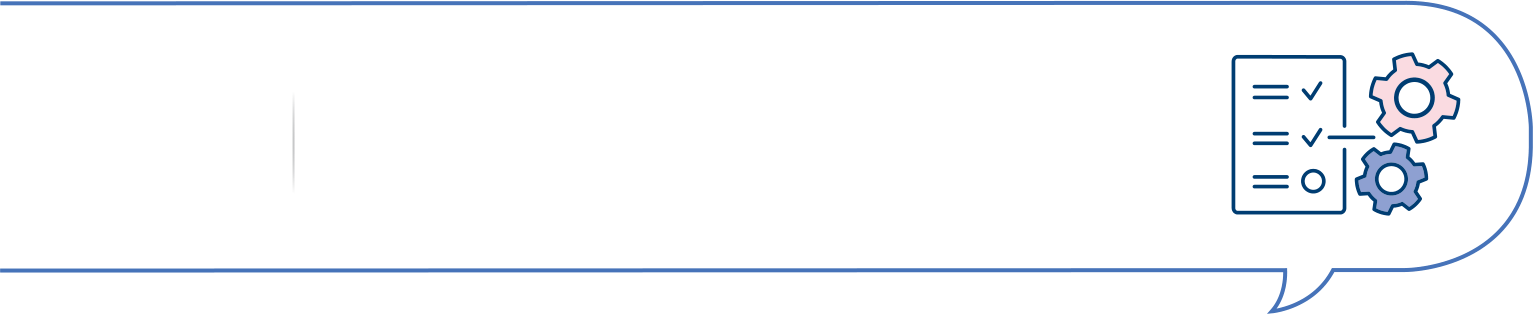
기후변화로 인한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국가 물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6조 4천억원을 투자한다. 국가하천 준설을 2023년 3개에서 2024년 19개로 대폭 확대하고, 국가하천으로의 승격과 관리도 10개소 신규로 지원한다.

‘묻지마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치료-복귀’ 등 전주기에 대한 투자를 2배 수준 대폭 확대하고, 고·중증 정신질환자에게는 전문 상담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노후시설을 전량 개선하여 녹물관사를 제로화하고, 주거시설 보급 확대 및 3년 미만의 초급간부에 대해서도 주택수당을 신규로 지원한다. 한편, 단기복무 장려금 33%, 당직비 100% 인상 및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확대 등을 통해 군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하였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은 ODA, 국익 중심의 전략적 ODA 투자를 강화한다. ODA 투자를 2023년 4.5조원에서 2024년 6.3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 공급망 등 국익 확보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64





|  |  |
| --- | --- |
| 02 | 중점 추진과제 |

1.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1-1**더 두터운 사회안전망**

1) 저소득층 (17.8 → 19.4조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예산 규모는 2023년 17.8조원에서 2024년 19.4조원으로 확대된다.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을 대폭 인상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우선 생계급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여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62.0만원에서 183.4만원으로 21.3만원 증가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 소득의 30%에서 32%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상향하여 3.9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다자녀·다인 가구, 도서벽지 거주 가구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기준을 완화하여 보호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3.5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65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3급지에서 4급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을 1.0~2.3억원에서 2.0~3.6억원로 상향하여 1.5만명에게 의료급여를 신규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하여 2.0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고, 최대급여액인 기준임대료를 전지역 1만원 이상, 최대 2.7만원 인상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4인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가 51.0만원에서 52.7만원으로 1.7만원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과 실질적 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여 초등학생은 연간 46만 1천원, 중학생은 연간 65만 4천원, 고등학생은 72만 7천원을 지원받는다.

<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원)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23년 | ’24년 | 증가율 | 비고 |
| |  | | --- | | ■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 |   (1인 가구) | | 5,400,964 (2,077,892) | 5,729,913 (2,228,445) | +6.09% (+7.25%) |  |
| 4인 가구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 32%) | 1,620,289 | 1,833,572 | +13.2% | 선정기준 = 월 최대급여액 |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2,160,386 | 2,291,965 | +6.09% |  |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 48%) | 2,538,453 | 2,750,358 | +8.35% | 기준임대료  4인(1급지): 51.0 → 52.7만원/월 |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2,700,482 | 2,864,956 | +6.09% | 고교생 교육  활동지원비:  65.4 → 72.7만원 |

66



2) 장애인 (5.8 → 6.4조원)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체계\*를 도입하여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 돌봄 서비스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1.0 → 1.1만명) 및 장애인 활동

지원(11.5 → 12.5만명)도 확대한다.

\* 1단계주간그룹형 1:1 1,500명, 2단계주간개별 1:1 500명, 3단계24시간개별 1:1 1 → 17개시도

아울러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고난도 활동지원에 따른 인센티브인 가산급여를 0.6만명

→ 0.1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시간도 확대(152 → 195시간)하여 활동지원사 인센티브를

|  |
| --- |
| 강화(월 45 → 59만원)한다. |

장애아동 치료·양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6세 미만 장애의심아동을 포함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의사 및 상담사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재활

서비스의 지원인원을 확대(7.9 → 8.6만명)하고 중증 장애아 돌봄 제공시간을 확대

(월 80 → 90시간)한다.

 소득·고용

취업성공패키지 확대(1.1 → 1.3만명) 및 고용장려금 인원 확대(61.1 → 63.3만명)하여

장애인의 민간취업을 촉진하고 조기취업수당 도입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욕구를

고취시킨다. 또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3.0 → 3.2만명 확대한다.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한도도 월 5 → 7만원 인상하여 장애인이 원활한 직주간 이동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3년 이후 최초로 +1만원 인상(2~8만원 → 3~9만원)하고,

기초급여도 32.3만원 → 33.5만원으로 +1.2만원 인상하여, 소득보장도 강화한다.

67

 생활·의료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455 → 588대)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문화·체육 접근권 확대를 위해 시청각장애용 TV 보급(2.0 → 3.2만대)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단가를 인상(9.5 → 11만원)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2 → 16개소로 확대하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도 22 → 30개소로 확대하여 장애인 의료

지원도 강화한다.

[표 2-1] 장애인 지원 주요 변동 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구 분 | ’23년 | ’24년 | 비고 |
| 발달장애인 지원 | 2,569 | 3,577 |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체계 구축  (2,340명) 주간활동(1.0 → 1.1만명) |
| 장애인활동지원 | 19,919 | 22,846 | 대상 11.5 → 12.4만명 가산급여 대상·단가  인상(0.6 → 1.0만명, 월 30 → 45만원) |
| 장애아동가족지원 | 1,757 | 1,940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7.9 → 8.6만명  장애아돌봄 시간 확대(연 960 → 1,080시간) |
| 장애인 고용장려금 | 2,977 | 3,234 | 지원대상 확대(61.1 → 63.3만명) |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 | 210 | 247 | 지원대상(1.1 → 1.3만명),  조기취업수당 신설 |
| 장애인 연금 | 8,326 | 8,787 | 기초급여 월 32.3 → 33.5만원  부가급여 월 2~7 → 3~8만원 |

3) 노인 (20.6 → 22.8조원)

 소득·고용

’24년 천만 노인시대에 맞춰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14.7만명)하여

최초로 100만개 이상 제공한다. 2023년 88.3만개 일자리를 2024년에는 14.7만개 늘려

68



103.0만개로 확대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수당을 6년만에 인상(공익형 월 27 → 29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59.4 → 63.4만원)한다. 상대적으로 근로능력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유입을 감안, 양질의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10.1만개 확충하여 노인일자리 질적 제고 및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원을 확대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2023년 665만명에서 2024년 701만명으로 늘어나며, 월 최대 32.3만원 지급되던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월 최대 33.5만원으로 인상한다.

 돌봄·의료서비스  
급속한 고령화 및 가족돌봄 약화로 인한 노인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지속 지원한다. 특히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중점군, 5.7만명)을 위한 돌봄시간 확대(월 16 → 20시간)한다. 의료에 있어서도 저소득층 노인 대상 무릎 수술비 지원을 확대(1.9   
→ 3.2천명)하고, 요실금 치료비 및 치료기기를 신규로 1만명,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표 2-2] 노인 지원 주요 변동 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구 분 | ’23년 | ’24년 | 비고 |
| |  | | --- | | ■ 노인 지원 |   기초연금 | 15,400 | 20,264 | 노인일자리 88.3 → 103.0만명(+14.7만명)  6년만에 수당 2~4만원 인상(+7% 수준)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 185,304 | 202,015 | 지원단가 인상  (月32.3 → 33.5만원)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5,020 | 5,461 | 신체제약 독거노인 돌봄 확대  (月16 → 20시간)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268 | 350 | 지원기간 2 → 3년 확대  (지원인원 8.2 → 11.4천명) |

69



4) 소상공인 (3.7 → 5.4조원)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비은행권 차주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1.5%p 감면하고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기기 등 보급을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전기료 20만원 감면을 지원한다.

4.0만명으로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2.5 →   
확대하고 지원율을 최대 50%에서 최대 80%로 상향한다.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5만개, 발행 규모를 +1조원 확대한다.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속을 위해 스마트상점·공방 보급을 0.7 → 0.8만개로 확대하고, e커머스 소상공인 8만명 육성 등 지원을 지속한다.

1-2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1) 다문화·한부모 가족 (0.58 → 0.66조원)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초기 정착지원에서 사회적 격차 축소 중심으로 전환하여 자녀 교육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기초학력 개선을 위해 기초학습지원 운영 가족센터를 138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에서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다문화 학생의 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대학생 멘토링 인원을 2배로 확대(4천명 →   
8천명)하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이주부모 모국어) 학습을 신규 지원(130개 가족센터, 3,600명)한다. 특히,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기준중위소득 50~100%)

70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가족센터에서 상담 등 사례관리 후 교육활동비(연 40~60만원)를 신규 지원하여 학습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이주부모의 근로기회 확대를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특화 직업훈련(200명, 폴리텍) 및 결혼이민자 취업지원(1,500명, 새일센터)을 신설한다.

 한부모 가족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 63%로 완화하고 지원연령을 만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시까지로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3.2만명)하며, 양육비 지원단가도 월 20 →   
21만원으로 인상한다.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24세 이하 저소득(중위기준소득 65% 이하) 청소년

|  |
| --- |
| 한부모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를 월 35 → 40만원으로 |

인상하여 지원한다.

2)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0.01 → 0.02조원)

 가족돌봄청년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에게 학업·취업, 건강관리 등에 사용가능한 자기돌봄비(연200만원)와 돌봄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관리 및 자조모임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돌봄·가사·심리지원·영양관리· 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2023년 신설)도 2024년에 지속 지원한다.

 고립은둔청년  
취업실패,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고립·은둔하는 청년에게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립은둔청년에게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생활 복귀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자녀의 이해·소통을 위한 교육, 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71

< 고립·은둔청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예시) >

|  |  |
| --- | --- |
| 프로그램명 | 내용 |
| 자기회복 |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 등 마음건강회복 프로그램 |
| 사회관계 | 영역별 프로그램 참여(신체/예술/놀이활동/3끼 식사 등),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참여(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 자조모임 등을 통한 관계형성 지원 |
| 일경험 | 자기계발 및 진로 탐색프로그램, 취업 지원, 청년 도전지원사업 연계 등 |
| 공동생활 (은둔청년 특화) | 시간 및 일상생활 관리 프로그램(수면·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
| 가족지원 |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제공, 가족심리상담 프로그램, 고립·은둔청년 가족 자조모임 지원 |
| 서포터즈 활동 지원 | 고립·은둔 경험 청년(탈 고립·은둔 청년)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기반으로 고립·은둔 청년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

|  |
| --- |
| 3) 의료 사각지대 (0.16 → 0.21조원) |

 의료 인프라  
필수분야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소아청소년 분야의 경우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에 대해 국고 지원에 착수하고, 소아환자에게 24시간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를 신설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12 → 14개소)와 소아암 전문거점병원(신규 5개소)을 확충하고, 소아청소년 분야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수당(월 100만원, 총 44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응급환자 발생부터 치료까지 지역 내에서 신속한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전 과정 연계를 강화한다. 응급환자 신속대응을 위해 권역내 응급상황을 총괄하는 광역응급의료센터를 신설하고, 이동형 응급실(닥터카, 신규 1개) 및 닥터헬기(8 → 9개소)를 확충한다.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 수술이 가능토록 전문의 순환당직제를 도입(51억원)한다.

72





 재난적 의료비  
복합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을 기존 질환별 합산 방식에서 개인의 전체 진료비 합산 방식으로 개편한다.

 간병 지원

중증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전문요양병원 건립(80억원)과 뇌전증환자 수술을 위한 장비를 지원(14억원)한다. 또한, 간병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85억원)도 추진한다.

1-3 **청년의 미래와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확충**

1) 청년의 미래 지원(12.0 → 14.5조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자립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교육·생활비·주거 등 청년의 삶 곳곳의 애로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일자리  
최근 고용시장의 전반적인 호조에도 청년 고용 개선세는 미약하다. 특히 특별한 이유 없이 고용·교육·구직 등에 참여하지 않고 ‘쉬었음’으로 응답한 청년이 증가(’22년 39 → ’23년 40.1만명)하는 등 구직단념청년이 확대 추세에 있다. 또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면서 조선업 등 특정 업종 기업들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시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각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인 「청년 희망·UP 패키지」를 마련하고 지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였다(0.9 → 1.5조원, +0.6조원).

먼저 NEET 청년에 대해서는 발굴 → 취업지원 → 일경험 → 온보딩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NEET 청년 발굴·심리상담·교육·온보딩까지 종합지원하는 플랫폼을 10개소 신설하고, NEET 청년에 대한 구직을 지원하는

73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NEET 청년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도 6천명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일반 구직청년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을 통해 취업지원의 부담을 경감하며, 첨단분야·해외취업 등 유망분야 취업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직업계고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물량을 3 → 17만명으로 대폭 늘린다. 일경험 지원을 2.6 →   
4.2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타 지역에서 인턴에 참여하는 청년에 대해 월 20만원 수준의 체류지원비를 지급한다.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56만명에게 비용 지원을 위해 응시료를 50% 경감한다. 첨단분야 하이테크 교육훈련을 3.6 → 4.4만명으로 확대하고, 300명 규모의 한미 첨단분야 교류를 신설하는 등 미래유망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 2.5만명에 대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빈일자리 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취업을 촉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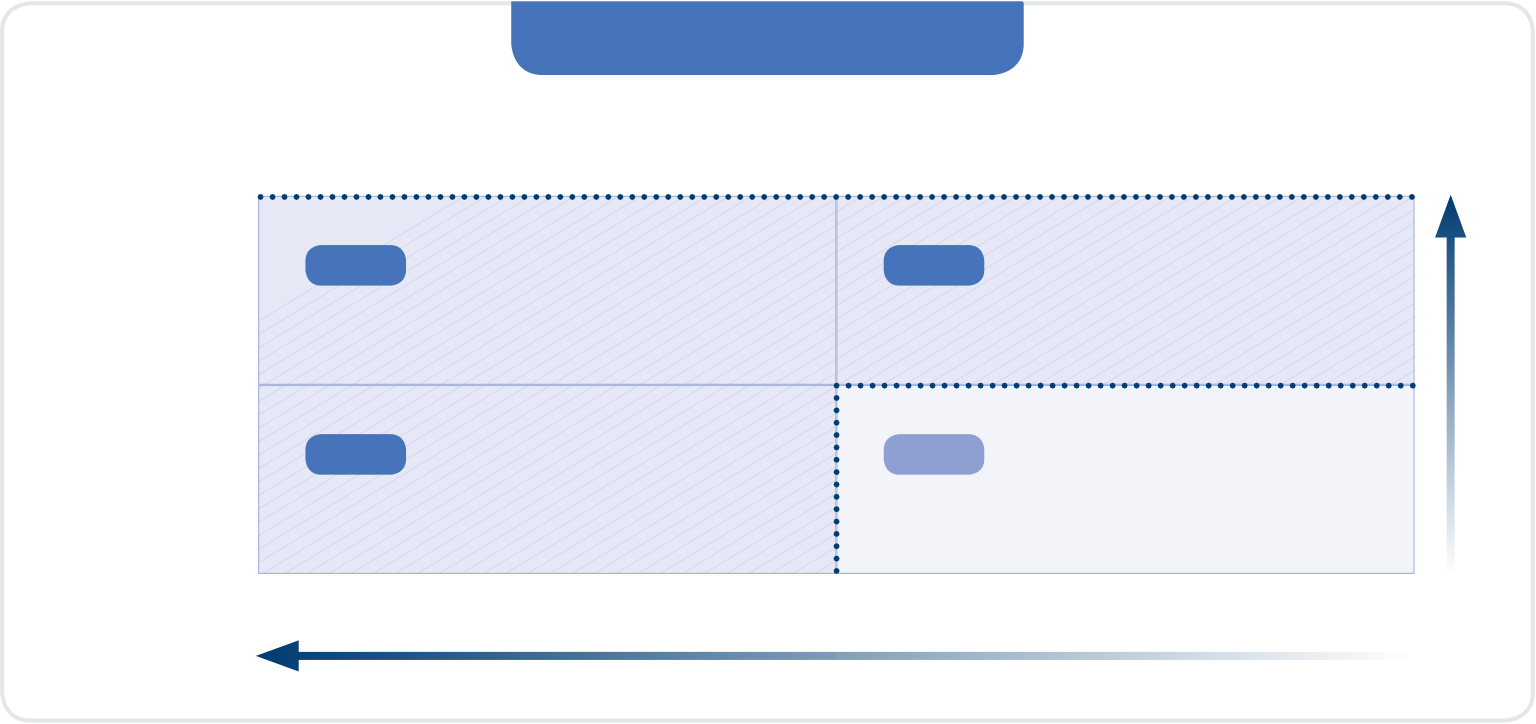
 교육·생활

청년에 부담이 되는 교육·생활비용을 현장 맞춤형으로 지원한다(4.9 → 5.2조원, +0.3조원).

먼저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 기초·차상위는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도 지원금액을 30~50만원 인상한다.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도 9구간까지 확대하고 이자면제기간도 확대한다. 대상을 8 →   
또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비 대출한도를 350 → 400만원으로 인상하고,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234 → 4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185만명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20~53% 할인해주는 K-패스를 신규 도입한다.

 주거·환경  
청년층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5.0 → 7.1조원).

74





먼저 주거비용 지원을 위해 당초 ’23년 종료 예정이던 월 20만원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 연장 지원한다. 또한 청년 대상 공공분양(5.3 → 6.7만호) 및 공공 임대(5.2 → 5.7만호) 등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낙후되어 청년층이 기피하는 산업단지를 청년이 선호하는 환경으로 전환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숙사형 오피스텔,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산단환경개선펀드를 0.1 → 0.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청년복합문화센터(100개)·아름다운거리(60개)를 조성한다. 노후공장 150개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  |
| --- |
| 2) 취약계층 자립기반(0.8 → 1.0조원) |

 저소득아동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 목돈 마련을 위해 ‘다담씨앗통장’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 중이며, 2024년부터 지원대상 및 지원연령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로 확대하고, 지원연령은 만12~17세에서 만0~17세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원인원은 2023년 5.0만명에서 2024년 18.3만명으로 크게 증가한다.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확대

’23년 5.0만명 ’24년 18.3만명(+13.3만명)

|  |  |  |  |  |  |
| --- | --- | --- | --- | --- | --- |
| 주거·교육 | 0세 | ’24년 ‌0~11세, 주거·교육급여 | 12세 | ’24년 ‌주거·교육급여 | 17세 |
| (중위50%) | 수급권자 포함 +5.1만명 | 수급권자 포함 +5.6만명 |
| 생계·의료 | ’24년 ‌0~11세 확대 | ’23년 ‌12~17세, 생계·의료급여 |
| (중위40%) | +2.6만명 | 수급권자 5.0만명 |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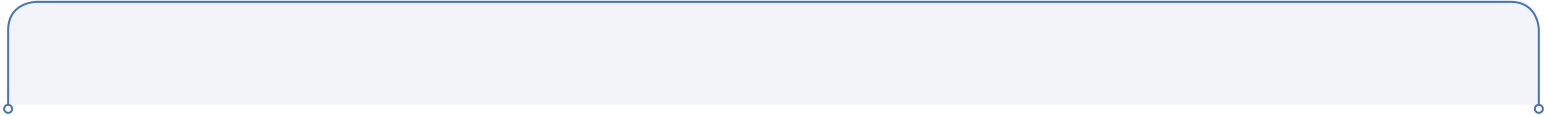
 근로유인 제고를 통한 탈수급 지원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자활근로 인원을 6.6만명에서 6.9만명으로 확대하고, 자활근로 지원단가를 2.5% 인상한다. 생계급여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시 근로·사업소득의 일정 비율(기본 30%)을 공제하고 있으며, 청년에 대해서는 추가공제(4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2024년에는 청년 추가공제 혜택을 만24세 이하에서 만29세 이하 수급자로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의 맞춤형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2023년 180명에서 2024년 230명으로 50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일대일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립수당도 월40만원에서 2024년 월50만원으로 인상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출발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한다.

76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2-1 **창의 · 혁신 기반 산업 · 기술 경쟁력 확보**

1) 국가전략기술 R&D 투자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2023년) 4.7조원 → (2024년) 5.0조원으로 +0.3조원(7.3%) 확대한다. 이를 위해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앞으로 신성장동력이 될 혁신기술을 내재화하는데 집중 투자한다. AI 분야의 경우 산업·과학·공공 분야에 대한 융합 R&D를 지원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민간 수요 기반 AI 인력양성과 AI 전문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첨단바이오 분야의 경우 원천기술 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도 지원한다. 양자 분야의 경우 양자컴퓨팅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자팹 공정기술 고도화기반을 구축하는 등 기초체력 확보를 위한 기반투자에 집중 지원한다.

또한,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대규모 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바이오 분야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한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KARPA-H 프로젝트(2024년 495억원)를 추진한다. 또한 민간 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및 특화지구별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2024년 100억원)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 첨단패키징, 차세대 이차전지 등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을 위한 초격차 프로젝트(2024년 800억원)도 본격 추진한다.

한편, 국내 연구진·자금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체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R&D 지원을 확대((2023년) 0.5조원 → (2024년) 1.8조원)하고,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연구자(만 39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내)의 초기 탐색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연구발전을 지원한다((2023년) 0.4조원 →

(2024년) 0.5조원).

77

2)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센티브로서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제도화한다. 2023년에 용인·평택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용수 공급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함에 이어, 2024년에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154억원(용수공급시설), 구미반도체 특화단지에 200억원(진입도로),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37.5억원(전력공급시설)을 지원한다.

또한 특화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실증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저리 융자를 신설(2024년 900억원)하고,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한다.

첨단산업 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을 (2023년) 8개교 → (2024년) 21개교로 확대하고, 배터리 아카데미를 신설(2024년 57억원)하는 등 첨단인재 양성 예산을 (2023년) 1.6조원 → (2024년) 1.9조원으로 확대한다.

78





2-2 **에너지 시스템 효율화**

1) 에너지 약자보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가구 기후민감계층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2023년) 34.7만원 → (2024년) 36.7만원으로 인상하여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 주거공간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냉난방시설 교체·단열시공 등 지원도

(2023년) 4.5만가구 → (2024년) 5.4만가구로 확대한다.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2024∼2028년간 총 75개소 마을에 대해 연료비 절감을 지원한다.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구 분 | ’23년 | ’24년 | 비고 |
| 에너지바우처 | 1,909 | 6,856 | 대상(85.7 → 115.0만가구),  단가(19.5 → 36.7만원) |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 910 | 1,083 | 고효율냉난방기기 보급  (4.5 → 5.4만 가구) |
|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 | - | 314 | 19개소 대상 지원  (’24~28년간 총 75개소) |

2) 에너지 사용 효율화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 효율진단 지원을 (2023년) 800개사 → (2024년) 1,000개사로

늘리고, 고효율설비 설치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도 (2023년) 2,803억원 → (2024년)

4,136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효율 1등급 냉난방기기 설치,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고효율 히트펌프 설치 등에 1,100억원을 지원하여 전기료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일반가구의 경우 탄소포인트 지원예산을 (2023년) 120억원 → (2024년) 143억원으로

확대하여 자발적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79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구 분 | ’23년 | ’24년 | 비고 |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 2,633 | 2,946 | 융자 공급(2,962 → 3,300억원) |
| 에너지효율향상시장 조성 | 136 | 1,190 | 中企,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보급 |
| 탄소포인트제 운영 | 120 | 143 | 지원대상(250 → 260만 가구) 등 |

3)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

핵심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공공 비축물량을 (2023년) 42일분 → (2024년) 60일분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출자·융자 비율을 (2023년) 30∼40% → (2024년) 최대 50%까지 상향한다

국내 에너지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중점투자 한다. 2천억원 규모의 원전산업 맞춤형 정책자금(융자 및 보증)을 신설하고, 중소 원전 기자재 업체가 발주사와 공급계약 체결시 조속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58억원 규모의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2023년) 20개사 → (2024년) 40개사로 확대하고, 원전기업 재직자·퇴직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는 등 수출·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경우 그간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여건이 성숙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은 정상화하되, 수소, CCUS 등 분야의 인프라 투자는 확대한다.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경북, 강원 2개소)사업을 신규로 착수하고, 화력발전소, 화학산단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지역 인근에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관련 실증센터 구축(3개소)도 지원한다.

80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구 분 | ’23년 | ’24년 | 비고 |
| |  | | --- | | ■ 기존 에너지원 확보 |   광해광업공단 출자  유전개발사업 출자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 3,416  372  301  364 | 5,773  2,518  481  398 | 리튬 +24일분, 희토류 +1년분 등  정부 출자비율 상향(최대 40 → 50%)  융자지원 비율 상향(최대 30 → 50%) |
| |  | | --- | | ■ 원전 활성화 |   원전생태계 금융지원  원전수출 특별보증  원전생태계지원사업 | 6,040  -  -  89 | 7,827  1,000  250  112 | 저리융자 1,000억원 공급 (평균 10억원×100개社)  수출보증보험 1,250억원 공급  역량교육(230 → 420명),  해외전시회참가(20 → 40개社) |
| |  | | --- | | ■ 에너지신산업 육성 |   수소생산기지 구축  해외청정암모니아 생산 지원  CCUS실증센터구축 | 15,187  88  40  37 | 14,461  81  60  89 | 수전해시설 4개소,  탄소포집형 1개소 구축  그린수소·블루수소 프로젝트 지원 (각 30억원)  화학전환 실증(1개)  생물전환 실증(1개) |

81



2-3 **출산 · 양육 부담 경감 지원 (14.0 → 15.4조원)**

1) 출산가구 주거안정 (6.9 → 9.0조원)

저출산 문제의 핵심 해결방안으로 주거 안정을 꼽고, 결혼 페널티를 결혼 메리트로 바꾸기

위한 신생아 3종 특례를 신설한다.

먼저, 디딤돌·버팀목 신혼부부 융자의 소득요건을 두배(6·7천만원 → 1.3억원)로 확대

하는데 더해 대출한도(4 → 5억원) 확대, 주택가액(6 → 9억원) 인상, 금리는 시중보다

1~3%p 낮게 설정하여 출산가구는 연 1천만원 수준의 주거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더해, 연간 7만호 수준의 공공·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및 공공임대 우선배정을

통해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주거불안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가구가

없도록 획기적인 지원책을 신설한다.

2) 일 - 육아 병행 (1.8 → 2.2조원)

일하는 부모의 부담 완화 및 일·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2023년)1.8조원 → (2024년)2.2조원

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기간 및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한다((2023년)1.7조원 → (2024년)2.2조원).

우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을 각각 6개월 연장

(1년 → 1년 6개월)한다. 영아기 맞돌봄 확산을 위해 특례의 지원기간(최대 3 → 6개월) 및

급여상한(월 300 → 450만원)도 확대한다.

82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여건을 개선

한다((2023년)937억원 → (2024년)1,490억원). 사용가능 자녀연령(만 8세 → 12세 이하),

급여(주 5 → 10시간 100% 급여 지원), 사용기간(최대 24 → 36개월)을 확대한다. 또한

신생아기 아빠의 돌봄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도 5 → 10일로

확대 지원한다.

유연근무제 확산, 업무공백 해소 등 일·육아 병행제도의 실질적 현장활용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장려금(최대 월

20만원)을 신설하여 시차출퇴근 확산을 지원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동료가 분담하는 경우, 월 20만원의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규 지원한다.

3) 양육비 부담 경감 (1.9 → 2.7조원)

경제적 부담이 큰 영아기(만 0∼1세)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휴직·퇴사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고자 부모급여 지급액을 0세는 35 → 50만원, 1세는 70 →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자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을

둘째 자녀부터는 300만원으로 확대한다(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

|  |
| --- |
| 4) 보육인프라 확충 (3.4 → 3.7조원) |

양질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0∼2세 부모보육료,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를 각 5%씩 인상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정원미달

0∼2세반(현원 50% 이상)에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운영이 필요한 급식인원 50인 이상(교직원 포함)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급식위생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급식위생 관리지원금(개소당 월

30만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83



맞벌이 부부 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2023년 1,030개소에서 2024년 2,315개소로 확대(독립반 +20개소, 통합반 +1,265개소)하여 틈새돌봄을 확대한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가구를 확대(8.5 → 11.0만 가구)하고, 다자녀 가구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자부담 비용)을 10% 할인하여 부담을 완화환다.

5) 난임가구 출산지원 (0.01 → 0.03조원)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가구에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와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 생식술 비용을 신규 지원한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가정방문을 통해 신생아의 발달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모자 건강을 상담해 주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도 75개소로 늘린다. 난임·출산 우울증 심리 정서 지원센터는 8개소에서 10개소로 2개소 확대한다.

2-4 **첨단인재 양성과 합리적 노동시장**

1) 첨단인재 양성(1.6 → 1.9조원)

 반도체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10개교 신규 지정하여 총 18개를 지원하고(540 → 1,085억원),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단기 실무중심 집중교육과 취업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신규 지정 17개교를 포함하여 반도체 분야에 총 27개교를 지원한다 (150 → 405억원). 반도체분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을 확대하고(75 → 150억원), 석박사 대학원생의 학업·연구를 지원하는 두뇌한국 21 사업은 신규 지원 3개교를 포함하여 반도체 분야에 총 13개교를 지원한다(816 → 840억원).

84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을 3개교 신규 지정하여, 교원 및 교육용 장비 확충 등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첨단분야 대학원 3개교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중소·중견기업 특화인재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96 → 183억원). 전공과 상관 없이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대학·산업계가 협력하여 첨단분야 교육을 제공하는 혁신융합대학은 첨단신소재 등 신규 5개 분야를 포함한 18개 분야를 지원한다. 이차전지(4개)·차세대디스플레이(4개)·바이오헬스(4개)·항공우주(3개) 등 반도체 외 4개 첨단 분야에 대해 인재양성 부트캠프 15개교를 지원한다(300억원 신설).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반도체  기타 첨단분야 | 4,071  11,891 | 5,150  13,578 | 26.5  14.2 |

2) 노동시장 합리화(0.3 → 0.5조원)

 이중구조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첫째,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3개 업종 및 1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계개편컨설팅을 신규로 지원한다. 둘째, 대기업·원청이 하청기업 근로자의 복지·훈련을 지원하는 상생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조선업종 재직자 자산형성을 위해 원청·지자체·정부가 각각 200만원을 지원하는 조선업종 재직자 희망공제를 신설한다. 하청근로자 복지에 사용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한도를 확대(10 → 20억원)하고, 민간기업의 상생연대기금 조성에 50억을 신규로 지원한다. 대기업교육과정을 하청근로자 교육훈련에 활용하는 대중소 아카데미 100개 과정을 신설한다.

85

셋째, 중소·하청기업의 산업안전 격차 완화를 위해 고위험기계·공정 교체 지원업종 (뿌리공정+고위험 6종) 및 대상기업을 대폭 확대(4천개소)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에 가입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퇴직연금기여금의 10%)을 신설하여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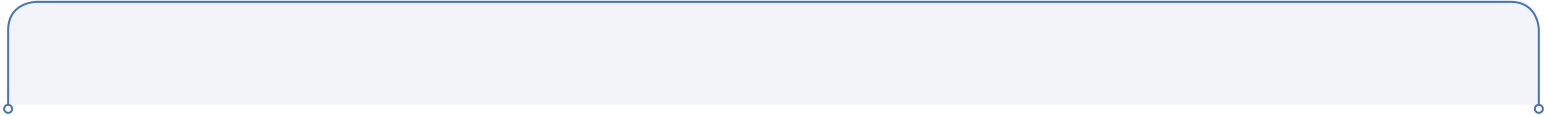
 근로시간 유연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2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중소·중견기업 167개사에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장시간근로시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7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800개 기업에 출퇴근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비용을 신규로 지원한다.

3) 해외인력 유치 (0.1 → 0.16조원)

숙련 외국인력 비자쿼터 확대를 감안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2023년)49.5 → (2024년)62.2만명으로 확대하고, 외국인력의 국내 조기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특화 직무훈련 및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을 신규 지원한다. 또한 정부초청장학생을 (2023년)4,906명 → (2024년)6,700명으로 확대하는 등 해외인재 유치를 강화한다.

86





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3-1 **경제 재도약을 위한 투자 활성화**

1) 첨단 서비스 산업(A,B,C,D) 고도화

민간의 자율과 창의 등을 활용하여 첨단 분야의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디지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민간 중심의 AI 기술·서비스 개발에 대한 지원을 통해 AI와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고, 5대분야(법률·의료·심리상담·문화예술·학술연구)와 AI 접목 서비스 신규 개발(383억원) 등을 통해 초거대 AI 생태계를 조성한다. 바이오 난제 해결·의료기술 확보 등을 위해 美 DARPA형 (PM 중심 자율적 의사결정) 방식을 벤치마킹한 「KARPA-H 프로젝트」 (495억원)를 신규 추진하고 첨단바이오 분야 신진기술 흡수 및 핵심 인재(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854억원)를 ‘팀-코리아’로 추진한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 보안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주도 ‘사이버보안 펀드’를 신규 조성(200억원)하고,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  |
| --- |
|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2023년) 68억 → (2024년) 88억). |

홈택스, 복지로, 고용24 등 5대 행정서비스 통합 로그인(신규, 165억원), 공장입지 인·허가 분석·추천 플랫폼 구축(신규, 63억원) 등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창의적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민 체감 신규서비스를 제공하여 Digital 플랫폼정부를 구현한다.

87

2) 투자 촉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대안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 해외 우수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비율을 확대한다. 투자 보조금 총 지원 규모도 외국인투자는 (2023년) 500억원 → (2024년) 2,000억원으로 4배 확대, 유턴투자는 (2023년) 570억원 → (2024년) 1,0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국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당 지원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조금 규모도 (2023년) 2,031억원 → (2024년) 2,127억원으로 증액한다.

3) 문화산업 투자 확대

 콘텐츠 산업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천4백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여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 대한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IP) 전부 양도 등 종속 현상 타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의 공동 출자를 통해 투자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를 총 6천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한다. 또한, 영상전문 투자조합 출자((2023년)80억원 →   
(2024년)250억원) 등 K-콘텐츠 펀드 출자 역시 (2023년)1,980억원 → (2024년)2,950억원으로 확대한다.

88



또한, 기업의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10개소를 새롭게 조성((2023년)102억원 → (2024년)173억원)하여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연계를 지원하는 등 해외시장개척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콘텐츠 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일본 도쿄에는 현지 법인설립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현지 임차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기업지원센터(47억원 신규)가 들어선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지스타’ 개최, ‘롤드컵’ 우승 등으로 높은 관심을 모은 게임업계를 지원하고자 해외 진출 확대((2023년)83억원 → (2024년)133억원) 등 게임산업 육성 예산도 (2023년)661억원 → (2024년)679억원으로 확대한다.

 스포츠 산업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 등 대형 국제 스포츠대회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국내 유망 스포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2024년)30억원 신규)하고, 스포츠산업 펀드 출자((2023년)100억원 → (2024년)300억원)를 대폭 확대한다. 스포츠산업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규모의 융자((2023년)800억원 → (2024년)1,637억원)도 제공한다.

 관광 산업  
문화·관광으로 여는 지방시대를 위해 국립예술단체의 대형 지역공연(80억원 신규)과 함께 지역문화시설과 직장에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고(62억원 신규), 문화취약지역과 인구소멸지역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80억원 신규)한다. 또한 관광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융자((2023년)4,465억원 → (2024년) 5,365억원)와 이차보전 지원((2023년)26억원   
→ (2024년)52억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에서의 민간 소비와 투자도 함께 촉진할 계획이다.

89



3-2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 뒷받침**

1) 수출 드라이브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범부처 수출 지원사업을 (2023년)1.5조원 → (2024년)

1.9조원으로 확대한다.

우선, 조선업 RG 특례보증 2,000억원, 원전 수출보증 1,000억원 등 대규모 수주

프로젝트를 위한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요구가

큰 수출바우처((2023년) 3,473개사 → (2024년) 3,984개사), 해외전시회((2023년)

5,478개사 → (2024년) 5,646개사)를 확대하여 수출현장 애로 해소를 뒷받침한다.

한편,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유망분야별 지원책도 강화한다.

원전·방산·플랜트 거점무역관을 (2023년) 37개소 → (2024년) 58개소로 확대하고,

농수산식품 수출바우처를 (2023년) 498개사 → (2024년) 1,059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구 분 | ’23년 | ’24년 | 비고 |
| |  | | --- | | ■ 수주 프로젝트 지원 |   무역보험기금 출연  해외인프라시장개척 | 2,669  500  299 | 4,580  450  476 | 조선 RG 400억원 출연(2,000억원 공급)글로벌 PIS 펀드(~’27년 1.1조원) |
| |  | | --- | | ■ 해외시장 개척 |   콘텐츠 수출기반조성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 3,882  544  875 | 4,241  742  946 | 거점센터 15 → 25개, 한류박람회 1 → 2회  농식품 수출바우처 43 → 325개사 |
| |  | | --- | | ■ 마케팅 지원 |   수출바우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8,504  1,441  3,029 | 9,760  1,679  3,213 | 일반·중견기업 491 → 694개사,  중소기업 2,982 → 3,290개사  수출시장 다변화, 분야별 상담회 지원 |

90



2) 스타트업 코리아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국내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270개사 → 290개사 내외)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한다(20개사, 40억원). 또한,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팁스기업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870 → 1,000개사 내외). 스타트업코리아 펀드를 조성(’24~’27, 2조원)하여 벤처투자 유인을 강화한다.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K-스카우터 제도를 신설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도 신규 조성한다. 인도·베트남 등 SW 인력과 우리나라 기업간 매칭 추진하는 사업도 신설(400명 매칭 추진)하였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내외 청년창업가가 자유롭게 창업하고, 머물 수 있도록 수도권에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 클러스터와의 협업, 국내외 창업 인프라와 연결 등을 통해 글로벌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구 분 | ’23년 | ’24년 | 비고 |
| |  | | --- | | ■ 글로벌 진출 |   스타트업코리아펀드 | 171 - | 1,696  1,500 | 4년간 2조원 규모 자펀드 조성 |
| |  | | --- | | ■ 국내안착 지원 |   글로벌기업협업지원 TIPS기업 사업화지원 재도약지원 융자 | 2,350  405  1,100  750 | 2,855  430  1,303  1,000 | 벤처·스타트업 270 → 290개사 내외  TIPS 관련지원 870 → 1,000개사 내외  융자 1,360 → 1,680개사 내외 |
| |  | | --- | | ■ 지역벤처·창업 지원 |   유니콘기업 육성(기보)  지역엔젤투자허브 | 343 - 12 | 614  200  14 | 2,500억원 공급(보증배수 12.5배)  허브 신규 개소(3 → 4개소) |

91



3-3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 지역투자 활성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기존의 정부 주도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가 총 3,000억(재정 1,000억 + 지방소멸기금 1,000억 + 산업은행 1,000억) 수준의 모펀드를 조성하면, 지자체와 민간 금융사가 자펀드를 결성하여 대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추진한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위험을 분담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유입시켜 복합 관광단지, 노후산단 재구조화,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인구 확충사업 추진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정주인구(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확보 방식의 대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지역에 체류하는 인구) 확보 방식의 대책을 신규 추진한다. 지역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생활인구를 확충하기 위해 9개 시·도를 대상으로 총 135억원 규모의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지자체가 빈집이나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생활인구 확충을 기획하여 관련 부처와 협약 체결시, 3년간 1개소당 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는 워케이션센터(공유 오피스 + 숙소)나 세컨드하우스, 양봉 등 취미형 창업연계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지역자율투자 강화

지역의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스스로 편성 가능한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의 포괄보조사업 유형을(2023년) 24개 → (2024년) 37개로 13개 이상 확충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시도별 한도 내에서, 상권활성화사업(중기부)와 벽지노선지원(국토부) 등

92



37개 사업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 한편, 포괄보조사업 규모도 (2023년) 2조 4,412억원 → (2024년) 3조 2,213억원으로 7,800억원 이상 확충하여 지역 중심 투자를 강화한다.

지역 스스로 디지털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디지털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연간 71억원 규모의 지자체 자율형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도 신규 지원한다. 지역은 이를 통해 AI를 활용한 도로결빙 교통사고 예측이나 데이터 기반의 농기계 안전관리 등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지역주도·상향식·성과중심 대학 혁신

지역과 지방대학이 상생 발전하고, 지방대학을 통해 지역산업 특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지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한다. 기존 대학지원사업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E)’으로 통합·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직접 투자 분야와 지원대학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대학지원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또한, 2026년까지 역량이 우수한 비수도권 지방대 총 30개교를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하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당 5년간 약 1,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2023년 10개교 선정에 이어 2024년에도 10개교를 신규 선정한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학역량평가를 대학 협의체 주도로 전환하고 사립대학의 체계적 구조개선을 위한 경영자문 컨설팅 지원을 확대(4 → 30개교)하는 등 상향식 대학혁신을 유도하여 대학의 자율혁신을 촉진한다. 대학혁신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대학 일반재정지원은 15.1% 대폭 확대하고(2.1 → 2.4조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배분 비율을 인상한다(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30 → 50%, 국립대학 육성·지방대학 활성화: 40 → 60%).

93

[표 2-3] 지역투자 활성화 관련 주요사업 현황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구 분 | ’23년 | ’24년 | 비고 |
| |  | | --- | | ■ 지역투자 |   민간연계 투자  생활인구 확충  지역자율 투자 | 24,550  -  -  24,550 | 33,565  1,000  135  32,430 | 모펀드 3,000억원 조성 (국가, 지방(지방소멸기금), 산업은행 각 1천억원)  9개 시·도에 3년간 총 50억원씩 지원  노후상수도정비, 성장촉진지역개발 등 |
| |  | | --- | | ■ 대학혁신 |   대학(전문대) 혁신지원 국립대 육성사업  지방(전문대) 활성화 | 20,658 13,590 4,568  2,500 | 23,784 14,949 5,710  3,125 | 성과배분 지급비율 확대 (30 → 36%)  성과배분 지급비율 확대 (40 → 60%)  성과배분 지급비율 확대 (40 → 60%) |

2) 사람이 모이는 농산어촌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하여 공장·축사 등 농촌의 정주여건을 저해하는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농촌공간정비 프로젝트를 (2023년) 85개소 → (2024년) 115개소로 확대 시행한다.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에 방문하여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왕진버스 지원 대상도 (2023년) 4만명 → (2024년) 12만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가 소득·생활안전망 확충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 53만호에 지급되는 직불금을 (2023년) 120만원 → (2024년) 130만명으로 인상하는 한편, 수입보장보험을 (2023년) 7품목 → (2024년) 10품목으로 확대한다. 51~70세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2023년) 9천명 → (2024년) 3만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소유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농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ha당 월 50만원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새로 도입하고, 농지연금과 연계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추가 지급하여 고령은퇴농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94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24년 상반기에 한해 지원하는 한편,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하고, 축산농가 대상 사료구매자금 저리 융자를 1조원 규모로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농어업인 육성  
농어촌 지역에 청년이 유입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창업 초기 청년농업인의 소득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년간 최대 월 110만원을 지원하는 영농 정착지원금 대상을 (2023년) 4천명 → (2024년) 5천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농어업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단지 8개소를 새로 조성한다.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은행이 보유한 비축농지를 저렴하게 공공임대하는 물량을 (2023년) 1,875ha → (2024년) 2,500ha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청년농이 선호하는 농지를 충분히 매입할 수 있도록 농지 매입단가를 (2023년) 408백만원 → (2024년) 428백만원으로 인상한다. 초기 자금여력이 부족한 청년농을 위해 농지은행이 부지를 먼저 매입해 청년농에 저렴하게 임대하고, 최장 30년 후 매도하는 선임대·후매도 지원을 (2023년) 20ha → (2024년) 40ha로 2배 확대한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 투입량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육성하는 등 생산-가공-유통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농업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 12개소를 구축해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한다. 축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 축산단지 2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유통센터 20개소를 스마트화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정착시키는 등 유통과정 혁신도 지속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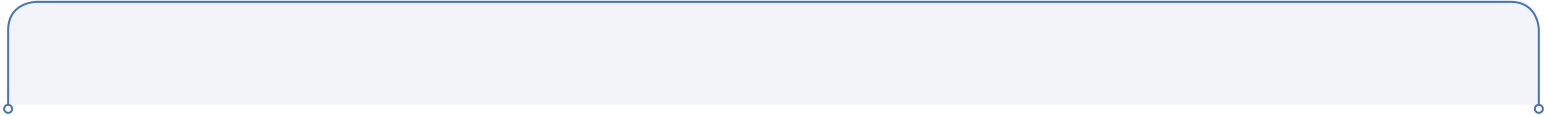
95

ICT·B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푸드테크 기업들의 제품개발과 실증 등을 지원하기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3개소를 새로 구축한다. 그린바이오 소재를 고속·대량으로 분석하기 위한 첨단분석 시스템 2개소를 신규 구축하고, 그린바이오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스마트 온실 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표 2-4] 살기좋은 농산어촌 조성 관련 주요사업 현황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구 분 | ’23년 | ’24년 | 비고 |
| 공익기능증진직불 | 27,269 | 28,702 | 소농직불금 10만원 인상(+530억원)전략작물직불 확대 등 |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 551 | 957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 신설(+4.7만명) |
| 맞춤형농지지원 | 8,577 | 12,413 | 비축농지 공공임대 물량 확대  (1,875 → 2,500ha) 등 |
| 경영이양직불 | 215 | 305 | 농지이양은퇴직불 신규 도입 등 |

96





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4-1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

2024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59.4조원으로 2023년 57.0조원 대비 4.2% 증가한 규모이다. 전력운영비 규모는 41.8조원으로 2023년 대비 4.2% 증가하였으며, 병 봉급 인상, 병 의식주 개선, 초급간부 처우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방위력개선비 규모는 17.7조원으로 2023년 16.9조원 대비 4.4% 증가하였으며,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및 우주·사이버 등 미래전장 대비 첨단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1) 장병 사기진작

 병 봉급 인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병 월급을 2025년까지 20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연차적으로 인상한다. 2024년에는 병 봉급(병장기준) 월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인상하고(28,524 → 32,655억원), 병사 적금납입 원금만큼 사회진출 지원금을 최대 월 30만원에서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6,584 → 10,191억원).

 병 복무여건 개선  
급식 질 개선을 위해 지역상생장병특식을 매월 1회씩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과 국군의 날에 1회씩 시행하도록 확대한다(연 9 → 14회). 그리고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9인실이 아닌 2~4인실 생활관을 신축한다(65동, 3,119억원). 또한 육군 간부들에게만 지급하던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보급하고(214,906벌, 71억원), 혹서기 장병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얼음정수기를 보급한다(14,772대, 66억원).

97

 초급간부 처우개선

최근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 등을 방지하고 우수간부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수당을 인상한다(장교 9 → 12백만원, 부사관 7.5 → 10백만원). 또한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평형(32평) 군 관사 502세대 및 1인 1실 간부숙소 3,241실을 신규

보급하고, 2023년 1995년 이후 27년간 동결되었던 주택수당을 2배 인상(8 → 16만원)에

이어 2024년에는 3년미만 초급간부에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5년간 동결된 당직근무비도

100%(평·휴일 1만원 → 2만원) 인상하고 GP·GOP, 함정근무 등 24시간 상기교대

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도 확대(57 → 100시간)한다.

2) 첨단 기반 전력 증강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해 킬체인(F-X 2차, 한국형구축함

등), 다층 미사일 방어(장거리함대공유도탄,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Ⅱ 등), 압도적 대량

응징(230㎜급다련장,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등) 등 무기체계 전력화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6.1조원 → 6.8조원).

 비대칭전력 보강

병역자원 감소 및 전장환경 변화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무인기 등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레이저대공무기, 다목적무인차량 등),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

전투수행능력(초소형위성체계,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등 전투능력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1.0조원 → 1.3조원).

98



3) 일류보훈체계 구축

|  |
| --- |
| 국가유공자 보상금 2년 연속 5.0% 인상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인상하고, 보훈대상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을 2%, 6·25전몰군경 자녀 중 신규승계 자녀수당을 12.5% 추가 인상한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월 39 → 42만원), 무공영예수당(월 45~47 → 48~50만원), 4·19혁명공로수당(월 40.1 → 43.1만원)을 각각 3만원 인상하고, 생계가 곤란한 보훈 대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2022년 이후 동결된 생활조정수당을 10% 인상한다.

 보훈문화 확산 및 보훈대상 지원 강화  
국가관리기념관을 고령의 보훈가족과 청각·시각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디지털 전시관으로 조성하고자 70억원을 신규 반영한다. 월남전 유공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제복을 증정하고, 전사·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의 자녀를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사업을 신설하는 등 일상 속의 보훈문화를 확산한다.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10% 인상하여 지원한다. 또한 보훈대상자의 편안한 여가를 위해 남부지역에 보훈 휴양원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보훈의료서비스 제고   
보훈가족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보훈병원 의료시설 개선에 총사업비 294억원, 광주보훈병원 의료시설 개선에 총사업비 184억원을 투입한다. 고령 국가유공자가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위탁병원 100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840개소까지 확대한다. 또한, 보훈가족의 간호·간병 부담 경감을 위해 보훈병원 간호·간병 통합 병상을 전체 병상의 40%인 901개까지 확대한다.

99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대 및 접근성 강화  
보훈대상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립묘지 조성·확충에 463억원을 편성하고 강원권 및 전남권에도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국립서울현충원의 보훈부 이관에 대비해 서울현충원을 랜드마크로 재창조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3억원, 디지털 전광판 설치에 48억원을 투입한다.

4-2 **공공질서 · 안전 시스템 강화**

1) 범죄대응 (0.4 → 1.2조원)

마약, 묻지마 범죄,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대응과 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마약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 첨단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 → 수사 → 재활’의 전주기 지원예산을 2023년 317억원에서 814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예방 측면에서는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3 → 48억원)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 (9 → 30억원)를 강화한다. 마약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검·경의 첨단 마약 수사·감시 장비를 도입(28.6억원)하고 마약 유통·밀수 방지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6.8억원)을 적극 지원한다. 마약 중독자 등의 재활을 위해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3 → 17개소)하고,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14억원)를 신규 운영한다.

100



 묻지마 범죄   
최근 신림역 살인,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연이어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 등 대응을 위해 현장중심으로 경찰조직을 개편하여 28개 광역 기동순찰대 및 43개 형사기동대를 신설한다. 위급상황 신속 제압을 위한 저위험 권총도 기존 3인 1총기에서 1인 1총기로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101개 기동대를 대상으로 흉기대응을 위한 방검복 및 삼단봉 등 호신장비 보급도 추진한다.

 전세사기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예방, 대응, 구제 등 세 단계에 걸쳐 지원 예산을 확대하였다. 우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해 118억원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세사기와 같은 이상거래를 사전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주택 임대차 거래 모니터링 예산을 21억원 편성하였다. 두 번째로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하여 보다 신속하게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피해주택의 경·공매를 유예·정지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와 전담 대응조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단 운영 예산을 21억원 편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피해주택을 공공에서 매입하고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예산을 7,125억원 추가한다(예상 물량 총 0.5만호).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마련할 때(기존 전세대출의 대환 포함) 보다 저렴하게 정책지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6,14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3년도 1,660억원 대비 지원 예산을 약 3배 이상 확대한다.

 피해자 지원

범죄 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31억원)한다. 성폭력·아동 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 사건만을 담당하는 국선전담변호사를 10명 추가 채용(43명 → 53명)하여, 아동·여성 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강화한다.

101

2) 전주기 정신건강 지원 (0.1 → 0.2조원)

2024년부터 기존 치료 중심의 정신질환 지원을 넘어 예방·조기발견과 재활·사회 복귀까지 전주기로 관리하고 단계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정신질환 예방  
전국민에게 마음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 (+472.5억원)한다. 이 사업은 치료가 시급한 중·고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27년까지 일반 국민을 포함해 누적 100만명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자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살예방 전화상담사’ 인력을 확대(80 → 100명)하여 전화응대율(60 → 75%)을 높이고, SNS·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편한다.

 정신질환 치료  
신속한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상정보시스템’을 구축(+7.2억원)한다. 또 정신질환자의 긴급 외상에 24시간 대응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10 → 12개소)하며, 응급입원을 위한 ‘시·도별 정신응급병상’을 기존 119개소에서 229개소로 확대(+21.3억원)한다.

 정신질환 재활·사회복귀  
‘정신재활시설의 환경개선’ 지원 개소수(39 → 48개소)를 확대하여, 기존 노후화된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환자의 입원 거부감을 완화하고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동료지원쉼터’ 운영(5개소, +6.6억원)을 제도화하여, 정신질환자들이 장기 입원을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상담, 휴식 등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102



3) 수해대응 체계 고도화 (5.1 → 6.4조원)

|  |
| --- |
| 인프라 |

 하천

국가하천의 지속적인 제방 보강, 준설 등의 정비와 더불어 홍수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국가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 정비 등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천정비를 대폭 확대(4,510 → 6,627억원)한다.

 저수지 준설  
기후변화 등으로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홍수·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역량도 높인다. 저수지 범람에 따른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퇴적토 준설 예산을 (2023년) 30억원 → (2024년) 4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도시침수대응  
이상기후로 인한 대규모 강우시 빗물을 일시에 저장하여 도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빗물저장시설(우수저류시설) 6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또한 하상도로에 하천 수위계 센서에 연계하여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을 전국 180개소에 구축함으로써, 하상도로 이용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산사태 방지  
산사태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선제적 산사태재난 대비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확대(62 → 110억원)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산지사방, 계류보전, 산림유역관리 등 사방사업 투자를 확대(2,210 → 2,510억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주력한다.

103

|  |
| --- |
| 예보 |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AI 기반 홍수예보시스템을 구축(169 → 818억원)하여 전국 단위의 빠르고 촘촘한 홍수예보를 실시한다. AI 기술로 단시간 내 다수 지점에 대한 홍수예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본류 중심 전국 75개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트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 갈수(가뭄)의 선제적 예측·대응과 최적 물수급 조정을 통한 똑똑한 물관리 구현을 위하여 디지털트윈 기반 물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특히 전국 3,710개 국가·지방하천 홍수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홍수서비스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예산을 투자한다.

(’24) 179억원 <231.5% ↑ > \* 댐-하천 디지털 트윈 : (’23) 54억 →

4) 생활 안전 (4.1 → 4.8조원)

 교통 안전사고 예방  
폭염·폭우·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선로, 전기설비, 선로전환기 등 취약·노후시설을 개량하여 열차 안전운행을 강화한다. 승강장 열차 접촉 및 추락사고 방지 등 철도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설비(+234억원)도 확충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국도 지하차도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자동으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 23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국도터널 내 제연 및 방재시설도 확대한다. 아울러 빈발하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량 내진성능보강 공사도 지속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104



 생활안전 강화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위험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지역별 안전진단·위험분석 사업(+11개소)을 시범실시한다. 출퇴근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국 도시철도 역사 내 역주행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에스컬레이터(1천여대)에 대해 전량 개선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협회·사업주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전문가(600명)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한다.

 탈선방지 열차선로 개량  
열차이용객의 안전확보 및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철도개량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한편, 열차 탈선사고의 예방을 위한 선로전환기 등 선로시설와 전력설비 개량을 강화(3,033억원 → 4,904억원)한다.

 도로 시설물 정비 및 지하차도 침수 방지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진입차단시설 설치 비용 등(28개소, 108억원)을 반영하고, 비탈면·교량 등 주요 구조물에 상시관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재난 등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에 힘쓴다.또한, 노후화된 SOC를 적기 개량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4,614억원)도 충분히 담아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한다.

뿐만 아니라, 화재에 취약한 민자도로 방음터널·방음벽소재를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조속히 교체하기 위한 비용(61개소, 578억원)을 반영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할 계획이다.

105



4-3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 · 역할 수행**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 이행을 위하여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를 선도할 것이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경제 위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적극 공유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등 분쟁지역과, 기후변화·식량위기 등 위험에 노출된 취약국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인·태 등 핵심 협력지역 지원을 위한 전략적 ODA를 강화할 것이다. 높아진 국가 위상에 발맞추어, 한국문화 전파를 위한 한국어 보급 사업도 확대한다. 또한 기후변화, 과학기술, 민주주의, 경제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 선도를 위한 능동적 외교 활동도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1) 국격에 걸맞는 ODA 확대

 경제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위해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4.5 → 6.3조원)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의 국제위상 및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ODA 규모를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하였다. 금번 ODA 확대로, 우리나라는 기존에 발표한 ODA 예산 확대 목표(’30년까지 6.2조원)를 조기 달성한다. 그간 우리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ODA를 지속 확대하였으나, ODA/GNI 비율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28위로(0.17%) 경제력 대비 다소 미흡하였다. 주요 선진국도 자국 영향력 강화, 수출시장 개척 등을 위하여 ODA를 적극 활용중이며, 우리나라도 확대된 ODA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인·태 등 전략지역 협력 확대 등 핵심 국익과 연계를 추진할 것이다.

106



 ODA를 활용한 우리 기업과 인력 글로벌 진출 연계

우리 기업의 수주를 전제로 한 ODA 지원이 가능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개도국

차관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15,030 → 20,320억원). 특히, 향후 재건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1,300억원의 차관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에게 재건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한 청년 인재에게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지원

기간을 확대(2년 → 3년)할 예정이며,(95 → 141억원) 해외봉사단을 약 1천명 확대

(0.3 → 0.4만명)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청년들에게 해외 진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 인재사업 예산도 확대한다(1,009 →

1,288억원).

 인도적 지원 확대를 통한 보편적 가치 확산에 기여

자유·평화 등 보편적 가치의 확산에 기여하고, 글로벌 개발격차 완화를 위하여 인도적

지원 예산도 2배 이상 확대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유·평화 연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629 → 2,600억원), 정부 비축 양곡의 개도국

지원을 2배 확대하여(5만톤 → 10만톤) 개발도상국의 식량 위기를 지원한다.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EDCF 대개도국차관(기재부)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외교부) 인도적지원(외교부)  국제농업협력(농림부) | 15,030  95  2,994  917 | 20,320  141  7,401  1,621 | 35.2  48.4  147.2  76.8 |

107

2) 국제협력 강화

 한글 보급   
외국 교육과정에 한국어가 포함되도록 해외 초·중·고등학교 한국어반 운영(2,000 → 2,200개교) 및 한국어 교원 파견(86 → 120명) 등 해외 한국어 보급 지원을 확대한다. 재외동포 등에 대한 해외교육활동을 실시하는 한국교육원(19개국, 43개원) 지원을 확대하여(188 → 301억원, 4개소 신설 포함) 한국어강좌를 증설하고(교육원당 평균 25 → 39개), 유학생 유치박람회 개최 및 유학생 유치센터(9개소)를 신설하여 한국교육원의 유학생 유치 역할을 강화한다. 일반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보급하는 세종학당도 20개소 확대하고(270 → 290개소), 한국어 교원 파견을 30명 확대한다(270 → 300명).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해외 한국어 보급  한국교육원 운영  세종학당 한국어교원 파견 | 187  188  130 | 211  301  147 | 13.0  60.0  13.3 |

 지역별 실질 협력 강화, 글로벌 가치 실천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시기에 역내·외 관련국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구체화하여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기여하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강화(8억원)한다. 우리나라를 인태지역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하는 유럽 지역 국가들과도 한-EU 인태전략 강화 방안을 모색(5억원)한다. 그리고 AfCFTA(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출범 등 전략ㅂ적 중요성이 증대한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우리 정부 최초로 정상급 국제회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심화한다.

2024-25년 임기 우리 정부의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20억원)을 통해 국제평화·안보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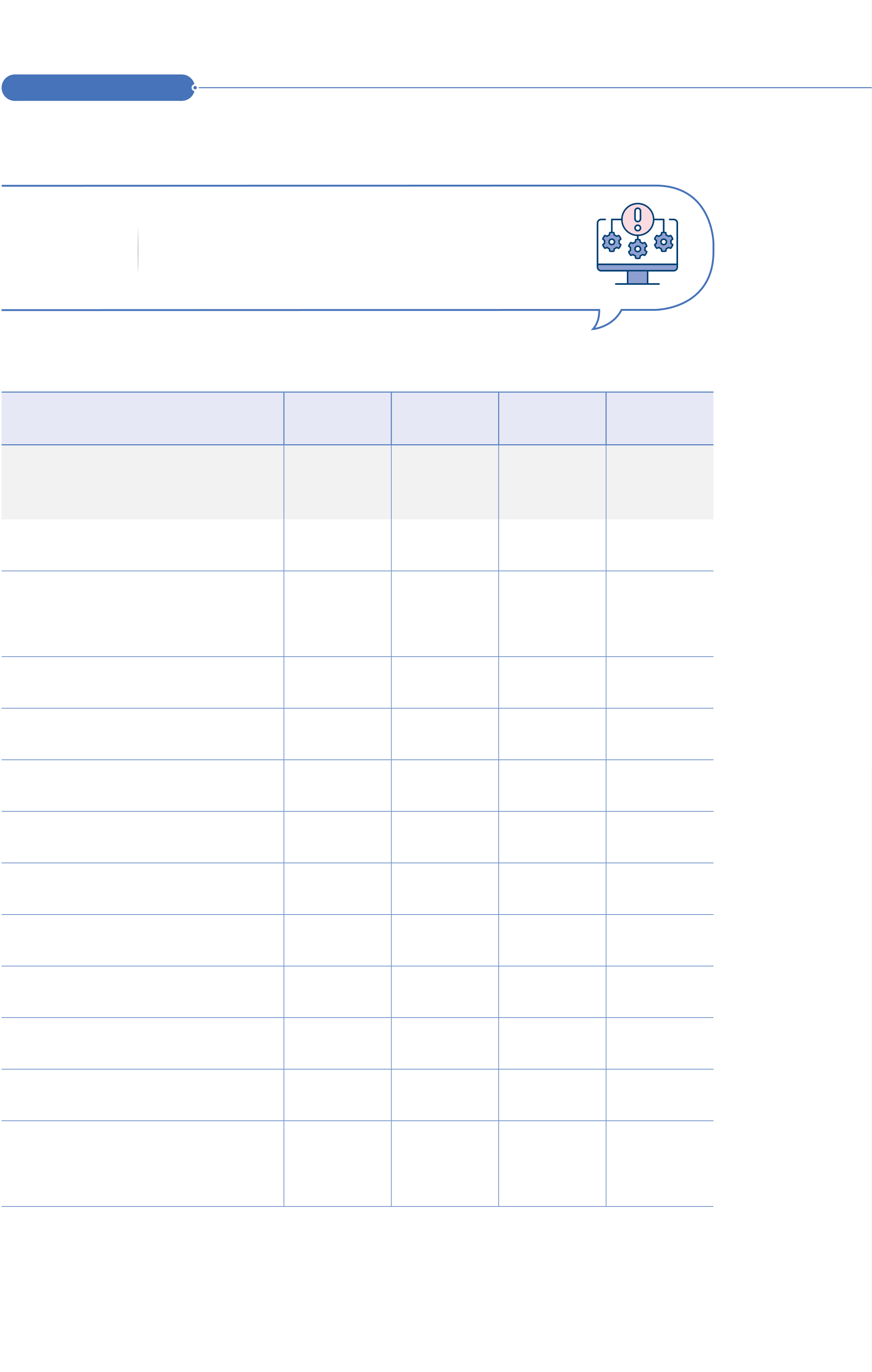
108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위상을 제고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기후변화협약 이래 최대의 국제환경협약인 유엔 플라스틱협약의 성안을 위한 마지막 회의인 제5차 정부간협상 위원회 회의(INC-5)를 개최(45억원)하여 플라스틱 산업의 친환경 순환성 제고에 기여하고 범세계 순환 경제 촉진 논의를 선도할 예정이다.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 군축·비확산 분야의 국제협력에 참여하고 국제적 논의를 선도할 예정이다.

 북한인권 인식 제고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자유·인권’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북한인권 침해기록 수집 및 보관과 함께, 인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체험 콘텐츠 제작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저명한 학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북한인권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국제적으로도 북한인권 담론을 수행할 계획이다.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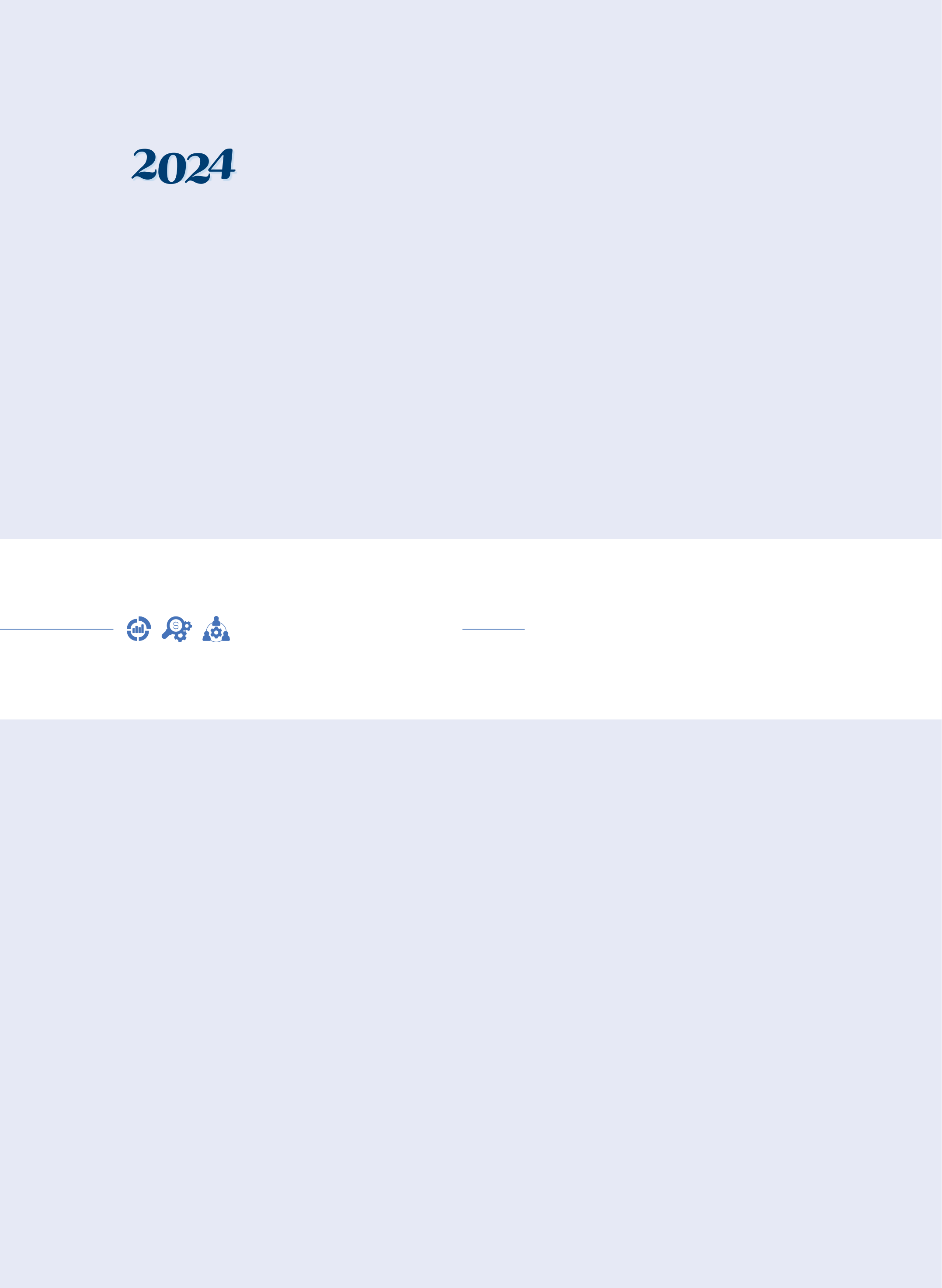


03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단위: 조원)

|  |  |  |  |  |
| --- | --- | --- | --- | --- |
| 구 분 | ’23년 | ’24년 | 증감 | % |
| 본예산 (A) | 본예산 (B) | (B-A) |
| 총지출 | 638.7 | 656.6 | +17.9 | +2.8 |
| (지방교부세·금 제외) | (487.7) | (521.0) | (+33.3) | (+6.8) |
| 1. 보건·복지·고용 | 226.0 | 242.9 | +16.9 | +7.5 |
| 2. 교 육 | 96.3 | 89.8 | △6.5 | △6.7 |
| (교부금 제외) | (20.5) | (20.9) | (+0.4) | (+2.1) |
| 3. 문화·체육·관광 | 8.6 | 8.7 | +0.1 | +1.5 |
| 4. 환 경 | 12.2 | 12.5 | +0.2 | +2.0 |
| 5. R&D | 31.1 | 26.5 | △4.5 | △14.6 |
|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26.0 | 28.0 | +2.0 | +7.7 |
| 7. SOC | 25.0 | 26.4 | +1.5 | +5.8 |
| 8. 농림·수산·식품 | 24.4 | 25.4 | +1.1 | +4.3 |
| 9. 국 방 | 57.0 | 59.4 | +2.4 | +4.2 |
| 10. 외교·통일 | 6.4 | 7.5 | +1.1 | +17.7 |
| 11. 공공질서·안전 | 22.9 | 24.4 | +1.5 | +6.5 |
| 12. 일반·지방행정 | 112.2 | 110.5 | △1.6 | △1.4 |
| (교부세 제외) | (36.9) | (43.8) | (+6.9) | (+18.8) |

110



나라살림   
예산개요

제 3 장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분야별  
투자계획

01. 보건·복지·고용 분야  
02. 교육 분야  
03. 문화·체육·관광 분야  
04. R&D 분야  
0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06. SOC 분야  
07. 농림·수산·식품 분야  
08. 환경 분야  
09. 국방 분야  
10. 외교·통일 분야  
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112





|  |  |
| --- | --- |
| 01 |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 |

1-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보건·복지·고용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42.9조원 수준이며, 총지출 대비 비중이 37.0%로 12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크다. 소득·고용·주거 안전망에 대한 투자 확충으로 저소득·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을 구축한다. 아울러, 소아·응급의료 인프라 강화로 필수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신질환자 대상 ‘예방·조기발견-치료-복귀’ 전주기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기초수급자·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장수준 강화  
기초수급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는 등 2024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생계급여 지급액을 역대 최고수준인 13.2% 인상(162.0만원 → 183.4만원)한다. 또한, 다인·다자녀, 도서벽지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빈곤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완화하여 5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수는 83.3만명에서 103.0만명으로 확대하여 노인인구의 1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참여 수당도 2~4만원 인상(공익형 27만원/월 → 29만원/월, 사회서비스형 59.4만원/월 → 63.4만원/월)한다. 기초연금은 월32.3만원에서 33.5만원으로 인상하여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 5.7만명에게는 돌봄지원을 확대(월16시간 → 월20시간)한다.

113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 그룹형 1:1 돌봄과 주간 개별 1:1 돌봄을 신설하고, 24시간 개별 돌봄을 1개 지자체에서 17개 지자체(전국)로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원인원(11.5만명 → 12.4만명) 및 최중증 장애인 가산급여(6천명 → 1만명, 151.5시간 → 195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 발굴·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구축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 격차 축소를 위해 저소득 다문화 가족 자녀 6만명에게 연40만원~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다문화 가족 자녀의 기초학습 지원대상을 취학 전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 200명,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신규로 지원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이주부모의 근로 기회를 확대한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양육비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서 63% 이하 가구로 완화하고, 지원자녀 기준을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교재학생 자녀로 확대하는 등 3.2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월35만원에서 월40만원으로 인상한다.

가족돌봄청년의 학습, 신체·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자기돌봄비를 분기당 50만원씩 최대 2년간 신규로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해 심리상담, 공동거주공간 생활지원, 가족간 자조모임 등의 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한다.

 자산형성, 일자리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확충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및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여 자립기반을 확충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월40만원에서 월5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지원연령을 12~17세에서 0~17세로,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인원이 5.0만명에서 18.3만명으로 증가한다.

114



일을 통한 탈수급 지원을 위해 자활근로 인원을 6.6만명에서 6.9만명으로 확대하고, 생계급여의 근로소득공제 청년특례 대상을 만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한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국민건강 보장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11.0 → 12.2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2.0 → 2.2조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착수(85억원)와 함께 암검진비 지원(423억원), 재활병원(70억원) 건립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신설, 닥터헬기(8 → 9대)·닥터카 (신규, 1대) 확충, 소아암 거점병원(신규, 5개소)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0 → 12개소) 지원 등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아울러 심리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을 신설하여, ’24년 중·고위험군 8만명을 시작으로 ’27년까지 일반국민을 포함한 100만명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표 1-1] 보건·복지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일반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노인 주택 공적연금 보훈 건강보험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고용 노동 고용노동일반 | 2,260,032  191,355  52,141  10,127  98,476  15,302  232,289  334,413  713,246  62,475  124,102  69,409  6,764  236,316  107,280  6,339 | 2,429,385  208,225  55,018  10,580  108,894  16,861  256,483  374,239  808,644  64,798  137,070  44,125  7,237  222,983  107,712  6,516 | 7.5  8.8  5.5  4.5  10.6  10.2  10.4  11.9  13.4  3.7  10.4 △36.4  7.0 △5.6  0.4  2.8 |

115



1-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 부문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을 높이고,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자활·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탈수급·자립기회를 확대한다.  
☞ (2023년) 19조 1,355억원 → (2024년) 20조 8,225억원 (8.8% 증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선정 기준이자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에 영향을 주는 기준중위 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인 4인가구 기준 6.09% 인상된다. 특히, 수급자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가중치 상향에 따라 전년 대비 7.25% 인상된다.

<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원)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23년 | ’24년 | 증가율 | 비고 |
| |  | | --- | | ■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 |   (1인 가구) | | 5,400,964 (2,077,892) | 5,729,913 (2,228,445) | +6.09% (+7.25%) |  |
| 4인 가구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 32%) | 1,620,289 | 1,833,572 | +13.2% | 선정기준 = 월 최대급여액 |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2,160,386 | 2,291,965 | +6.09% |  |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 48%) | 2,538,453 | 2,750,358 | +8.35% | 기준임대료  4인(1급지): 51.0 → 52.7만원/월 |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2,700,482 | 2,864,956 | +6.09% | 고교생 교육  활동지원비:  65.4 → 72.7만원 |

생계급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여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62.0만원에서 183.4만원으로 21.3만원 증가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상향하여 3.9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다자녀·다인, 도서 벽지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기준을

116



완화하여 보호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3.5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개편(3급지 → 4급지, 기본재산공제액 1.0~2.3억원 → 2.0~3.6억원 인상)으로 1.5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중위 소득 47%에서 48%로 상향하여 2.0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고,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11.2% 인상한다.

[표 1-2] 기초생활보장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a) | 2024년(b) | 증감률 ((b-a)/a) | 비 고 |
| |  | | --- | | 합 계 |   생계급여 | 191,355  60,141 | 208,225  75,411 | 8.8  25.4 | 4인가구 최대급여액 13.2% 인상 및 자동차재산기준 완화 |
| 의료급여 | 90,984 | 89,377 | △1.8 |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
| 주거급여 | 25,723 | 27,424 | 6.6 | 선정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47 → 48%), 최대지급액 인상 |
| 교육급여 | 1,573 | 1,604 | 2.0 | 교육활동지원비 초·중·고 평균 11.2% 인상 |
| 긴급복지 | 3,155 | 3,585 | 13.6 | 생계지원금 인상  (162 → 183만원, 4인가구) |
| 자활사업 | 6,936 | 7,499 | 8.1 | 지원인원 6.6 → 6.9만명 확대 |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 2,276 | 2,707 | 18.9 | 청년내일저축계좌(’22년 신설) 가입자 확대 반영 |

117

 취약계층지원 부문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체계 구축 등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돌봄 서비스도 전 영역 지원 강화 및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도 ’13년 이후 최초 +1만원 인상하는

등 소득보장도 강화

☞ (2023년) 5조 2,141억원 → (2024년) 5조 4,619억원 (4.8% 증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체계\*를 도입하여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 돌봄 서비스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1.0 → 1.1만명) 및 장애인

활동지원(11.5 → 12.5만명)도 확대한다.

\* 1단계주간그룹형 1:1 1,500명, 2단계주간개별 1:1 500명, 3단계24시간개별 1:1 1 → 17개시도

아울러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고난도 활동지원에 따른 인센티브인 가산급여를

0.6만명 → 0.1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시간도 확대(152 → 195시간)하여 활동지원사

인센티브를 강화(월 45 → 59만원)한다.

장애아동 치료·양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6세 미만 장애의심아동을 포함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의사 및 상담사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재활

서비스의 지원인원을 확대(7.9 → 8.6만명)하고 중증 장애아 돌봄 제공시간을 확대(월

80 → 90시간)한다.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3년 이후 최초로 +1만원 인상(2~8만원 → 3~9만원)하고,

기초급여도 32.3만원 → 33.5만원으로 +1.2만원 인상하여, 소득보장도 강화한다.

118



[표 1-3] 취약계층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a) | 2024년(b) | 증감률 ((b-a)/a) | 비 고 |
| |  | | --- | | 합 계 |   발달장애인지원 | 52,141  2,569 | 55,018  3,577 | 5.5  39.3 |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체계 구축(2,340명) 주간활동(1.0 → 1.1만명) |
| 장애인활동지원 | 19,919 | 22,846 | 14.7 | 대상 11.5 → 12.4만명  가산급여 대상·단가 인상  (0.6 → 1.0만명, 월 30 → 45만원) |
| 장애아동가족지원 | 1,757 | 1,940 | 10.4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7.9 → 8.6만명  장애아돌봄 시간 확대  (연 960 → 1,080시간) |
| 장애인연금 | 8,787 | 8,932 | 1.6 | 기초급여 월 32.3 → 33.5만원  부가급여 월 2~7 → 3~8만원 |

 사회복지일반 부문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중앙 사회서비스원 기능 강화 및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2023년) 1조 127억원 → (2024년) 1조 580억원 (4.5% 증가)



가족돌봄청년,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질병·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긴급돌봄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 경계선 상에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건강과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통합돌봄 모형을 마련하고자 지원하는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시범사업(’23~’25)을 본격 추진한다.

119

사회서비스 제공 관련 혁신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2024년에는 정부출자 50억원에 민간 투자 20억원을 포함하여 총 70억원 규모로 조성하며, 이를 통해 기술개발비, 운영비 등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표 1-4] 사회복지일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a) | 2024년(b) | 증감률 ((b-a)/a) | 비 고 |
| |  | | --- | | 합 계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0,127  269 | 10,580  433 | 4.5  61.0 |  |
|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 42 | 69 | 62.3 | 12개 기초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본격 추진 (6개월 → 12개월) |
|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 1,610 | 1,650 | 2.5 | 사례관리사 인건비 2.5% 인상 |
|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 100 | 50 | △50 |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 |

 아동·보육 부문



영아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확대하고, 보육료 단가 인상 및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 등을 통해 아동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며, 보호대상아동, 학대피해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2023년) 9조 8,476억원 → (2024년) 10조 8,894억원 (10.6% 증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큰 영아기(만 0∼1세)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인상한다(2023년 월 35∼70만원 → 2024년 월 50∼100만원). 또한, 0∼2세 부모보육료,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를 각 5%씩 인상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정원미달 0∼2세반(현원 50% 이상)에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운영이

120



필요한 급식인원 50인 이상(교직원 포함)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급식위생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급식위생 관리지원금(개소당 월 30만원)’을 신설하고,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단가를 각 1만원씩 인상한다(기저귀 월 8 → 9만원, 조제분유 월

|  |
| --- |
| 10 → 11만원).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98 → 108개소), 방문형

가정회복 대상을 확대(1,200 → 2,400가정)한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긴급·

일시보호 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161 → 197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보호·치유·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자립수당을

인상(월 40 → 50만원)하여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지원청년의 사후관리 및 맞춤형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전담인력 50명(서울 7명, 지방 43명)을 신규 충원한다. 이와함께

사례관리 지원대상자 750명(서울 120명, 지방 630명)을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121

[표 1-5] 아동·보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a) | 2024년(b) | 증감률 ((b-a)/a) | 비 고 |
| |  | | --- | | 합 계 |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 98,476  16,215 | 108,894  28,887 | 10.6  78.1 | 만 0∼1세 아동에게 월 50∼100만원 지급 |
| 아동수당 | 22,564 | 21,115 | △6.4 | 만 0∼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
| 첫만남이용권 | 3,194 | 3,804 | 19.1 | 출생 직후 200만원 일시금  바우처 지급 (둘째부터 300만원)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382 | 443 | 16.0 | 기저귀(월 8 → 9만원),  조제분유(월 10 → 11만원)  지원단가 인상 |
| 영유아보육료 지원 | 30,251 | 26,731 | △11.6 | 부모보육료 5% 인상기관보육료 5% 인상장애아보육료 5% 인상 |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17,504 | 18,863 | 7.8 |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신설 (5,789개소, 월 30만원) |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아동보호전담기관 운영 지원) | 413  (370) | 486  (433) | 17.6  (17.0)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98 → 108개소)  방문형 가족회복 대상 확대  (1,200 → 2,400가정) |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 471 | 522 | 10.9 |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  (161 → 197개소) |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 437 | 454 | 3.8 | 자립수당 인상  (월 40 → 50만원) |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구축 | 147 | 177 | 20.5 |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50명)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750명) |

122



 여성·가족·청소년 부문



여성경제활동 촉진, 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다문화·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청소년 활동·보호 기반을 확대한다.

☞ (2023년) 1조 5,302억원 → (2024년) 1조 6,861원 (10.2% 증가)



실질적 성평등 제고를 위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새일여성인턴 사업으로 일경험 기회 제공 및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신기술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확대(74 → 79개)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및 경력단절 예방기능을 강화한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공공부문 조직진단 및 개선이행 지원을 지속 추진하며, 민간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균형과 관련된 다양성 교육을 신규로 추진한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일상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10 → 17개 시도)하고 주거지원시설 내 안전장비 신규 설치 및 인력 확충을 통해 365일 24시간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시 피해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지원금(1인당 500만원)을 피해자의 동반아동까지(1인당 2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 확대(30 → 56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및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각 1개소 추가 설치 등 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지원을 확대(25 → 38개소)한다. 또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폭력예방 특화교육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 대한 상시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등 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123

맞벌이·한부모·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수를 대폭 확대(8.5 → 11만 가구)하는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다문화가족에게는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학습지원 운영기관(가족센터)을 확대(138 → 168개소)하고, 지원대상도 취학 전후 아동에서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한다. 중위소득 50~100% 이하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상담 등을 통해 교육활동비(연 40~60 만원)를 신규로 지원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진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이주부모 모국어) 학습을 신규 지원한다. 또한, 결혼이민자에게는 가족센터와 새일센터가 협업하여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을 완화 (기준중위소득 60 → 63%)하고, 2019년 이후 동결된 지원단가를 인상(월 20 → 21만원) 한다. 또한, 지원연령을 만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시까지로 확대하여 고교재학 중 양육비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하였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해 → 306호)하고, 보증금 지원단가를 인상(최대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266호   
9백만원 → 10백만원)하여 임대료 부담을 경감한다.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활동·보호 기반을 확대한다.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 등 가족에 대한 정서 지원까지 포괄하는 집중심리클리닉을 운영(전담인력 105명)하고,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대상에 고립·은둔 청소년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까지 확대한다. 또한,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월40만원) 지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은둔·고립 청소년의 선제적 발굴 및 종합지원(방문상담·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원스톱 패키지 사업을 신규로 운영(’24년 1,089백만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54개 → 59개) 등을 확대하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124



자립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 시행한다.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정보 및 이력 관리, 청소년정책 정보 종합서비스를 위한 청소년활동 디지털 플랫폼 구축 ISP를 신규 반영하고,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및 노후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을 지원한다. 청소년 정서·행동문제 치유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도 추가 건립(4 → 5개소)한다.

[표 1-6] 여성·가족·청소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a) | 2024년(b) | 증감률 ((b-a)/a) | 비 고 |
| |  | | --- | | 합 계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 15,302  4,959 | 16,861  5,356 | 10.2  8.0 | -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 63%  ·‌(지원단가) 월 20 → 21만원  ·(지원연령) ‌만18세 미만 → 고교 재학시까지 |
| 아이돌봄지원 | 3,546 | 4,678 | 31.9 | - 지원가구 확대(8.5 → 11만)  - 다자녀 추가지원(자부담의 10%) |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 1,080 | 1,461 | 35.4 | -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연 40~60만원) |
|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392 | 415 | 5.9 | -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확대  (10 → 17개소)  -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금 확대  (아동 1명당 250만원 추가지원) |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 295 | 309 | 4.6 | - ‌쉼터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 40만원) 지급기간 확대(3 → 5년) |
| 청소년치료  재활센터 건립 | 27 | 37 | 36.7 | - ‌국립청소년치료 재활센터 1개소  추가 건립(4 → 5개소) |
| 청소년활동  진흥원운영 지원 | 377 | 400 | 6.1 | -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및 우수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 (24억원) |

125

 노인 부문



천만 노인시대에 맞춰 노인일자리를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확대하여 최초 100만개 이상 제공 및 기초연금을 인상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한다.  
☞ (2023년) 23조 2,289억원 → (2024년) 25조 6,483억원 (10.4% 증가)



’24년 천만 노인시대에 맞춰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14.7만명)하여 최초로 100만개 이상 제공한다. 2023년 88.3만개 일자리를 2024년에는 14.7만개 늘려 103.0만개로 확대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수당을 6년만에 인상(공익형 월 27 → 29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59.4 → 63.4만원)한다. 상대적으로 근로능력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유입을 감안, 양질의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10.1만개 확충하여 노인일자리 질적 제고 및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원을 확대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2023년 665만명에서 2024년 701만명으로 늘어나며, 월 최대 32.3만원 지급되던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월 최대 33.5만원으로 인상한다.

급속한 고령화 및 가족돌봄 약화로 인한 노인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지속 지원한다. 특히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중점군, 5.7만명)을 위한 돌봄시간 확대(월 16 → 20시간)한다.

높은 물가상승세로 인한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를 개소당 연 250만원에서 269만원으로 상향한다.

126



[표 1-7] 노인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a) | 2024년(b) | 증감률 ((b-a)/a) | 주요내용 |
| |  | | --- | | 합 계 |   기초연금 | 232,289  185,304 | 256,483  202,015 | 10.4  9.0 | 665 → 701만명  월 33.5만원 지급 |
| 노인일자리 및사회활동지원 | 15,400 | 20,264 | 31.6 | 총 88.3 → 103.0만개  공익형 월27 → 29만원  사회서비스형 월59.4 → 63.4만원 |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5,020 | 5,461 | 8.8 | 중점군 5.7만명 돌봄시간 확대  (월16 → 20시간) |
| 노인단체 지원 | 795 | 884 | 11.3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연 250 → 269만원 |

 주택 부문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공공임대 50만호,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에 착수하고,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확대 등으로 주거안정을 뒷받침한다.

☞ (2023년) 33조 4,413억원 → (2024년) 37조 4,239억원 (11.9%)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고, 자가소유 등 주거사다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방향을 수립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24년에는 공공임대주택 총 11.5만호, 공공분양주택 9.0만호를 공급한다.

공공임대 예산은 전세사기 등에 공공 전세임대 수요 증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임대 유형 신설 등을 반영하여 5년간 50만호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11.5만호를 공급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두텁게 지원한다.

127

공공분양 예산은 5년간 50만호 공급을 위해 ’24년은 9만호 신규 사업승인을 위한 소요를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시세의 70%로 이하로 할인분양 받을 수 있는 나눔형 주택, 최대 6년간 임대로 거주해본 후 원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 일반형 등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인 뉴:홈 주택을 본격 공급한다.

한편,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 주거금융 지원을 위한 구입·전세자금 융자(’23년 10.4조원 → ’24년 12.4조원) 및 이차보전(’23년 0.8조원 → ’24년 1.4조원)도 큰 폭으로 9억원), 확대하였다. 이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 융자를 신설하여 주택가액(6   
→ 대출한도(4 → 5억원), 소득요건(6·7천만원 → 1.3억원) 등을 대폭 확대하여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커져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신규 반영하였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모든 가구에 전세반환금보증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고(’24년 118억원),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새로운 거처로 이주하여 거주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1%대 저리 긴급융자 6,145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표 1-8] 주택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a) | 2024년(b) | 증감률 ((b-a)/a) | 비 고 |
| |  | | --- | | 합 계 |   다가구매입임대 출·융자 | 334,414 60,763 | 374,239 60,463 | 11.9 △0.5 | 3.5 → 4.0만호 |
| 전세임대 융자 | 41,750 | 45,469 | 8.9 | 3.7 → 4.0만호 |
| 분양주택(융자) | 13,955 | 20,153 | 44.4 | 총 9만호 공급 |
|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 103,800 | 123,645 | 19.1 | 신생아 특례 융자 신설 |
| 이차보전 | 7,656 | 13,951 | 82.2 |

128



 공적연금 부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 및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체계를 강화한다.

☞ (2023년) 71조 3,246억원 → (2024년) 80조 8,644억원 (13.4% 증가)



공적연금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민의 노후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국민, 공무원,

교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퇴직, 사망, 공무상 부상·질병·장애에 대한 급여를 지속

지급한다.

특히, 4대 공적연금의 성숙으로 노령·퇴직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급여

지급도 확대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679 → 732만명으로 약 54만명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급여지급액도 7.1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여타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수도 각각 63.5 → 67.4만명,

11.4 → 12.1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1-9] 공적연금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a) | 2024년(b) | 증감률 ((b-a)/a) | 주요내용 |
| |  | | --- | | 합 계 |   국민연금 | 713,246 371,216 | 808,644 442,908 | 13.4  19.3 | 678.8 → 732.4만명 |
| 공무원연금 | 244,933 | 264,294 | 7.9 | 63.5 → 67.4만명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58,248 | 60,619 | 4.1 | 11.4 → 12.1만명 |
| 군인연금 | 38,465 | 40,411 | 5.1 | 10.1 → 10.6만명 |

129

 보훈 부문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책임지고 영웅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확산시켜 국민 통합에 기여한다.

☞ (2023년) 6조 2,475억원 → (2024년) 6조 4,798억원 (3.7% 증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인상하고, 보훈대상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을 2%, 6·25전몰군경 자녀 중 신규승계 자녀 수당을 12.5% 추가 인상한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 수당을 각각 3만원 인상하고, 생계가 곤란한 보훈대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10% 인상한다.

국가관리기념관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디지털 전시관으로 조성하고자 70억원을 신규 반영한다. 월남전 유공자에게 제복을 증정하고, 전사·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 자녀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일상 속의 보훈문화를 확산한다.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10% 인상하고, 보훈 대상자의 여가를 위한 남부권 보훈휴양원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보훈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중앙보훈병원 시설 재배치, 광주보훈병원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고령 국가유공자가 집과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 100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840개소까지 확대한다. 또한, 보훈가족의 간호·간병 부담 경감을 위해 보훈병원 간호·간병 통합 병상을 전체 병상의 40%인 901개까지 확대한다.

보훈대상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립묘지 조성· 확충에 463억원을 편성하고 강원권 및 전남권에도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또한 서울현충원을 랜드마크로 재창조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130



[표 1-10] 보훈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a) | 2024년(b) | 증감률 ((b-a)/a) | 비 고 |
| |  | | --- | | 합 계 |   보상금 | 62,475  33,252 | 64,798  34,681 | 3.7  4.3 | - ‌기본 보상금 5% 인상  (7급상이자 2% 추가인상) |
| 6·25자녀수당 | 3,288 | 4,033 | 22.7 | - ‌6·25전몰신규승계자녀수당  12.5% 추가인상 |
| 참전명예수당 등 | 7,028 | 6,785 | △3.5 | - 월 3만원 인상  \* 참전: 39만원 → 42만원  \* 무공: 45~47만원 → 48~50만원  \* 4·19: 40.1만원 → 43.1만원 |
| 생활조정수당 | 559 | 895 | 60.2 | - 10%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기념관 관리운영 | 71 | 155 | 118.4 | - 디지털전시관 조성 70억원- 기본경비 증액 |
|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 | - | 219 | 순증 | - 175,114명 대상 |
| 히어로즈 패밀리 | - | 6 | 순증 | - 교류, 심리치료, 학습지원 |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62 | 70 | 13.5 | - 10% 인상  \* 장기 월 70만원 → 77만원  \* 중기 월 50만원 → 55만원 |
| 보훈휴양원 건립 | - | 1 | 순증 | - 남부권 보훈 휴양원 건립 연구용역 |
| 보훈병원  의료환경개선 | - | 5 | 순증 | - 설계비 반영  \* 중앙보훈병원 3억원  \* 광주보훈병원 2억원 |
| 위탁병원 진료 | 2,674 | 2,563 | △4.2 | - 위탁병원 확대(740 → 840개) |
| 보훈병원진료(간호·간병 통합병상 확대) | 3,899 | 3,920 | 0.5 | - ‌간호·간병 통합 병상 확대  (현행 30% → 40%) |
| 국립묘지조성 | 167 | 125 | △25.4 | - 국립연천현충원 38억원- 강원권 국립묘지 65억원 - 전남권 국립묘지 22억원 |
|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 | 10 | 60 | 531.9 | - ‌국립묘지 재창조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3억원  - 디지털 전광판 설치 48억원 |

131

 건강보험·보건의료 및 식품의약품안전 부문



건강보험 재정 안정 및 공공의료 확충을 도모한다.

☞ (2023년) 20조 275억원 → (2024년) 18조 8,432억원 (△5.9%)



국민건강 보장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11.0 → 12.2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2.0 →

2.2조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암검진비 지원

(423억원), 재활병원(70억원) 건립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기존 치료 중심의 사업을 넘어 예방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 지원을 시작한다. 전국민

대상 마음건강 상담 사업을 신설하고 중·고위험군 대상 8만명 상담을 시작한다.

정신응급의료센터 2개소(10 → 12개소), 응급병상도 확대(119 → 229개소)하여 정신질

환자 응급 상황시 적기 대응을 지원한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역내

응급상황을 총괄 지휘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신규로 설치하고, 이송중에도

응급치료가 가능하도록 닥터헬기(8 → 9대), 닥터카(신규, 1대)를 확충한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 → 14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8 → 10개소), 소아암거점

병원(신규, 5개소), 야간·휴일진료센터(신규, 45개소), 24시간 소아상담센터(신규,

5개소), 소아청소년과전공의 수련수당 지원(신규) 등 어린이환자 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책임의료기관을 확대(권역

15 → 16개소, 지역 43 → 57개소)하고,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취약지 주민들을 위해 분만실 설치 및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내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132



집단급식 식중독 예방 및 영양·위생관리를 위해 영양사가 없는 노인·장애인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46개소 추가(전국 68 → 114개소)

설치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인프라 보강을 위해 대국민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예산을 확대(3 → 48억원)하고, ‘중독재활센터’를 전국단위로 구축(3 → 시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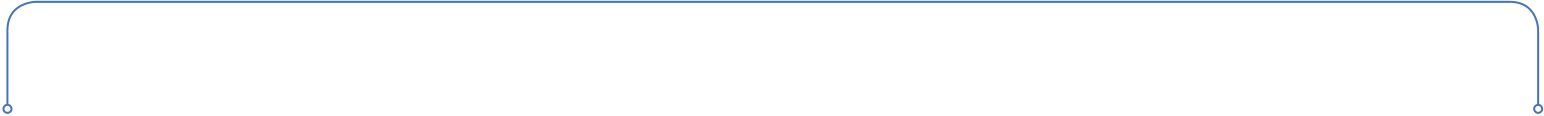
17개소)할 계획이다.

[표 1-11] 건강보험·보건의료 및 식품의약품안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주요내용 |
| |  | | --- | | 합 계 |   건강보험 | 200,275  124,102 | 188,432  137,070 | △5.9  10.4 | - ‌건강보험가입자자원  (일반: 9.2 → 10.3조원)  (기금: 1.8 → 1.9조원) |
| 보건의료 | 69,409 | 44,125 | △36.4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0 → 472억원)  - ‌정신건강 증진사업  (1,171 → 1,271억원)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511 → 1,940억원)  - ‌응급의료기관지원  (306 → 546억원) |
| 식품의약안전 | 6,764 | 7,237 | 7.0 | -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598 → 631억원)  -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37 → 159억원)  -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35 → 76억원) |

133



<참고1> 일자리 분야

**참고**1-1 **재정지원 투자방향**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총 29.2조원으로 2023년 30.4조원 대비 △3.9%

감소한 수준이다.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도록

일자리 사업을 재구조화 했다.

☞ (2023년) 30조 3,700억원 → (2024년) 29조 1,914억원 (△3.9% 감소)



정부는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반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대되거나 한시사업, 집행저조 등의 이유로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내실화한다. 이로인해 일자리 사업 총량은 일부 축소(△3.9%)되었다.

유형별로 취업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노인

중심으로 대폭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88.3 → 103만명)하여 노인 10명중

1명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직업훈련 사업은 집행이 저조한 일부 사업은

구조조정하되, 첨단분야인력양성(3.6 → 4.4만명) 등 유망산업분야를 확대 지원한다.

고용서비스에 대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1.2 → 0.9조원)

하되, 대학일자리+센터(403 → 828억원), 청년일경험지원(553 → 1,718억원), 해외취업

지원(468 → 575억원) 등 청년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종합지원은 대폭 확대한다.

고용장려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0.4조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0.2조원),

고용유지지원금(△0.1조원) 등 청년고용난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장려금사업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육아휴직급여는 대폭 확대(13.2 →

16.9만명)한다. TIPS(3,681 → 3,411억원) 등 창업지원사업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한다.

최근의 고용상황 개선 등을 반영해 구직급여(161 → 158만명), 두루누리(128 → 97만명)

134



등 실업소득 유지·지원사업은 일부 조정하되, 최근의 장애인 고용상황 개선세를

지속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61.1 → 63.3만명) 등 장애인지원사업은 확대한다.

[표 참고1-1] 일자리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지원  장애인지원 | 303,700  31,837  27,467  17,745  50,634  31,944  134,404  9,669 | 291,914  35,569  26,112  16,389  43,123  31,147  129,172  10,401 | △3.9  11.7 △4.8 △7.6 △14.8 △2.5 △3.9  7.6 |

135



**참고**1-2 **주요 지원내용**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혜자별 종합지원체계 구축

최근 고용시장의 전반적인 호조에도 청년 고용 개선세는 미약하다. NEET청년, 일반구직청년, 고역량청년, 빈일자리 취업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인 「청년 희망·UP 패키지」를 지원한다.

먼저, 「발굴 → 구직의욕고취(상담·훈련 등) → 맞춤형 일경험 → 온보딩(직장조기적응)」 등 NEET 청년에 대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NEET 청년에 대한 종합 지원을 위해 전국 10개소에 NEET청년플랫폼을 신설하고, 일경험 지원을 위해 NEET청년일경험프로그램을 6천명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일반 청년에 대해서도 고용서비스, 일경험, 취업비용 부담경감 등 현장 체감형 사업을 종합 지원한다.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전문계고·대학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대폭 확대(3 → 17만명)하고, 청년일경험지원(2.6 → 4.2만명) 및 일자리도약장려금(신규 →   
12.5만명)도 확대 지원한다. 또한 취업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층에 국가기술 9 자격시험비용의 50%를 신규로 경감한다.

고역량 청년에게 첨단산업·해외 등 유망분야 양질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유망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사업(+1,276억원), 첨단분야직업훈련(3.6 → 4.4만명)을 대폭 확대한다. 해외 취업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지원을 300명 규모로 신설하고, K-Move스쿨도 대폭 확대(2,100 → 3,100명)한다.

끝으로 조선업 등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빈일자리 기업으로의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인난 기업 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빈일자리장려금을 2.5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136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일가정양립을 통한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맞돌봄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기간을 18개월로 6개월 연장한다. 출산 후 1년 이내 영아기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12 →   
사용할 경우 지원 상한을 높여주는 영아기 특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상한도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을 8 → 12세로 확대하고, 급여 100% 지원하는 시간을 주 5 → 10시간으로 확대하며, 사용기간도 최대 24 → 36개월로 확대한다.

또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사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단축 활용에 따른 업무대행자에게 사업주가 수당 지급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중구조,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노동개혁 뒷받침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장시간 근로관행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기업·정규직-하청·비정규직」간 격차 완화를 위해 원하청이 참여하는 직무성과 임금체계개편 컨설팅을 신설하고,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원하청 상생연대 기금 신설 등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을 강화하며, 위험공정교체 지원 확대 등 격차완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월 30만원의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을 0.7만명 규모로 신설하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컨설팅도 확대하여 지원한다.

137



|  |  |
| --- | --- |
| 02 | 교육 분야 |

2-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감소했다. 감소분의 대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68.9조원, 전년 대비 △6.9조원 감소)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제외할 경우 2.1% 증가한 수준이다. 2024년 교육 분야 투자를 통해 기본·보편적 교육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첨단분야 핵심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대학의 자율혁신 및 지역중심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고, 디지털 교육혁신 및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해소  
누리과정(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보편적인 유치·초중등과정 교육수요를 충분히 지원하면서 학교폭력·다문화·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교육수요를 포용한다. 저소득층 대학생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을 대폭 확대하여 누구에게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및 현장실습 지원금, 평생교육바우처 등 직업·평생교육도 지속 지원한다.

 대학의 자발적 혁신 유도 및 국립대학 시설·인프라 강화  
등록금 동결,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여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되, 혁신 성과에 따른 배분 비율을 높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한다. 국립대학은 생활안전, 첨단 기자재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사립대학은 경영자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체계적 구조개선을 촉진한다.

138



 지역 중심 대학혁신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역과 지방대학이 상생하여 발전하고 지방대학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특화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 재정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혁신역량을 갖춘 우수한 지방대학에 집중 투자하여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 인재양성 부트캠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혁신융합대학 등 교육기간·대상·수준 등에 따라 세분화되는 다양한 산업수요 맞춤형 산학연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혁신 및 글로벌 역량 강화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운영 지원 등으로 디지털혁신을 촉진하고, 해외 한국어교육 및 유학생 유치 활성화, 학생 교육교류 지원 등 글로벌 역량 강화 투자를 확대한다.

[표 2-1] 교육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유아및초중등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 962,730  809,120  757,607  140,100  11,977  1,533 | 898,217  737,290  668,732  146,713  12,636  1,578 | △6.7  △8.9  △9.1  4.7  5.5  3.0 |

139



2-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세수여건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학령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 2024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7.2조원, △8.9% 감소한다.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보편교육을 차질없이 지원하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신설한다.

☞ (2023년)80조 9,120억원 → (2024년)73조 7,290억원(△8.9%)



기본적·보편적인 의무·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누리과정(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 3.2조원), 고교 무상교육(0.9조원) 등을 지속 지원한다. 유아교육·보육 예산의 경우 2023년 1월에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따라 기존 국고·지자체 부담 예산은 유지하되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노후 학교시설의 증·개축을 지원하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은 교육 현장의 여건과 학생·학부모·교원 등 수요자 요구에 맞추어 유연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규 추진 물량은 교육청으로 이관하되, 국고를 지원하여 추진했던 기존 물량의 공사소요는 지속 지원한다. 사업 진행상황에 맞추어 2024년에는 전년대비 △14.9% 감소한 3,585억원을 지원한다.

소외계층의 특수한 교육수요를 포용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폭력 피해회복 정책연구, 지방의 학교폭력 피해 대응기관 관리 등 학교폭력 피해회복 지원을 신설한다(4.5억원). 장애학생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분석, 장애학생 고등교육에 종사하는 교직원 대상 연수, 장애학생 진로·취업·복지 컨설팅 및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하기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사업도 신설한다(13억원).

140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여건 변동에 따라 전년대비 △9.1% 감소한 68조 8,732억원이 교육청에 교부된다. 초·중등교육 부문의 기본 교육 지원과 유보통합 기반 마련, 늘봄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주요 교육개혁 과제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분의 0.8% 규모로 신설된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및 방과후 교육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에듀테크를 지원하는 예산도 확대한다. 에듀테크 기업에게는 실증 기회를, 교육수요자에게는 에듀테크 활용 기회를 제공하여 에듀테크 확산을 촉진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5개소를 추가 구축하여 8개소를 운영(16 → 53억원)할 예정이다.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에듀테크 프로젝트(16억원), 에듀테크 체험·평가 플랫폼 구축(10억원) 등 에듀테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신설한다.

[표 2-2]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 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고등학교 무상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 809,120  757,607  34,700  4,212  9,028  18 | 737,290  688,732  32,106  3,585  9,439  97 | △8.9  △9.1  △7.5  △14.9  4.6  441.6 |

141

 고등교육 부문



교육부문간 투자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등교육에 적극 투자하여 2024년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0.7조원, +4.7% 증가한다. 저소득층 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대학생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권한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한 지역대학을 전폭 지원한다. 대학의 자발적 혁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개편하고, 국립대 시설·인프라 투자 및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계와 협력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2024년)14조 6,713억원(+4.7%)☞ (2023년)14조 100억원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모든 기초·차상위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하여 학비 부담을 완전 해소하고, 국가장학금 소득 1∼6구간의 저소득가구 대학생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인상한다. 소득 9구간 이하 대학생 대상 근로장학금 지원인원을 2만명 확대하고(12.4 → 14.4만명), 금리 1.7% 수준의 대학생 생활비 대출한도도 50만원 인상(350 → 400만원)한다.

청년층이 모이는 대학을 지역혁신의 원동력으로 활용하여 지역과 지방대학이 상생 발전하고, 지방대학을 통해 지역산업 특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지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한다. 기존 대학지원사업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E)’으로 통합·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직접 투자 분야와 지원대학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대학지원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지역대학 중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집중 투자하는 글로컬대학 육성 지원도 확대한다. 2026년까지 비수도권 지방대 총 30개교를 선정하고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사업 등을 활용하여 교당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2023년 10개교 선정에 이어 2024년 10개교를 추가 선정한다.

142



등록금 동결,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여 대학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을 15.1% 대폭 확대하면서(2.1 → 2.4조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배분 비율을 높여(대학·전문대 혁신지원: 30 → 50%, 국립대학 육성·지방대학 활성화: 40 → 60%) 성과중심 자율혁신을 유도한다.

국립대학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반보수비, 범용 기자재 투자를 축소하고, 석면교체, 장애인 편의시설 등 생활안전 투자, 반도체 등 고가·첨단 기자재 교체(+243억원), 동물실험실 구축(+188억원) 등 첨단 기자재 확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사립대학의 경우 경영위기 학교의 회생 및 퇴로마련 등 체계적 구조개선을 위한 경영자문 컨설팅

|  |
| --- |
| 지원을 확대한다(4 → 30개교).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항공분야 등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될 첨단분야를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한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특성화 대학을 10개교 신규 지정하여 총 18개를 지원하고,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단기 실무중심 집중교육과 취업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신규 지정 17개교를 포함하여 반도체 분야에 총 27개교를 지원한다. 석박사 대학원생의 학업·연구를 지원하는 두뇌한국 21 사업은 신규 지원 3개교를 포함하여 반도체 분야에 총 13개교를 지원한다.

기타 첨단분야 인재양성도 대폭 확대한다. 첨단분야 대학원 3개교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중소·중견기업 특화인재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전공과 상관 없이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대학·산업계가 협력하여 첨단분야 교육을 제공하는 혁신융합대학은 첨단신소재 등 신규 5개 분야를 포함한 18개 분야를 지원한다. 이차전지(4개)·차세대디스플레이(4개)·바이오헬스(4개)·항공우주(3개) 등 반도체 외 4개 첨단분야에 대해 인재양성 부트캠프 15개교를 지원한다.

143

교육부문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고등교육 투자를 강화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대폭 확대(총지출 기준 +5.8조원, 회계이관·신규사업 5.2조원 포함)한다. 특별회계에

대한 교육세 지원분은 전년대비 +0.7조원(1.5 → 2.2조원) 확대되며, 교육세 외 일반

회계에서의 전출도 전년대비 +5.3조원(8.2 → 13.5조원)으로 확대한다.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총지출 규모는 9.7 → 15.5조원으로 확대된다.

[표 2-3] 고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한국장학재단 출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대학혁신지원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 140,100  45,664   3,674  11,520   4,580   25   9,110   2,547 | 146,713  47,205   3,674  12,025   5,722   53  10,046   4,438 | 4.7  3.4  14.2  4.4  24.9  111.8  10.3  74.2 |

144



 평생·직업교육 부문



전문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하여 평생·직업교육 기반을 다지고, 재외동포 교육, 해외 한국어 교육, 학생 교육교류 등 글로벌 교육역량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 (2023년)1조 1,977억원 → (2024년)1조 2,636억원(+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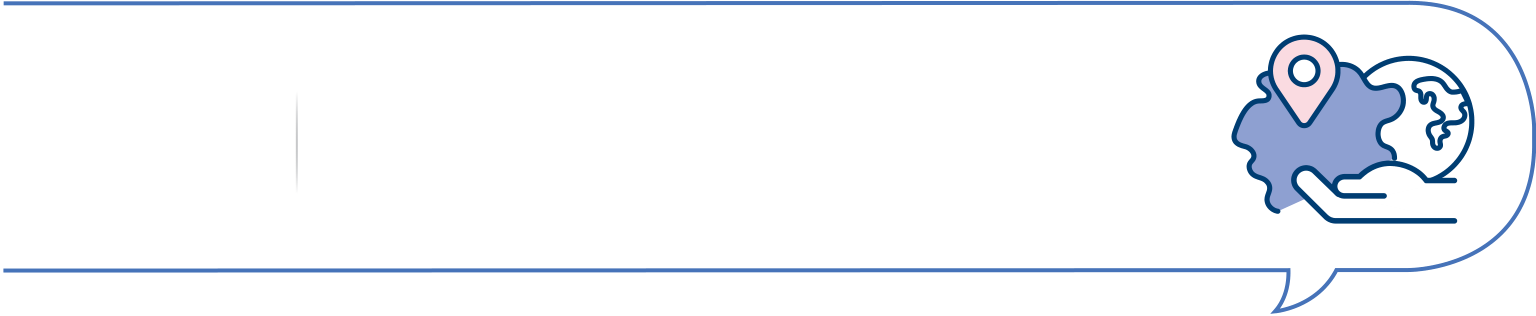
평생·직업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 혁신 지원을 확대하고(+559억원), 대학 자율혁신 유도를 위해 혁신성과에 따른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30 → 50%)한다.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교육(+127억원), 해외 한국어 보급(+24억원), 학생교육교류(+13억원)를 확대하고 글로벌 교육지원, 디지털 교육 세계화,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 등 교육분야 ODA 투자(+289억원)도 강화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56억원). 총 지원인원을 2만명 늘리고(6 → 8만명), 그중 장애인은 별도 유형을 신설하여 지원인원을 3배로 확대한다(3 → 9천명). 현장·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관리를 위해 2.3만명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표 2-4] 평생·직업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전문대학 혁신 지원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해외 한국어 보급 | 11,977  5,620  206  784  187 | 12,636  6,179  262  912  211 | 5.5  9.9  27.3  16.2  13.0 |

145



|  |  |
| --- | --- |
| 03 | 문화·체육·관광 분야 |

3-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73조원으로 2023년 8.61조원보다 1.5%

증가하였다.

청년,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 맞춤형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과 해외 진출 기반을 구축한다. 콘텐츠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 공급하고 수출기업

현장 밀착 지원하는 등 콘텐츠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한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환경을 조성해 지역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 스포츠대회에 맞춰 스포츠산업 및

전문·생활체육 지원확대한다.



 <민생> 청년,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 맞춤형 민생예산 대폭 증액

2024년 시범사업으로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16만 명을 대상으로 순수예술(공연·

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연 10만원)’를 지원한다.

또한 ‘꿈의 오케스트라’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예술활동 지원(67억원 → 107억원)을

강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17억원, 신규)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인턴

운영(9억원 → 23억원), 청년문화주간 개최(1억원, 신규)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정부의 문화정책을 진단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11만원 → 13만원)이

인상되고, 생활체육활동을 보조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 대상(10만 6천명 →

14만명)과 지원 금액(월 9만 5천원 → 유·청소년 10만원, 장애인 11만원)이 모두

확대된다.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 건립(6억원 → 56억원) 등 노인세대 지원사업

(468억원 → 502억원)과 장애예술인 지원(262억원 → 291억원)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

(2,701억원 → 2,855억원)도 대폭 확대한다.

146



 <자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 및 해외 진출 기반 구축미술유통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요 행사 계기 특별전을 개최하는 등 한국미술을 본격적으로 선보인다(47억원, 신규). 특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케이(K)-아트 특별전(17억원, 신규)은 국제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동(두바이), 유럽(파리, 밀라노) 등 권역별 중심지에 우리 공예품을 전시, 판매(13억원 →   
21억원)하고, 동남아 3개국 대상 명품 국악공연(3억원, 신규)을 선보이는 등 활동 반경을 크게 넓힌다. 원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출판사의 수출을 돕는 ‘케이(K)-스토리마켓’(5억원, 신규), 부산국제아동도서전(6억원, 신규) 등 출판 수출 지원 예산(68억원 → 81억원)도 증액됐다.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등 6개 국립예술단체와 2개 전속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 공연예술인을 대폭 확대(95명 → 295명)해 청년 공연 예술인들의 무대 경험을 확대하고 잠재력 있는 예술인을 발굴한다.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비전속)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아트페어 참여, 마케팅, 비평지원 등 시장 진입 (13억원, 신규)도 적극 지원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 거주 청년예술인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역 공연예술단체도 지원(90억원, 신규)한다.

|  |
| --- |
| 또한, 문학·시각예술·공연 창작공간을 제공(27억원 → 100억원)해 작품활동에 전념할 |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간접지원을 강화한다.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부산 국제아트센터 등 주요 문화예술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187억원 → 432억원)하는 한편, 우수한 신작 공연의 발굴·지원도 꾸준히 강화(88억원 → 139억원)하는 등 예술 생태계의 저변을 단단하게 조성할 예정이다.

 ‌<미래> 콘텐츠 정책금융 1조 7천 4백억원 공급, 수출기업 현장 밀착지원 등 콘텐츠산업 성장동력 강화  
모태펀드와 달리, 투자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를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세계시장을 공략할 대형 콘텐츠 제작이

147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80억원 → 250억원) 등 케이(K)-콘텐츠 펀드 출자를 확대(1,980억원 → 2,950억원)해 2024년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천 4백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10개소를 172억원)해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새롭게 조성(102억원 →   
사업 연계(비즈매칭)를 지원하는 등 해외시장개척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콘텐츠 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일본 도쿄에는 현지 법인설립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현지 임차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기업지원센터가 들어선다(47억원, 신규). 이와 함께, 지난 11월 ‘지스타’ 개최, ‘롤드컵’ 우승 등으로 높은 관심을 모은 게임업계를 지원하고자 해외 진출(83억원 → 133억원) 등 게임산업 육성 예산(661억원 → 679억원)도 확대해 ‘수출 영업사원’ 행보를 이어간다.

이 밖에도 ‘챗 지피티(Chat-GPT)’로도 급부상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92억원, 신규)을 지원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후반작업) 양성 프로그램(10억원, 신규)을 도입해 산업기반을 다진다. 동시에 85억원), 선도형 저작권 핵심 기술개발 세계 저작권 현안 신속대응 연구(20억원 →   
연구(43억원, 신규) 등을 통해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침해대응 역량을 높이고, 케이(K)-콘텐츠 ‘내돈내산 프로젝트’ 예산(3억원   
→ 17억원)을 확대해 저작권 존중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나아가, 한류 확산으로 관심이 높아진 해외 한국어 610억원)을 강화하는 학습 수요를 고려, ‘세종학당’을 통한 해외 한국어 보급(562억원 →   
등 우리 콘텐츠의 가치 창출을 모든 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균형>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등 문화·관광으로 여는 지방시대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2억원 → 193억원), 대전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 스튜디오 (125억원, 신규) 등 청년들의 선호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 맞춤형으로 창출한다. 이밖에도 기존 24개 문화도시 조성 지원과 함께 새로 선정된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앵커사업을 시범 지원하고(364억원   
→ 390억원),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시설로 탈바꿈 (235억원 → 313억원)하는 등 지역의 문화 접근성도 높여 거주 만족도를 향상한다. 국립예술단체의 대형 지역공연(80억원, 신규)과 함께 지역문화시설, 직장에도 다양한

148



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고(62억원, 신규), 문화취약지역과 인구소멸지역 대상으로 문화

예술교육을 지원한다(80억원, 신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늘리기 위해 남부권의 지역 명소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광역관광개발사업(55억원 → 278억원)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와 산업관광

(443억원 → 607억원), 둘레길 여행(33억원 → 54억원), 반려동물 동반여행(10억원 →

15억원)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투입된다. 잠재력 있는 지역축제를 세계적인

규모로 키우기 위한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사업(25억원, 신규)’을 새롭게 시작하고, 일

평균 관광객 약 2,500명이 방문하는 종로구 하이커 그라운드(HIKR GROUND)에는 지역

소도시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행사 등을 개최한다(10억원, 신규).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상품가격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3억원 → 30억원)의 발급 대상 지역을 올해 15개에서 2024년 40개 지역으로

넓히고, 관광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융자(4,465억원 → 5,365억원)와 이차

보전(26억원 → 52억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에서의 민간 소비와 투자도 함께 촉진할

계획이다.

 ‌<활력> 스포츠산업 및 전문·생활체육 지원확대, 인문학을 통한 심리지원

등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 기대

2024년에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 등 대형 국제

스포츠대회가 열린다. 우리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수당·식비·국외

훈련비 등 국가대표 훈련지원(515억원 → 570억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청소년대표

(34억원 → 51억원)와 꿈나무선수(53억원 → 60억원) 육성도 강화해 차세대 국가대표를

적극 발굴한다. 나아가 향후 국내 개최 예정인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개최도 내실 있게 준비한다(464억원, 신규). 특히,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스포츠, 예술, 패션, 전통문화 등 다양한 역량을 선보이는 대규모 올림픽 마케팅을

전개한다(86억원 → 201억원).

149

국제대회 개최 및 참여 기회를 계기로 국내 유망 스포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30억원, 신규)하고, 스포츠산업 펀드 출자(100억원 → 300억원)를 대폭 확대한다.

스포츠산업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규모의

융자(800억원 → 1,637억원)도 제공한다. 전 국민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를 개선(2.5% 인상)하고, 체육지도자 양성 예산

(33억원 → 42억원)과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 지원 예산(23억원 → 33억원)도 증액하는 등

현장의 불편을 완화한다. 특히, 스포츠클럽(293억원 → 303억원)의 특화프로그램을

확대(120개소 → 150개소)해 스포츠클럽의 내실도 다진다.

이 밖에도 인문 문화 활용 심리지원을 제공(19억원, 신규)해 외로움과 고립감 해소,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마약 근절 등 장기 캠페인을 확대(40억원 → 47억원)하는 등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문화재 맞춤형 보존·전승 강화 및 보편적 향유 확대

문화재 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화재 유형별 맞춤형 보존·전승을

강화하여 단절 위기에 놓인 무형유산 전승 기반을 강화한다.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사회적 소외계층이 문화유산 향유에 차별과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표 3-1]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본예산)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행정 일반  문화재 | 86,059  40,022  12,339  16,398  3,792  13,508 | 87,349  40,628  13,161  16,164  3,737  13,659 | 1.5  1.5  6.7 △1.4 △1.5  1.1 |

150





3-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문화예술 부문



문화로 따뜻해지는 사회를 위해 문화적 취약계층의 문화소비를 활성화하고, 인문문화가치 확산 및 문화로 소통·연대를 강화하며, 전통문화·한국어 등 우리문화 자산의 가치를 제고한다.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 창제작을 활성화하며, 지방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프로그램 및 지방의 문화예술 기반 확충을 강화한다. 또한,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한국 예술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린다. K-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OTT중심 산업구조 개편 대응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전략 펀드·완성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 및 콘텐츠기업 해외진출 거점을 확대하며, IP확보 전제 OTT 방송 제작지원 및 IT 후속활용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K-콘텐츠 관련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교육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

|  |
| --- |
| ☞ (2023년) 4조 22억원 → (2024년) 4조 628억원 (1.5% 증가) |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새롭게 도입하여 성년기 진입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최대 15만원을 16만명에게 지원하고,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여 취약계층의 문화향유권 지원을 확대한다.

도서관·서점 등 문화시설을 활용한 인문프로그램(700개) 운영, 지역인문확산센터(시범 4개소) 운영, 지역소멸·고령화 등 인문·문화프로젝트(200팀) 추진 등 인문문화가치 확산을 통하여 문화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다.

K-콘텐츠의 원천인 전통문화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한복·한지·한식·전통놀이 등 전통문화 중점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세종학당을 통한 해외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고, 한글·한국어의 산업화 지원을 통해 한글의 가치를 제고한다. 또한 기존 24개 문화도시 조성 지원과 함께 새롭게 승인된 지자체 13곳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을 시범 지원한다.

151

창작 중단 위기에 있는 예술인에게 창작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예술활동준비금을 취약계층 예술인 2.3만명에 지원하며,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 다양성의 가치 실현을 위해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유 등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전문 문화시설(전시장 등) 조성을 통해 장애인의 혁신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창작공간활성화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실력 있는 예술가들이 전시·공연 등 작품 발표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망 작품에 대한 후속지원을 통해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민 수요 및 공연장 역량 등을 고려한 공연 창제작 유통 지원을 다각화하고,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기반이 열악한 지역에 대표 예술단체의 육성을 지원하며, 국립예술단체에서 청년 예술가에게 교육 및 무대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K-컬처 차세대 주자를 발굴하고 양성한다. 또한, 한국미술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 신규로 한국미술 해외 쇼케이스 사업을 추진하며, 그간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던 화랑에 전속되어 있지 않은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창작, 전시, 유통 등을 신규 지원한다.

한국 공연예술의 정수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2024년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프랑스 각지에서 국립발레단 등 국립예술단체들의 해외공연을 추진하며, 파리올림픽(7∼8월) 기간 동안 전세계 방문객을 대상으로 파리 현지 시내에서 한국미술 특별전을 개최하여 K-미술을 전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K-콘텐츠 수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2023년) 544억원 → (2024년)742억원)하여 국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해외 현지에서 콘텐츠기업의 수출을 종합지원하는 해외비즈니스센터를 확대하고((2023년) 15개소 → (2024년)25개소), 국내 기업의 현지 법인설립과 입주공간 등을 지원하는 해외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일본 도쿄에 새롭게 설치한다.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 개최와 해외 홍보관 운영을 유럽과 중동까지 확대하여 K-콘텐츠를 중심으로 콘텐츠와 제조업·서비스업의 동반 해외진출을 도모한다.

152



중소기업 위주의 민간투자가 어려운 콘텐츠 산업에 자금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K-콘텐츠 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2023년)1,900억원 → (2024년)2,700억원)한다. 또한 운용상 제한이 없는 콘텐츠 전략펀드를 새롭게 조성(800억원, 신규)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위험부담이 큰 콘텐츠 제작비 조달 지원을 위해 완성보증 공급규모도 늘리고, 지속적인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콘텐츠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콘텐츠 기업 대상 이차보전 사업도 확대한다.

콘텐츠 스타트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지원방안도 확대한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예비 창업-초기 창업(창업 3년 이내)-도약(창업 4∼7년)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해외 마켓 참가기업을 확대하여 우수 스타트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창의성의 핵심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콘텐츠 기획·제작과 첨단기술 분야 현장형 교육을 실시하는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하고, 글로벌 문화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R&D)과 만화·웹툰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을 신규 추진한다.

콘텐츠 강국의 위상에 맞게 글로벌 저작권 현안 신속대응 연구, 선도형 저작권 핵심 기술개발 연구 등을 통해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침해대응 역량을 높이고, 저작권 존중 인식전환 프로젝트인 K-콘텐츠 내돈내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또한, 저작권 법률전문가와 창작가가 함께 찾아가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여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한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 입체적 언론수용 능력을 높이고, 방송영상제작사의 IP 협상력 제고 및 특수시각효과 기반의 첨단 가상제작 스튜디오 구축(’24~’25년 250억원) 등을 통해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성장단계별(초기-도약-성장) 맞춤형 육성프로그램(30억원)으로

153

중소출판사를 중점 지원하고, 출판IP·아동도서·웹소설 등 수출품목 다양화를 통해 출판업계의 성장을 지원한다.

[표 3-2] 문화예술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K콘텐츠 펀드 출자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함께누리 지원  미술진흥기반구축  예술창작지원(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문화도시 조성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 40,022  1,900  1,235   946   24   869   262   356   516   544   364   841 | 40,628  3,400  1,115   973   514   874   291   447   588   742   390   882 | 1.5  78.9 △9.7  2.9  2,075.8  0.6  11.0  25.5  13.9  36.4  7.0  4.9 |

154



 관광 부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수출 확대에 집중하고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케이(K)- 관광콘텐츠를 발굴·육성한다. 특색있는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하는 한편 지방의 관광 인프라·거버넌스 혁신으로 지방관광시대를 본격화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업체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관광산업의 융합·고부가화로 산업영역을 확장하여 산업의 질적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상생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지 안전 관리 및 관광서비스 품질개선에도 노력한다.

(2024년) 1조 3,161억원 (6.7% 증가)☞ (2023년) 1조 2,339억원 →



2024년은 국제관광이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 2019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24 한국방문의 해’ 마케팅을 더욱 공세적으로 펼쳐 나가고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6월), 대형 한류 페스티벌(9월) 등 다양한 행사를 연중 개최하여 범국가적 방한 관광 환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인천공항에는 케이(K)-관광·컬처존을 새롭게 조성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실감형 콘텐츠로 방방곡곡 명소와 주요 행사를 홍보한다.

해외에서는 주요 25개 도시에서 ‘케이(K)-관광 메가 로드쇼’를 열어 전 세계적인 한류 열기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한다. 신규 방한 수요가 있지만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점이 없는 사우디, 브라질 등 10개국에 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설치해 맞춤형 관광 주제 발굴, 현지 교류망 구축 등을 통한 신시장을 개척해 나간다.

한국만의 독보적인 케이(K)-관광콘텐츠도 적극 육성한다. 지역축제를 벗어나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를 선정해 육성하고 작년에 전 구간 조성을 완료한 ‘코리아 둘레길’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코리아 둘레길 세계적 브랜드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케이(K)-팝, 케이(K)-드라마 등 케이(K)-콘텐츠를 활용한 한류 관광과 케이(K)-스포츠를 접목한 스포츠관광을 활성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의료와 케이(K)-미용(뷰티) 열기를 활용해 최근 주목받는 ‘치유관광’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55

국내외 관광객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관광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방문 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시범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새로운 관광 흐름으로 떠오른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콘텐츠와 경관명소, 관광여건을 갖춘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조성해 지역에 하루 더 숙박·체류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체류형 여행을 더욱 확산한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 지역 주도적 관광콘텐츠 발굴과 개발을 지원하고, 섬 관광 활성화 등 독창적 매력이 있는 지역자원을 발굴·육성하는 지역균형관광 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관광사업체의 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기금 융자사업을 총 6,365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관광기금 융자는 전년 대비 900억원 증가한 5,365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작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이차보전 사업 예산을 증액해 총 1,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유통채널이 부족한 중소여행사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채널 진출과 보안인증 절차를 지원하는 ‘중소여행사 여행상품 유통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지원과 관광벤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관광기업지원센터도 기존 2개소(싱가포르, 도쿄) 외 1개소를 추가 설립해 우리 관광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한다.

156



[표 3-3] 관광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관광산업 융자지원  템플스테이 지원  관광산업 도약 및 성장지원  2024 한국방문의 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열린관광 환경 조성  한류관광 활성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포스트코로나 메가로드쇼  야간관광 활성화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신흥·잠재시장 현지 방한 유치전선 확대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인천공항 내 K-관광 컬처존 조성  글로벌 축제 육성  K-브랜드 활용 한국관광 협업광고  코리아둘레길 세계적 브랜드 육성 | 12,339  4,491   230   173   100   87   82   80   55   46   37   28   -  -  -  -  -  - | 13,161  5,417   250   185   178   116   107   110   278   76   48   67   40   30   30   25   20   13 | 6.7  20.6   8.7   6.9  77.5  33.3  30.5  37.5  405.1  67.0  29.7  143.6   순증  순증  순증  순증  순증  순증 |

157

 체육 부문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 및 취약계층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등 생활 속의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대표선수 훈련 여건 개선 및 체육인 복지 시스템 구축 등 전문체육 육성 환경을 조성하며, 스포츠산업 혁신을 확대 지원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제대회 개최·참가 및 국제스포츠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 (2023년) 1조 6,398억원 → (2024년) 1조 6,164억원 (△1.4% 감소) \* 주요감액: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감액(△889억), 주최단체 지원 감액(△258억)



생활체육 분야는 지정스포츠 클럽의 특화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생활체육동호회 리그 운영 사업비를 현실화하여 지역 스포츠 활동의 저변을 강화한다. 또한,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보장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대폭 확대((유청소년) 9.2만명 → 12만명, 9.5만원 → 10만원, (장애인) 1.4만명 → 2만명, 9.5만원 → 11만원)한다. 스포츠 주간을 계기로 대국민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취약계층 프로스포츠 경기관람권 할인, 대국민 공모전, 캠페인 등의 신규사업도 편성 하였다. 이 밖에도 유아체육교실, 해달맞이 체조교실의 운영 개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전문체육 분야는 무직장 국가대표 선수의 생활 안정과 훈련 강화를 위해 훈련일수 확대를 지원하고, 국가대표 선수 훈련식비 증액(44천원 → 50천원),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 인상, 진천선수촌 수영장 경영풀 환경 개선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편성하였다. 또한 체육분야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의 확대 지원으로 조사·상담 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으로 인권침해·비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윤리센터의 스포츠 인권 침해·비리 조사 기능을 강화하였다.

158



스포츠산업 분야에서는 스포츠산업 규모를 ’27년까지 100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융자, 펀드 등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을 역대 최대규모로 지원하고 스포츠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융자 지원(’23년 800억원 → ’24년

|  |
| --- |
| 1,637억원)과 펀드(’23년 100억원 → ’24년 300억원) 예산을 확대하여 영세 스포츠 |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스포츠콘텐츠, 스포츠이벤트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펀드 투자를 강화한다.

스포츠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 창업센터를 통한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스포츠 분야의 선도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확대 편성하여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2만 명의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전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생활대축전을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체육 리그전을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체육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시작한다. 장애인 선수 훈련 급량비·숙박비 현실화, 전력분석관 신설, 스포츠 등급분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선수 훈련기반 강화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2024 파리패럴림픽 대비하여 선수단 참가 지원과 사전캠프· 급식지원센터 등 현지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기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국제스포츠 분야에서는 2024 파리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에 우리 선수단의 안전한 참가를 지원하고, 국내에서 개최 예정인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 개최도 내실 있게 준비한다. 또한, 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핑방지활동 사업 확대 지원 및 개도국 스포츠발전지원 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159

[표 3-4] 체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우수선수 양성지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펀드)  국제대회 참가 지원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장애인)국제대회 참가 등 지원 | 16,398  852  1,247  800  101  80  371  2  60 | 16,164  1,203  1,460  1,637   303   88   580   60   107 | △1.4  41.2  17.1  104.7  200.2  9.8  56.2  2,392.5  78.8 |

 문화재 부문



누구나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를 실현하고 국민이 공감·참여하는 국가유산 보호체계를 도입하며, 세계 속 우리 유산의 위상을 제고한다.

☞ (2023년) 1조 3,508억원 → (2024년) 1조 3,659억원 (1.1% 증가)



문화재 행정 6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 출범(’24.5월)에 앞두고 그 간의 보존과 규제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과 상생하는 정책을 통해 국가유산의 미래가치를 증진한다.

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과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시 필요한 매장문화재 표본·시굴조사 비용도 지원한다.

160



무형유산 월정 전승지원금 인상(보유자 150 → 200만원, 일반보유단체 360 → 380만원,

|  |
| --- |
| 자율전승단체 550 → 580만원), 전승 취약종목의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단절 위기에 |

놓인 무형유산 전승 기반을 공고히 한다.

궁중문화축전, 창덕궁 달빛기행 등 궁능 활용 콘텐츠를 확대하고 무장애공간 조성,

배려대상자 초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이 차별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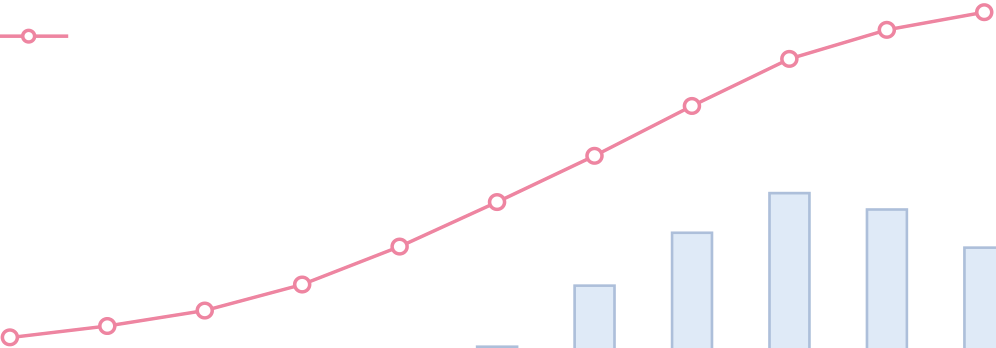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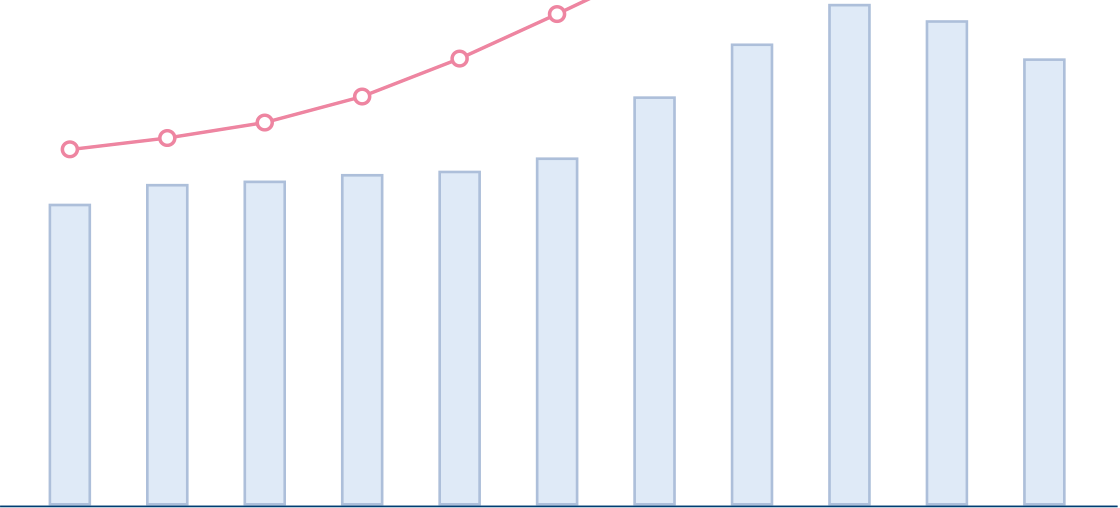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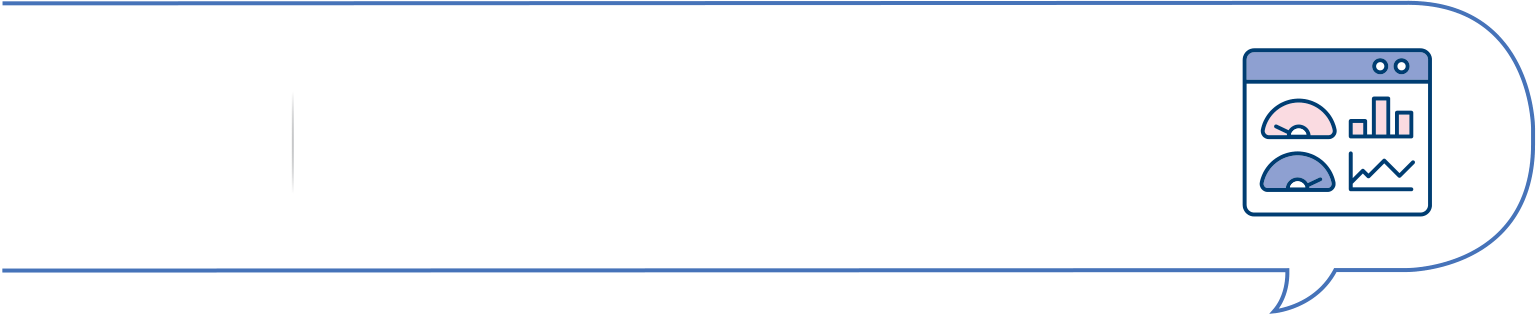
지원을 강화한다.

[표 3-5] 문화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 무형유산원운영  궁궐문화재관리운영  조선왕릉보존관리 | 13,508  4,634  505  425  259  320 | 13,659  5,173  623  527  337  441 | 1.1  11.6  23.3  23.8  30.3  37.7 |

161



|  |  |
| --- | --- |
| 04 | R&D 분야 |

4-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그간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해오며 발생한 비효율·낭비요인을 구조조정하고, 도전적·혁신적인 R&D에 집중 투자한 결과이다.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AI·바이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Flagship)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 선진기술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관분 제외시



 도전적·혁신적 R&D 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

[그래프 4-1] 정부 R&D 투자 추이(2014∼2024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원) |  | R&D예산 | | |  |  |  |  | 607.7 | 638.7 | 656.6 | 700 | |  | 정부총지출 | | | | | 40.0 | 428.8 | 469.6 | 512.3 | 558 | 29.8 | 29.3 | 26.5 | 600 | | 35.0 | | 30.0 | 355.8 375.4 386.4 400.5 | | | | 20.5 | 24.2 | 27.4 | 500 | | 25.0 | | 400 | | 20.0 | 17.7 | 18.9 | 19.1 | 19.5 | 19.7 | 300 |   1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00 | | 5.0 | 100 | | 0.0 | 0 | |

\* ’23년·’24년 예산: 이관분 제외

162



우리나라 R&D 재정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D램 반도체(’86~’89), 고속전철 기술개발(’96~’01) 등 여러 성공사례를 양산하며 우리 경제 고도성장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R&D 예산은 최근 3년간 약 10조원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R&D 투자 과정을 점검하여 비효율·낭비요인을 정상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집중 투자하였다.

2024년 R&D 예산은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분야에 투자해야 하는 정부 R&D 본연의 역할에 따라 기초원천 기술, 차세대기술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 활용될 계획이다. 우선,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대규모 전략프로젝트(Flagship)를 추진하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R&D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연구자의 연구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국외연구기회 확대 등 연구 지원에도 집중 투자한다.

[표 4-2] R&D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과학기술·통신 분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교육 분야 보건·복지 분야 SOC 분야 기타 부문 | 310,778  100,223  75,714  29,879  10,979  11,030  82,953 | 265,369  92,663  65,548  13,802  12,078  8,379  72,899 | △14.6 △7.5 △13.4 △53.8 △10.0 △24 △12.1 |

163



4-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 R&D 집중 지원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2023년) 4.7 → (2024년) 5.0조원으로 +0.3조원(7.3%) 확대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전년대비 7.3% 증액된 5.0조원 규모로 AI, 첨단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혁신기술의 내재화에 집중한다.

우선 AI 학습역량 및 신뢰성, 활용성 문제 해소를 위해 세계 Top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현재 초거대 생성 AI의 한계 극복을 통한 신뢰성 있는 기술개발 및 초거대 생태계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한다((2023년) 7,051억원 → (2024년) 7,772억원).

또한, 신약, 줄기세포, 첨단의료기반기술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을 확대하고, 바이오헬스에 AI, 빅데이터 등 ICT·디지털을 융합한 첨단바이오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2023년) 8,288억원 → (2024년) 9,772억원). 아울러, 양자기술 등 차세대 통신·컴퓨팅 핵심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산업 혁신을 촉진할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2023년) 1,080억원 → (2024년) 1,252억원).

다음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술패권 격화에 대응하여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의 기초 단위인 대학 반도체 연구실(Lab)의 역량을 강화하고, 반도체 설계 검증에 필요한 장비고도화 및 팹 연계도 추진한다. AI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워크로드 분석, 데이터 처리 가속, 메모리 중심 인터페이스 등 국산 AI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성능 고도화 핵심기술개발 등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2023년) 6,401억원 → (2024년) 7,368억원).

164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력 확보를 위해 핵심 소재·셀에 대한 민간수요 기반 조기 상용화 등을 추진하고, 안전한 국가 사이버환경 조성과 ICT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보안위협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2023년) 1,653억원 → (2024년) 1,904억원). 국내 우주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자생력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 파급력 및 전략적 활용성이 큰 우주분야 연구결과의 성과 확산, 정책연구 지원을 추진하고, 첨단 우주부품 개발 및 발사체 개발역량 강화, 한국형 위성의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 등 우주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한다((2023년) 7,508억원 → (2024년) 8,362억원).

[표 4-3] 국가전략기술 R&D 지원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사이버보안  우주 | 7,051  8,288  1,080  6,401  1,114  1,653  7,508 | 7,772  9,772  1,252  7,368  1,364  1,904  8,362 | 10.2  17.9  15.9  15.1  22.4  15.2  11.4 |

165

 대규모 전략프로젝트(Flagship) 추진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대규모 전략프로젝트인 KARPA-H 프로젝트(2024년 495억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2024년 100억원) 등을 추진한다.



KARPA-H 프로젝트는 바이오 난제 해결 및 보건의료기술 확보를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해당 분야에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5대 임무를 도출하고, 혁신적 R&D 지원 체계를 구성하여 도전적 과제를 선정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0년간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먼저, 보건안보 확립을 목표로 5년내 100일내 백신 개발·생산을 하고 10년 내 원인불명 감염병을 5분내 신속차단하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개발·생산 플랫폼, 바이러스 유전자 직접 억제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10년내 암 발생률을 50%가량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맞춤형 암 예방 백신, 신경회로 표적 통증경감 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 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여 필수 의료사업을 고도화하고 10년내 지역 의료이용률을 90% 이상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중심 연구인프라, 중환자실 통합관리 등 디지털 전환을 병행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하여 5년내 거대 AI를 활용한 환자 맞춤형 의료체계를 도입하고, IoT·로봇 기반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근감소증 치료와 낙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은 우주경제 시대 대비 민간 주도 우주개발 역량 강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이다. 우주 시대 개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전남, 경남, 대전을 국가 우주산업 육성 거점으로 지정하고 민간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특화지구별 거점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166



전남은 발사체 특화지구로 우주 발사장 확장을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를 집적하여 산업생태계 촉진으로 “아시아의 우주항(Spaceport)”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경남은 위성 특화지구로 우수한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위성 제조·개발 인프라를 집적하여 적기의 위성 개발을 지원하고, 우주환경시험시설 확충 및 위성개발혁신센터 건립으로 위성산업의 주력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은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국내 최고 산학연 기반으로 고급 인력 양성의 산실로 도약하여 미래 도전적 우주 연구개발의 허브를 완성할 계획이다. 대전 부근 핵심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연계·결집 및 우주 인재양성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오픈 플랫폼으로서 인재양성센터를 운영하고, 산·학·연 연계 교육 및 맞춤형 실무 교육 지원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혁신이 빠른 국가 첨단전략산업(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초격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미세공정 한계 극복을 위한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친환경 모빌리티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Post-OLED로 무기발광(ILED)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첨단 전략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 등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국가현안 해결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변혁적 기술 개발을 위해 한계도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는 임무지향형 변혁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HRHR(High-Risk, High-Return)의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로 책임 PM을 선정하여 국가 현안, 경제·산업 이슈와 관련한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 문제를 정의하고 사업의 기획-선정-평가에 주도적 역할 수행을 추진한다.

167

[표 4-4] 대규모 전략프로젝트 추진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KARPA-H 프로젝트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초격차 프로젝트  한계도전 프로젝트 | - - - - | 495  100  800  200 | 순증 순증 순증 순증 |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국제협력 강화



국내 연구진·자금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체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R&D 지원을 확대한다((2023년) 0.5 → (2024년) 1.8조원).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경쟁력 확보와 세계최고 인재양성에 정부 R&D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국내·외 세계최고 그룹간 공동연구, 신진 연구자 해외선도연구 참여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미국 유수 대학·연구소(MIT 등)에 협력 거점을 구축하여 지속성 있는 협력추진, 해외 우수과학자 국내 유치 등 인적교류 투자를 강화한다.

우선, 첨단바이오 분야의 선진기술 접목 및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지원한다(’24년 854억원). 이는 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한 팀이 되어 바이오 대전환에 대응하는 것으로, 국내 대학병원의 축적된 의료 데이터와 보스턴 선도연구 기관의 기술융합으로 디지털기반 진단치료 기술 및 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분야의 美 글로벌 선도 기관과 국내 기업·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사업화 지원으로 글로벌의사 과학자 양성을 지원하며, 한·미 양국의 국립암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을 통한 암예방, 진단, 치료, 예후예측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168



 신진연구자의 연구 정착과 발전 지원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연구자(만 39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내)의 초기 탐색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연구발전을 지원한다((2023년) 0.4 → (2024년) 0.5조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배터리, 자율주행, 항공, 로봇 등 다양한 기술분야에 대해 공동 R&D 및 인력교류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상호 석박사·연구원급 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연구기관 간 협력사업 등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확대한다.

특히 연구력이 왕성한 만 39세 이하 신진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국외연수 기회를 대폭 늘리는 등 연구 경력 초기부터 선진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연구장려금 및 대학원생 대통령 장학금을 확대·신설하여 국내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169



|  |  |
| --- | --- |
| 05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5-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규모는 28.0조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한 수준이다.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을 적극 뒷받침한다. 아울러, 고효율 에너지구조 전환,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에도 역점을 두었다.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뒷받침하고, 투자 인센티브 강화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위해 범부처 수출 지원사업 규모를 (2023년) 1.5조원 → (2024년) 1.9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유망산업인 원전·방산·플랜트 거점무역관을 (2023년) 37개소 →   
(2024년) 58개소로 확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 3,984개사, 해외전시회 5,646개사 지원을 통해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해외·국내복귀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 확충을 위해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을 전년대비 4배인 2,000억원, 유턴보조금을 전년대비 2배인 1,000억원 지원한다.

 효율적 에너지 사용 지원 및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2023년) 34.7만원 → (2024년) 36.7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진단, 고효율 설비 보급 지원도 확대한다. 한편, 미·중 무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170



핵심광물 공공 비축물량을 (2023년) 42 → (2024년) 60일분까지 확대하고, 국내유전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재정 출자·융자 지원 비중을 최대 30∼4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인력양성 투자 확대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방위적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인프라에 1.3조원을 지원한다. 특히,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업투자 인센티브로서 전력·용수·도로·폐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신설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 실증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저리 융자도 9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또한, 자동차·바이오·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별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장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제조업 기반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그린 산단을 3개소 추가 선정하고 산단 내 공동활용 시설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글로벌 창업지원, 지역벤처 활성화 등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국내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270개사 → 290개사 내외)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한다(20개사, 40억원). 또한,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팁스기업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870 → 1,000개사 내외).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K-스카우터 제도를 신설하고, 인도·베트남 등 SW 인력과 우리나라 기업간 매칭 추진하는 사업도 신설한다(400명 매칭 추진).

171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내외 청년창업가가 자유롭게 창업하고, 머물 수 있도록 수도권에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 클러스터와의 협업 등을 통해 글로벌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비은행권 차주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1.5%p 감면하고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기기 등 보급을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전기료 20만원 감면을 지원한다.

4.0만명으로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2.5 →   
확대하고 지원율을 최대 50%에서 최대 80%로 상향한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5만개, 발행 규모를 +1조원 확대한다.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속을 위해 스마트상점·공방 보급을 0.7 → 0.8만개로 확대하고, e커머스 소상공인 8만명 육성 등 지원을 지속한다.

[표 5-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무역 및 투자유치  창업 및 벤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혁신지원  지식재산일반  산업·중소기업일반 | 260,038  9,156  39,864  90,906  49,304  60,082  3,556  7,169 | 279,937  9,417  39,225  105,351  51,734  63,146  3,577  7,487 | 7.7  2.8 △1.6  15.9  4.9  5.1  0.6  4.4 |

172





5-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2023년 상반기 감소세를 보이던 수출 실적을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투자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 (2023년) 9,156억원 → (2024년) 9,417억원 (2.8% 증가)



2023년 상반기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 실적을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뒷받침한다.

조선업 수출에 필수적인 RG 특례보증을 신규 2,000억원 공급하는 등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원전·방산·플랜트 등 새로운 수출 유망산업을 현지에서 뒷받침하는 거점무역관을 37개에서 58개로 확대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수요가 큰 수출바우처는 (2023년) 3,473개사 → (2024년) 3,984개사로 확대한다. 단체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지원기업 수를 (2023년) 5,478개사 → (2024년) 5,646개사로 늘리는 한편, 지원단가도 최대 12.6백만원에서 15.1백만원으로 현실화한다.

해외기업·국내복귀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을 (2023년) 500억원 → (2024년) 2,000억원, 유턴 보조금을 (2023년) 570억원 → (2024년)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173

[표 5-2]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비 고 |
| |  | | --- | | 합 계 |   수출지원기반활용(바우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기금 출연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 9,156  1,441  3,029  500  500 | 9,417  1,679  3,213  450  2,000 | 2.8  16.5  6.1 △10.0  300.0 |  |

 창업 및 벤처 부문



글로벌 창업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2023년) 3조 9,864억원 → (2024년) 3조 9,225억원 (△1.6% 감소)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국내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270개사 → 290개사 내외)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한다(20개사, 40억원). 또한,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 1,000개사 내외).팁스기업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870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K-스카우터 제도를 신설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도 신규 조성한다. 인도·베트남 등 SW 인력과 우리나라 기업간 매칭 추진하는 사업도 신설(400명 매칭 추진)하였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내외 청년창업가가 자유롭게 창업하고, 머물 수 있도록 수도권에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 클러스터와의 협업, 국내외 창업인프라와 연결 등을 통해 글로벌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74



[표 5-3] 창업 및 벤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비 고 | | |  | | --- | | 합 계 |   민관협력창업자육성 창업사업화지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모태출자(중진기금·소특회계) | 39,864  1,865  3,889  22,300  3,135 | 39,225  2,065  3,777  20,078  4,540 | △1.6  10.7 △2.9 △10.0  44.8 |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부문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 혁신, 글로벌 인증 등을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 (2023년) 9조 906억원 → (2024년) 10조 5,351억원 (15.9% 증가)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정부역량을 집중하여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지원하고, 제조데이터 표준화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제조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민간· 지자체와 협업하여 기초 단계 스마트공장을 지속 지원하고, 로봇·자동화 설비지원 등 기업 역량별(우수·보통·취약)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글로벌 혁신특구를 본격적으로 조성(2023년, 4곳)하고 글로벌 인증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개발역량 강화, 신산업분야 비즈니스 창출을 적극지원한다. ’24년에는 글로벌 혁신특구 3곳을 추가로 지정하여 지역 기반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비은행권 차주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1.5%p 감면하고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기기 등 보급을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전기료 20만원 감면을 지원한다.

175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2.5 → 4.0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율을 최대 50%에서 최대 80%로 상향한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5만개, 발행 규모를 +1조원

확대한다.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속을 위해 스마트상점·공방 보급을 0.7 → 0.8만개로

확대하고, e커머스 소상공인 8만명 육성 등 지원을 지속한다.

[표 5-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비 고 |
| |  | | --- | | 합 계 |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소상공인재기지원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 90,906  11,931  3,641  2,529  1,514  2,050 | 105,351 14,789  4,232  942  1,663  2,245 | 15.9  24.0  16.2 △62.7  9.8  9.5 |  |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中企·소상공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원전사업 생태계 복원, 해외자원개발 지원 강화,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에너지공급망 안정을 적극 뒷받침한다.

☞ (2023년) 4조 9,304억원 → (2023년) 5조 1,734억원 (4.9% 증가)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가구 기후민감계층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2023년) 34.7만원 → (2024년) 36.7만원으로 인상하여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진단을 지원하고, 고효율설비

설치를 위한 보조·융자 지원을 확대하여 근본적 에너지 절감을 뒷받침한다.

176



한편, 그간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여건이 성숙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을 조절하고, 침체되어 있던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2천억원 규모의 원전 분야 맞춤형 융자·보증사업을 신설하고, 원전사업 거점무역관을 (2023년) 10개 → (2024년) 16개로 확대하는 등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리튬 등 핵심광물의 공공 비축물량을 (2023년) 42일분 → (2024년) 60일분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 석유공사의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정부의 출자·융자 비율을 (2023년) 30∼40% → (2024년) 최대 50%까지 상향한다.

[표 5-5]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비 고 |
| |  | | --- | | 합 계 |   에너지바우처 원전생태계금융지원 원전수출 특별보증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유전개발사업출자 | 49,304  1,910 - - 372  301 | 51,734  6,856  1,000  250  2,518  481 | 4.9  259.0 순증 순증 576.2  59.8 |  |

 산업혁신지원 부문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파급력 있는 R&D 성과창출을 위하여 첨단전략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 차세대 인재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혁신을 지원한다.

☞ (2023년) 6조 82억원 → (2024년) 6조 3,146억원 (5.1% 증가)



R&D 구조개혁 과정에서 그간의 투자를 점검하고 비효율·낭비요인은 정상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투자는 적극 지원한다.

177

우선 국가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첨단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2023년 9,376억원 → 2024년

11,410억원). 이와 더불어 자동차(2023년 2,345억원 → 2024년 3,485억원), 로봇

(2023년 1,069억원 → 2024년 1,174억원) 등 기존 주력산업과 신산업 관련 R&D를

확대하여 기존 산업의 우위와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또한, 주력산업 차세대 기술 확보, 미래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공동연구를

확대하고(2023년 1,061억원 → 2024년 1,658억원), 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등

산업 분야별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 지원을 강화한다(2023년 1,357억원 → 2024년

1,575억원).

차세대 원전 혁신기술 개발 확대(2023년 39억원 → 2024년 333억원)를 통하여 원전

생태계 복원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조기실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기술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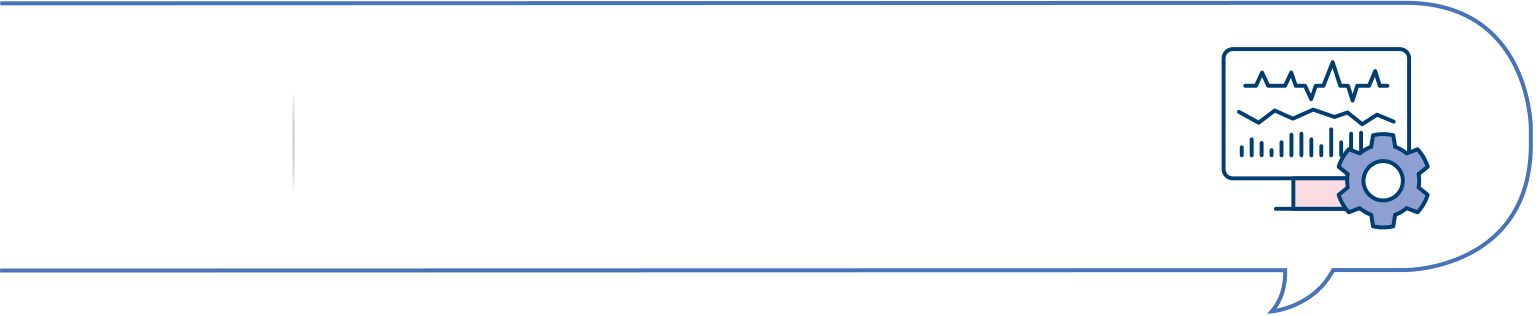
지원을 확충한다(2023년 2,737억원 → 2024년 3,217억원).

[표 5-6]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비고 |
| |  | | --- | | 합 계 |   소재부품기술개발(R&D)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로봇산업기술개발(R&D) 산업기술국제협력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 60,082  9,376  2,345  1,069  1,061  1,357  39  2,737  811  345 | 63,146  11,410  3,485  1,174  1,658  1,575  333  3,217  374  160 | 5.1  21.7  48.6  10.5  56.3  16.0  753.8  17.5 △54 △54 |  |

178





|  |  |
| --- | --- |
| 06 | SOC 분야 |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 안전 투자, 대중교통 활성화 및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집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적정화 추진   
그간 확장재정이었던 정부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SOC 분야도 투자 규모를 재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집행여건 및 연차별 소요 등 사업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실제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으로 적정화하되, 완공 예정사업의 잔여사업비 등 적기 준공을 위한 필수소요는 빠짐없이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권역간 이동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기존노선(A·B·C)의 개통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지원하고, 신규 고속도로 등 핵심 국가교통망 적기개통 및 지역 혁신거점 조성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성장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대중교통을 누구나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폐지하고 K-패스를 도입하여 이용 편의성과 할인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179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산업 투자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 등 미래 교통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 추진한다.

 체감도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SOC 안전투자 확대   
노후도로 포장정비, 철도 탈선사고 방지 및 근로자 작업안전 시설, 국가하천 제방정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노후 SOC 유지보수 및 시설개량 투자를 확대한다.

[표 6-1] SOC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율 ((b-a)/a) |
| |  | | --- | | 합 계 |   도로 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물류등기타 지역및도시 산업단지 수자원 | 249,881  78,408  75,968  18,880  3,435  31,515  22,631  3,361  15,682 | 264,422  79,779  81,021  20,401  8,906  30,739  18,503  3,080  21,994 | 5.8  1.7  6.7  8.1  159.3 △2.5 △18.2 △8.4  40.3 |

180





6-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도로 부문



고속도로, 국도 등 기간교통망 확충 투자를 지속하여 국가 균형발전 및 국민 편의를 높이고, 첨단도로교통체계·교량IoT 시스템 구축 등 도로 분야 인프라 디지털화를 통해 실시간 안전관리 강화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대비 인프라를 확충한다.

☞ (2023년) 7조 8,408억원 → (2024년) 7조 9,779억원 (1.7% 증가)



고속도로는 연차별 투자소요, 집행률 및 집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종-안성, 안성-구리,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주요사업에 투자하고, 안성-구리, 파주-포천 고속도로 등의 2024년 준공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며, 서청주-증평 등 신규 고속도로 사업도 착수한다.

일반국도의 경우, 남일-보은2 등 21건 준공사업 및 고성-통영, 춘천-화천 등 77개 계속사업의 연차별 계획에 따른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여수 화태-백야, 신안 압해-화원 해상교량의 지속적인 추진과 영·호남 구간을 연결하는 남해-여수 해저터널의 착공 등을 위해 적극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자도로는 평택-부여-익산 등 실시협약에 따른 의무지출성 예산(통행료 미인상보조금, 건설보조금 등) 뿐만 아니라, 민자 先보상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토지보상비를 지원한다.

한편, 교량·터널 등 노후시설 유지관리 및 지하차도 침수방지 등을 위한 선제적인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교량 및 비탈면 IoT 시스템 구축 등 상시관측을 통해 위험을 자동감지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SOC 디지털화도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방음터널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민자도로 방음터널·방음벽을 교체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할 계획이다.

181

[표 6-2] 도로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고속도로 국도 민자도로 도로관리 지자체도로건설지원 | 78,408  16,791  19,765  10,735  26,377  4,740 | 79,779  18,272  18,530  10,165  27,350  5,462 | 1.7  8.8 △6.2 △5.3  3.7  15.2 |

 철도 부문



기존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를 차질없이 지원하는 가운데 타당성이 확보된 신규 사업에 신속히 착수하여 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한다. 또한 권역간 이동성 확보를 위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비수도권 광역철도 투자에 집중하는 한편, 빠르고 안전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후 철도시설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 (2023년) 7조 5,968억원 → (2024년) 8조 1,021억원 (6.7% 증가)



고속철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인천발·수원발 KTX 연결, 고속철도 병목구간 선로용량 확보 평택~오송 2복선화, 운행속도 향상을 위한 전용선 신설, 수색~광명 고속철도건설 등 6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일반철도는 2024년 개통 예정인 포항~삼척, 포승~평택(안중~오성), 서해선, 이천~문경(충주~문경), 포항~동해, 도담~영천(안동~영천) 및 장항선복선전철 (신창~홍성) 사업의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월곶~판교, 인덕원~동탄, 여주~원주 등 착공 사업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충북선고속화와 기본계획 중인 문경~김천 철도건설, 호남선(가수원~논산) 사업도 일정에 맞춰 설계를 추진한다.

182



광역철도 부문은 수도권 별내선(암사~별내)은 2024년 6월 개통하고, 광역급행철도 (GTX) A·B·C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중 대구권 광역철도(구미~동대구~경산) 및 대구1호선 연장(안심~하양)을 개통하여 지방광역철도 시대를 최초로 개척하고,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충청권광역 철도 등 진행 중인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도시철도는 광주도시철도2호선 및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사업 등 주요 사업의 본격적 추진과 울산도시철도 1호선 등 신규 사업의 착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도시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시설 개량 및 도시철도 차량 교체 지원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철도망 확충 이외에도 기존 노후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도 지속 투자하여 국민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교량, 터널, 전기설비 등 각종 철도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최근 탈선 사고 증가에 따른 예방을 위한 선로개량 확대 및 첨단장비 투입을 확대하고 중대재해 처벌법 대비 근로자 작업안전시설(안전난간, 사다리 등) 투자도 확대하는 등 국민체감이 큰 분야에 대해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표 6-3] 철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철도안전및운영 도시철도 | 75,968  4,423  22,229  11,449  31,359  6,436 | 81,021  5,182  20,751  12,156  37,475  5,434 | 6.7  17.2 △6.7  6.2  19.5 △15.6 |

183

 해운·항만 부문



해운물류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거점항만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해운물류 산업의 세계 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선박 보급 지원 및 연안선박 인프라 펀드 출자를 지원하고, 도서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 노력을 보다 강화한다.

☞ (2023년) 1조 8,880억원 → (2024년) 2조 401억원 (8.1% 증가)



선박 대형화 등 세계 물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신항만·주요항 등 거점항만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태풍 등 재난재해 피해 방지를 위한 재해안전항만 구축 및 항만 유지보수, 부산항 등주요 3개 항만에 안티드론시스템 구축비를 신규 지원하여 안전한 항만 조성을 도모한다.

해운업계의 국제환경 규제 대응 지원과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외항선박 대상 친환경선박 대체 건조를 보조하는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투자를 확대하고,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에 추가 출자하는 등 선박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미래선박 시장 선도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R&D)도 확대 지원한다.

한편,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섬 주민 여객운임 보조,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지원, 국고 여객선 운영 등 관련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섬 지역 생활물류 관련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낙도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소외도서 항로 운영 개수도 확대하여 지원한다.

[표 6-4] 해운·항만 부문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해운·항만 | 18,880 | 20,401 | 8.1 |

184



 항공·공항 부문



항공수요 대응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항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제기준에 따른 항공안전 확보·유지에 적극 지원하며, 드론산업 등 미래항공시장 선도를 위하여 투자를 확대한다.

☞ (2023년) 3,435억원 → (2024년) 8,906억원 (159.3% 증액)



공항건설 부문은 국가 균형발전 및 도서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체계적으로 신공항건설을 추진 중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2024년 상반기 부지조성공사 발주를 거쳐 2024년말 착공을 추진하고,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은 중남부권 항공수요 대응과 지역의 성장거점 역할을 위하여 2024년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예정이다. 그 외 공항건설 사업에도 단계별 투자를 확대하여 촘촘한 항공 네트워크 구성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또한, 증가하는 항공수요 대응과 항행 안전확보를 위하여 활주로 연장, 안전시설 개량 등 기존 공항시설의 개선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항공산업 부문은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항공교통시장 선도를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UAM 상용화를 위한 실증지원을 확대하고,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비즈니스모델 발굴, 드론 활용 유망분야 실용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강화한다.

항공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회(ICAO) 이사국 파트 상향을 추진하고, 데이터 중심의 위험기반 안전관리가 가능토록 관계기관간 안전자산(데이터·기술· 지식) 공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시스템 고도·선진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185

[표 6-5] 항공·공항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b)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공항건설 및 관리  항공발전, 운영지원 | 3,435  1,601  1,834 | 8,906  7,374  1,532 | 159.3  360.5 △16.4 |

 물류 등 기타 부문



자율자동차, 모빌리티 등 미래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개편하여 추진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2023년) 3조 1,515억원 → (2024년) 3조 739억원 (△2.5%)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층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최대 60회까지 환급받는 K-패스를 도입한다.

기존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알뜰교통카드는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지원되는 구조로, 이동거리 측정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 시 매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실행이 필요해 이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새로 도입되는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적립이 이루어지므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며, 적립률도 알뜰교통카드보다 상향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8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알뜰 | ~2천원 | 2~3천원 | 3천원~ | | 일반 | ~250원 | ~350원 | ~450원 | | 청년 | ~350원 | ~500원 | ~650원 | | 저소득 | ~700원 | ~900원 | ~1,100원 | | 비고 | 이동거리 비례 적립(최대800m)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 | | | ⇨ | |  |  |  | | --- | --- | --- | | K-패스 | 적립률 | 예)1,500원 기준 | | 일반 | 20% | 300원 | | 청년 | 30% | 450원 | | 저소득 | 53% | 800원 | | 비고 | 이동거리 무관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 | |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미래 교통환경 대응과 지능형 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 및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모빌리티 부문 규제 샌드박스 운영」 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교통혁신을 위한 선도기반을 마련한다.

[표 6-6] 물류 등 기타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건설정책및기술 교통정책 물류정책 연구및행정지원 | 31,515  1,572  939  392  7,702 | 30,739  1,908  1,054  307  6,122 | △2.5  21.4  12.3 △21.8 △20.5 |

187

 지역및도시, 산업단지, 수자원 부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등 투자를 지속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 예산에 집중투자 한다.

☞ 지역및도시 : (2023년) 2조 2,631억원 → (2024년) 1조 8,503억원 (△18.2% 감소) (2024년) 3,080억원 (△8.4% 감소)☞ 산업단지 : (2023년) 3,361억원 →   
☞ 수자원 : (2023년) 1조 5,682억원 → (2024년) 2조 1,994억원 (40.3% 증가)



개발제한구역, 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 투자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 및 스마트시티 사업 유형 정비등을 통해 성과중심 체제로 개편한다.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자생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사업을 실시하고, 기업혁신파크를 지원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한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인프라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추진한다.

산업단지는 준공시기에 맞추어 진입도로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 사업을 지속 지원하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미래형 산업단지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사업을 실시하여 미래형 산단의 표준모델을 제시한다.

홍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기술 등에 우선 투자하여 인공지능 홍수예보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감시 강화를 위해 소형 강우레이더 2기(부산, 울산)를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홍수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하천유지보수 등에 지속 투자하고, 특히 제방정비율 향상을 위해 국가하천정비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반복 침수 지역인 도림천 일대 홍수예방을 위해 대심도 지하방수로(빗물 배수시설)도 추진한다. 다만, 지방하천정비는 재정분권에 따라 해당 하천관리청인 지자체에서 예산을 자체 확보하여 추진한다.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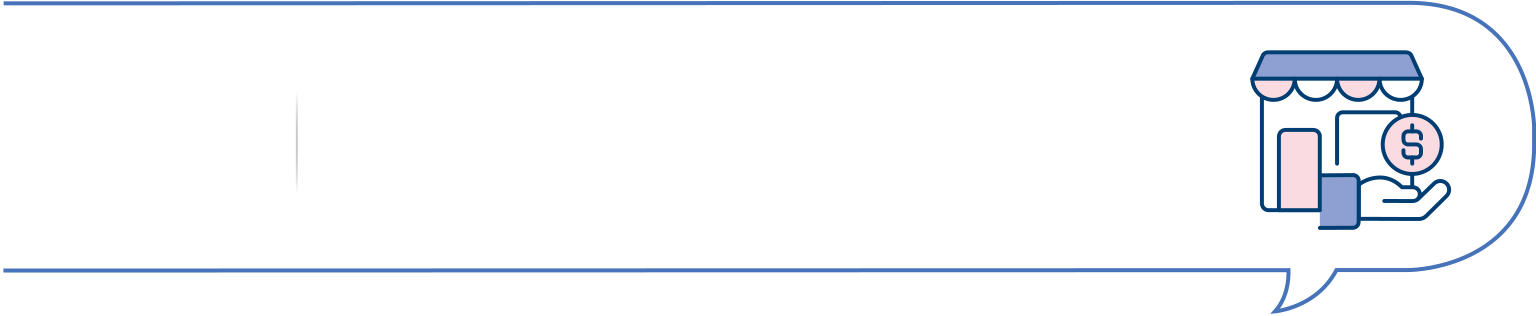


[표 6-7] 지역및도시, 산업단지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지역및도시 |   스마트시티  그린리모델링  도시개발및재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새만금 | 22,631  1,282  2,001  6,310  2,234  1,484 | 18,503  917  1,343  4,893  1,348  477 | △18.2 △28.5 △32.9 △22.9 △39.7 △67.8 |
| |  | | --- | | 산업단지 |   산업단지진입도로  산업단지지원 | 3,361  2,383  978 | 3,080  2,096  984 | △8.4 △12.0  0.6 |
| 수자원 | 15,682 | 21,994 | 40.3 |

189



|  |  |
| --- | --- |
| 07 |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

7-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5.4조원으로 2023년 24.4조원 대비 1조원, 4.3% 증가하였다. 고물가 위기 극복을 위해 농축산물 물가안정 투자를 늘리고,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쌀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농어업인의 경영·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빈도가 증가하는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높인다. 스마트 농어업 확산 등을 통해 농어업을 미래성장산업화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물가안정 및 식량주권 확보  
공급망 교란에 따른 물가불안이 장기화되면서 농축산물 등 국민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완화하면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등 식량안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선,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1,080억원 규모로 지속 지원한다. 또한,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2024년 상반기 한시적으로 지속하고,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7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규모로 저리 융자한다. 외식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재료 구매 등에 필요한 자금 저리 융자 규모를 (2023년) 150억원 → (2024년) 300억원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밀·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기반을 확대한다. 밀 대체가 가능한 가루쌀 생산 확대를 위해 생산단지 육성에 (2023년) 31억원 → (2024년) 95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 투자할 계획이다. 생산량 증가에 대응하여 제품개발 및 판로 확보를 위한 투자도 (2023년) 24억원 → (2024년) 45억원으로 늘린다. 국산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비축량을 (2023년) 2만톤 → (2024년) 2.5만톤으로 확대하는 한편,

190



계약재배도 늘린다. 국산 밀·콩에 대한 제품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해 신규로 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쌀 수급안정  
구조적 과잉 상태인 밥쌀 생산량을 줄이고, 밀·콩 등 전략작물 재배를 늘리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을 (2023년) 1,121억원 → (2024년) 1,865억원으로 확대한다. 논콩·가루쌀의 지급단가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여 재배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격리 중심의 사후적 쌀 수급관리에서 수급예측 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쌀 수급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업인 경영·생활안전망 확충  
소농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에 지원되는 직불금을 (2023년)

|  |
| --- |
| 120만원 → (2024년)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또한, 농가의 수입 변동성 완화를 |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7품목에서 10품목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경작하는 농지를 청년농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는 65~79세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을 신규 도입하고, 농지연금과 연계하여 은퇴농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  |
| --- |
| 자연재해 대응역량 강화 |

기후변화 등으로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홍수·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도 높인다. 저수지 범람에 따른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퇴적토 준설 예산을 (2023년) 30억원 → (2024년) 4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홍수위험 시 하류지역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침수위험이 높고, 설치된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배수장의 홍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성능개선을 추진하는 데 198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또한, 저수지 노후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을 (2023년) 6,518억원 → (2024년) 7,461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191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산불 진화 등을 위해서는 산림헬기 2기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11대를 추가 도입한다. 또한 산사태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해서 사방사업 예산을 (2023년) 2,210억원 → (2024년) 2,510억원으로 확대하고,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 등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사업도 (2023년) 120억원 →   
(2024년) 254억원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농어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육성하여 농어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도약시킨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4개소 추가 조성하고, 비축농지에 임대용 유리온실 15개소를 조성해 청년농에게 최장 20년간 임대한다. 영세한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이 공동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센터 3개소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기업육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1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2개소를 신규 구축하는 한편, 그린바이오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전용 생산시설 1개소를 새로 구축한다.

[표 7-1]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농업·농촌  수산·어촌  임업·산촌  식품업 | 243,775  177,423  29,560  27,945  8,847 | 254,285  185,578  31,228  28,540  8,939 | 4.3  4.6  5.6  2.1  1.0 |

192





7-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
| --- |
| 농업·농촌 부문 |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년농·스마트농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쌀 수급을 안정화하면서,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2023년) 17조 7,423억원 → (2024년) 18조 5,578억원 (4.6% 증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유입과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선정규모를 (2023년) 4천명 → (2024년) 5천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창업농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2023년) 720명 → (2024년) 860명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농이 창업초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농지 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축농지를 (2023년) 1,875ha → (2024년) 2,500ha로 대폭 확대하여 청년농에 저렴하게 임대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최장 30년간 장기 임대한 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선임대·후매도 지원물량도 (2023년) 20ha → (2024년) 40ha로 2배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농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대 주택단지를 8개소 추가 조성한다.

스마트농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4개소 추가 조성하고,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을 9.8ha 추가로 추진한다.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 12개소를 구축해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20년간 장기 임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축산 확산을 위해 스마트 축산단지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한다.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하고, 영농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간다. 경작면적 0.5ha 이하 소농 53만명에 대한 직불금을 (2023년) 120만원 → (2024년)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농가의 수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을 (2023년) 7품목 → (2024년) 10품목으로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70개에서 73개로 확대하여 농업 관련

193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중개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를 (2023년) 19개소 → (2024년) 70개소로 확대하고, 마늘·양파 등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밭농업 주산지 10개소에 파종·정식·수확 등에 필요한 농기계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공간정비를 (2023년) 85개소 →   
(2024년) 115개소로 확대하고, 빈집 등 유휴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농업인력 구조의 세대교체를 촉진한다. 농지를 청년농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는 농업인에 최장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신규 도입한다. 은퇴형 농지연금을 함께 지급하고, 10년치 임대료를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구조적 과잉 상태인 쌀 재배량을 감축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의 국내 자급기반을 늘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전략작물직불 지원을 확대하고, 쌀 재배 대체 촉진을 위해 논콩·가루쌀에 대한 직불금 지급단가를 ha당 (2023년) 100만원 → (2024년)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또한, 밀 비축량을 (2023년) 2만톤 → (2024년) 2.5만톤으로 확대하고, 콩의 매입·비축단가를 (2023년) 4,489원/kg   
→ (2024년) 4,667원/kg로 인상하여 밀·콩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사전적 쌀 수급조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쌀 수급예측 시스템을 신규 구축한다.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1,0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생에게 아침식사를 저렴하게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을 (2023년) 233만명 → (2024년) 4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낮춰 물가 상승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2024년 상반기 한시 시행하고,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규모로 저리 융자 지원한다.

194



농업기반시설의 재해대응 역량도 높인다. 노후 수리시설의 개보수 투자를 확대하고, 설치된 지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19곳의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2023년 홍수 피해지역과 인접한 4개 지구의 배수시설 준공시점을 2025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기고, 현재 추진 중인 배수개선사업지구 169개소에서 배수로, 배수문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설비를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배수개선사업 투자를 (2023년) 3,703억원 → (2024년) 4,535억원으로 확대한다.

[표 7-2] 농업·농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공익기능증진직불  맞춤형농지지원(융자)  수리시설개보수  농업자금이차보전  배수개선  수리시설유지관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 177,423  27,269  8,577  6,518  4,519  3,703  1,609  551 | 185,578  28,702  12,413  7,462  5,577  4,535  1,653  957 | 4.6  5.3  44.7  14.5  23.4  22.5  2.7  73.7 |

 수산·어촌 부문



수산물 수출·창업 지원을 적극 강화하고, 연근해·양식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여 수산물 안심 소비와 수급 안정을 강화하며, 그 밖에 어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 지원을 추진한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촌신활력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청년의 귀어 활성화 및 소득·복지 안전망도 지속 확충한다.

☞ (2023년) 2조 9,560억원 → (2024년) 3조 1,228억원 (5.6% 증가)



195

‘K-Seafood’의 수출·창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554 → 761억원)한다. 수산물

수출바우처를 대폭 확대(50 → 77억원)하고, 라이브커머스 활용 마케팅을 신규 추진

(34억원)한다. 또한 ’24년 파리올림픽 계기 유럽 내 K-Seafood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무역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수산벤처금융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컨더리

펀드도 신설(120억원)한다.

연근해·양식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대상

확대를 위한 연안수산자원 조사를 신규로 실시(70억원)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어업관리를 위해 어선위치·어획량 등 감시체계도 구축(15억원)한다. 또한 유휴·불법

양식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를 도입(3억원)하고,

친환경·스마트 양식 전환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25 → 50억원)한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2023.8.24.)에 대응하여, 우리 수산물을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방사능 장비 보급(누적 64 → 72대)을 지속하고, 위판장과

양식장 밀집 해역, 천일염전 등 주요 생산단계별로 방사능 검사를 대폭 강화(0.8 →

1.8만건)한다. 수산물 유통이력제의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여 이력 관리 물량을 대폭

확대(21.9 → 57.2만톤)하고, 年 2회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할인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640 → 1,338억원)하고, 수급안정을

위해 민간수매·정부비축 물량도 확대(6.6 → 7.8만톤)한다. 또한 수산업계 경영난 발생 시

조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약 7,000억원

확대(3.4 → 4.1조원)하고, 어업경영자금의 대출 한도도 5억원씩 상향한다.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5배 확대(200 → 1,000억원)한다.

그 외에 고유가, 전기요금 인상 등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수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45억원)과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56억원)을

’24년 한시 지원한다.

어촌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공간 혁신을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지속

196



추진(누적 65 → 100개소, 444 → 962억원)하고,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225 → 290명),

어선임대 확대(10 → 25척), 양식장 임대 신설(10개소, 3억원) 등 청년의 귀어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단가 인상(120 → 130만원/年)

등 수산공익직불제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어업인 특화 검진 대상도 대폭 확대(1.5 →

16천명)하는 등 소득·복지 안전망도 지속 확충한다.

[표 7-3] 수산·어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수출·창업지원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어촌신활력 증진 | 29,560  554  640 - 444 | 31,228  761  1,338  45  962 | 5.6  37.3  109.0 순증 116.7 |

197

 임업·산촌 부문



일상화,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임업인 소득안정 및

산림산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기여하며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 (2023년) 2조 7,945억원 → (2024년) 2조 8,540억원 (2.1% 증가)



연중·대형·동시다발 발생하는 산림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산불의 조기 진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산림헬기(4대 → 6대), 고성능 산불진화차

(9대 → 11대)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대형산불 예측 대응을 위한 과학기반 산불감시

ICT 플랫폼 구축(4개소 → 20개소)을 확대한다.

또한, 산불예방 숲가꾸기(17천ha → 26.8천ha), 숲가꾸기 산물수집(4.5천ha → 12.5천ha),

산불진화임도(262km → 409km) 등 산불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투자도 지속 추진한다.

선제적 산사태 재난 대비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실태조사(25천개소 → 45천개소)를

대폭 확대하고, 산사태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해 산림유역관리사업(25개소 → 68개소),

산지사방(200ha → 300ha) 및 계류보전(323km → 400km) 등 사방사업 투자를 확대한다.

임업인의 소득안정 및 임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임업직불금(566억원 →

620억원), 임업인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산림사업종합자금(이차보전)(+29억원)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과 소득창출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신규,

11억원)을 실시한다.

임도 시설 단가(253 → 278백만원/km) 및 사유림 매수 단가도 추가 인상(7.5 → 10백만원

/ha)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의 내실을 다진다.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이용 촉진을 위해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를 운영(신규,

6억원)하고, 목재친화도시(9 → 10개소), 목조건축 실연사업(6 → 11개소)도 지속

투자하여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198



산림휴양·치유 수요에 대한 국민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동서트레일(2차년도, 40km, 14억원)을 조성하고, 숲길 이용객 안전을 위한 숲길 안전관리 및 이용자 쉼터 조성(신규, 48억원)을 추진한다.

[표 7-4] 임업·산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숲가꾸기  사방사업  임도시설  조림  산림헬기 도입·운영  산불방지대책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 27,945  2,539  2,210  1,646  1,504  1,108  511  566 | 28,540  2,516  2,510  1,828  1,173  1,123  624  620 | 2.1 △0.9   13.6   11.1  △22.0   1.4   22.1   9.5 |

 식품업 부문



식품 분야 농식품 수출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수출 전문생산단지 및 수출통합·선도 조직 육성을 확대하고,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외식업체의 원가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한다.

☞ (2023년) 8,847억원 → (2024년) 8,939억원 (1.0%)



2023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수출 여건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2022년보다 3.1% 증가한 121.2억불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을 지속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수출농산물전문 생산단지 육성을 (2023년) 185개소 → (2024년) 200개소로 확대하고, 수출통합조직 및 선도조직 지원도 (2023년) 65억원 → (2024년) 245억원으로 확대한다.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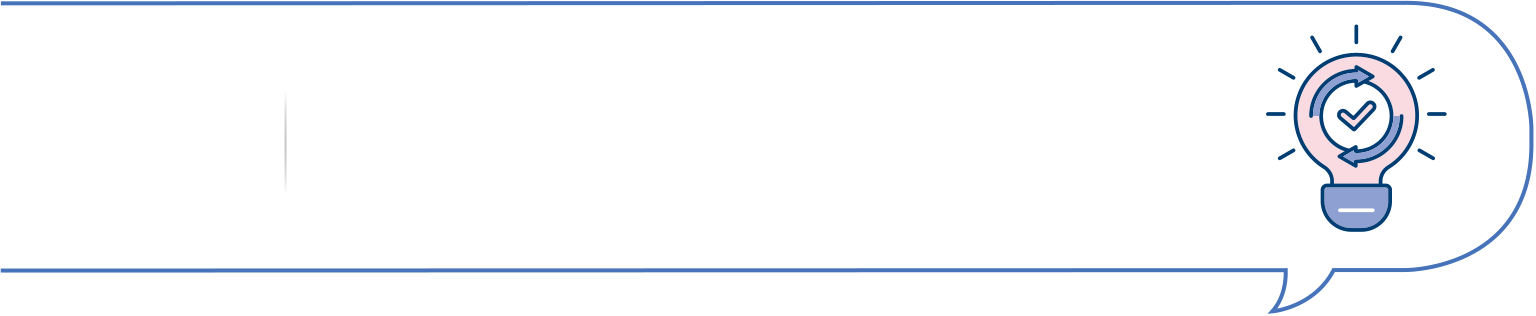
농식품수출업체가 희망하는 지원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을 (2023년) 44억원 → (2024년) 328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외에도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외식업체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 규모를 (2023년) 150억원 → (2024년) 30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지원센터를 3개소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푸드테크 R&D 공동연구과제 3개를 신규 추진한다.

[표 7-5] 식품업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농식품해외시장진출  식품산업인프라강화  전통발효식품육성 | 8,847  875  450  195  172 | 8,939  947  493  262  185 | 1.0  8.2  9.7  34.5  7.6 |

200





|  |  |
| --- | --- |
| 08 | 환경 분야 |

8-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환경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2.5조원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및 탄소중립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의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장  
일상화된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홍수 위험요소를 적극 관리하기 위해 국가하천 정비예산을 4,510억원에서 6,627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방하천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승격 및 국가-지방하천 합류구간(배수영향구간) 직접 정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홍수 방어 인프라도 적극 확충한다. 신규 댐 건설 등을 통한 물그릇 확대(’24년 10개소, 63억원)도 추진하고, 집중호우 시 상·하류(댐·하천 등)의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한 댐 최적방류(시기, 양 등)를 지원하기 위해 ‘댐-하천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물관리 기반(플랫폼)’도 구축한다. 또한,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시간(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23년 169억원 → ’24년 818억원)한다.

또한, 도시침수의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의 정비 및 상습침수구역 내 도시침수시설 신·증설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관련 예산을 1.7조원에서 2.3조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또한, 강남역, 광화문 등 일대의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저류터널(2개소) 사업의 총사업비를 6,000억원에서 7,769억원으로 늘렸다.

201

가뭄에 대응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후 상수관망 및 정수장 정비사업 예산을 2023년 대비 250억원(6.1%) 증액된 4,367억원으로 반영하였다. 아울러, 안정적인 산업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을 497억원(’23년)에서 529억원(’24년)으로 늘렸다.

 녹색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우리나라 산업이 녹색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맞게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현지 수주지원단 파견, 수출지원 전용 펀드 신규 조성 등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저탄소 경제로의 지속적 전환을 위해 전기차는 보급형·고성능 차량 중심으로 지원하고(’23년 30.8만대 → ’24년 33.2만대), 수소차는 상용차(’23년 920대 → ’24년 1,750대) 중심으로 지원한다. 또한 무공해차 충전인프라구축 사업 예산을 5,189억원(’23년)에서 7,344억원(’24년)으로 확대한다.

국민들의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유도를 위해 에너지 절감, 텀블러 사용 등 녹색생활 실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예산도 196억원(’23년)에서 271억원(’24년)으로 확대한다.

 환경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쾌적한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공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차열사업(쿨루프, 벽면녹화), 폭염쉼터 조성사업(그늘막, 소규모 물길쉼터) 등 국민 체감형 기후위기 적응시설 설치사업을 확대(’23년 74개소 → ’24년 80개소)한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14%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을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급여 예산을 2023년 277억원에서 2024년 455억원으로 확대하였다.

202





국립공원 내 무장애 탐방로(7개소, 18억원), 저지대 숲체험인프라(2개소, 16억원) 조성 및 탐방약자 프로그램 참여 확대(2024년 6천명)를 통해 소외계층 없이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자연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8-1] 환경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물환경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자연환경  환경일반  해양환경 | 122,487  44,048  45,230  14,605  10,181  5,015  3,409 | 124,943  48,640  44,528  13,698  9,041  5,522  3,513 | 2.0  10.4  △1.6  △6.2  △11.2  10.1  3.1 |

8-2 **부문별 주요지원내용**

|  |
| --- |
| 물환경 부문 |

노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을 정비하고, 도시침수시설 신·증설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3년 9,531억원에서 2024년 1조 2,816억원으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은 2023년 7,716억원에서 2024년 1조 241억원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도심지에 매우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에 대비해 지하에 대규모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을 강남역(총사업비 4,802억원)과 광화문(2,967억원)에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 산업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497억원에서 2024년 529억원으로 확대한다.

203





대심도 빗물터널(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광화문)

[표 8-2] 물환경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하수관로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 44,048  9,531  7,716  497 | 48,640  12,816  10,241  529 | 10.4  34.5  32.7  6.4 |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 온실가스 감축설비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277억원(2024년)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교체·설치 사업을 지원한다. 탄소무배출설비, 폐열회수이용 설비, 탄소포집설비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할

경우,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저탄소 전환을 촉진한다.

204



|  |  |
| --- | --- |
| 한편, 노후된 탄소중립 체험관에 최신 기술이 접목된 전시·체험 등 콘텐츠 제공으로 지역 주민에게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 및 생활 속 |  |
| 실천 문화로의 정착을 위한 탄소중립체험관 개선사업(4개 시·도)을 추진한다. |  |

< 탄소중립 체험관 >

|  |  |
| --- | --- |
|  | 탄소중립 사회로의 실현을 위해 전국 대학생으로 구성된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를 확대 모집 (2023년 51명 → 2024년 100명)하여 환경관련 |
|  | 주요 행사 및 탄소중립 실천캠페인에 참여 한다. |

<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 >

정부는 초미세먼지 개선목표(2027년 13㎍/㎥) 달성을 위한 부문별 감축노력과 함께 국민생활공간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방지시설 교체(설치) 비용을 2024년 49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송부문은 차종별 수요를 고려한 무공해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차는 보급형·고성능 차량 중심으로 지원하고(2023년 30.8만대 → 2024년 33.2만대), 수소차는 상용차(2023년 920대 → 2024년 1,750대) 중심으로 보급한다. 또한 노후건설기계 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굴착기·수소지게차 보급지원, 무공해건설현장 시범사업 등을 추진(2024년 약 68억)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국민생활공간 미세먼지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을 지원하고(2024년 90억원), 학교 등 생활주변에 설치되어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가스식 냉·난방기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205

부착·지원하는 사업을 본격화(2023년 1,000대 → 2024년 15,000대)하여 생활 속 대기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설비 개선 국고보조금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2024년 170억원).

< 역사 환기설비 > < 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 < 터널 환기설비 개선 >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 활동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민감·취약   
계층 환경보건 서비스, 환경오염 취약지역

공간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실내환경 개선 지원 전·후 비교>

지원을 확대하고, 민감·취약계층에 다양한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보건이용권 전자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시멘트공장(영월·제천), 난개발지역(’24년 27개소)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환경·건강·사회·경제 등 관련 정보 기반 환경보건감시 체계를 구축(’24년)하여 환경유해인자와 건강피해발생 위험을 감시·예측한다.

화학물질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하여 동물대체 시험시설 구축, 유해성평가를 위한 대체자료 생산 및 검증 등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를 개선한다. 화학물질정보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하던 시스템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화학물질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206



[표 8-3]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무공해차 보급사업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환경보건기반 강화 협력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사업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보호대책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 추진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구축·운영 | 45,230  1,260  3,808  25,652  5,189  72  95  49  58  9  567  14 | 44,528  666  3,464  23,193  7,344  78  111  31  77  25  618  55 | △1.6  △47.1 △9.0 △9.6   41.5   8.3   16.8 △36.7   32.8  177.8   9.0  292.9 |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글로벌 녹색시장이 팽창하는 흐름에 발맞춰 이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지 수주지원단 파견 등 녹색산업체 해외 경쟁력 강화를 중점 지원한다. 특히, 2024년도에는 해외 녹색 인프라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4∼2028년 5년 간 총 4,000억 규모의 녹색 수출전용 펀드를 신규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녹색시장 경쟁력 확보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도 2023년 694억원에서 2024년 780억원으로 증액하였다.

녹색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여 민간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는 녹색채권 3조원에 대해 이차보전 지원하고 단독으로 녹색채권 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60억원에서 올해 약 137억원으로 확대하였다.

207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사업을 하는 기업대상으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녹색정책금융 활성화를 243억원에서 319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녹색전환 지원을 위한 직접융자를 2023년 3,700억원 규모에서 2024년 4,200억원 규모로 확대 및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도 2023년 450억원에서 2024년 633억원으로 확대하여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펀드 조성으로 유망 녹색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생산·유통·소비·재사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버려지던 폐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영화관·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를 회수·세척·재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확대(’23년 69억원 → ’24년 89억원)하고, 낮은 유해성과 높은 경제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먼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 제도(’23년 3억원   
→ ’24년 4.5억원)와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 특례 등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24년 15억원)하기 위한 예산을 고르게 반영하였다.



<다회용기 세척·재사용 체계>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1,600억원을 지원하고,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석유·화학원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공공열분해시설도 지속 확충(6개 → 7개)한다.

208



[표 8-4]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녹색인프라 해외 수출지원 펀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환경책임투자활성화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자원순환촉진지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운영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 14,605 - 694  163  243  2,789  450  211  83  24 | 13,698  300  781  240  319  3,299  633  206  123  44 | △6.2  순증 12.5  47.2  31.3  18.3  40.7 △2.4  48.2  83.3 |

 자연환경  
소외계층 없이 국민 모두가 자연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립공원 내 무장애 탐방로(7개소, 18억원), 저지대 숲체험인프라(2개소, 16억원) 조성 및 탐방약자 프로그램 참여(2024년 6천명)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2023년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에 대해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시설 정비, 탐방시설 및 안전 인프라를 확충(2024년 125억원)한다.

또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보호지역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며, 지역특산물 상품화 지원을 위한 특화시설을 조성하고 탐방객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마을체험 프로그램도 확대(2023년 12개소 → 2024년 14개소) 한다.

아울러, 전국에 확산되어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교란시키는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하기 위해 40억원이 투자되며, 동물매개 질병 해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295억원(2024년 누적 투자액)을 투자해서 야생동물 검역장을 설치·운영 할 예정이다.

209



< 국립공원 무장애 탐방로 >

[표 8-5] 자연환경 부문 주요 변동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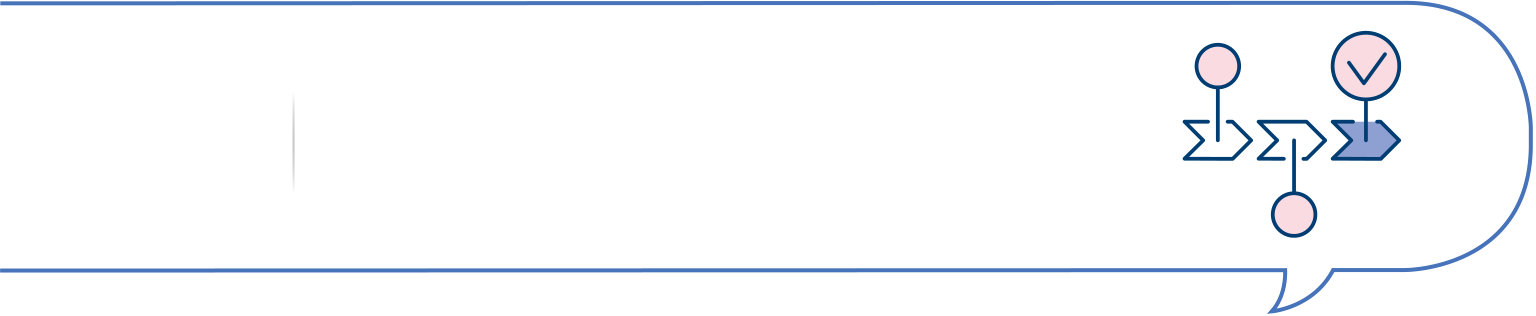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조감도>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 10,181  2,864  294  799  209  210 | 9,041  2,137  291  676  166  158 | △11.2  △25.4  △1 △15.4 △20.6 △24.8 |

210





|  |  |
| --- | --- |
| 09 | 국방 분야 |

9-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59.4조원으로 2023년 57.0조원 대비 4.2% 증가한 규모이다.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지속 개선하는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국방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3축체계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AI 유·무인복합체계 등 비대칭전력 보강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장병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안보위협의 다변화 및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여 핵심 군사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스마트 국방혁신 강화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다. 실전 전투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AI·네트워크 기반 과학화 훈련과 VR/AR 기반 가상모의훈련체계 투자를 지속하고, 유사시 군사 즉응태세를 확보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국방망, 지능형 스마트 부대관리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그동안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비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병에게 제공하는 기본적 의식주와 처우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장병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병 봉급, 사회진출지원금을 국정과제 스케줄에 따라 인상한다. 아울러 2023년 신설된 지역상생장병특식을 횟수를 확대(연 9회 → 14회)하고, 초급간부의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당직근무비 인상 등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211



 3축체계, 비대칭전력 등 첨단전력 증강을 위한 투자 확대  
북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한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해 함대지탄도유도탄 (R&D), L-SAM-Ⅱ(고고도요격유도탄)(R&D),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등 신규전력 소요를 반영하는 등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다층 미사일 방어, 압도적 대량응징) 전력화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병역자원 감소 및 전쟁 양상 변화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해 레이저대공무기 Block-I,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다목적무인차량, 정찰용무인수상정(R&D) 사업을 신규 반영하는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및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 전투수행능력 구축 가속화에 투자를 강화한다.

9-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전력운영 부문



최근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지원과 장병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병인건비 등을 국정과제 스케줄에 따라 인상한다.

☞ 전력운영비 : (2023년) 40.1조원 → (2024년) 41.8조원 (4.2% 증가)



(1)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전자장비를 활용한 대규모 실기동을 통해 모의전투훈련을 할 수 있는 과학화 훈련장을 지속 구축하고, VR/AR 장비를 활용해 실제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 가상모의훈련체계 구축하여 현대전 수행능력을 제고한다.

군수 전략물자에 대한 디지털 정비환경 구축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군장병 AI·SW 전문가 양성(200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군 의료, 급여 체계 관련 통합시스템 도입 등(241억원) 첨단 지능형 국방전력화에 집중 투자한다.

212



(2) 장병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및 합당한 보상 지급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병 봉급을 월 125만원(병장 기준)으로 인상한다(32,655억원). 아울러 전역 후 병사들이 취·창업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진출지원금을 월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10,191억원, 병내일준비적금 월 40만원 납입 기준).

병 의식주와 관련하여 급식 질을 지속 개선하기 위해 ’24년부터 지역상생장병특식을 매월 1회씩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과 국군의 날에 1회씩 시행해 총 연 14회로 확대한다. 그리고 MZ 장병들을 위해 기존 9인실이 아닌 2~4인실 생활관을 신축(65동, 3,119억원)한다. 그동안 육군 간부에게만 지급하던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확대 보급(214,906벌, 71억원)하고, 혹서기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얼음정수기를 보급한다.

예비군 생활관, 교육관 등 훈련시설 현대화 사업도 대폭 개선(503억원)하고, 특히 예비군 훈련간 휴식 등 훈련여건 보장 강화를 위해 침대형 생활관 리모델링에도(140억원) 집중 투자하여 보급률(46.7 → 61.3%)을 크게 제고한다.

초급간부의 처우개선 및 유능한 간부자원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을 인상(장교 9 → 12백만원, 부사관 7.5 → 10백만원)한다. 또한 잦은 근무지 이동, 격오지·도서벽지 근무 등으로 인해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평형(32평) 군 관사 502세대 및 1인 1실 간부숙소 3,241실을 신규 보급하고, 2023년 1995년 이후 27년간 동결되었던 주택수당을 2배 인상(8 → 16만원)에 이어 2024년에는 3년미만 초급간부에게도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특히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당직근무비를 2배(평·휴일 1만원 → 2만원)로 인상하여 당직근무자의 근무의욕을 제고하고, GP·GOP, 함정근무 등 24시간 상기교대 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도 확대(57 → 100시간)하여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하고, 학군단 후보생(ROTC)의 역량강화 활동을 위해 교내 군사훈련 중 지급하는

213

학군역량강화비를 학업생활지원금(월 8만원, 8개월 80% → 월 18만원, 10개월,

100%)으로 개편하여 지원한다.

[표 9-1] 전력운영비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급여정책  군인·공무원연금기금전출금 급식 및 피복  군수지원및협력  군사시설건설및운영  정책기획및국제협력  국방행정지원  군인사및교육훈련  국방정보화  장병보건및복지향상  예비전력관리  책임운영기관 | 400,974  171,727  33,921  27,104  65,129  49,499  12,568  6,904  9,633  7,347  12,186  2,616  2,340 | 417,712  179,815  37,176  26,302  64,448  51,118  15,477  6,971  8,701  7,610  15,171  2,415  2,509 | 4.2  4.7  9.6 △3.0 △1.0  3.3  23.1  1.0 △9.7  3.6  24.5 △7.7  7.2 |

 방위력 개선 부문



복합적 안보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비대칭전력 등 첨단전력을 보강하고, 미래 전장 선도를 위한 국방전략기술 R&D 집중투자 및 방위산업의 첨단전략산업화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 방위력 개선 : (2023년) 16.9조원 → (2024년) 17.7조원 (4.4% 증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킬체인(F-X 2차, 한국형구축함, 함대지탄도유도탄(R&D)

등), 다층 미사일 방어(장거리함대공유도탄,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Ⅱ(R&D), 중거리

214



지대공유도무기 Block-Ⅲ(R&D) 등), 압도적 대량응징보복능력(230㎜급다련장,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특임여단전력보강-Ⅱ 등) 등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를 위한 핵심 무기체계 확충에 투자를 확대하였다(6.1조원 → 6.8조원).

AI 등 첨단기술에 기반한 비대칭전력 보강을 위해 무인기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레이저대공무기 Block-I, 정찰용 무인수상정(R&D), 다목적무인차량 등) 구축을 가속화하고,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 전투수행능력(초소형위성 체계(R&D), 사이버전장관리체계(R&D), 패키지핵심기술(국방선행) 등) 등 미래 전장 주도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투자를 강화하였다(1.0조원 → 1.3조원).

방위산업을 국방 5대 분야(AI·우주·유무인복합·반도체·로봇) 중심 첨단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무기체계 수출 개조개발 및 국방 중소·벤처기업 고도화 지원

|  |
| --- |
| 등을 강화하였다. 특히, 방위사업 진출 촉진을 위해 이차보전 지원(110 → 181억원)을 |

확대하는 등 방위산업이 일자리 창출 기여와 글로벌 방산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표 9-2] 방위력 개선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무기체계 획득  국방기술개발 등  방위산업 육성  획득지원, 행정지원 등 기타 | 169,169  128,338  35,034  1,699  4,098 | 176,532  138,384  32,130  1,862  4,156 | 4.4  7.8 △8.3  9.6  1.4 |

215



|  |  |
| --- | --- |
| 10 | 외교 · 통일 분야 |

10-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외교·통일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7.5조원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하였다. 2024년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전략지역 지원 등 핵심 국익과 연계를 위하여 역대 최대 폭으로 ODA를 확대한다. 또한, 지역별 실질 협력 강화, 경제안보 외교 및 글로벌 가치를 실천하는 능동적 외교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등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공적개발원조(ODA) 대폭 확대 및 국제사회 기여 강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추진하고 수출 활로 모색을 위하여 외교·통일분야 ODA를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35,653 → 48,856억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외 정책과 ODA 간 연계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인력의 해외 진출에 ODA를 활용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수주를 연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개도국차관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15,030 → 20,320억원). 특히 재건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EDCF 지원(1,300억원) 및 구호물품 지원(2,600억원)을 병행 추진하여 우리기업 참여를 지원할 것이다.

우리 인력의 국제기구 정규직 진출 연계를 위하여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지원 기간을 확대(2년 → 3년)하고, 해외봉사단을 약 1천명 확대(0.3 → 0.4만명)하여 청년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격에 걸맞는 분담금 납입을 위하여,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주요 기구에 대한 기여를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근 급증한 재난구호·식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도적 지원 예산도 OECD 평균(전체 ODA의 11%) 수준으로 확대한다.

216



 지역별 실질 협력 강화, 경제안보 및 글로벌 가치 실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이행계획」 을 바탕으로 인태지역 협력을 강화(8억원) 한다. 아프리카와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안보 외교 강화를 위해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입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20억원)하고, 경제기술안보 외교전략 마련을 위한 경제기술안보 연구센터도 강화(7 →   
개설(3억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을 지원(20억원)하여 국제평화·안보 증진에 기여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선도적 민주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협상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도 개최(45억원)할 예정이다.

 북한인권 공감대 확산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유·인권’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24년∼’26년, 총사업비 260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논의를 위해 저명 인사들이 협력하는 북한인권 국제대화도 개최(10억)할 예정이다.

1,000백만원)하고 그리고 정착기본금을 세대별로 100만원씩 증액(1인 세대 기준 900 →   
거주지보호기간(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새출발장려금’을 도입(10억원)하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순조롭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표 10-1] 외교·통일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외교·통상 부문  통일 부문 | 64,092  49,394  14,698 | 75,445  64,130  11,315 | 17.7  29.8 △23.0 |

217



10-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외교·통상 부문



글로벌중추국가로서 역할강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지역별 실질 협력 강화, 경제안보 및 글로벌 가치 실천을 위해 6조 4,13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2023년) 4조 9,394억원 → (2024년) 6조 4,130억원 (29.8%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인한 위험요인의 발생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빈곤·기후변화 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국가들과 강력히 연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ODA 규모를 대폭 증가시켜 글로벌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위기, 분쟁예방,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 민주주의·인권·보건, 테러리즘, 사이버 위협 등 글로벌 이슈 관련 기여를 지속 확대하며,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 등 책임있는 국가로서 국제사회 기여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시기에 역내·외 관련국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구체화하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별 실질 협력을 강화한다. 공급망·경제안보 리스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 등을 통해 글로벌 가치를 실천한다.

218



(1)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책임이행을 위한 ODA 대폭 확대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 공급망 등 국익확보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하여 ODA 규모를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하였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있는 기업과 인력의 해외 진출에 ODA를 활용할 예정이다.

대폭 확대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예산(15,030 → 20,320억원)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연계할 것이다. 특히 향후 재건 소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우크라이나 대상으로 최초로 1,300억원을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재건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유·평화 등 보편적 가치의 확산에 기여하고, 글로벌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하여 인도적 지원 예산도 2배 이상 확대한다(2,994 → 7,401억원).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24년 전체 ODA 중 인도적 지원 비율은 11.7%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11%)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적 지원 예산 중 2,600억원은 우크라이나에 의료용품·생필품 등을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연대 의지를 표명할 것이다.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지원 기간을 연장(2년 → 3년)하되, 3년차 지원은 국제기구와 절반씩 부담함으로써 우리 청년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외봉사단도 대폭 확대(0.3 → 0.4만명)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 청년에게도 해외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국격에 걸맞은 다자기구 분담금 납입을 위하여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 (UNICEF),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 UN 주요기구에 대한 기여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및 우리 기업의 UN 프로젝트 수주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19

(2) 능동적 외교를 통한 글로벌 협력 강화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시기에 역내·외 관련국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구체화하여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기여하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강화(8억원)한다. 우리나라를 인태지역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하는 유럽 지역 국가들과도 한-EU 인태전략 강화 방안을 모색(5억원)한다. 그리고 AfCFTA(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출범 등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한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우리 정부 최초로 정상급 국제회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심화한다.

공급망·경제안보 리스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입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7 → 20억원), 경제기술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안보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국립외교원 내 경제기술안보 연구센터를 개설(3억원)할 예정이다.

2024-25년 임기 우리 정부의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20억원)을 통해 국제평화·안보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위상을 제고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기후변화협약 이래 최대의 국제환경협약인 유엔 플라스틱협약의 성안을 위한 마지막 회의인 제5차 정부간협상 위원회 회의(INC-5)를 개최(45억원)하여 플라스틱 산업의 친환경 순환성 제고에 기여하고 범세계 순환 경제 촉진 논의를 선도할 예정이다.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 군축·비확산 분야의 국제협력에 참여하고 국제적 논의를 선도할 예정이다.

재외국민·재외동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엔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는 여권발급 수요에 적시 여권발급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고(856 → 1,410억원), 영사협력원 확대(210 → 220명)를 통해 해외 방문 우리국민의 안전을 제고한다. 그리고 관공서 또는

220



재외공관 방문이 필요 없는 온라인 디지털 민원서비스 제공과 원스톱 민원 서비스 체계

구축(70억원)을 통해 재외동포 민원서비스 제고를 통한 편익을 증진한다. 또한,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된 취약동포 모국 초청(500명)을 통해 한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예정이다.

[표 10-2] 외교·통상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통일 부문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인도적지원(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ODA)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2024-25년 임기 안보리 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5)비대면 영사시스템 구축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 49,394  2,994  15,030  95 - - - - - | 64,130  7,401  20,320  141  8  20  45  70  66 | 29.8  147.2  35.2  48.4 순증, 신규순증, 신규순증, 신규순증 순증 |



북한인권 공감대 확산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등을 위해 통일 부문 총지출은 1조

1,315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통일 부문 : (2023년) 1조 4,698억원 → (2024년) 1조 1,315억원(△23% 감소)

☞ 남북협력기금 : (2023년) 1조 2,125억원 → (2023년) 8,745억원(△27.9% 감소)



221

(1)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자유·인권’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북한인권 침해기록 수집 및 보관과 함께, 인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체험 콘텐츠 제작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인권 국제대화」 를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저명한 학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북한인권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국제적으로도 북한인권 담론을 수행할 계획이다.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최초로 2년 연속 정착기본금 100만원 인상(1인 가구 기준 1,000만원)하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보다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취업장려금 외에 보호기간(5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0억원 규모의 ‘새출발장려금’도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3) 납북자·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지원 확대

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장관 직속 납북자 대책반을 신설하고 일본·미국 등 유관국 및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납북자 문제 협력 모색 등을 통해 납북피해자(납북자·억류자· 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의 시급성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전후납북자 가족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 납북피해가족들의 권익을 보호 증진하고 북한 주민, 사체 송환 업무 지원을 통해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222



(4) 남북관계 경직성 등을 감안한 남북협력기금 편성

최근 경직적 남북관계로 기금 집행률이 7% 이내로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남북협력 기금은 감액편성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대북정책의 주요한 재원으로 규모 대폭 축소 자체가 ‘원칙 있는 교류협력’ 등 대북·대외 메시지로 작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도적 분야 삭감 최소화 및 대북제재 등으로 당면하여 추진이 어려운 경협 분야 위주로 삭감하였으며 사업규모(8,742억원)는 기금 설치 이후(’91년∼) 최대 집행실적(’03년 7,707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문제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표 10-3] 통일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개성공단 등 납북경제협력 | 14,698  25  210  3  4,549 | 11,315  58  188  4  2,624 | △23.0  133.3 △10.6  25.7 △42.4 |

223



|  |  |
| --- | --- |
| 11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11-1 **재정지원 방향**



2024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정투자규모는 24.4조원으로 2023년도 22.9조원 보다 6.5% 증가하였다. 특히 2024년에는 마약·스토킹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과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근본적 예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민생침해범죄 근절   
마약·스토킹 등 국민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대국민 예방교육, 수사·감시 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 → 수사 → 재활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약자 지원 강화를 위해 원스톱솔루션 센터(각 부처·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한 곳에서 맞춤형으로 지원)를 설치하고,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를 43명에서 53명으로 10명 증원한다.

 재난·안전사고 최소화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위험지역정비·우수저류시설설치 등 예방 인프라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특히, ICT 기술을 활용해 위험징후를 조기 파악,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재난관리체계도 지속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해경 등 대형재난에 대응하는 현장 대응기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장비를 확충·고도화하는 한편, 민간차원의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224





[표 1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법원 및 헌재  법무 및 검찰  경찰  해양경찰  재난관리 | 229,311  22,440  44,300  128,064  18,260  16,246 | 244,295  23,242  45,546  133,486  19,292  22,728 | 6.5  3.6  2.8  4.2  5.7  39.9 |

11-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법원 및 헌법재판소 부문



국선변호 지원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해 국선변호료 지원 건수를 늘리고 변호인 수당을

인상한다. 또한 소송구조 지원 범위 확대, 개인도산상담센터 2곳 추가 개설, 경매 전담

민원상담위원 신규 배치 등을 통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강화한다.

☞ ‌국선변호료 지원 : (2023년) 653억원 → (2024년) 699억원

|  |
| --- |
| 소송구조 지원 : (2023년) 59억원 → (2024년) 69억원 |

개인도산상담센터 운영 : (2023년) 1.2억원 → (2024년) 2.5억원

경매 전담 민원상담인 배치 : (2023년) 0 → (2024년) 1.5억원

한편 법원의 후견·복지적 역할 제고를 위해 가정법원 후견서비스제공을 위한 전담공간으로서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고, 미성년자녀-비양육친간 면접교섭센터 5곳을 새로 설치한다.

☞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 (2023년) 0 → (2024년) 4.3억원

면접교섭센터 설치 : (2023년) 8.4억원 → (2024년) 15.8억원



225

형사공판사건의 일반 국선변호인 지원건수를 상향((2023년) 77,451건 → (2024년) 78,986건)하고, 수당을 인상((2023년) 50만원 → (2024년) 55만원)하여 국선변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최근 개인회생사건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이 개인회생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지원 자격을 완화(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 → 100분의 75 이하)하고,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운영 중인 개인 도산상담센터(New Start 상담센터)를 2023년 3월 신설된 수원·부산 회생법원 2곳에도 추가로 개설하여 대국민 무료 상담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 개인회생사건 접수 건수: (’21) 81,030건 (’22) 89,966건 (’23.11월) 111,633건

아울러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경매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매로 퇴거 위기에 처한 임차인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서울·인천·대전 등 경매 접수 건수가 많은 8개 법원에 경매 전담 민원상담인을 1명씩 신규 배치한다.

\* 경매 접수 건수: (’21) 39,661건 (’22) 39,052건 (’23.11월) 47,374건

한편 입양·이혼·가정폭력 등 가정법원 사건 당사자에 대해 조사·상담·집합교육 등 가정법원 후견서비스를 체계적이고 균질하게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전담공간인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를 신축(’24~’28)하고, 미성년자녀와 비양육친간 안정적 면접교섭 기회 제공을 위해 면접교섭센터 설치를 확대((2023년) 2곳 → (2024년) 5곳)하여 위기가정, 피학대아동, 비행소년 등 사회적 보호필요계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법원의 후견·복지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사건처리 지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미제부를 신설하고 기록물 RFID 설비 구축을 통해 기록물 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30년사에 수록된 주요결정 오디오북을 제작하여 시각장애인·노년층 등 취약계층도 보다 쉽게 헌법재판자료 및 사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26



[표 11-2] 법원 및 헌법재판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a) | 2024년(b) | 증감률 ((b-a)/a) | 비 고 | | |  | | --- | | 합 계 |   국선변호료 지원  소송구조 지원  개인도산 상담센터 운영  경매 전담 민원 상담인 신규 배치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 신축  면접교섭센터 설치 | 22,440 653  59  1.2 - - 8.4 | 23,242 699  69  2.5  1.5  4.3  15.8 | 3.6   7.0 16.9 102.4 순증  순증 88.0 | - 형사공판사건 일반국선변호료 인상 -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지원 확대 - 개인도산상담센터 2곳 추가 개설 - 경매 전담 민원상담인 8명 운영순증 -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설계 88.0 - 면접교섭센터 5곳 추가 설치 | | 재판활동 운영지원 재판자료 확충 | 6.1  4.2 | 7.5  4.7 | 23.6  11.9 | 23.6-기록물 RFID 설비 구축 등 -헌재 주요결정 오디오북 서비스 등 |   법무 및 검찰 부문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별수사팀 운영, 첨단 마약수사장비 등을 통해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범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 마약수사 : (2023년) 49억원 → (2024년) 83억원  
 (2024년) 211억원☞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 (2023년) 173억원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하여 범정부 역량을 모아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첨단 마약수사장비·가상자산 추적도구 등을 도입하여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치료 중점 추진으로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227

스토킹 가해자에 의한 추가 범죄 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위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 및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지원을 확대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호 등을 통해 범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 위헌 결정(’21. 12.)에 따라 해바라기센터의 ‘영상증인신문’ 사업을 확대(25 → 38개소) 추진하여 미성년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보복범죄 등 추가 피해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숙소 지원을 확대하여 신변보호를 강화한다.

\* 영상물에 수록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 조항

국내 취업한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실시, 창업이민 인재양성프로그램을 확대, 사회통합지수 측정 및 컨설팅 실시로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한다.

\* 국내체류외국인 수(연말기준, 명) : (’19) 2,524,656 → (’21) 1,956,781 → (’23) 2,507,584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년 수용률 100% 수준을 목표로 유휴부지 내 수용동 증축, 리모델링 등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한 제한급수로 수용자 인권 침해 요소를 해결하고자 오수처리시설 증설을 계속 추진한다.

\* 수용공간 확충(수용정원) : (’16) 46,690명 → (’19) 47,990명 → (’24) 50,192명   
\* 과밀수용 완화 목표 : (’22) 106% → (’23) 103% → (’24) 100%

228



[표 11-3] 법무 및 검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a) | 2024년(b) | 증감률 ((b-a)/a) | 비 고 |
| |  | | --- | | 합 계 |   마약수사 | 44,300  48.6 | 45,546  83.1 | 2.8  34.5 | 34.5 -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팀 운영 - 첨단 마약수사장비 도입 |
| 보호관찰활동 | 140 | 161 | 15.1 | 15.1 - 마약사범 심리치료  - 마약사범 약물검사실 설치 |
| 교정교화 | 5 | 21 | 320 | 320 - 마약·스토킹 이수명령 교육 - 마약 등 이수명령 교육실 증설 |
| 전자감독 | 307 | 324 | 5.7 | 5.7 - 스토킹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 | 173 | 211 | 22.2 | 22.2 -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 및 운영 - 원스톱 지원 전담 인력(19명) |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97 | 126 | 29.4 | 29.4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증원(10명) - 피해자 국선변호사(비전담) 수당 증액 |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 13.6 | 16.3 | 20.0 | 20.0 - 진술조력인(비전담) 수당 증액 |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 140 | 154 | 10.0 | 10.0 - 현장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등 -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컨설팅 |
|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 332 | 368 | 10.8 | 10.8 - 과밀수용해소 리모델링 - 노후 오배수시설 개선 |

229

 경찰 부문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대응 등을 위해 기동순찰대 및 형사기동대를 신설하여 사전 예방 중심으로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를 추진하고, 다중집회·시위 현장의 국민안전를 위해 안전차단장비, 고공관측 장비 등 다중운집 현장대응 장비 보급을 추진한다.또한 실전중심 교육 훈련을 통해 현장경찰의 전문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 (2023년) 73억원 → (2024년) 122억원☞ 경비경찰활동 : (2023년) 556억원 → (2024년) 659억원  
☞ 경찰기동력 강화 : (2023년) 885억원 → (2024년) 915억원



최근 신림역 살인, 서현역 흉기 난동 등 묻지마 범죄의 연이은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 및 다중운집 상황에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 예방 중심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 실전중심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한다.

우선,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내근인력 재배치를 통해 기동순찰대 및 형사기동대를 신설하고, 위급상황 신속 제압을 위한 저위험 권총 및 기동대 호신장비 보급을 추진하며, 시·도 단위로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응급입원 전 대기소를 설치 및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23년 5월 의경폐지에 따라 다중집회·시위 현장의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차단장비, 현장지휘본부차량, 다중군집 인파 대응용 고공관측 장비 등을 도입하고, 현장상황에 기반한 실전중심 교육 강화 및 몸에 익히는 반복·숙달 교육훈련 추진을 위해 벽제에 수도권 현장대응 종합훈련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동원 경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동원급식비 단가 인상하였으며, 겨울 근무복 점퍼도 보온력이 높은 구스 재질로 고품질화하는 한편, 시설관리, 청사방호, 견위생, 통역 등 공무직 인원 증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230



[표 11-4] 경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a) | 2024년(b) | 증감률 ((b-a)/a) | 비 고 |
| |  | | --- | | 합 계 |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 128,064 73 | 133,486 122 | 4.2  67.8 | 기동순찰대 신설·운영 등 |
|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관리 | 218 | 279 | 28.3 | 현장중심 중심지역관서 운영 |
| 경찰기동력 강화 | 885 | 915 | 3.4 | 기동순찰대 차량보급 |
| 안보수사역량강화 | 315 | 426 | 34.9 | 안보수사대 조직개편 |
| 경비경찰활동 | 556 | 659 | 18.6 | 다중운집 현장대응 장비보급 |
| 치안지원인력운영 | 1,624 | 1,744 | 7.4 | 청사방호, 통역 등 공무직 |

 해양경찰 부문



빈틈없는 해양영토·주권 수호 및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노후함정 대체건조, 항공기 신규

도입 및 광역VTS 구축 예산을 반영하고, 최적의 임무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임무안전장비 및

근무여건 개선 예산을 강화하였다.

☞ 함정건조 : (2023년) 1,742억원 → (2024년) 1,977억원

☞ VTS구축운영 : (2023년) 228억원 → (2024년) 264억원

☞ 항공기정비유지 : (2023년) 340억원 → (2024년) 432억원

☞ 서부정비창운영 : (2023년) 0 → (2024년) 83억원

☞ 정비창관리 : (2023년) 42억원 → (2024년) 130억원

|  |
| --- |
| ☞ 경비대테러역량강화 : (2023년) 118억원 → (2024년) 133억원 |

|  |
| --- |
| ☞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 (2023년) 47억원 → (2024년) 61억원  ☞ 함정보급관리 : (2023년) 80억원 → (2024년) 86억원 |



급박한 국제해양 정세 변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23년에 이어 서해해역에 배치할 대형

함정(3,000톤) 1척 신규 도입을 지원하고, 해상경비력과 구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노후 함정·헬기 대체 도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31

항공기와 상황실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한 더욱 효율적인 현장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고정익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고, 선박의 안전통항,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광역 VTS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적기 함정수리를 위한 서해권 해양경찰서부정비창 수리 장비 도입과 남해권 해양경찰정비창 노후 플로팅 도크 대체건조를 지원하고, 정비지원 엔진 보강 등을 통해 해양경찰 장비의 가동률을 향상토록 할 계획이다.

국민과 현장대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임무장비 개선 지원을 통해 부족한 장비를 보충하고, 품질을 제고하여 최상의 현장대응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개인임무장비: 해상특수기동대 진압장비, 구조대 잠수복, 화학보호복, 테이저건, 방폭복, 함정 안전헬멧 등 20종

또한 신속·정확한 현장 대응을 위한 V-PASS 노후 송수신기 교체를 지원하고, 연안구조정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전용계류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현장요원의 최적의 건강상태 유지를 위해 경비함정 매트릭스 관리 등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11-5] 해양경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a) | 2024년(b) | 증감률 ((b-a)/a) | 비 고 |
| |  | | --- | | 합 계 |   함정건조 | 18,260  1,742 | 19,292  1,977 | 5.7  13.5 | 서해전력증강 대형함정 도입및 노후함정 대체 건조 |
| VTS구축운영 | 228 | 264 | 16.1 | 동해권 광역VTS구축 |
| 항공기정비유지 | 340 | 432 | 27.1 | 고정익위성통신망구축 |
| 서부정비창운영 | - | 83 | 순증 | 정비창 수리장비 도입 |
| 정비창관리 | 42 | 130 | 209.5 | 노후 플로팅 도크 대체 |
| 경비대테러역량강화 | 118 | 133 | 12.6 | 드론 도입, 특공대 훈련장 개선 |
|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 47 | 61 | 29.3 | 노후V-PASS송수신교체 |
| 함정보급관리 | 80 | 86 | 7.5 | 매트릭스 관리 |

232



 재난관리 부문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 등 재난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하상도로 자동차단 시설 및 우수저류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고, 민간차원의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투자를 확대한다.

☞ 재해위험지역 정비 : (2023년) 7,086억원 → (2024년) 8,766억원  
 (2024년) 380억원☞ 풍수해보험 : (2023년) 364억원 →

지진 등 대형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 장비·훈련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화재진압 등 소방 활동 시 소방공무원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소방학교에 실화재훈련 시설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국립소방병원, 국립소방박물관의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 (2024년) 55억원(신규)  
☞ 국립소방병원 건립 : (2023년) 276억원 → (2024년) 713억원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뉴노멀 시대 진입에 따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사업을 적극 확대한다. 위험저수지·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을 사전에 정비하는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을 전국 901개소 대상으로 확대 추진(+1,680억원)한다. 한편,

풍수해 위험이 높은 하천·펌프장·하수도 등 각각의 단위시설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일괄 정비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도 지속 확대(80 → 98개소)하였다.

특히, ’23년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대폭 늘리고, 연간

|  |
| --- |
| 신규 지정하는 급경사지를 2배(0.5 → 1만개소)로 확대하였다. |

한편, 정부는 ’23년부터 3년간 전국 270개소(연간 90개소) 하상도로에 하천 수위계

센서에 연계하여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위상승으로 하상도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단시설을 ’24년에 조기

완공(당초 90개 → 180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규모 강우시 빗물을 일시에 저장하여

도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수저류시설도 신규 설치(+6개소)하는 등

재해예방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233

또한, 대형화·장기화·빈번화 되는 재난에 대한 민간차원의 사전적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정부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이 부담할 보험료의 70%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100%를 지원하고 있어, 예측치 못한 재난으로 발생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지진 등 대형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및 훈련시설 보강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지진 훈련장 및 비축기지 건립을 비롯하여 지진 구조장비 보강, 지진교육훈련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대형유류저장탱크 화재 및 최근 발생하고 있는 침수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서산화학방재센터에 대용량포 방사시스템(1세트)을 25년에 도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실화재훈련시설 구축사업을 ’23년부터 신규로 추진한다.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 등 신규임용자 증가, 화재발생 감소로 소방대원들의 현장경험이 저하되어 전문적인 화재진압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화재훈련시설 구축을 지역 소방학교에 지원함에 따라 신임소방관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화재 현장에 투입되고, 재직자들도 주기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화재진압으로 인한 순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전담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의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해 3년차 공사비, 개원준비단 운영경비 및 전산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한편, 소방유물·역사 보존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234



[표 11-6] 재난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 |
| 사 업 | 2023년(a) | 2024년(b) | 증감률 ((b-a)/a) | 비 고 |
| |  | | --- | | 합 계 |   재해위험지역 정비 | 16,246 7,086 | 22,728 8,766 | 39.9  23.7 | 전국 901개소 정비 |
| ‌침수위험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설구축 | 67.5 | 135 | 100.0 | 180개소 조기 구축 |
| 풍수해보험 | 364 | 380 | 4.6 | ‌풍수해보험(주택, 온실,  소상공인) 가입지원 |
| 지진대비대응 역량강화 | 112 | 120 | 6.7 | ‌훈련시설·비축기지 공사,  비축장비 보강 등 |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지원 | 36 | 90 | 149.2 |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 등 |
|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 - | 55 | 순증 | ’24년 신규 |
| 국립소방병원 건립 | 276 | 713 | 158.4 | ‌공사비, 개원준비단 운영비,  전산시스템 등 |

235



|  |  |
| --- | --- |
| 12 | 일반 · 지방행정 분야 |

12-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일반·지방행정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10.5조원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한 수준이다. 2024년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 구현,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발전적 과거사 해결 등에 중점을 두었다.



 지방소멸 대응 등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 구현

지역에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재정,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리조트 등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연간 1조원, 10년간 지원)의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상향(’23년 최고 120억원 → ’24년 최고 144억원), 접경지역, 섬,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낙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지역발전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소(75.3조원   
→ 66.8조원)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공자기금 지방채 인수 예산을 확대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금융 투자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연장 및 햇살론 15 정부재정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고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도 지속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

236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각종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지 않도록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이 직접 체감 가능한 사업을 적극 확대한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을 크게 확대하고 디지털서비스 개방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확산 지원도 지원한다.

 22대 총선 공명선거 지원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국회의

2024년 4월 10일 예정인 22대 총선의 공명선거를 지원하여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기여한다. 또한 국회 정책세미나·토론회·간담회 실시간 생중계 시스템 구축, SNS 영상 제작 지원 및 의정활동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국회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시대·지역을 아우르는 발전적 과거사 해결

과거사 피해지원, 진상조사, 기념사업지원 등 국가의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한 사회통합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8차 보상 소요도 지원한다. 또한 2024년에는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개관하여 민주화 운동 기록을 보존하고 기념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표 12-1]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입법 및 선거관리  정부자원관리  일반행정  국정운영 | 1,121,543 775,938  262,686  11,537  10,998  33,584  6,800 | 1,105,395 715,685  320,668  16,430  10,833  35,142  6,636 | △1.4 △7.8  22.1  42.4 △1.5  4.6 △2.4 |

237



12-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지방소멸 대응·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추진한다.

☞ (2023년) 77조 5,938억원 → (2024년) 71조 5,685억원 (△7.8% 감소)



세수 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2023년 75.1조원에서 2024년 66.8조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해당 부문의 전체 규모는 다소 축소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규모는 2.3조원에서 4.8조원으로 증가했다.

주요 투자내용을 보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연 1조원을 지속 투자하되,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상향(’23년 최고 120억원 → ’24년 최고 144억원)했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해5도 주민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3년 연속 인상(10년 미만 월 8 → 10만원, 10년 이상 15 → 16만원) 했고, 동서고속화 철도 연계발전 지원(신규),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접경·섬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다수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 감소(75.3조원 → 66.8조원)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공자기금 지방채 인수 예산을 확대(100억원 → 2.6조원)하여, 개별 지자체가 장기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38



[표 12-2]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지방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지방채 인수 지원 | 775,938  752,883  10,000  75  100 | 715,685  667,593  10,000  88  26,000 | △7.8 △11.3 - 17.9  25,900.0 |

 재정·금융 부문



서민·취약계층, 기업혁신·구조조정, 청년·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재정·금융 부문에 32조 668억원을 편성하였다.

☞ (2023년) 28조 2,686억원 → (2024년) 32조 668억원 (22.1% 증가)



서민·취약계층 지원 관련,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지원대상을 간접적 피해자로 확대하는 등 지속 운영한다. 또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재원만으로 운영되던 햇살론 15에 재정을 신규로 투입(900억원)하고,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확대(280 → 560억원)한다.

기업 혁신을 위해 ’23~’27년 5년간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24년 2,400억원 출자)하고, ’24년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총 1조원 규모로 조성(캠코 출자 500억원 포함)하여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납입금액에 정부가 매칭기여금을 지급하는 청년도약계좌(3,682억원),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1,000억원) 등 출연을 통해 청년의 자산형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39

[표 12-3] 재정·금융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b)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청년도약계좌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산은출자) | 282,686  2,800  280  3,678 - | 320,668  3,300  560  3,682  1,000 | 22.1  17.9  100.0  0.1 순증 |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국회의 원활한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선거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기여한다.

☞ (2023년) 1조 1,537억원 → (2024년) 1조 6,430억원 (42.4% 증가)



2024년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4월 10일)에 대비하여, 국회의원 선거관리 비용, 정당보조금 반영 등 공명한 선거관리 지원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기여한다. 아울러, 선거관리시스템의 정보보안을 강화하여 외부 해킹 위협에 대비하는 등 선거 공정성 및 선거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한다.

국회의원 정책세미나·토론회·간담회 실시간 생중계 시스템 구축, SNS 영상 제작 지원 및 의정활동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국회 구현을 도모한다. 국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회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플랫폼 국회 조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240



[표 12-4]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국회의원 선거관리  정당보조금  선거보전금   정보기반보호 강화  입법정보화 | 11,537  38  477 - 10  395 | 16,430  2810  1,101  1,072  63  490 | 42.4  7,294.7  130.8 순증 530.7  24.1 |

 정부자원관리 부문



코로나 한시 지원사업 종료로 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투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도모한다.

☞ (2023년) 1조 998억원 → (2024년) 1조 833억원 (△1.5% 감소)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주민등록증·Any-ID를 집중 투자한다(129억원 → 282억원). 간편한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화하는 한편, 본인이 원하는 인증방식으로 공공웹·앱에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애니아이디(Any-ID) 서비스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직, 출산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부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의 구축(7억 → 34억)도 추진하고, 서비스별 사이트를 따로 방문하는 불편의 개선을 위해, 한 곳만 접속하면 모든 정부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조회·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도 지속 추진한다(86억 → 163억).

241

한편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해 급격한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보다 신축적·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한다(342억 →

758억)

[표 12-5] 정부자원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b) | 2024년 (b) | 증감률 ((b-a)/a) |
| 합 계 | 10,998 | 10,833 | △1.5 |
|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모바일 신분증, Any\_ID) | 129 | 282 | 118.6 |
|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운영 | 86 | 163 | 89.5 |
| ‌지능형 서비스 확대 운영  (혜택 알리미) | 7 | 34 | 385.7 |
|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지원) | 342 | 758 | 116.4 |

|  |
| --- |
| 일반행정 부문 |



과거사 정리·기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책임 있는 국가를 구현하고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 근무환경 등을 지원한다.

☞ (2023년) 3조 3,584억원 → (2024년) 3조 5,142억원 (4.6% 증가)



국민대통합 가치 확산을 위해 발전적 과거사 해결을 도모한다.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 예산을 확대(1,936억원 → 2,262억원)하는 한편, 5·1 8보상법 개정(’22.12.27.)에

따라 제8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을 실시한다(신규 45억원). 또한 민주화운동

전반을 기록, 기념하는 민주화운동기념관과 최초의 국립 치유센터 건립을 완공한다.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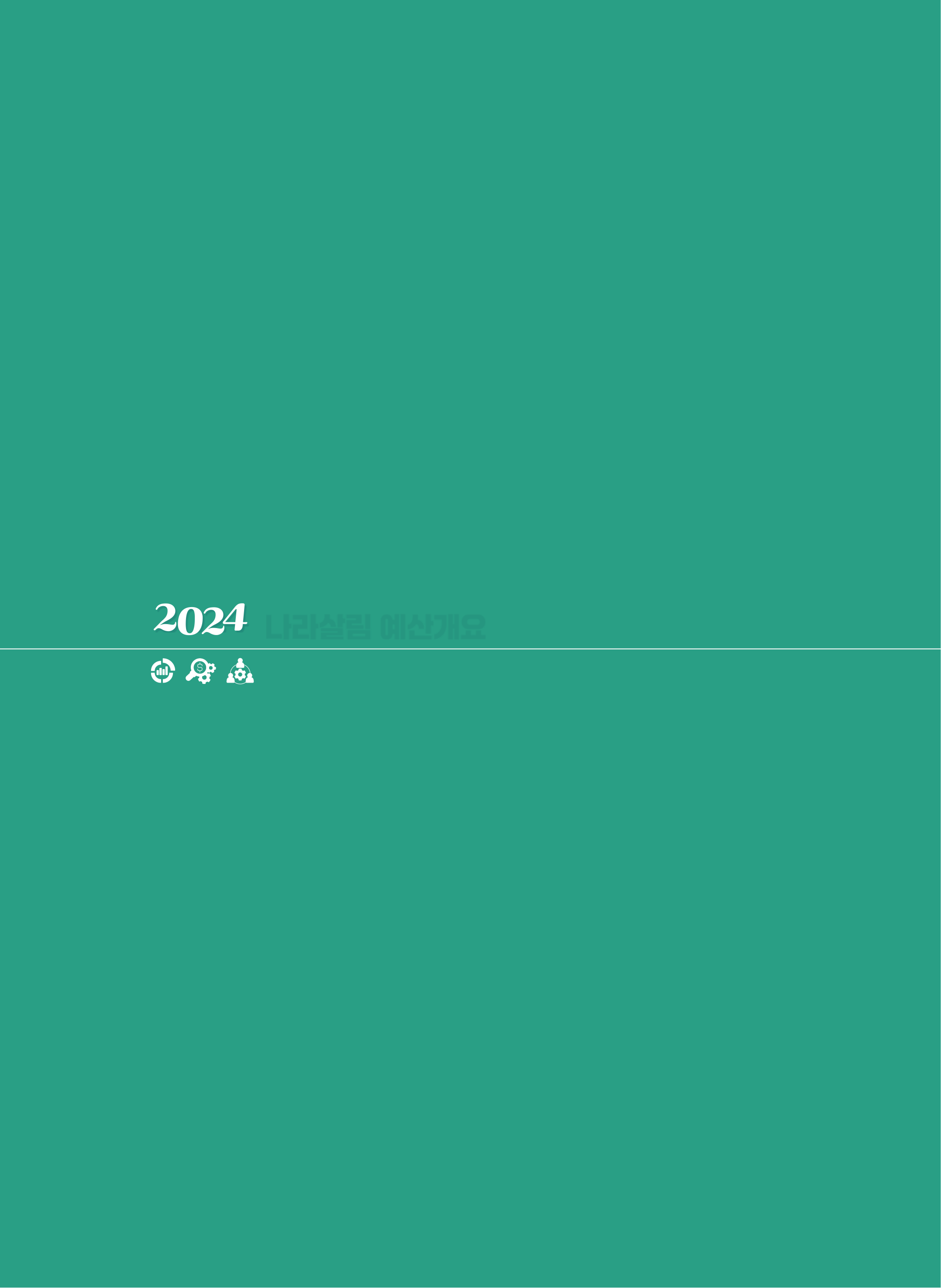


이외에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신 분을 위한 정부 포상 예산을 확대하고, 인구주택 총조사 소요(20 → 263억원)를 반영했으며, 정부청사 등의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보강 등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표 12-6] 일반행정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구 분 | 2023년 (a) | 2024년 (b) | 증감률 ((b-a)/a) |
| |  | | --- | | 합 계 |   제주4.3피해보상(보상금 등)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정부포상 인구주택총조사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재건축 | 33,584  1,936 - 93  20  1,297  80 | 35,142  2,262  45  103  263  1,352  176 | 4.6  16.8 순증 11.5  1,218.3  4.2  120.0 |

243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  |
| --- |
| 제 3부 |

|  |
| --- |
| 2024년도 |

예산 및

|  |
| --- |
| 기금운용계획 |

|  |
| --- |
| 제1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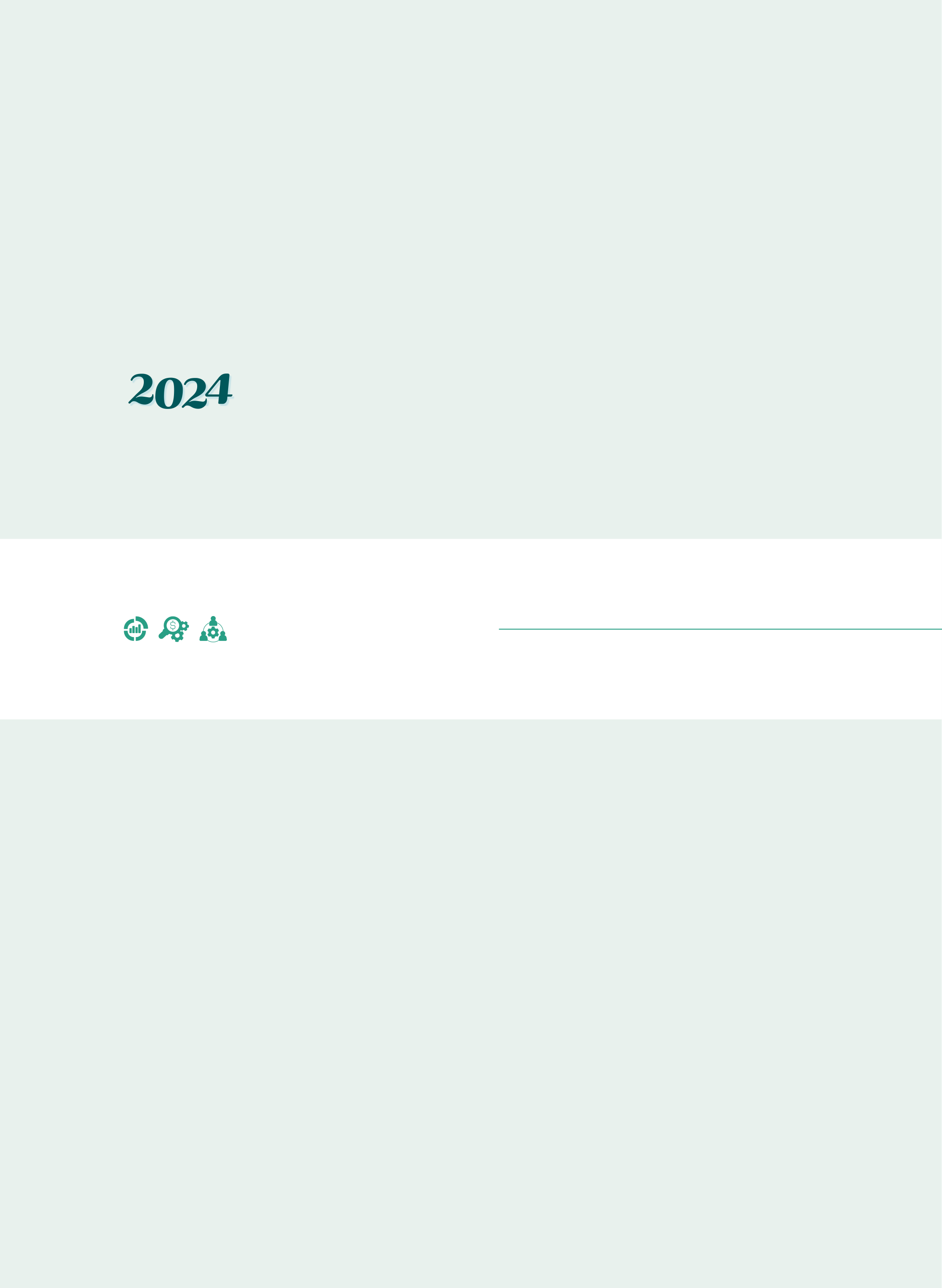
|  |
| --- |
| 2024년도 예산 |

|  |
| --- |
| 제2장 |

|  |
| --- |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

|  |
| --- |
| 별첨 |

|  |
| --- |
|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  |
| --- |
| 제 1 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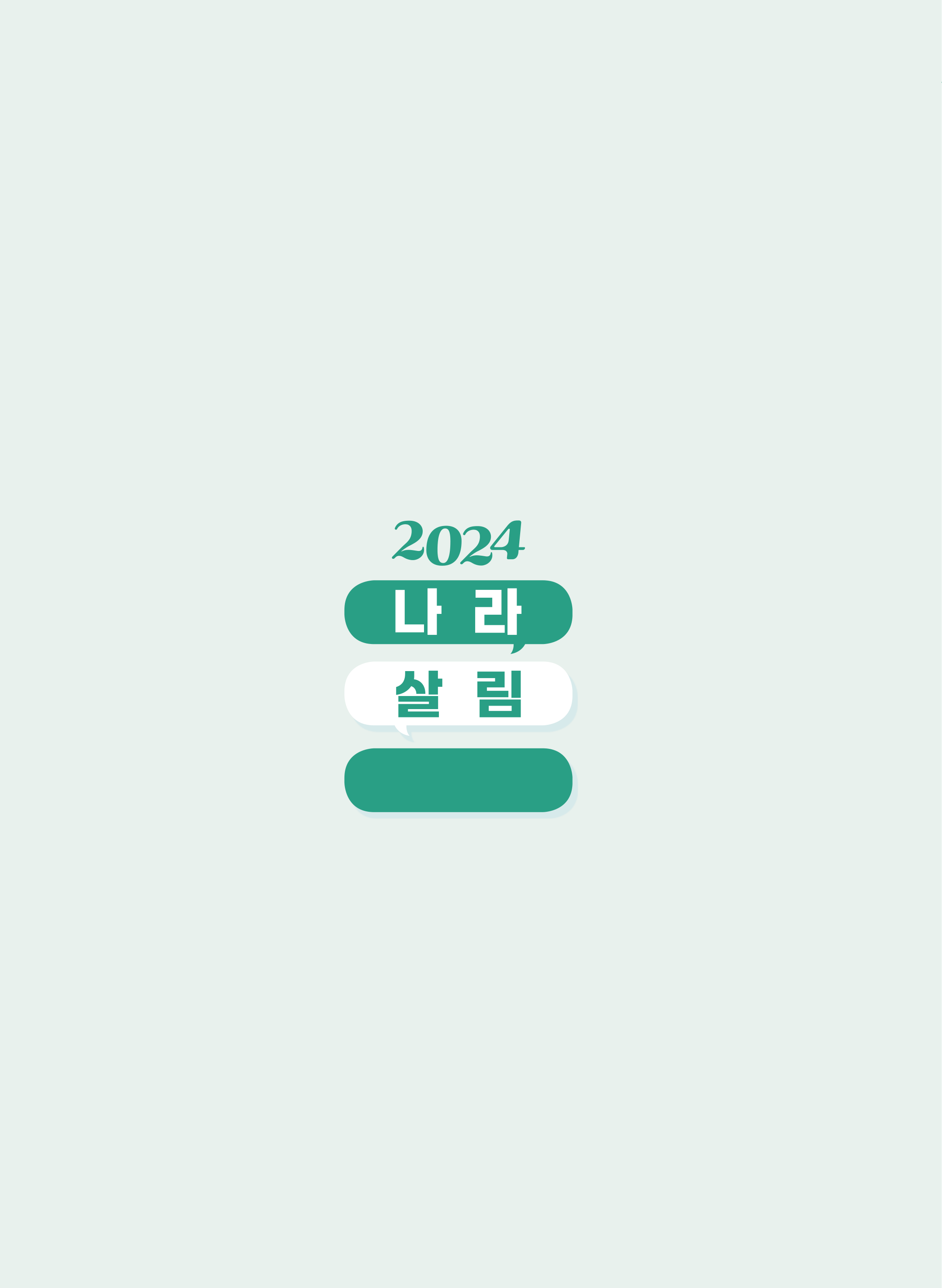
|  |
| --- |
| 2024년도 |

|  |
| --- |
| 예산 |

|  |
| --- |
| 01. 2024년도 예산총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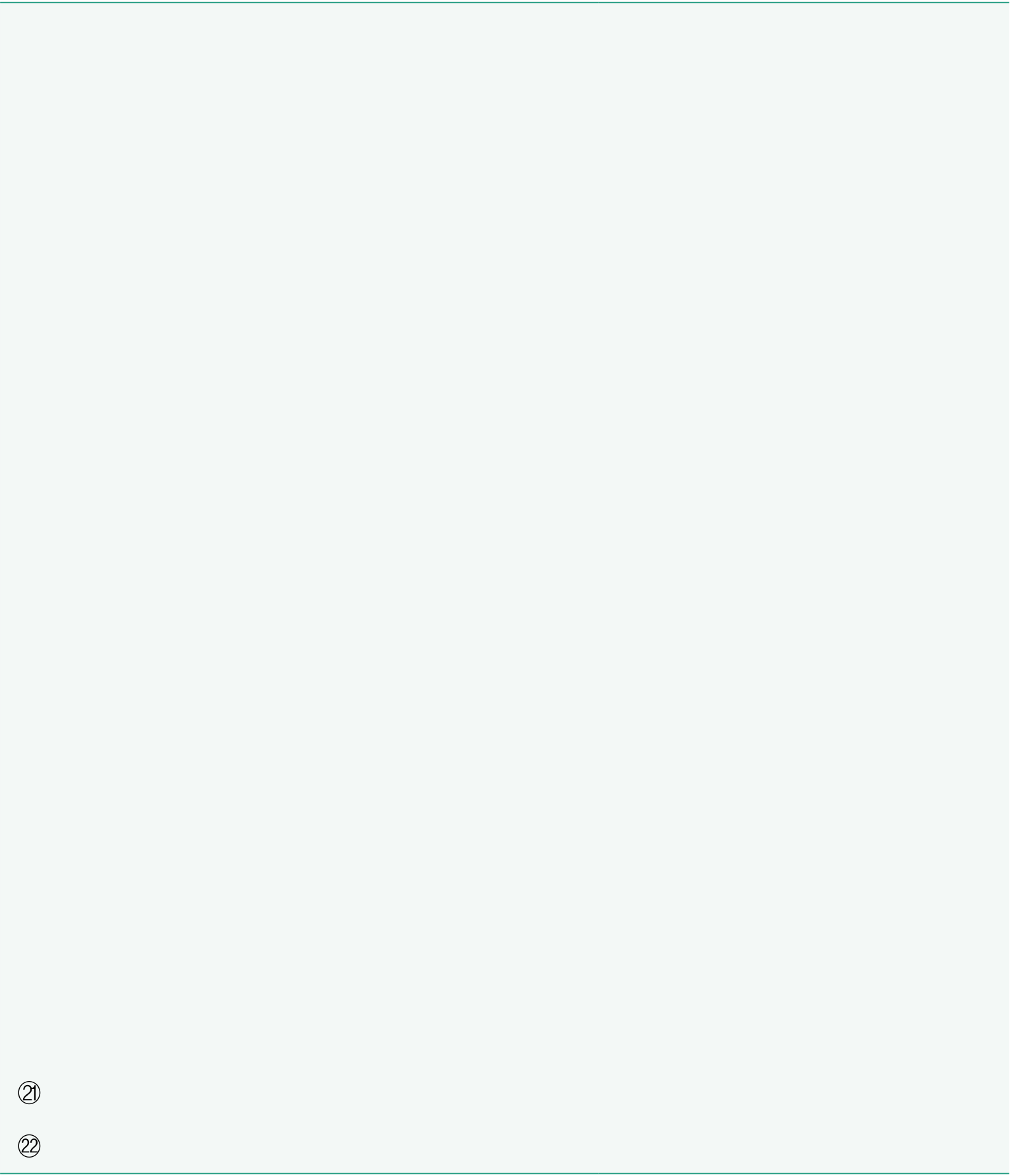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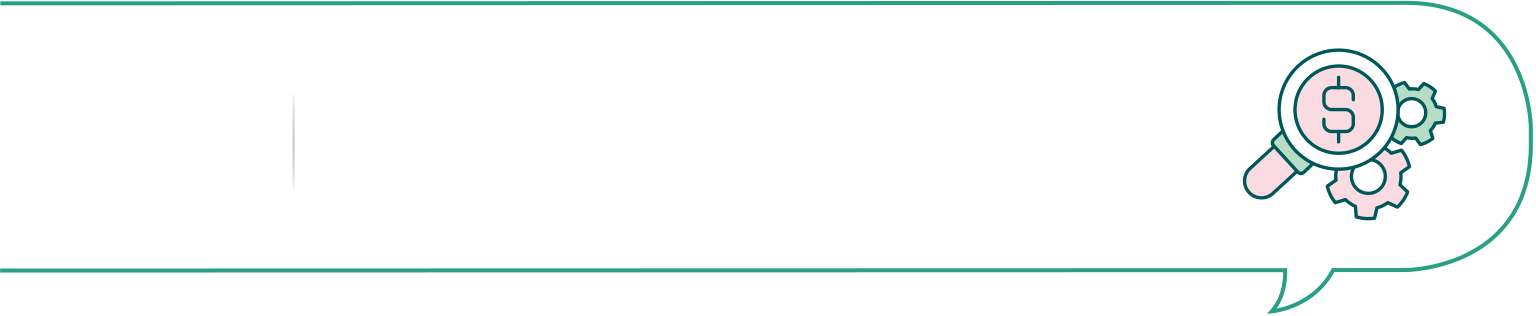
02. 일반회계  
03. 특별회계규모 및 개요  
04. 계속비  
05. 명시이월비

|  |
| --- |
| 06. 국고채무부담행위 |



예산개요

248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  |  |
| --- | --- |
| 01 | 2024년도 예산총칙 |

■제1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
| --- | --- |
| ① 일반회계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④ 등기특별회계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449,526,707,000,000 원 15,511,557,000,000 원 16,566,482,000,000 원 383,140,000,000 원 120,529,000,000 원 6,471,155,000,000 원 |
|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⑧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⑨ 우체국보험특별회계  ⑩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⑪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⑫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 7,047,573,000,000 원 2,168,117,000,000 원 1,061,590,000,000 원 642,621,000,000 원 136,303,000,000 원 576,701,000,000 원 585,906,000,000 원 117,980,000,000 원 |
| ⑮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⑯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⑱ 양곡관리특별회계  ⑲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⑳ 조달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13,868,920,000,000 원 3,232,168,000,000 원 15,792,267,000,000 원 2,746,019,000,000 원 1,275,336,000,000 원 802,688,000,000 원 5,439,617,000,000 원 5,940,827,000,000 원 |

249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제2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24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5조 2024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다.

■‌제6조 2024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500,000,000,000 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8조 2024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① 통합계정 (일반회계 및 18개 특별회계 적용,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 40,000,000,000,000 원  2,000,000,000,000 원  8,000,000,000,000 원  200,000,000,000 원 |

■‌제9조 2024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50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  |  |
| --- | --- |
| ① 주택도시기금 | 19,000,000,000,000 원 |

|  |  |
| --- | --- |
|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③ 외국환평형기금  ④ 외국환평형기금(원화) | 160,000,000,000,000 원 1,300,000,000 달러(미합중국화폐) 18,000,000,000,000 원 |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  |
| --- |
|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

|  |
| --- |
|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

|  |
| --- |
|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

|  |
| --- |
|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

|  |
| --- |
| 5. 국제부담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

|  |
| --- |
|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

|  |
| --- |
|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

|  |
| --- |
|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

|  |
| --- |
| 9. 반환금 |

|  |
| --- |
| 10.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

|  |
| --- |
|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기동화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유도무기

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관련사항은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51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  |  |  |
| --- | --- | --- |
| 회 계 | 수 입 | 지 출 |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금융영업수입 | 지급이자 |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부가보험료수입 | 보험보상금 |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2,200,000,000,000 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감염병에 따른 방역 등 지원,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3조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③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④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 1,026,653,000,000 원 83,000,000,000 원 219,491,000,000 원 115,374,000,000 원 |

252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 2,164,323,000,000 원 |
|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③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⑥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 315,096,000,000 원13,952,000,000 원 506,015,000,000 원1,026,653,000,000 원70,146,000,000 원 |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24년도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3,103,268,000,000 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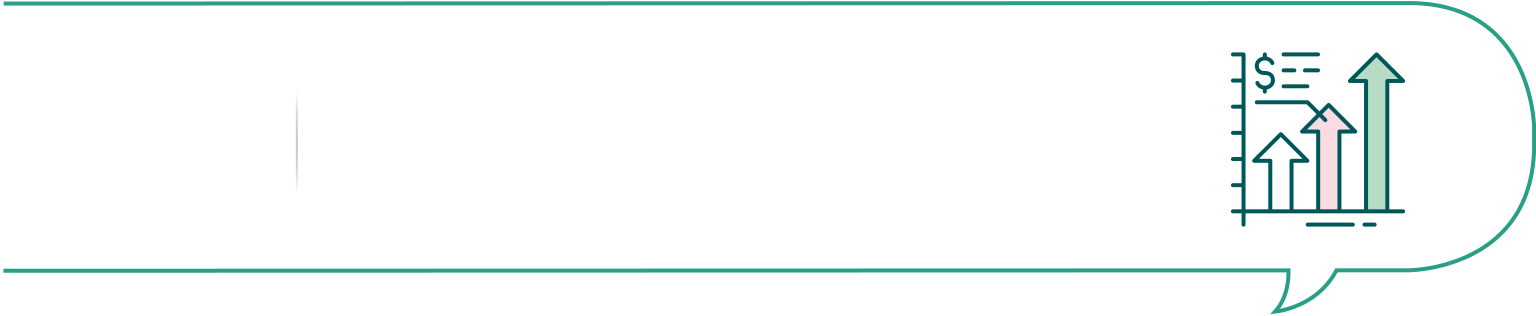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253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  |  |
| --- | --- |
| 02 | 일반회계 General Accounts |

**2-1 세입예산** (Revenue Budget)

**가. 총괄표**

|  |  |  |  |  |
| --- | --- | --- | --- | --- |
| 구 분 Classification | 2023년도 본예산 FY 2023 Main Budget | | 2023년도 추경예산 FY 2023 Supplementary Budget | |
| 금 액 Amount | 구성비(%)  Composition | 금 액 Amount | 구성비(%)  Composition |
| 1. 내국세 (Internal Taxes) | 357,967,600 | 80.2 | 357,967,600 | 80.2 |
| 2. 관세 (Customs Duties) | 10,723,700 | 2.4 | 10,723,700 | 2.4 |
| 3.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ion·Energy·Environment Tax) | 11,147,100 | 2.5 | 11,147,100 | 2.5 |
| 4. 교육세 (Educational Tax) | 4,702,200 | 1.1 | 4,702,200 | 1.1 |
| 5. 종합부동산세 (Gross Real Estate Tax ) | 5,713,300 | 1.3 | 5,713,300 | 1.3 |
| 6.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 55,988,282 | 12.5 | 55,988,282 | 12.5 |
| • 국채발행 (Borrowing from Bonds) | 45,848,623 | 10.3 | 45,848,623 | 10.3 |
| • 기타수입 (Others) | 10,139,659 | 2.3 | 10,139,659 | 2.3 |
| 합 계 (Total) | 446,242,182 | 100 | 446,242,182 | 100 |

※ 일반회계 세입 규모임.

254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  |  |  |  |  |  |
| --- | --- | --- | --- | --- | --- |
| 2024년도 예산 FY 2024 Budget | | 본예산 대비 증감 Change | | 추경예산 대비 증감Change | |
| 금 액 Amount | 구성비(%)  Composition | 금 액 Amount | 증감률(%) Rate | 금 액 Amount | 증감률(%) Rate |
| 321,613,600 | 71.5 | △36,354,000 | △10.2 | △36,354,000 | △10.2 |
| 8,906,500 | 2.0 | △1,817,200 | △16.9 | △1,817,200 | △16.9 |
| 15,325,800 | 3.4 | 4,178,700 | 37.5 | 4,178,700 | 37.5 |
| 6,162,500 | 1.4 | 1,460,300 | 31.1 | 1,460,300 | 31.1 |
| 4,109,800 | 0.9 | △1,603,500 | △28.1 | △1,603,500 | △28.1 |
| 93,408,507 | 20.8 | 37,420,225 | 66.8 | 37,420,225 | 66.8 |
| 81,676,517 | 18.2 | 35,827,894 | 78.1 | 35,827,894 | 78.1 |
| 11,731,990 | 2.6 | 1,592,331 | 15.7 | 1,592,331 | 15.7 |
| 449,526,707 | 100 | 3,284,525 | 0.7 | 3,284,525 | 0.7 |

255

|  |  |
| --- | --- |
| 구 분 Classification | 2023년도 본예산 FY 2023 Main Budget |
| 1. 국세 (Tax Total) | 390,253,900 |
| 가. 내국세 (Internal Taxes) | 357,967,600 |
| 나. 관세 (Customs Duties) | 10,723,700 |
| 다.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ion·Energy·Environment Tax) | 11,147,100 |
| 라. 교육세 (Educational Tax) | 4,702,200 |
| 마. 종합부동산세 (Gross Real Estate Tax ) | 5,713,300 |
| 2.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 55,988,282 |
| 가. 재산수입 (Property Income) | 2,594,879 |
| 나. 경상이전수입 (Current Transfer) | 5,670,830 |
| 다.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Sales of Goods & Services) | 1,101,838 |
| 라. 수입대체경비수입 (Receipts Tied to Expenses) | 230,713 |
| 마. 관유물매각대 (Sales Proceeds of Government Owned Properties) | 120,565 |
| 바.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Treasury Loan & Sub-Lease Loan) | 347 |
| 사. 정부내부수입및기타 (Trust from Other & Others from Other A/C) | 46,269,110 |
| (국채발행) (Goverment Bonds Floatation) | 45,848,623 |
| 합 계 (Total) | 446,242,182 |

256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  |  |  |  |  |  |
| --- | --- | --- | --- | --- | --- |
| 2023년도  추경예산  FY 2023 Supplementary Budget | 2024도 예산 FY 2024 Budget | 본예산 대비  증감 Change | | 추경예산 대비  증감 Change | |
| 금 액  Amount | 증감율(%) Rate | 금 액  Amount | 증감율(%) Rate |
| 390,253,900 | 356,118,200 | △34,135,700 | △8.7 | △34,135,700 | △8.7 |
| 357,967,600 | 321,613,600 | △36,354,000 | △10.2 | △36,354,000 | △10.2 |
| 10,723,700 | 8,906,500 | △1,817,200 | △16.9 | △1,817,200 | △16.9 |
| 11,147,100 | 15,325,800 | 4,178,700 | 37.5 | 4,178,700 | 37.5 |
| 4,702,200 | 6,162,500 | 1,460,300 | 31.1 | 1,460,300 | 31.1 |
| 5,713,300 | 4,109,800 | △1,603,500 | △28.1 | △1,603,500 | △28.1 |
| 55,988,282 | 93,408,507 | 37,420,225 | 66.8 | 37,420,225 | 66.8 |
| 2,594,879 | 2,882,733 | 287,854 | 11.1 | 287,854 | 11.1 |
| 5,670,830 | 6,913,277 | 1,242,447 | 21.9 | 1,242,447 | 21.9 |
| 1,101,838 | 1,041,837 | △60,001 | △5.4 | △60,001 | △5.4 |
| 230,713 | 227,031 | △3,682 | △1.6 | △3,682 | △1.6 |
| 120,565 | 129,488 | 8,923 | 7.4 | 8,923 | 7.4 |
| 347 | 373 | 26 | 7.5 | 26 | 7.5 |
| 46,269,110 | 82,213,768 | 35,944,658 | 77.7 | 35,944,658 | 77.7 |
| 45,848,623 | 81,676,517 | 35,827,894 | 78.1 | 35,827,894 | 78.1 |
| 446,242,182 | 449,526,707 | 3,284,525 | 0.7 | 3,284,525 | 0.7 |

257

**나. 국세수입 내역** (Tax Revenues)

|  |  |
| --- | --- |
| 구 분 Classification | 2023년도 본예산 FY 2023 Main Budget |
| 가. 내국세 (Internal Taxes) | 357,967,600  131,863,200  54,445,200  77,418,000  104,996,900  17,127,400  8,954,600  8,172,800  83,203,500  10,194,300  4,973,900  815,800  4,792,600  10,723,700  11,147,100  4,702,200  5,713,300  390,253,900 |
| (1) 소득세 (Income Tax) |
| (가) 신고분 (Not Withheld Income Tax) |
| (나) 원천분 (Withheld Income Tax) |
| (2) 법인세 (Corporation Tax) |
| (3) 상속세 (Inheritance Tax) |
| (가) 상속세 (Inheritance Tax) |
| (나) 증여세 (Gift Tax) |
| (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
| (5) 개별소비세 (Special Consumption Tax) |
| (6) 증권거래세 (Security Transaction Tax) |
| (7) 인지세 (Stamp Tax) |
| (8) 기타내국세 (Other Internal Tax) |
| 나. 관세 (Customs Duties) |
| 다.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ion·Energy·Environment Tax) |
| 라. 교육세 (Educational Tax) |
| 마. 종합부동산세 (Gross Real Estate Tax ) |
| 합 계 (Total) |

258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  |  |  |
| --- | --- | --- |
| 2024년도 예산 FY 2024 Budget | 증 감  Change | |
| 금 액 Amount | 증감률(%)  Rate |
| 321,613,600 | △36,354,000 | △10.2  △4.6  △16.5  3.7  △26.0  △14.4  △4.0  △25.8  △2.2  0.0  8.2  4.3  18.9  △16.9  37.5  31.1  △28.1  △8.7 |
| 125,760,500 | △6,102,700 |
| 45,471,700 | △8,973,500 |
| 80,288,800 | 2,870,800 |
| 77,664,900 | △27,332,000 |
| 14,656,600 | △2,470,800 |
| 8,594,700 | △359,900 |
| 6,061,900 | △2,110,900 |
| 81,406,800 | △1,796,700 |
| 10,194,500 | 200 |
| 5,382,900 | 409,000 |
| 850,500 | 34,700 |
| 5,696,900 | 904,300 |
| 8,906,500 | △1,817,200 |
| 15,325,800 | 4,178,700 |
| 6,162,500 | 1,460,300 |
| 4,109,800 | △1,603,500 |
| 356,118,200 | △34,135,700 |

259

**다. 소관별 세입예산** (Revenues Budget by Agencies)

|  |  |  |  |  |
| --- | --- | --- | --- | --- |
| 소 관 Agency | 2023년도 본예산 FY 2023 Main Budget | | | |
| 일반세입 General Rev. | 국 채 Government Bonds |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 합 계 Total |
| 01.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Office of the President & Office of National Security) | 297 | - | - | 297 |
| 02. 대통령경호처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 67 | - | - | 67 |
| 03. 국회(National Assembly) | 4,196 | - | - | 4,196 |
| 04. 대법원 (Supreme Court) | 738,291 | - | - | 738,291 |
| 05.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39 | - | - | 39 |
| 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863 | - | - | 863 |
| 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 5 | - | - | 5 |
| 08. 감사원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 639 | - | - | 639 |
| 09. 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 9,785 | - | - | 9,785 |
| 1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Prime Minister's Secretariat) | 23 | - | - | 23 |
| 11.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392,866,754 | 45,848,623 | - | 438,715,377 |
| ① 내국세 (Internal Taxes) | 357,967,600 | - | - | 357,967,600 |
| ② 관세 (Customs Duties) | 10,723,700 | - | - | 10,723,700 |
| ③ 교통·에너지·환경세(Transportaion·Energy·Environment Tax) | 11,147,100 | - | - | 11,147,100 |
| ④ 교육세 (Educational Tax) | 4,702,200 | - | - | 4,702,200 |
| ⑤ 종합부동산세 (Gross Real Estate Tax ) | 5,713,300 | - | - | 5,713,300 |
| ⑥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 2,612,854 | 45,848,623 | - | 48,461,477 |
| 12.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 277,050 | - | - | 277,050 |
|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330,367 | - | - | 330,367 |
| 14.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267,335 | - | - | 267,335 |
| 15.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 2,006 | - | - | 2,006 |
| 16.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 1,345,834 | - | - | 1,345,834 |
| 17.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219,224 | - | - | 219,224 |
| 18.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63,210 | - | - | 63,210 |
| 19. 국가보훈부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 9,573 | - | - | 9,573 |
| 20.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75,618 | - | - | 75,618 |
| 21.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21,170 | - | - | 21,170 |
| 22.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182,944 | - | - | 182,944 |
| 23.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513,152 | - | - | 513,152 |

2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4년도 예산  FY 2024 Budget | | | | 증 감  Change | | | |
| 일반세입 General Rev. | 국 채 Government Bonds |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 합 계 Total | 일반세입 General Rev. | 국 채 Government Bonds |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 합 계 Total |
| 297 | - | - | 297 | - | - | - | - |
| 532 | - | - | 532 | 465 | - | - | 465 |
| 4,345 | - | - | 4,345 | 149 | - | - | 149 |
| 610,500 | - | - | 610,500 | △127,791 | - | - | △127,791 |
| 641 | - | - | 641 | 602 | - | - | 602 |
| 10,017 | - | - | 10,017 | 9,154 | - | - | 9,154 |
| 5 | - | - | 5 | - | - | - | - |
| 745 | - | - | 745 | 106 | - | - | 106 |
| 7,176 | - | - | 7,176 | △2,609 | - | - | △2,609 |
| 23 | - | - | 23 | - | - | - | - |
| 359,133,715 | 81,676,517 | - | 440,810,232 | △33,733,039 | 35,827,894 | - | 2,094,854 |
| 321,613,600 | - | - | 321,613,600 | △36,354,000 | - | - | △36,354,000 |
| 8,906,500 | - | - | 8,906,500 | △1,817,200 | - | - | △1,817,200 |
| 15,325,800 | - | - | 15,325,800 | 4,178,700 | - | - | 4,178,700 |
| 6,162,500 | - | - | 6,162,500 | 1,460,300 | - | - | 1,460,300 |
| 4,109,800 | - | - | 4,109,800 | △1,603,500 | - | - | △1,603,500 |
| 3,015,515 | 81,676,517 | - | 84,692,032 | 402,660 | 35,827,894 | - | 36,230,554 |
| 342,903 | - | - | 342,903 | 65,853 | - | - | 65,853 |
| 376,780 | - | - | 376,780 | 46,413 | - | - | 46,413 |
| 277,323 | - | - | 277,323 | 9,988 | - | - | 9,988 |
| 1,448 | - | - | 1,448 | △558 | - | - | △558 |
| 1,324,930 | - | - | 1,324,930 | △20,904 | - | - | △20,904 |
| 241,897 | - | - | 241,897 | 22,673 | - | - | 22,673 |
| 295,470 | - | - | 295,470 | 232,260 | - | - | 232,260 |
| 9,851 | - | - | 9,851 | 278 | - | - | 278 |
| 76,857 | - | - | 76,857 | 1,239 | - | - | 1,239 |
| 21,216 | - | - | 21,216 | 46 | - | - | 46 |
| 157,872 | - | - | 157,872 | △25,072 | - | - | △25,072 |
| 943,949 | - | - | 943,949 | 430,797 | - | - | 430,797 |

261

|  |  |  |  |  |
| --- | --- | --- | --- | --- |
| 소 관 Agency | 2023년도 본예산 FY 2023 Main Budget | | | |
| 일반세입 General Rev. | 국 채 Government Bonds |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 합 계 Total |
| 24.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5,278 | - | - | 5,278 |
| 25.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233,946 | - | - | 233,946 |
| 26.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26,776 | - | - | 26,776 |
| 27.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175,100 | - | - | 175,100 |
| 28.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57,897 | - | - | 57,897 |
| 29.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192,210 | - | - | 192,210 |
| 30. 인사혁신처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 5,962 | - | - | 5,962 |
| 32.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38,689 | - | - | 38,689 |
| 34.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27 | - | - | 27 |
| 36.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30,584 | - | - | 30,584 |
| 37. 공정거래위원회 (Korea Fair Trade Commission) | 421,696 | - | - | 421,696 |
| 38.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72,325 | - | - | 72,325 |
| 39. 국민권익위원회(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823 | - | - | 823 |
| 40. 원자력안전위원회(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 1,771 | - | - | 1,771 |
| 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 4,244 | - | - | 4,244 |
| 42.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428,539 | - | - | 428,539 |
| 43.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 94,624 | - | - | 94,624 |
| 45. 통계청 (Statistics Korea) | 4,400 | - | - | 4,400 |
| 46.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 Agency) | - | - | - | - |
| 47. 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 300 | - | - | 300 |
| 48.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331,955 | - | - | 331,955 |
| 49. 경찰청 (National Police Agency) | 1,125,327 | - | - | 1,125,327 |
| 50.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 4,246 | - | - | 4,246 |
| 51.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51,272 | - | - | 51,272 |
| 52.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12,458 | - | - | 12,458 |
| 53.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 91,966 | - | - | 91,966 |
| 55. 질병관리청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 31,311 | - | - | 31,311 |
| 56.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8,133 | - | - | 8,133 |
| 58. 새만금개발청 (Saemangeum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 7,869 | - | - | 7,869 |
| 59.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 5,388 | - | - | 5,388 |
| 합 계 (Total) | 400,393,558 | 45,848,623 | - | 446,242,181 |

262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4년도 예산  FY 2024 Budget | | | | 증 감  Change | | | |
| 일반세입 General Rev. | 국 채 Government Bonds |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 합 계 Total | 일반세입 General Rev. | 국 채 Government Bonds |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 합 계 Total |
| 13,852 | - | - | 13,852 | 8,574 | - | - | 8,574 |
| 323,517 | - | - | 323,517 | 89,571 | - | - | 89,571 |
| 36,815 | - | - | 36,815 | 10,039 | - | - | 10,039 |
| 189,914 | - | - | 189,914 | 14,814 | - | - | 14,814 |
| 53,279 | - | - | 53,279 | △4,618 | - | - | △4,618 |
| 195,171 | - | - | 195,171 | 2,961 | - | - | 2,961 |
| 42,016 | - | - | 42,016 | 36,054 | - | - | 36,054 |
| 37,564 | - | - | 37,564 | △1,125 | - | - | △1,125 |
| 27 | - | - | 27 | - | - | - | - |
| 30,844 | - | - | 30,844 | 260 | - | - | 260 |
| 450,162 | - | - | 450,162 | 28,466 | - | - | 28,466 |
| 89,629 | - | - | 89,629 | 17,304 | - | - | 17,304 |
| 892 | - | - | 892 | 69 | - | - | 69 |
| 1,840 | - | - | 1,840 | 69 | - | - | 69 |
| 40,834 | - | - | 40,834 | 36,590 | - | - | 36,590 |
| 364,074 | - | - | 364,074 | △64,465 | - | - | △64,465 |
| 120,072 | - | - | 120,072 | 25,448 | - | - | 25,448 |
| 3,610 | - | - | 3,610 | △790 | - | - | △790 |
| 9 | - | - | 9 | 9 | - | - | 9 |
| 336 | - | - | 336 | 36 | - | - | 36 |
| 345,418 | - | - | 345,418 | 13,463 | - | - | 13,463 |
| 1,279,380 | - | - | 1,279,380 | 154,053 | - | - | 154,053 |
| 4,349 | - | - | 4,349 | 103 | - | - | 103 |
| 52,515 | - | - | 52,515 | 1,243 | - | - | 1,243 |
| 11,722 | - | - | 11,722 | △736 | - | - | △736 |
| 97,004 | - | - | 97,004 | 5,038 | - | - | 5,038 |
| 203,304 | - | - | 203,304 | 171,993 | - | - | 171,993 |
| 8,505 | - | - | 8,505 | 372 | - | - | 372 |
| 8,828 | - | - | 8,828 | 959 | - | - | 959 |
| 6,216 | - | - | 6,216 | 828 | - | - | 828 |
| 367,850,190 | 81,676,517 | - | 449,526,707 | △32,543,368 | 35,827,894 | - | 3,284,525 |

263

**라. 성질별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by Objects)

|  |  |
| --- | --- |
| 구 분 Classification | 2023년도 예산FY 2023 Budget |
| 11. 재산수입 (Property Income)  51. 관유물대여료 (Rent From Land & Buildings)  52. 정부출자수입 (Dividends & Profits)  53. 전대차관이자수입 (Interest from Tied Loans)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Others) | 2,594,879  83,757  1,078,749  -  1,432,373 |
| 12. 경상이전수입 (Current Transfer)  56.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Fine & Confiscation)  57. 변상금 및 위약금 (Indemnities & Penalties)  58. 가산금 (Penalties to Delinquency)  59. 기타경상이전수입 (Others) | 5,670,830  3,062,810  200,627  348,767  2,058,626 |
|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Sales of Goods & Services)  62. 병원수입 (Hospital Income)  64. 입장료수입 (Admission Fee)  65. 면허료 및 수수료 (License & Commission Fee)  66. 입학금 및 수업료 (School Entrance & Tuition Fee)  67. 항공항만 및 용수수입 (Revenues from airport, Harbors & Water)  68. 실습수입 (Revenues from School Experiments)  69. 잡수입 (Other) | 1,101,838  17,481  5,376  992,665  1,029  7,653  2,840  74,794 |

264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  |  |  |
| --- | --- | --- |
| 2024년도 예산 FY 2024 Budget | 증 감  Change | |
| 금 액 Amount | 증감율(%)  Rate |
| 2,882,733  84,661  982,344  1  1,815,727 | 287,854  904  △96,405  1  383,354 | 11.1  1.1  △8.9  순증  26.8 |
| 6,913,277  3,317,855  210,427  282,210  3,102,785 | 1,242,447  255,045  9,800  △66,557  1,044,159 | 21.9  8.3  4.9  △19.1  50.7 |
| 1,041,837  17,761  4,934  926,306  1,099  7,986  3,308  80,443 | △60,001  280  △442  △66,359  70  333  468  5,649 | △5.4  1.6  △8.2  △6.7  6.8  4.4  16.5  7.6 |

265

|  |  |
| --- | --- |
| 구 분 Classification | 2023년도 예산FY 2023 Budget |
| 14. 수입대체경비수입 (Receipts Tied to Expenses)  51. 관유물대여료 (Sales of Gov't Properties)  64. 입장료수입 (Admission Fee)  65. 면허료 및 수수료 (License & Commission Fee)  66. 입학금 및 수업료 (School Entrance & Tuition Fee)  69. 잡수입 (Other) | 230,713  1,565  11,328  189,235  428  28,157 |
| 15. 관유물매각대 (Sales Proceeds of Government Owned Properties)  71. 고정자산매각대 (Sales of Capital Assets)  72.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Sales of Land & Intangible Assets)  73. 재고자산매각대 및 유동자산 (Sales of Inventory & Current Assets) | 120,565  8,798  63,967  47,800 |
|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Treasury Loan & Sub-Lease Loan)  75. 융자원금회수 (Collection of Principals A/C' s) | 347  347 |
|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Trust from Other & Others from Other A/C)  91. 전입금 (Transfer from Gen. A/C)  94. 예수금 (Collection of Trust Fund) | 46,269,110  420,487  45,848,623 |
| 합 계 (Total) | 55,988,282 |

266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  |  |  |
| --- | --- | --- |
| 2024년도 예산 FY 2024 Budget | 증 감  Change | |
| 금 액 Amount | 증감율(%)  Rate |
| 227,031  2,423  11,350  183,732  428  29,098 | △3,682  858  22  △5,503  -  941 | △1.6  54.8  0.2  △2.9  -  3.3 |
| 129,488  9,542  66,272  53,674 | 8,923  744  2,305  5,874 | 7.4  8.5  3.6  12.3 |
| 373  373 | 26  26 | 7.5  7.5 |
| 82,213,768  537,251  81,676,517 | 35,944,658  116,764  35,827,894 | 77.7  27.8  78.1 |
| 93,408,507 | 37,420,225 | 66.8 |

267

**2-2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가. 총괄표**

|  |  |  |
| --- | --- | --- |
| 구 분 Classification | 2023년도 본예산 FY 2023 Main Budget | |
| 금 액 Amount | 구성비(%)  Composition |
| 1.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 105,936,371 | 23.7  4.7  0.8  12.9  21.7  1.0  1.3  17.6  3.6  2.0  2.5  3.2  0.2  1.7  1.8  1.0  100 |
| 2.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 21,168,355 |
| 3. 통일·외교 (National Unification & Foreign Affairs) | 3,606,899 |
| 4. 국방 (National Defense) | 57,347,411 |
| 5. 교육 (Education) | 96,953,244 |
| 6.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 4,576,428 |
|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 5,701,644 |
|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 78,756,053 |
| 9. 보건 (Health) | 16,230,082 |
|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 9,116,787 |
|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 11,335,412 |
| 12.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 | 14,271,853 |
| 13. 통신 (Communication) | 970,580 |
| 14. 국토 및 지역개발 (Land & Regional Development) | 7,561,518 |
|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 8,109,545 |
| 16. 예비비 (Reserve Fund) | 4,600,000 |
| 합 계 (Total) | 446,242,182 |

268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3년도 추경예산 FY 2023 Supplementary Budget | | 2024년도 예산FY 2024 Budget | | 본예산 대비 증감 Change | | 추경예산 대비 증감 Change | |
| 금 액 Amount | 구성비(%)  Composition | 금 액 Amount | 구성비(%)  Composition | 금 액 Amount | 증감률(%) Rate | 금 액 Amount | 증감률(%) Rate |
| 105,936,371 | 23.7 | 101,719,441 | 22.6 | △4,216,930 | △4.0 | △4,216,930 | △4.0  5.9  24.6  4.3  △6.1  0.7  2.1  5.9  △7.5  2.4  3.9  26.9  △7.0  20.2  △4.5  △8.7  0.7 |
| 21,168,355 | 4.7 | 22,426,772 | 5.0 | 1,258,417 | 5.9 | 1,258,417 |
| 3,606,899 | 0.8 | 4,493,414 | 1.0 | 886,515 | 24.6 | 886,515 |
| 57,347,411 | 12.9 | 59,836,311 | 13.3 | 2,488,900 | 4.3 | 2,488,900 |
| 96,953,244 | 21.7 | 91,016,090 | 20.2 | △5,937,154 | △6.1 | △5,937,154 |
| 4,576,428 | 1.0 | 4,608,344 | 1.0 | 31,916 | 0.7 | 31,916 |
| 5,701,644 | 1.3 | 5,822,604 | 1.3 | 120,960 | 2.1 | 120,960 |
| 78,756,053 | 17.6 | 83,429,419 | 18.6 | 4,673,366 | 5.9 | 4,673,366 |
| 16,230,082 | 3.6 | 15,016,160 | 3.3 | △1,213,922 | △7.5 | △1,213,922 |
| 9,116,787 | 2.0 | 9,332,999 | 2.1 | 216,212 | 2.4 | 216,212 |
| 11,335,412 | 2.5 | 11,777,607 | 2.6 | 442,195 | 3.9 | 442,195 |
| 14,271,853 | 3.2 | 18,110,013 | 4.0 | 3,838,160 | 26.9 | 3,838,160 |
| 970,580 | 0.2 | 902,391 | 0.2 | △68,189 | △7.0 | △68,189 |
| 7,561,518 | 1.7 | 9,087,625 | 2.0 | 1,526,107 | 20.2 | 1,526,107 |
| 8,109,545 | 1.8 | 7,747,517 | 1.7 | △362,028 | △4.5 | △362,028 |
| 4,600,000 | 1.0 | 4,200,000 | 0.9 | △400,000 | △8.7 | △400,000 |
| 446,242,182 | 100 | 449,526,707 | 100 | 3,284,525 | 0.7 | 3,284,525 |

269

**나. 소관별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by Agenci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0 | |  |  | | --- | --- | | 구 분 Classification | 2023년도 예산FY 2023 Budget | | 0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Office of the President & Office of National Security) | 98,523  116,322  730,563  1,775,798  55,492  406,700  34,033  137,381  852,631  664,685  26,852,966 4,600,000  22,252,966 96,915,833 8,723,015  3,249,526  323,340  4,176,002  40,097,410 78,843,266 6,029,898  3,303,513  5,537,241  6,334,299  66,737,992  7,037,787  6,239,387  599,121  19,445,889 | | 02. 대통령경호처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 | 03. 국회 (National Assembly) | | 04. 대법원 (Supreme Court) | | 05.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 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 | 08. 감사원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 | 09. 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 | 1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Prime Minister's Secretariat) | | 11.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 • 예비비 (Contingency) | | • 일반경비 (General Adm. ) | | 12.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 |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 14.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 15.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 | 16.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 | 17.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 18.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 19. 국가보훈부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 | 20.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 21.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 22.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 23.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 24.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 25.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 26.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 27.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4년도 예산 FY 2024 Budget | 증 감  Change | | | 금액 Amount | 증감률(%)  Rate | | 103,102 | 4,579 | 4.6  15.3  5.1  5.0  2.3  110.8  2.8  6.4  4.6 △2.4  19.3 △8.7  25.1 △6.1 △6.0  24.0 △0.4  2.8  4.2 △11.5  3.8  1.3  4.8 △12.5  8.8  11.9 △11.0  14.7  13.8 | | 134,096 | 17,774 | | 767,653 | 37,090 | | 1,864,618 | 88,820 | | 56,766 | 1,274 | | 857,227 | 450,527 | | 34,974 | 941 | | 146,167 | 8,786 | | 892,100 | 39,469 | | 648,919 | △15,766 | | 32,031,687 | 5,178,721 | | 4,200,000 | △400,000 | | 27,831,687 | 5,578,721 | | 90,968,627 | △5,947,206 | | 8,195,506 | △527,509 | | 4,029,753 | 780,227 | | 322,027 | △1,313 | | 4,293,578 | 117,576 | | 41,771,198 | 1,673,788 | | 69,758,818 | △9,084,448 | | 6,256,190 | 226,292 | | 3,347,258 | 43,745 | | 5,804,217 | 266,976 | | 5,545,535 | △788,764 | | 72,628,824 | 5,890,832 | | 7,874,785 | 836,998 | | 5,552,020 | △687,367 | | 687,239 | 88,118 | | 22,131,164 | 2,685,275 | | 271 |

|  |  |
| --- | --- |
| 구 분 Classification | 2023년도 예산FY 2023 Budget |
| 28.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3,550,344  4,962,237  5,117,009  43,728  670,370  17,683  41,013 - 49,323  159,603  3,763,619  94,958  143,270  58,924  1,924,078  640,249  393,704 - 333,109  16,916,892  12,401,341  308,781  1,187,825  1,151,416  1,946,718  2,368,937  466,628  220,215  148,369  1,810,881  13,268  19,077  446,242,182 |
| 29.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 30. 인사혁신처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
| 31.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 32.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 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
| 34.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 35. 국가교육위원회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n) |
| 36.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 37. 공정거래위원회 (Korea Fair Trade Commission) |
| 38.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 39.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 40.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
| 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
| 42.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 43.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
| 44. 통계청 (Statistics Korea) |
| 46. 재외동포청 (Overseas Korean Agency) |
| 47. 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
| 48.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 49. 경찰청 (National Police Agency) |
| 50.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
| 51.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 52.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 53.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
| 55. 질병관리청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
| 56.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 5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
| 58. 새만금개발청 (Saemangeum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
| 59.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
| 60. 5·1 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ruth Commission) |
| 6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
| 합 계 (Total) |

272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  |  |  |
| --- | --- | --- |
| 2024년도 예산 FY 2024 Budget | 증 감  Change | |
| 금액 Amount | 증감률(%)  Rate |
| 3,447,126 | △103,218 | △2.9  24.8  13.5  3.9  6.6  16.9  0.7 순증 △0.4 △0.7  6.4  17.5 △5.0  11.0  1.4  3.5  8.0 순증 23.6  4.4  4.4  10.2  1.6 △12.7  10.2 △73.6 △4.4 △43.3 △67.8  4.7 △48.1 △12.2  0.7 |
| 6,193,643 | 1,231,406 |
| 5,805,296 | 688,287 |
| 45,418 | 1,690 |
| 714,374 | 44,004 |
| 20,680 | 2,997 |
| 41,303 | 290 |
| 10,279 | 10,279 |
| 49,118 | △205 |
| 158,429 | △1,174 |
| 4,003,018 | 239,399 |
| 111,592 | 16,634 |
| 136,045 | △7,225 |
| 65,377 | 6,453 |
| 1,951,242 | 27,164 |
| 662,375 | 22,126 |
| 425,267 | 31,563 |
| 106,660 | 106,660 |
| 411,873 | 78,764 |
| 17,653,240 | 736,348 |
| 12,949,393 | 548,052 |
| 340,389 | 31,608 |
| 1,206,701 | 18,876 |
| 1,004,622 | △146,794 |
| 2,144,531 | 197,813 |
| 625,637 | △1,743,300 |
| 446,242 | △20,386 |
| 124,796 | △95,419 |
| 47,702 | △100,667 |
| 1,896,654 | 85,773 |
| 6,888 | △6,380 |
| 16,749 | △2,328 |
| 449,526,707 | 3,284,525 |

273

**다. 기능별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by Function)

|  |  |  |
| --- | --- | --- |
| 기 능 Function | 2023년도 예산 FY 2023 Budget | |
| 금 액 Amount | 구성비(%)  Composition |
| 1.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 105,936,371 | 23.7 |
| 1) 입법 및 선거관리 (Legislation & Election Administration) | 1,137,263 | 0.3 |
| 2) 국정운영 (National Administration) | 668,390 | 0.1 |
| 3) 지방행정·재정지원 (Support for Local Administration & Finance) | 76,541,773 | 17.2 |
| 4) 재정·금융 (Budget & Finance) | 23,500,918 | 5.3 |
| 5) 정부자원관리 (Management of Government Resources) | 1,077,521 | 0.2 |
| 6) 일반행정 (General Administration) | 3,010,506 | 0.7 |
| 2.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 21,168,355 | 4.7 |
| 1) 법원 및 헌재 (Law Court & Constitutional Court) | 1,831,290 | 0.4 |
| 2) 법무 및 검찰 (Justice & Prosecution) | 4,193,685 | 0.9 |
| 3) 경찰 (Police) | 12,466,404 | 2.8 |
| 4) 해경 (Maritime Police) | 1,778,873 | 0.4 |
| 5) 재난관리 (Disaster Management) | 898,103 | 0.2 |
| 3. 통일·외교 (National Unification & Foreign Affairs) | 3,606,899 | 0.8 |
| 1) 통일 (National Unification) | 357,373 | 0.1 |
| 2) 외교·통상 (Foreign Affairs & Trade) | 3,249,526 | 0.7 |
| 4. 국방 (National Defense) | 57,347,411 | 12.9 |
| 1) 병력운영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 23,275,162 | 5.2 |
| 2) 전력유지 (Maintenance of Military Force) | 16,822,248 | 3.8 |
| 3) 방위력개선 (National Defense Improvement) | 16,916,892 | 3.8 |
| 4) 병무행정 (Military Affairs Administration) | 333,109 | 0.1 |
| 5. 교육 (Education) | 96,953,244 | 21.7 |
|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Pre/Primary/Secondary School Education) | 80,379,069 | 18.0 |
| 2) 고등교육 (College & University Education) | 15,919,351 | 3.6 |
| 3) 평생·직업교육 (Lifelong & Vocational Education) | 501,563 | 0.1 |
| 4) 교육일반 (General Education) | 153,261 | 0.0 |

274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  |  |  |  |
| --- | --- | --- | --- |
| 2024년도 예산 FY 2024 Budget | | 증 감  Change | |
| 금 액 Amount | 구성비(%)  Composition | 금 액 Amount | 증감률(%)  Rate |
| 101,719,441 | 22.6 | △4,216,930 | △4.0 |
| 1,624,880 | 0.4 | 487,617 | 42.9 |
| 652,135 | 0.1 | △16,255 | △2.4 |
| 66,990,427 | 14.9 | △9,551,346 | △12.5 |
| 28,241,310 | 6.3 | 4,740,392 | 20.2 |
| 1,028,357 | 0.2 | △49,164 | △4.6 |
| 3,182,332 | 0.7 | 171,826 | 5.7 |
| 22,426,772 | 5.0 | 1,258,418 | 5.9 |
| 1,921,384 | 0.4 | 90,094 | 4.9 |
| 4,314,258 | 1.0 | 120,573 | 2.9 |
| 13,015,719 | 2.9 | 549,315 | 4.4 |
| 1,880,782 | 0.4 | 101,909 | 5.7 |
| 1,294,629 | 0.3 | 396,526 | 44.2 |
| 4,493,414 | 1.0 | 886,515 | 24.6 |
| 357,001 | 0.1 | △372 | △0.1 |
| 4,136,413 | 0.9 | 886,887 | 27.3 |
| 59,836,311 | 13.3 | 2,488,900 | 4.3 |
| 24,329,179 | 5.4 | 1,054,017 | 4.5 |
| 17,442,019 | 3.9 | 619,771 | 3.7 |
| 17,653,240 | 3.9 | 736,348 | 4.4 |
| 411,873 | 0.1 | 78,764 | 23.6 |
| 91,016,090 | 20.2 | △5,937,154 | △6.1 |
| 73,370,563 | 16.3 | △7,008,506 | △8.7 |
| 16,955,456 | 3.8 | 1,036,105 | 6.5 |
| 532,268 | 0.1 | 30,705 | 6.1 |
| 157,803 | 0.0 | 4,542 | 3.0 |

275

|  |  |  |
| --- | --- | --- |
| 기 능 Function | 2023년도 예산 FY 2023 Budget | |
| 금 액 Amount | 구성비(%)  Composition |
| 6.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 4,576,428 | 1.0 |
| 1) 문화예술 (Culture & Arts) | 3,066,057 | 0.7 |
| 2) 관광 (Tourism) | 6,849 | 0.0 |
| 3) 체육 (Sports) | 5,025 | 0.0 |
| 4) 문화재 (Cultural Properties) | 1,187,825 | 0.3 |
| 5) 문화 및 관광일반 (General Culture & Tourism) | 310,672 | 0.1 |
|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 5,701,644 | 1.3 |
| 1) 해양환경 (Marine Environment) | 232,196 | 0.1 |
| 2) 환경일반 (General Environment) | 5,469,448 | 1.2 |
|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 78,756,053 | 17.6 |
| 1) 기초생활보장 (Basic Livelihood Guarantee) | 19,135,491 | 4.3 |
| 2) 취약계층지원 (Support for the Underprivileged) | 4,585,437 | 1.0 |
| 3) 공적연금 (Public Pension) | 4,956,713 | 1.1 |
| 4) 보훈 (Patriots & Veterans Affairs) | 6,029,898 | 1.4 |
| 5) 주택 (Housing) | 4,703,056 | 1.1 |
| 6) 사회복지일반 (General Social Welfare) | 542,705 | 0.1 |
| 7) 아동·보육 (Children and Child Care Centers) | 9,540,526 | 2.1 |
| 8) 노인 (Senior) | 22,423,719 | 5.0 |
| 9) 여성·가족·청소년 (Women, Family, and Youth) | 599,121 | 0.1 |
| 10) 고용 (Employment) | 5,477,014 | 1.2 |
| 11) 노동 (Labor) | 140,956 | 0.0 |
| 12) 고용노동일반 (Employment and Labor (General) | 621,417 | 0.1 |
| 9. 보건 (Health) | 16,230,082 | 3.6 |
| 1) 보건의료 (Healthcare) | 4,970,352 | 1.1 |
| 2)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10,589,360 | 2.4 |
| 3) 식품의약안전 (Food & Drug Safety) | 670,370 | 0.2 |
|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 9,116,787 | 2.0 |
| 1) 농업·농촌 (Agriculture & Farming Villages) | 6,688,657 | 1.5 |
| 2) 임업·산촌 (Forestry & Mountain Villages) | 1,946,718 | 0.4 |
| 3) 수산·어촌 (Fisheries & Fishing Villages) | 481,412 | 0.1 |

276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  |  |  |  |
| --- | --- | --- | --- |
| 2024년도 예산 FY 2024 Budget | | 증 감  Change | |
| 금 액 Amount | 구성비(%)  Composition | 금 액 Amount | 증감률(%)  Rate |
| 4,608,344 | 1.0 | 31,916 | 0.7 |
| 3,081,042 | 0.7 | 14,985 | 0.5 |
| 7,201 | 0.0 | 352 | 5.1 |
| 6,059 | 0.0 | 1,034 | 20.6 |
| 1,206,701 | 0.3 | 18,876 | 1.6 |
| 307,341 | 0.1 | △3,331 | △1.1 |
| 5,822,604 | 1.3 | 120,960 | 2.1 |
| 156,875 | 0.0 | △75,321 | △32.4 |
| 5,665,729 | 1.3 | 196,281 | 3.6 |
| 83,429,419 | 18.6 | 4,673,366 | 5.9 |
| 20,822,507 | 4.6 | 1,687,016 | 8.8 |
| 5,076,849 | 1.1 | 491,412 | 10.7 |
| 5,632,890 | 1.3 | 676,177 | 13.6 |
| 6,256,190 | 1.4 | 226,292 | 3.8 |
| 3,497,906 | 0.8 | △1,205,150 | △25.6 |
| 570,645 | 0.1 | 27,940 | 5.1 |
| 10,497,881 | 2.3 | 957,355 | 10.0 |
| 24,835,292 | 5.5 | 2,411,573 | 10.8 |
| 687,239 | 0.2 | 88,118 | 14.7 |
| 4,763,732 | 1.1 | △713,282 | △13.0 |
| 146,812 | 0.0 | 5,856 | 4.2 |
| 641,476 | 0.1 | 20,059 | 3.2 |
| 15,016,160 | 3.3 | △1,213,922 | △7.5 |
| 2,496,973 | 0.6 | △2,473,379 | △49.8 |
| 11,804,813 | 2.6 | 1,215,453 | 11.5 |
| 714,374 | 0.2 | 44,004 | 6.6 |
| 9,332,999 | 2.1 | 216,212 | 2.4 |
| 6,808,839 | 1.5 | 120,182 | 1.8 |
| 2,144,531 | 0.5 | 197,813 | 10.2 |
| 379,629 | 0.1 | △101,783 | △21.1 |

277

|  |  |  |
| --- | --- | --- |
| 기 능 Function | 2023년도 예산 FY 2023 Budget | |
| 금 액 Amount | 구성비(%)  Composition |
| 1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 11,335,412 | 2.5 |
| 1) 무역 및 투자유치(Trade & Investment Inducement) | 864,897 | 0.2 |
| 2) 에너지 및 자원개발(Development of Energy & Resources) | 5,405 | 0.0 |
| 3) 산업·중소기업일반(General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2,060,825 | 0.5 |
| 4) 산업혁신지원(Support for Industrial Innovation) | 5,547,313 | 1.2 |
| 5) 창업 및 벤처(Start-up and Venture) | 733,419 | 0.2 |
| 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upport ) | 2,123,553 | 0.5 |
| 12.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 | 14,271,853 | 3.2 |
| 1) 도로 (National Road) | 2,218,130 | 0.5 |
| 2) 철도 (Railroad) | 7,879,733 | 1.8 |
| 3) 해운·항만 (Marine Transportation & Ports) | 1,685,599 | 0.4 |
| 4) 항공·공항 (Aviation & Airport) | 344,141 | 0.1 |
| 5) 물류 등 기타 (Distribution & Others) | 2,144,250 | 0.5 |
| 13. 통신 (Communication) | 970,580 | 0.2 |
| 1) 방송통신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 249,021 | 0.1 |
| 2) 정보통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 721,559 | 0.2 |
| 14. 국토 및 지역개발 (Land & Regional Development) | 7,561,518 | 1.7 |
| 1) 수자원 (Water Resources) | 1,568,194 | 0.4 |
| 2) 지역 및 도시 (Region & City) | 5,992,824 | 1.3 |
| 3) 산업단지 (Industrial Complex) | 500 | 0.0 |
|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 8,109,545 | 1.8 |
| 1) 과학기술연구지원 (Support for Science & Technology Research) | 3,498,578 | 0.8 |
| 2) 과학기술일반 (General Science & Technology) | 661,945 | 0.1 |
| 3) 과학기술인력 및 문화 (Science and Technology - Human Resources and Culture) | 211,039 | 0.0 |
| 4) 과학기술연구개발 (Science and Technology - Research Development) | 3,737,983 | 0.8 |
| 16. 예비비 (Reserve Fund) | 4,600,000 | 1.0 |
| 1) 예비비 (Reserve Fund) | 4,600,000 | 1.0 |
| 합 계 (Total) | 446,242,182 | 100.0 |

278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  |  |  |  |
| --- | --- | --- | --- |
| 2024년도 예산 FY 2024 Budget | | 증 감  Change | |
| 금 액 Amount | 구성비(%)  Composition | 금 액 Amount | 증감률(%)  Rate |
| 11,777,607 | 2.6 | 442,195 | 3.9 |
| 893,430 | 0.2 | 28,533 | 3.3 |
| 6,350 | 0.0 | 945 | 17.5 |
| 3,505,012 | 0.8 | 1,444,187 | 70.1 |
| 4,711,295 | 1.0 | △836,018 | △15.1 |
| 716,217 | 0.2 | △17,202 | △2.3 |
| 1,945,303 | 0.4 | △178,250 | △8.4 |
| 18,110,013 | 4.0 | 3,838,160 | 26.9 |
| 5,186,230 | 1.2 | 2,968,100 | 133.8 |
| 8,127,672 | 1.8 | 247,939 | 3.1 |
| 1,828,267 | 0.4 | 142,668 | 8.5 |
| 921,227 | 0.2 | 577,086 | 167.7 |
| 2,046,617 | 0.5 | △97,633 | △4.6 |
| 902,391 | 0.2 | △68,189 | △7.0 |
| 251,489 | 0.1 | 2,468 | 1.0 |
| 650,902 | 0.1 | △70,657 | △9.8 |
| 9,087,625 | 2.0 | 1,526,107 | 20.2 |
| 2,199,411 | 0.5 | 631,217 | 40.3 |
| 6,885,314 | 1.5 | 892,490 | 14.9 |
| 2,900 | 0.0 | 2,400 | 480.0 |
| 7,747,517 | 1.7 | △362,028 | △4.5 |
| 3,247,169 | 0.7 | △251,409 | △7.2 |
| 629,021 | 0.1 | △32,924 | △5.0 |
| 125,025 | 0.0 | △86,014 | △40.8 |
| 3,746,302 | 0.8 | 8,319 | 0.2 |
| 4,200,000 | 0.9 | △400,000 | △8.7 |
| 4,200,000 | 0.9 | △400,000 | △8.7 |
| 449,526,707 | 100.0 | 3,284,526 | 0.7 |

279

**라. 성질별 세출예산**(Expenditure Budget by Functions)

|  |  |
| --- | --- |
| 구 분 Classification | 2023년도 예산FY 2023 Budget |
| 10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 40,587,703 |
| 11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 40,587,703 |
| 200 물건비 (Goods Services) | 25,468,312 |
| 210 운영비 (Office Operation) | 20,362,018 |
| 220 여비 (Travel Expenses) | 564,759 |
| 230 특수활동비 (Special Operation Expenses) | 124,909 |
| 240 업무추진비 (Management Expenses) | 168,359 |
| 250 직무수행경비 (Work Operation Expenses) | 1,038,298 |
| 260 연구용역비 (Research and Service Expenses) | 2,238,920 |
| 270 안보비 (National Security Expenses) | 852,631 |
| 280 정보보안비(Intelligence Security Expenses) | 118,417 |
| 300 이전지출 (Current Transfers) | 277,470,713 |
| 310 보전금 (Compensation) | 23,832,299 |
| 320 민간이전 (Transfers to Private Sector) | 11,238,727 |
| 330 자치단체이전 (Transfers to Local Gov't) | 208,303,955 |
| 340 해외이전 (Transfers to Abroad) | 1,915,788 |
| 350 일반출연금 (General Funds) | 13,539,798 |
| 360 연구개발출연금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s) | 18,640,145 |
| 400 자산취득 (Asset Acquisition) | 21,305,368 |
| 410 건설보상비 (Compensation Cost for Construction & Facilities) | 338,720 |
| 420 건설비 (Construction & Facilities Assets) | 6,728,540 |
| 430 유형자산 (Tangible Assets) | 12,787,347 |
| 440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 37,260 |
| 460 출자금 (Investment) | 1,393,761 |
| 490 지분취득비 (Share of Assets) | 19,740 |
| 50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 14,484,321 |
| 51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 14,484,321 |
| 600 전출금등 (Transfers) | 62,323,609 |
| 610 전출금등 (Transfers and Others) | 62,323,609 |
| 700 예비비 및 기타 (Contingency & Others) | 4,602,156 |
| 710 예비비 및 기타 (Reserve Fund and Others) | 4,602,156 |
| 합 계 (Total) | 446,242,182 |

280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  |  |  |
| --- | --- | --- |
| 2024년도 예산 FY 2024 Budget | 증 감  Change | |
| 금 액 Amount | 증감율(%)  Rate |
| 42,328,148 | 1,740,444 | 4.3 |
| 42,328,148 | 1,740,444 | 4.3 |
| 25,416,336 | △51,976 | △0.2 |
| 20,484,675 | 122,656 | 0.6 |
| 589,577 | 24,819 | 4.4 |
| 122,836 | △2,073 | △1.7 |
| 174,744 | 6,385 | 3.8 |
| 1,043,918 | 5,620 | 0.5 |
| 1,965,495 | △273,425 | △12.2 |
| 892,100 | 39,469 | 4.6 |
| 142,990 | 24,573 | 20.8 |
| 261,604,311 | △15,866,402 | △5.7 |
| 24,344,153 | 511,854 | 2.1 |
| 10,792,590 | △446,137 | △4.0 |
| 198,699,241 | △9,604,714 | △4.6 |
| 2,389,947 | 474,159 | 24.8 |
| 7,969,016 | △5,570,782 | △41.1 |
| 17,409,363 | △1,230,783 | △6.6 |
| 22,869,975 | 1,564,607 | 7.3 |
| 346,104 | 7,384 | 2.2 |
| 7,046,862 | 318,322 | 4.7 |
| 13,815,095 | 1,027,749 | 8.0 |
| 30,497 | △6,763 | △18.2 |
| 1,631,416 | 237,655 | 17.1 |
| - | △19,740 | 순감 |
| 18,361,215 | 3,876,894 | 26.8 |
| 18,361,215 | 3,876,894 | 26.8 |
| 74,744,631 | 12,421,022 | 19.9 |
| 74,744,631 | 12,421,022 | 19.9 |
| 4,202,091 | △400,065 | △8.7 |
| 4,202,091 | △400,065 | △8.7 |
| 449,526,707 | 3,284,526 | 0.7 |

281

**마. 2024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기능별 성질별 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Classification | 인건비(100) Personnel Expense | | | | | |
| 계 Total | 보수(110-01) Wages | 기타직보수(110-02)  Wages for  Non-Public Officials | 상용임금(110-03)  Wages for Fixed-Term Contract Employees | 일용임금(110-04) Wage for Daily Employees | 연가보상비(110-05) Stipends for Non- Used Vacations |
| 1.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 3,821,527 | 3,351,059 | 80,643 | 265,020 | 98,941 | 25,864 |
| 2.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 15,414,652 | 14,756,265 | 156,557 | 383,438 | 14,392 | 104,000 |
| 3. 통일·외교  (National Unification & Foreign Affairs) | 694,973 | 457,313 | 3,285 | 225,669 | 7,349 | 1,356 |
| 4. 국방  (National Defense) | 18,091,056 | 17,533,362 | 21,257 | 330,938 | 6,258 | 199,241 |
| 5. 교육  (Education) | 249,327 | 233,541 | 1,099 | 13,448 | 444 | 794 |
| 6.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 531,867 | 299,952 | 15,000 | 208,472 | 6,329 | 2,115 |
|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 1,043 | 872 | - | 171 | - | - |
|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 1,029,532 | 724,657 | 123,531 | 156,342 | 19,339 | 5,662 |
| 9. 보건  (Health) | 347,289 | 251,709 | 5,517 | 86,015 | 2,056 | 1,993 |
|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 959,153 | 671,865 | 70,642 | 160,491 | 51,018 | 5,138 |
|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 261,838 | 232,781 | 13,312 | 11,615 | 2,518 | 1,612 |
| 12.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 | 547,952 | 463,166 | 59,599 | 16,161 | 5,580 | 3,447 |
| 13. 통신  (Communication) | 106,334 | 95,434 | 7,413 | 2,529 | 209 | 750 |
| 14. 국토 및 지역개발  (Land & Regional Development) | 43,797 | 34,961 | 352 | 8,156 | 49 | 280 |
|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 227,806 | 190,860 | 8,284 | 26,590 | 592 | 1,481 |
| 16. 예비비  (ReserveFund) | - | - | - | - | - | - |
| 합 계 (Total) | 42,328,148 | 39,297,796 | 566,493 | 1,895,055 | 215,071 | 353,733 |

282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  |  |  |  |  |  |  |
| --- | --- | --- | --- | --- | --- | --- |
| 물건비(200) Goods Service | 이전지출(300) Current Transfer | 자산취득(400) Asset Acquisition | 상환지출(500) Repayment of  Loans | 전출금등(600) Transfers | 예비비및기타(700) Contingency & Others | 합 계 Total |
| 3,398,767 | 69,982,387 | 1,280,326 | 18,361,215 | 4,873,533 | 1,686 | 101,719,441 |
| 3,809,804 | 1,712,058 | 1,354,235 | - | 135,718 | 305 | 22,426,772 |
| 730,538 | 2,892,339 | 75,563 | - | 100,000 | - | 4,493,414 |
| 13,791,255 | 7,316,852 | 16,909,531 | - | 3,727,617 | - | 59,836,311 |
| 192,283 | 70,571,639 | 38,542 | - | 19,964,299 | - | 91,016,090 |
| 616,557 | 2,602,032 | 702,895 | - | 154,981 | 13 | 4,608,344 |
| 15,078 | 126,466 | 14,288 | - | 5,665,729 | - | 5,822,604 |
| 525,250 | 72,287,332 | 130,896 | - | 9,456,330 | 80 | 83,429,419 |
| 601,373 | 13,625,141 | 73,858 | - | 368,500 | - | 15,016,160 |
| 632,520 | 1,499,430 | 591,319 | - | 5,650,570 | 7 | 9,332,999 |
| 154,276 | 6,146,539 | 33,193 | - | 5,181,761 | 1 | 11,777,607 |
| 340,426 | 3,954,968 | 224,592 | - | 13,042,075 | - | 18,110,013 |
| 63,942 | 713,541 | 4,622 | - | 13,952 | - | 902,391 |
| 303,867 | 1,024,446 | 1,371,100 | - | 6,344,415 | - | 9,087,625 |
| 240,399 | 7,149,144 | 65,017 | - | 65,151 | - | 7,747,517 |
| - | - | - | - | - | 4,200,000 | 4,200,000 |
| 25,416,336 | 261,604,311 | 22,869,975 | 18,361,215 | 74,744,631 | 4,202,091 | 449,526,707 |

283

**바. 2024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성질별 기능별 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Classification | 일반·지방행정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 외교·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 국 방 National Defense | 교 육 Education | 문화 및 관광Culture &  Tourism |
| 10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 3,821,527 | 15,414,652 | 694,973 | 18,091,056 | 249,327 | 531,867 |
| 110 보수  (Wages) | 3,351,059 | 14,756,265 | 457,313 | 17,533,362 | 233,541 | 299,952 |
| 110 기타직보수  (Wages for non-public Officials) | 80,643 | 156,557 | 3,285 | 21,257 | 1,099 | 15,000 |
| 110 상용임금  (Wages for fixed-term employees) | 265,020 | 383,438 | 225,669 | 330,938 | 13,448 | 208,472 |
| 110 일용임금  (Daily wages) | 98,941 | 14,392 | 7,349 | 6,258 | 444 | 6,329 |
| 110 연가보상비  (Stipends for Non-Used Vacation) | 25,864 | 104,000 | 1,356 | 199,241 | 794 | 2,115 |
| 200 물건비  (Goods Services) | 3,398,767 | 3,809,804 | 730,538 | 13,791,255 | 192,283 | 616,557 |
| 210 운영비  (Office Operation) | 1,915,698 | 2,612,805 | 628,744 | 12,570,499 | 167,690 | 519,247 |
| 220 여비  (Travel Expenses) | 167,666 | 103,084 | 60,332 | 153,219 | 5,148 | 14,466 |
| 230 특수활동비  (Special Operation Expenses) | 22,929 | 97,038 | 2,403 | - | - | - |
| 240 업무추진비  (Management Expenses) | 53,355 | 34,133 | 19,138 | 46,254 | 1,186 | 2,929 |
| 250 직무수행경비  (Work Operation Expenses) | 128,751 | 842,714 | 2,425 | 37,841 | 1,041 | 2,622 |
| 260 연구용역비  (Research and Service Expenses) | 218,268 | 115,867 | 17,497 | 848,352 | 17,218 | 77,293 |
| 270 안보비  (National Security Expenses) | 892,100 | - | - | - | - | - |
| 280 정보보안비  (Intelligence Security Expenses) | - | 4,162 | - | 135,090 | - | - |
| 300 이전지출  (Current Transfers) | 69,982,387 | 1,712,058 | 2,892,339 | 7,316,852 | 70,571,639 | 2,602,032 |
| 310 보전금  (Compensation) | 404,810 | 162,288 | 30,713 | 1,668,863 | 126,888 | 21,141 |
| 320 민간이전  (Transfers to Private Sector) | 413,364 | 526,185 | 747,771 | 689,111 | 231,411 | 1,629,642 |

284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 경 Environmental Protection | 사회복지Social  Welfare | 보 건Health |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 교통 및 물류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 통 신 Communication | 국토 및 지역개발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 예비비 Reserve Funds | 합 계Total |
| 1,043 | 1,029,532 | 347,289 | 959,153 | 261,838 | 547,952 | 106,334 | 43,797 | 227,806 | - | 42,328,148 |
| 872 | 724,657 | 251,709 | 671,865 | 232,781 | 463,166 | 95,434 | 34,961 | 190,860 | - | 39,297,796 |
| - | 123,531 | 5,517 | 70,642 | 13,312 | 59,599 | 7,413 | 352 | 8,284 | - | 566,493 |
| 171 | 156,342 | 86,015 | 160,491 | 11,615 | 16,161 | 2,529 | 8,156 | 26,590 | - | 1,895,055 |
| - | 19,339 | 2,056 | 51,018 | 2,518 | 5,580 | 209 | 49 | 592 | - | 215,071 |
| - | 5,662 | 1,993 | 5,138 | 1,612 | 3,447 | 750 | 280 | 1,481 | - | 353,733 |
| 15,078 | 525,250 | 601,373 | 632,520 | 154,276 | 340,426 | 63,942 | 303,867 | 240,399 | - | 25,416,336 |
| 7,790 | 444,818 | 407,902 | 524,062 | 118,902 | 196,906 | 51,875 | 129,516 | 188,219 | - | 20,484,675 |
| 250 | 19,234 | 10,787 | 20,064 | 12,623 | 12,998 | 2,428 | 1,839 | 5,437 | - | 589,577 |
| - | - | - | - | - | - | - | - | 466 | - | 122,836 |
| 12 | 5,459 | 1,215 | 2,484 | 3,265 | 2,518 | 535 | 498 | 1,764 | - | 174,744 |
| 490 | 13,684 | 2,073 | 3,905 | 2,230 | 2,990 | 800 | 338 | 2,016 | - | 1,043,918 |
| 6,536 | 42,056 | 179,396 | 82,005 | 16,801 | 125,015 | 5,020 | 171,676 | 42,497 | - | 1,965,495 |
| - | - | - | - | - | - | - | - | - | - | 892,100 |
| - | - | - | - | 455 | - | 3,283 | - | - | - | 142,990 |
| 126,466 | 72,287,332 | 13,625,141 | 1,499,430 | 6,146,539 | 3,954,968 | 713,541 | 1,024,446 | 7,149,144 | - | 261,604,311 |
| 10 | 11,151,658 | 10,769,669 | 7,386 | 293 | 272 | 31 | 5 | 127 | - | 24,344,153 |
| 63,625 | 1,541,274 | 1,508,589 | 475,186 | 1,647,455 | 760,076 | 16,794 | 480,002 | 62,106 | - | 10,792,590 |

285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Classification | 일반·지방행정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 외교·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 국 방 National Defense | 교 육 Education | 문화 및 관광Culture &  Tourism |
| 330 자치단체이전  (Transfers to Local Gov't) | 66,923,007 | 681,287 | 18,753 | 134,753 | 69,826,599 | 766,967 |
| 340 해외이전  (Transfers to Abroad) | 502,970 | 10,532 | 796,680 | 592,374 | 110,695 | 7,349 |
| 350 일반출연금 (General Funds) | 1,200,572 | 147,943 | 1,298,423 | 3,314 | 184,079 | 25,000 |
| 360 연구개발출연금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s) | 537,664 | 183,823 | - | 4,228,437 | 91,966 | 151,933 |
| 400 자산취득  (Asset Acquisition) | 1,280,326 | 1,354,235 | 75,563 | 16,909,531 | 38,542 | 702,895 |
| 410 건설보상비  (Compensation Cost for Construction & Facilities) | - | 1,265 | 8,744 | 59,262 | - | 19,481 |
| 420 건설비  (Construction & Facilities Assets) | 131,375 | 471,447 | 39,097 | 4,656,180 | 32,481 | 256,373 |
| 430 유형자산  (Tangible Assets) | 324,535 | 870,452 | 27,499 | 12,192,845 | 6,031 | 86,080 |
| 440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 4,417 | 11,071 | 223 | 1,243 | 30 | 960 |
| 460 출자금  (Investment) | 820,000 | - | - | - | - | 340,000 |
| 50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 18,361,215 | - | - | - | - | - |
| 51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 18,361,215 | - | - | - | - | - |
| 600 전출금 등  (Transfers) | 4,873,533 | 135,718 | 100,000 | 3,727,617 | 19,964,299 | 154,981 |
| 610 전출금 등  (Transfers and Others) | 4,873,533 | 135,718 | 100,000 | 3,727,617 | 19,964,299 | 154,981 |
| 700 예비비 및 기타 (Contingency & Others) | 1,686 | 305 | - | - | - | 13 |
| 710 예비비 및 기타  (Reserve Fund and Others) | 1,686 | 305 | - | - | - | 13 |
| 합 계 (Total) | 101,719,441 | 22,426,772 | 4,493,414 | 59,836,311 | 91,016,090 | 4,608,34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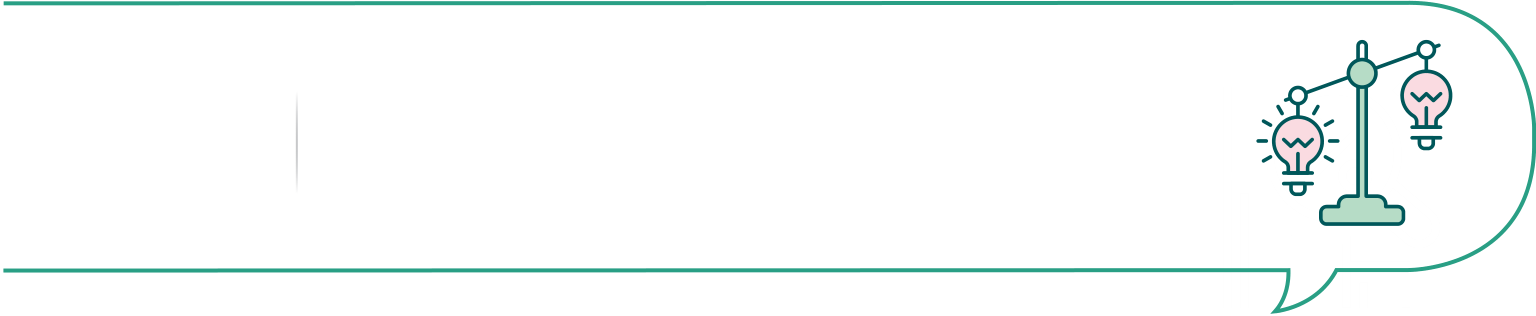
286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 경 Environmental Protection | 사회복지Social  Welfare | 보 건Health |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 교통 및 물류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 통 신 Communication | 국토 및 지역개발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 예비비 Reserve Funds | 합 계Total |
| 29,440 | 58,840,634 | 296,779 | 575,769 | 32,026 | 77,137 | - | 496,090 | - | - | 198,699,241 |
| 1,845 | 59,354 | 43,464 | 226,604 | 5,323 | 8,117 | 5,624 | 5,150 | 13,867 | - | 2,389,947 |
| 31,546 | 694,412 | 95,636 | 39,101 | 1,278,722 | 2,592,136 | 271,345 | 43,198 | 63,589 | - | 7,969,016 |
| - | - | 911,004 | 175,385 | 3,182,719 | 517,229 | 419,747 | - | 7,009,455 | - | 17,409,363 |
| 14,288 | 130,896 | 73,858 | 591,319 | 33,193 | 224,592 | 4,622 | 1,371,100 | 65,017 | - | 22,869,975 |
| - | 5,674 | - | 121,193 | - | - | - | 130,435 | 50 | - | 346,104 |
| 4,402 | 92,364 | 31,491 | 314,628 | 28,015 | 116,329 | 905 | 833,698 | 38,076 | - | 7,046,862 |
| 9,886 | 23,510 | 42,143 | 146,301 | 4,677 | 32,232 | 3,278 | 19,911 | 25,715 | - | 13,815,095 |
| - | 4,348 | 224 | 1,536 | 500 | 4,032 | 439 | 300 | 1,176 | - | 30,497 |
| - | 5,000 | - | 7,660 | - | 72,000 | - | 386,756 | - | - | 1,631,416 |
| - | - | - | - | - | - | - | - | - | - | 18,361,215 |
| - | - | - | - | - | - | - | - | - | - | 18,361,215 |
| 5,665,729 | 9,456,330 | 368,500 | 5,650,570 | 5,181,761 | 13,042,075 | 13,952 | 6,344,415 | 65,151 | - | 74,744,631 |
| 5,665,729 | 9,456,330 | 368,500 | 5,650,570 | 5,181,761 | 13,042,075 | 13,952 | 6,344,415 | 65,151 | - | 74,744,631 |
| - | 80 | - | 7 | 1 | - | - | - | - | 4,200,000 | 4,202,091 |
| - | 80 | - | 7 | 1 | - | - | - | - | 4,200,000 | 4,202,091 |
| 5,822,604 | 83,429,419 | 15,016,160 | 9,332,999 | 11,777,607 | 18,110,013 | 902,391 | 9,087,625 | 7,747,517 | 4,200,000 | 449,526,707 |

287



|  |  |
| --- | --- |
| 03 | 특별회계규모 및 개요Special Accounts |

|  |  |
| --- | --- |
| 회 계 별 Account | 2023년도 본예산 FY 2023 Main Budget |
| (15) 농어촌구조개선 (Agriculture & Fisheries Structure Adjustment S/A) | 14,622,577 |
| (17) 교통시설 (Transportation Facilities S/A) | 15,612,657 |
| (18) 등기 (Registration S/A) | 430,263 |
| (20) 교도작업 (Prison Labor S/A) | 121,479 |
| (24) 에너지 및 자원사업 (Energy & Resources Project Management S/A) | 5,770,437 |
| (25) 환경개선 (Environment Improvement S/A) | 6,734,231 |
| (26)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Competitiveness Enhancement of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s S/A) | 2,346,194 |
| (29) 우체국보험 (Postal Insurance Service S/A) | 1,040,784 |
| (34) 주한미군기지이전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of U.S. Armed Forces in Korea S/A) | 879,936 |
| (3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Construction of Administrative City S/A) | 225,034 |
| (36) 국방·군사시설이전(Relocation of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Installation S/A) | 599,553 |
| (37) 혁신도시건설 (Construction of Innovative City S/A) | 35,666 |
| (3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Construction of Cultural Hub City of Asia S/A) | 152,286 |
| (39) 지역균형발전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A) | 11,927,280 |
| (40) 유아교육지원 (Early Childhood Education Support S/A) | 3,470,037 |
| (41) 고등·평생교육지원 (Higher·lifelong Education Support S/A) | 9,742,730 |
| (51) 양곡관리 (Grain Management S/A) | 2,324,848 |
| (52) 책임운영기관 (Agency) | 1,333,298 |
| (56) 조달 (Public Procurement S/A) | 517,227 |
| (57) 우편사업 (Postal Business S/A) | 5,424,404 |
| (58) 우체국예금 (Postal Office deposit S/A) | 4,415,712 |
| 총계 (Gross Total of Special Accounts) | 87,726,633 |
| 순계(회계간, 계정간거래 제외) (Net Total of Special Accounts) | 79,333,037 |
| 순계(계정간거래 제외) (Net Total of Special Accounts) | 83,899,010 |
| 순계(일반지출) (Net Total of Special Accounts) | 71,633,3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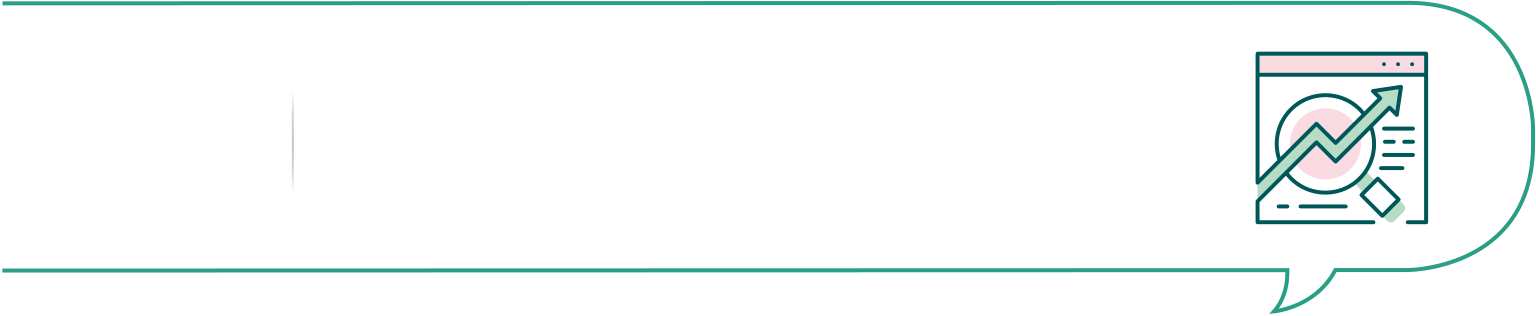
288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  |  |  |  |  |  |
| --- | --- | --- | --- | --- | --- |
| 2023년도 추경예산 FY 2023  Supplementary Budget | 2024년도 예산FY 2024 Budget | 본예산대비 증감  Change | | 추경예산대비 증감 Change | |
| 금 액 Amount | 증감율(%) Rate | 금 액 Amount | 증감율(%) Rate |
| 14,622,577 | 15,511,557 | 888,980 | 6.1 | 888,980 | 6.1 |
| 15,612,657 | 16,566,482 | 953,825 | 6.1 | 953,825 | 6.1 |
| 430,263 | 383,140 | △47,123 | △11.0 | △47,123 | △11.0 |
| 121,479 | 120,529 | △950 | △0.8 | △950 | △0.8 |
| 5,770,437 | 6,471,155 | 700,718 | 12.1 | 700,718 | 12.1 |
| 6,734,231 | 7,047,573 | 313,342 | 4.7 | 313,342 | 4.7 |
| 2,346,194 | 2,168,117 | △178,077 | △7.6 | △178,077 | △7.6 |
| 1,040,784 | 1,061,590 | 20,806 | 2.0 | 20,806 | 2.0 |
| 879,936 | 642,621 | △237,315 | △27.0 | △237,315 | △27.0 |
| 225,034 | 136,303 | △88,731 | △39.4 | △88,731 | △39.4 |
| 599,553 | 576,701 | △22,852 | △3.8 | △22,852 | △3.8 |
| 35,666 | 585,906 | 550,240 | 1,542.8 | 550,240 | 1,542.8 |
| 152,286 | 117,980 | △34,306 | △22.5 | △34,306 | △22.5 |
| 11,927,280 | 13,868,920 | 1,941,640 | 16.3 | 1,941,640 | 16.3 |
| 3,470,037 | 3,232,168 | △237,869 | △6.9 | △237,869 | △6.9 |
| 9,742,730 | 15,792,267 | 6,049,537 | 62.1 | 6,049,537 | 62.1 |
| 2,324,848 | 2,746,019 | 421,171 | 18.1 | 421,171 | 18.1 |
| 1,333,298 | 1,275,336 | △57,962 | △4.3 | △57,962 | △4.3 |
| 517,227 | 802,688 | 285,461 | 55.2 | 285,461 | 55.2 |
| 5,424,404 | 5,439,617 | 15,213 | 0.3 | 15,213 | 0.3 |
| 4,415,712 | 5,940,827 | 1,525,115 | 34.5 | 1,525,115 | 34.5 |
| 87,726,633 | 100,487,496 | 12,760,863 | 14.5 | 12,760,863 | 14.5 |
| 79,333,037 | 91,000,962 | 11,667,925 | 14.7 | 11,667,925 | 14.7 |
| 83,899,010 | 96,106,587 | 12,207,577 | 14.6 | 12,207,577 | 14.6 |
| 71,633,350 | 81,740,619 | 10,107,269 | 14.1 | 10,107,269 | 14.1 |

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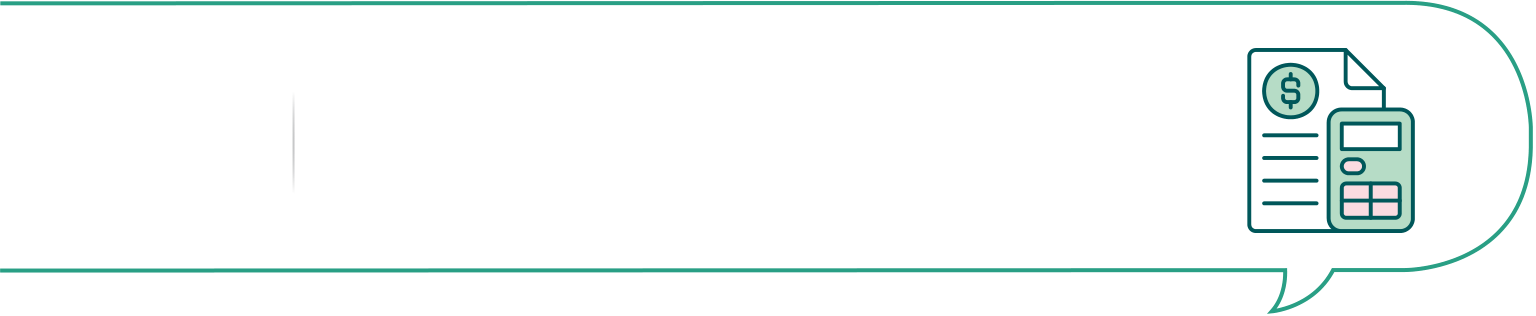


|  |  |
| --- | --- |
| 04 | 계속비 Multiyear Expenditure |

(단위: 천원)

|  |  |  |  |  |
| --- | --- | --- | --- | --- |
| 회계 및 소관 | 사 항 | 금 액 | | |
| 2023예산 | 2024예산 | 증 감 |
|  |  | - | - | - |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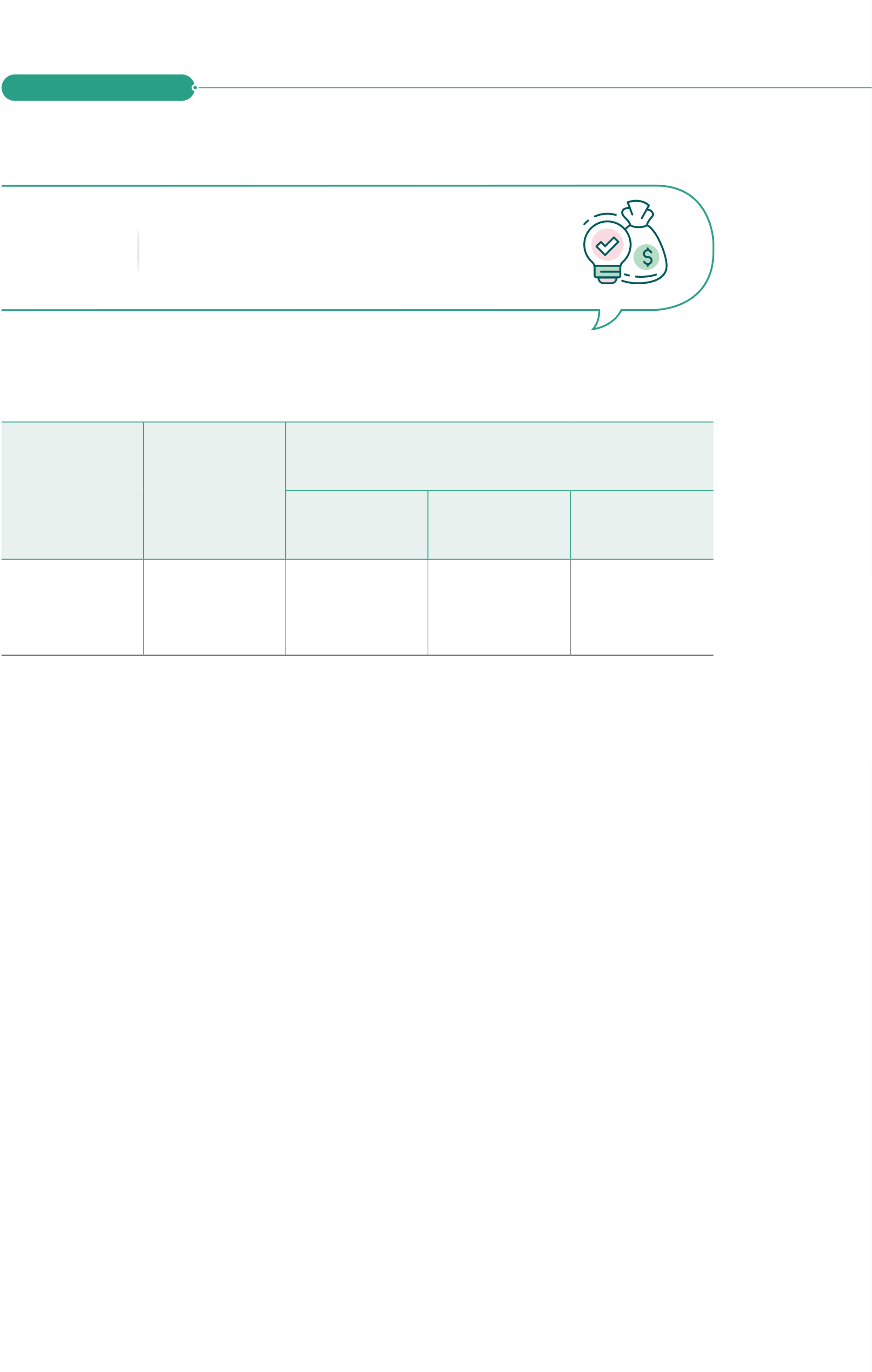


|  |  |
| --- | --- |
| 05 | 명시이월비 Authorized Carryover Expenses |

(단위: 천원)

|  |  |  |  |  |
| --- | --- | --- | --- | --- |
| 회계 및 소관 | 사 항 | 금 액 | | |
| 2023예산 | 2024예산 | 증 감 |
|  |  | - | - | - |

291



06 국고채무부담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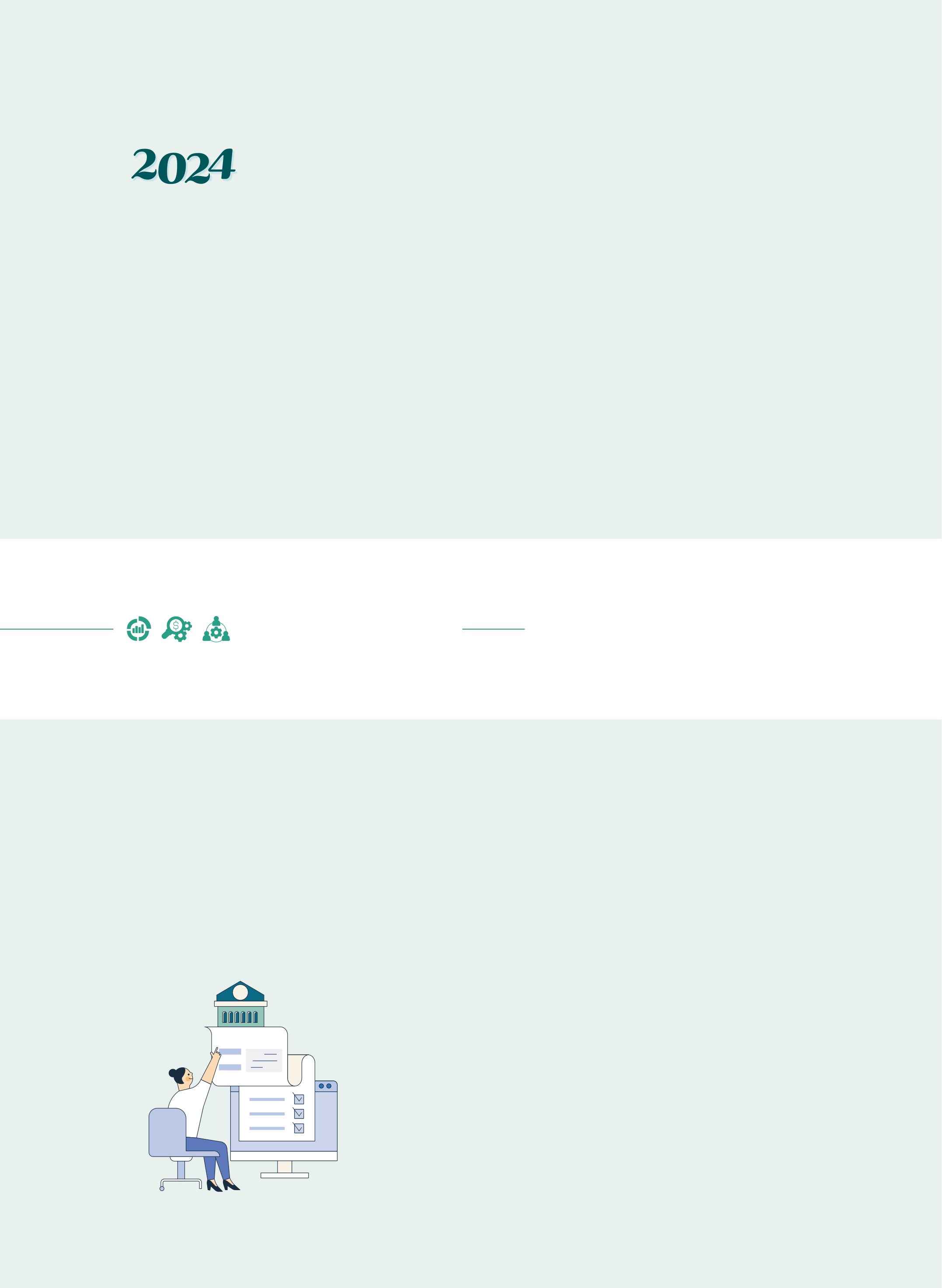
Debts from National Treasury

(단위: 천원)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회계 및 소관 | 사 항 | 2023예산 | 2024예산 | ($-) | 증 감 |
| 기획재정부 | 국제금융 | ($116,000,000) | (△$116,000,000) |
| (녹색기후기금 |
| 149,640,000 |
| (일반회계) | - | △149,640,000 |
| 운영지원(ODA)) |

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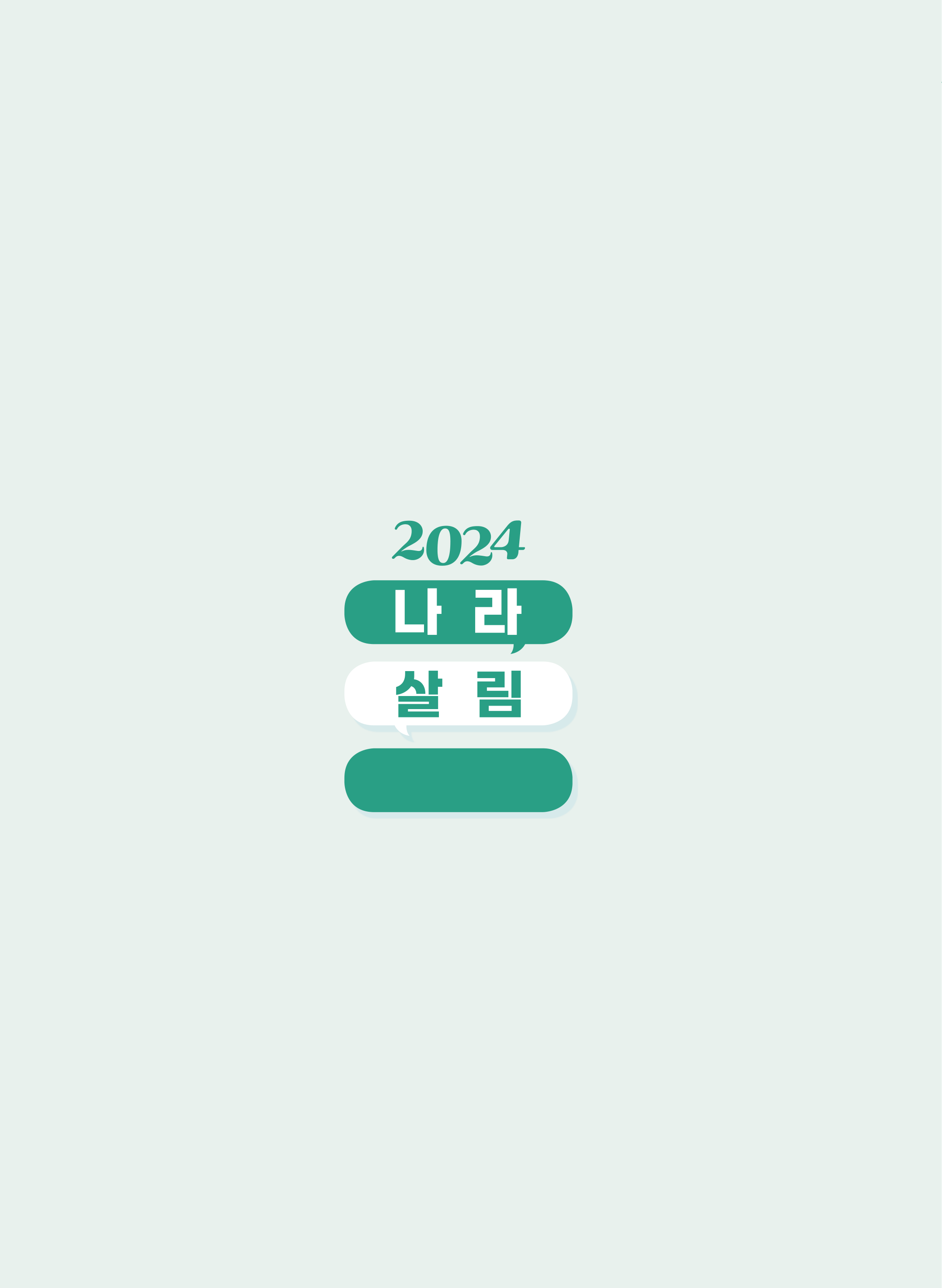
나라살림   
예산개요

제 2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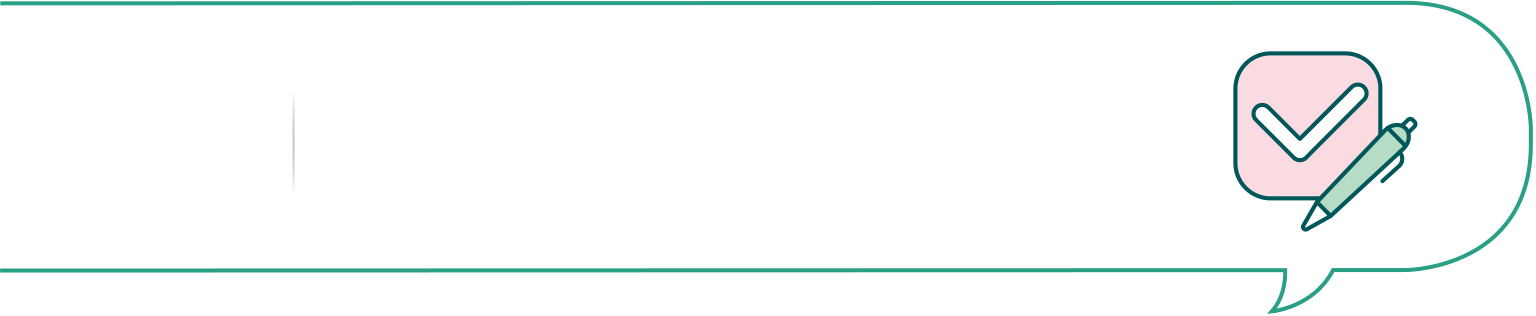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01. 기금요약  
0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03. 기금 수입  
04. 기금 지출



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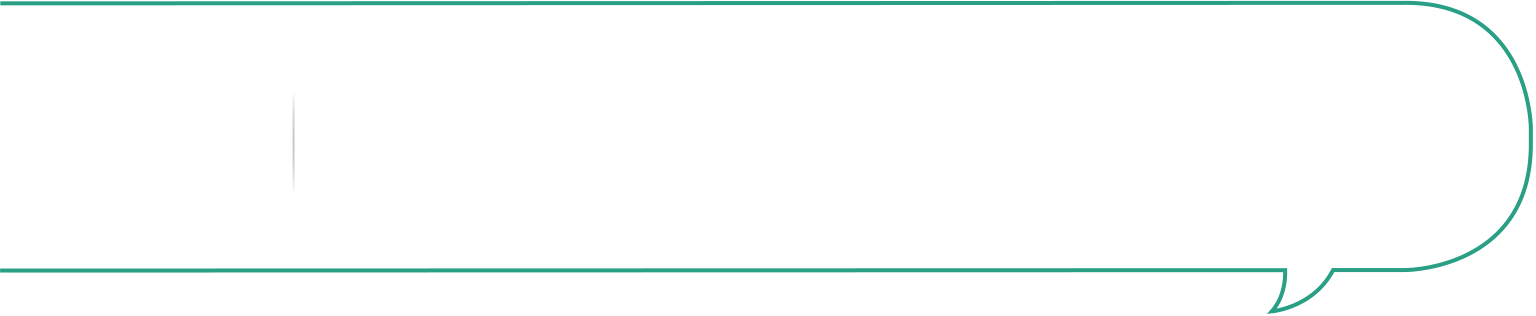
|  |  |
| --- | --- |
| 01 | 기금요약 Summary of Funds |

|  |  |
| --- | --- |
| 구 분 Classification | 기 금 명 Name of Fund |
| 사회보험성기금 Social Security Fund (6개) | -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Teacher's pension fund)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
| 계정성기금 Account Fund (5개) | -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 복권기금 (Lottery Fund) -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
| 금융성기금 Financial Fund (8개) | - 기술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Guarantee Fund)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 Fishing Houses)-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 무역보험기금 (Trade Insurance Fund) -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Deposit Insurance Fund Bond Redemption Fund)-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
| 사업성기금 Project Fund  (49개) | -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국제교류기금 (Fund for International Exchanges) - 국제질병퇴치기금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 근로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Geum River) |

295

|  |  |
| --- | --- |
| 구 분 Classification | 기 금 명 Name of Fund |
| 사업성기금 Project Fund  (49개)   |  | | --- | | 합 계 | | - 기후대응기금 (Korea Climate Action Fund)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icultural Marketing & Price Stabilization)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Direct Payment Fund for the Promotion of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문화예술진흥기금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 문화재보호기금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Fund)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 보훈기금 (Patriots and Veterans Fund)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Judicial Service Promotion Fund) - 사학진흥기금 (Fund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School)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Fund for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Damage Relief Fund)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Micro Enterprise & Market Promotion Fund) -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Fund for the Patriotic Martyrs and Patriots) -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 양성평등기금 (Gender Equality Fund)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eongsan and Seomjin River)- 영화발전기금 (Korean Film Development Fund) - 원자력기금 (Atomic Energy Fund) - 응급의료기금 (Emergency Medical Service Fund) -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Auto Accident Victim Support Fund)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Agricultural Fund for Performance of Free Trade Agreement)-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al Industry Foundation Fund) -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 주택도시기금 (National Housing & Urban Fund)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 청소년육성기금 (Youth Fostering Fund) -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총 68개 기금 |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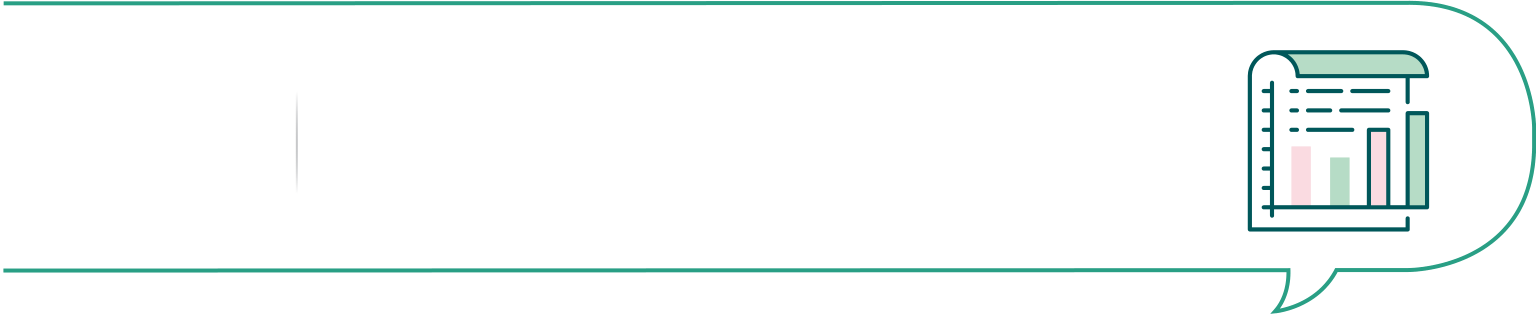


|  |  |
| --- | --- |
| 02 |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Size of Fund Management |

(단위: 조원, In trillion won)

|  |  |  |  |  |
| --- | --- | --- | --- | --- |
| 구 분 Classification | | 운용규모 Fund Operation | | |
| 2023년도FY 2023 |  |  |
| 2024년도 FY 2024 | 증감률(%) Rate |
| 운용규모 (Total) | | 893.1 | 1,023.3 | 14.6 |
| 수 입 |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 212.6 | 231.8 | 9.0 |
| ■정부내부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 240.8 | 287.9 | 19.5 |
| ■차입금 (Borrowings) | 191.7 | 198.7 | 3.7 |
| ■여유자금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 248.0 | 305.0 | 23.0 |
| 지 출 | ■사업비 (Project Cost)  •사회보험성 (Social Security Fund)  •사업성 (Project Fund)  •금융성·계정성 (Financial/Account Fund) | 180.6  96.6  72.5  11.5 | 199.2  105.9  78.0  15.3 | 10.3  9.5  7.6  33.5 |
|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 2.7 | 2.7 | 0.3 |
| ■정부내부지출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 424.9 | 507.9 | 19.6 |
| ■여유자금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 285.0 | 313.5 | 10.0 |

297



|  |  |
| --- | --- |
| 03 | 기금 수입 Fund Revenues |

(단위: 억원, In hundred million won)

|  |  |  |  |  |  |
| --- | --- | --- | --- | --- | --- |
| 기금명 Name of Fund | 자체수입Self-generated Revenues |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 차입금 Borrowings |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 합 계 Total |
| 총 계 (Total) | 2,317,765 | 2,878,954 | 1,986,619 | 3,049,595 | 10,232,932 |
|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 184,245 | 4,000 | - | 45,891 | 234,136 |
|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 4,618 | 1,637,014 | 1,584,221 | 814 | 3,226,667 |
|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 219,841 | 66,071 | - | 27,878 | 313,790 |
|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 42,810 | 66,083 | - | - | 108,893 |
|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 79 | 1,251 | - | 559 | 1,888 |
|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 14,236 | 244 | - | 1,742 | 16,222 |
|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 31,040 | 12,093 | - | 2,448 | 45,581 |
|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 878,979 | 111 | - | 788,369 | 1,667,459 |
|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 22,797 | 7,255 | - | 3,999 | 34,051 |
|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 20,572 | 5,588 | - | 6,545 | 32,705 |
| 국제교류기금 (Fund for International Exchanges) | 748 | 288 | - | 529 | 1,566 |
| 국제질병퇴치기금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 412 | 520 | - | 90 | 1,022 |
|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 6,186 | 150 | - | 2,182 | 8,518 |
|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 7,922 | 34,170 | - | 500 | 42,592 |
| 근로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 2,164 | 1,509 | - | 1,338 | 5,011 |

298



(단위: 억원, In hundred million won)

|  |  |  |  |  |  |
| --- | --- | --- | --- | --- | --- |
| 기금명 Name of Fund | 자체수입Self-generated Revenues |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 차입금 Borrowings |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 합 계 Total |
|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Geum River) | 1,379 | - | - | 508 | 1,888 |
| 기술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Guarantee Fund) | 14,792 | 2,250 | - | 14,500 | 31,543 |
| 기후대응기금 (Korea Climate Action Fund) | 3,020 | 20,777 | - | 122 | 23,918 |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 2,784 | - | - | 10 | 2,794 |
|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 436 | 14,565 | - | 840 | 15,841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 | 5,526 | 300 | - | 14,370 | 20,196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icultural Marketing & Price Stabilization) | 22,744 | - | - | 1,204 | 23,948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 Fishing Houses) | 316 | 315 | - | 11 | 641 |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 | 1,585 | - | - | 2,118 | 3,704 |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Direct Payment Fund for the Promotion of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 48 | 29,872 | - | 274 | 30,194 |
|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 16,976 | 18,909 | - | 4,178 | 40,063 |
|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3,037 | 18,750 | - | 301 | 22,087 |
| 무역보험기금 (Trade Insurance Fund) | 10,092 | 700 | - | 44,718 | 55,510 |
| 문화예술진흥기금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 1,147 | 3,788 | - | 863 | 5,798 |
| 문화재보호기금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Fund) | 109 | 1,526 | - | 65 | 1,700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 11,602 | 30,004 | - | 51,301 | 92,907 |
|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 6,643 | 2,633 | - | 3,250 | 12,527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 49 | 861 | - | 460 | 1,371 |

299

(단위: 억원, In hundred million won)

|  |  |  |  |  |  |
| --- | --- | --- | --- | --- | --- |
| 기금명 Name of Fund | 자체수입Self-generated Revenues |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 차입금 Borrowings |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 합 계 Total |
| 보훈기금 (Patriots and Veterans Fund) | 1,934 | 1,777 | - | 2,293 | 6,004 |
| 복권기금 (Lottery Fund) | 73,630 | 1,895 | - | 8,056 | 83,580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Teacher's pension fund) | 67,325 | 10,112 | - | 54,030 | 131,467 |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Judicial Service Promotion Fund) | 1,059 | 312 | - | 943 | 2,314 |
| 사학진흥기금 (Fund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School) | 1,706 | 1,044 | - | 323 | 3,073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 417 | 100 | - | 7,616 | 8,133 |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Fund for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 603 | 725 | - | 696 | 2,024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 107,381 | 16,675 | - | 78,895 | 202,950 |
|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Damage Relief Fund) | 374 | 120 | - | 108 | 602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Micro Enterprise & Market Promotion Fund) | 32,763 | 42,322 | - | - | 75,085 |
|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 6,265 | 1,000 | - | 1,169 | 8,434 |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Fund for the Patriotic Martyrs and Patriots) | 84 | 927 | - | 477 | 1,487 |
|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 33,680 | 800 | - | 80,223 | 114,703 |
|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 3 | 15,111 | - | 197 | 15,311 |
| 양성평등기금 (Gender Equality Fund) | 165 | 7,582 | - | 461 | 8,209 |
|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 292 | - | - | 188 | 480 |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eongsan and Seomjin River) | 1,017 | - | - | 596 | 1,613 |
| 영화발전기금 (Korean Film Development Fund) | 384 | 354 | - | 639 | 1,37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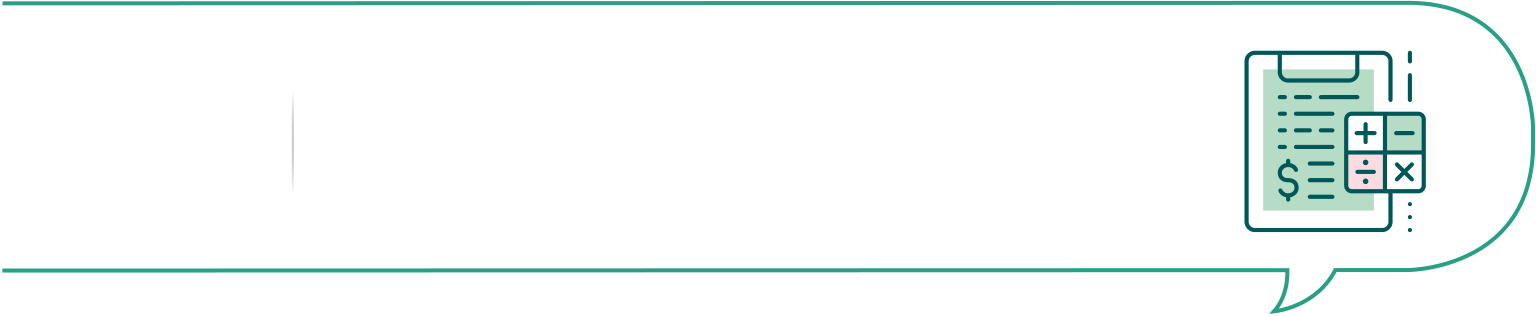
300



(단위: 억원, In hundred million won)

|  |  |  |  |  |  |
| --- | --- | --- | --- | --- | --- |
| 기금명 Name of Fund | 자체수입Self-generated Revenues |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 차입금 Borrowings |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 합 계 Total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Deposit Insurance Fund Bond Redemption Fund) | 38,694 | - | - | 7,716 | 46,410 |
|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 27,988 | 566,476 | 196,900 | 1,259,838 | 2,051,201 |
| 원자력기금 (Atomic Energy Fund) | 3,591 | - | - | 1,974 | 5,565 |
| 응급의료기금 (Emergency Medical Service Fund) | 3,143 | 3,374 | - | 100 | 6,617 |
|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 6,877 | 1,036 | - | 1,815 | 9,728 |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Auto Accident Victim Support Fund) | 584 | 1,054 | - | 1,016 | 2,654 |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Agricultural Fund for Performance of Free Trade Agreement) | 4,309 | - | - | 1,577 | 5,886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 8,852 | 6,179 | - | 5,017 | 20,048 |
|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al Industry Foundation Fund) | 35,301 | 2,891 | - | 6,818 | 45,010 |
|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 6,002 | 6,027 | - | 1,768 | 13,797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 19,212 | - | - | 29,760 | 48,972 |
| 주택도시기금 (National Housing & Urban Fund) | 235,078 | 187,902 | 160,000 | 471,023 | 1,054,003 |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 49,790 | 15,971 | 45,498 | 130 | 111,389 |
|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 2 | 85 | - | 12 | 98 |
| 청소년육성기금 (Youth Fostering Fund) | 103 | 1,554 | - | 50 | 1,707 |
|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 4,756 | 3,955 | - | 910 | 9,621 |
|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 5,466 | - | - | 1,184 | 6,651 |

301



|  |  |
| --- | --- |
| 04 | 기금 지출 Fund Expenditures |

(단위: 억원, In hundred million won)

|  |  |  |  |  |  |
| --- | --- | --- | --- | --- | --- |
| 기금명 Name of Fund | 사업비 Project Cost | 기금운영비Fund operation | 정부내부 지출 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 합 계 Total |
| 총 계 (Total) | 1,991,955 | 26,582 | 5,079,356 | 3,135,040 | 10,232,932 |
|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 162,893 | 1,165 | 11,641 | 58,437 | 234,136 |
|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 26,011 | 32 | 3,198,758 | 1,866 | 3,226,667 |
|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 263,645 | 647 | 396 | 49,101 | 313,790 |
|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 - | 1 | 103,392 | 5,500 | 108,893 |
|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 925 | 7 | 45 | 911 | 1,888 |
|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 11,019 | 6 | 1,768 | 3,429 | 16,222 |
|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 36,376 | 1 | 6,900 | 2,304 | 45,581 |
|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 437,480 | 5,427 | - | 1,224,551 | 1,667,459 |
|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 15,906 | 321 | 7,447 | 10,377 | 34,051 |
|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 10,260 | 28 | 12,500 | 9,917 | 32,705 |
| 국제교류기금 (Fund for International Exchanges) | 540 | 147 | 700 | 179 | 1,566 |
| 국제질병퇴치기금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 913 | 7 | 27 | 74 | 1,022 |
|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 6,039 | - | 33 | 2,445 | 8,518 |
|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 40,408 | 3 | - | 2,181 | 42,592 |

302



(단위: 억원, In hundred million won)

|  |  |  |  |  |  |
| --- | --- | --- | --- | --- | --- |
| 기금명 Name of Fund | 사업비 Project Cost | 기금운영비Fund operation | 정부내부 지출 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 합 계 Total |
| 근로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 1,749 | 159 | 951 | 2,152 | 5,011 |
|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Geum River) | 1,291 | 26 | - | 571 | 1,888 |
| 기술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Guarantee Fund) | 15,728 | 2,160 | 1,950 | 11,705 | 31,543 |
| 기후대응기금 (Korea Climate Action Fund) | 22,602 | 27 | 286 | 1,003 | 23,918 |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 2,274 | 38 | - | 482 | 2,794 |
|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 8,722 | 22 | 5,962 | 1,134 | 15,841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 | 3,567 | 556 | - | 16,074 | 20,196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icultural Marketing & Price Stabilization) | 20,838 | 580 | 159 | 2,370 | 23,948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 Fishing Houses) | 618 | 0.01 | - | 23 | 641 |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 | 1,200 | 6 | - | 2,498 | 3,704 |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Direct Payment Fund for the Promotion of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 29,090 | 2 | - | 1,102 | 30,194 |
|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 19,594 | 643 | 11,718 | 8,108 | 40,063 |
|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20,702 | 229 | 565 | 591 | 22,087 |
| 무역보험기금 (Trade Insurance Fund) | 6,189 | 1,280 | - | 48,041 | 55,510 |
| 문화예술진흥기금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 4,269 | 194 | 206 | 1,130 | 5,798 |
| 문화재보호기금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Fund) | 1,591 | 1 | 56 | 52 | 1,700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 2,204 | 14 | 37,600 | 53,088 | 92,907 |
|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 9,012 | 42 | 382 | 3,091 | 12,527 |

303

(단위: 억원, In hundred million won)

|  |  |  |  |  |  |
| --- | --- | --- | --- | --- | --- |
| 기금명 Name of Fund | 사업비 Project Cost | 기금운영비Fund operation | 정부내부 지출 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 합 계 Total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 886 | 0.5 | 25.0 | 459 | 1,371 |
| 보훈기금 (Patriots and Veterans Fund) | 1,249 | 8 | 1,206 | 3,541 | 6,004 |
| 복권기금 (Lottery Fund) | 51,785 | 10 | 23,863 | 7,922 | 83,580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Teacher's pension fund) | 60,296 | 324 | 422 | 70,426 | 131,467 |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Judicial Service Promotion Fund) | 728 | 1 | 300 | 1,285 | 2,314 |
| 사학진흥기금 (Fund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School) | 1,043 | 80 | 1,635 | 315 | 3,073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 146 | 97 | - | 7,890 | 8,133 |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Fund for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 1,117 | 12 | 307 | 588 | 2,024 |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 93,853 | 4,369 | 33,000 | 71,728 | 202,950 |
|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Damage Relief Fund) | 463 | 19 | - | 120 | 602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Micro Enterprise & Market Promotion Fund) | 50,510 | 586 | 23,989 | - | 75,085 |
|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 8,093 | 7 | 20 | 314 | 8,434 |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Fund for the Patriotic Martyrs and Patriots) | 1,008 | 1 | - | 479 | 1,487 |
|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 41,161 | 3,676 | - | 69,866 | 114,703 |
|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 - | - | 15,311 | - | 15,311 |
| 양성평등기금 (Gender Equality Fund) | 7,582 | - | 173 | 453 | 8,209 |
|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 190 | 2 | 85 | 203 | 480 |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eongsan and Seomjin River) | 890 | 20 | - | 703 | 1,6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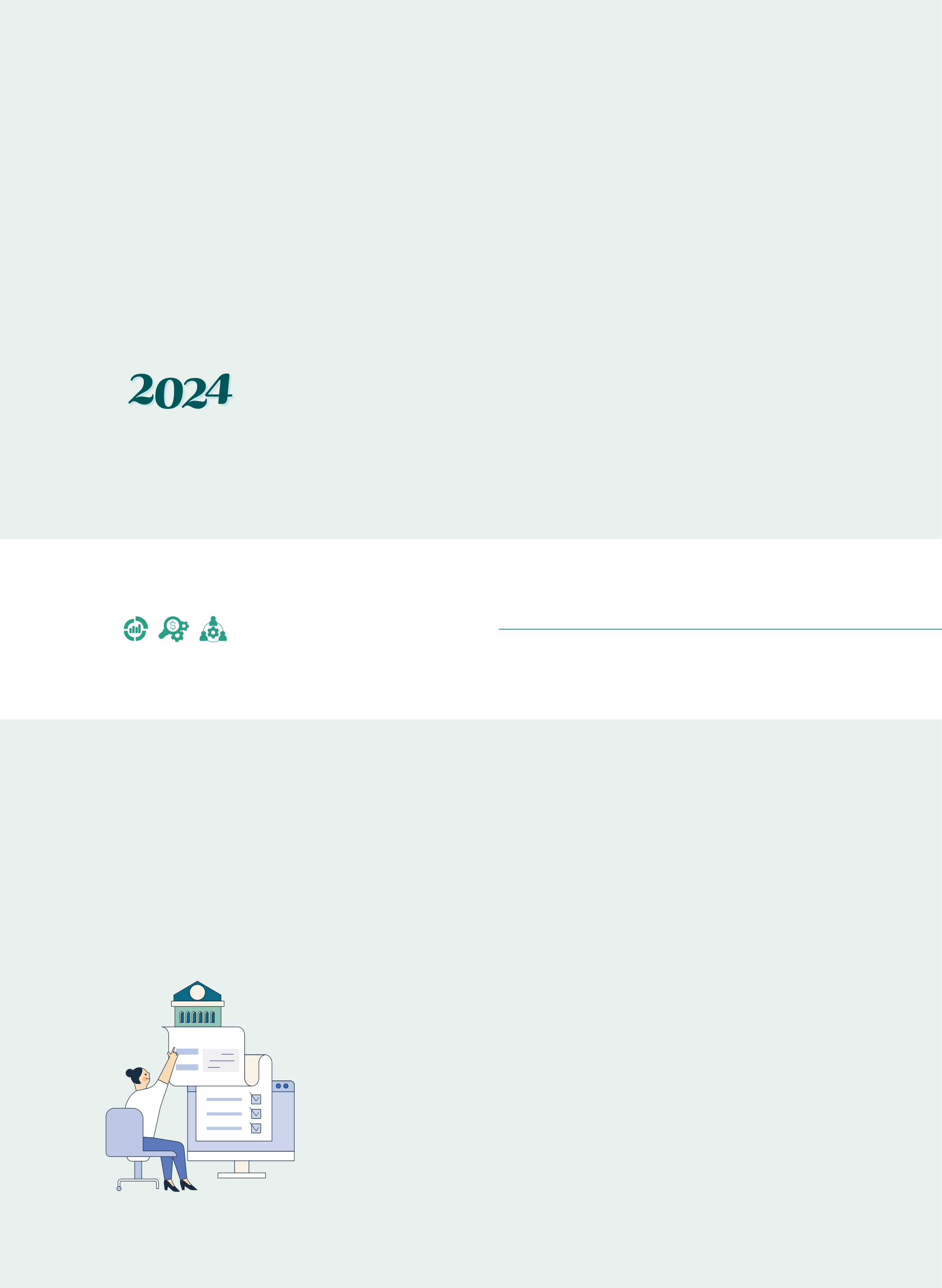
304



(단위: 억원, In hundred million won)

|  |  |  |  |  |  |
| --- | --- | --- | --- | --- | --- |
| 기금명 Name of Fund | 사업비 Project Cost | 기금운영비Fund operation | 정부내부 지출 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 합 계 Total |
| 영화발전기금 (Korean Film Development Fund) | 467 | - |  | 788 | 1,378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Deposit Insurance Fund Bond Redemption Fund) | 37 | 35 | 42,500 | 3,839 | 46,410 |
|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 - | 13 | 1,034,461 | 1,016,728 | 2,051,201 |
| 원자력기금 (Atomic Energy Fund) | 2,946 | 13 | 5 | 2,602 | 5,565 |
| 응급의료기금 (Emergency Medical Service Fund) | 2,698 | 2 | 3,820 | 96 | 6,617 |
|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 5,268 | 164 | 1,000 | 3,297 | 9,728 |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Auto Accident Victim Support Fund) | 586 | 3 | 1,500 | 564 | 2,654 |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Agricultural Fund for Performance of Free Trade Agreement) | 3,353 | 18 | - | 2,515 | 5,886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 8,213 | 841 | 6,000 | 4,994 | 20,048 |
|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al Industry Foundation Fund) | 21,112 | 78 | 16,074 | 7,747 | 45,010 |
|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 9,511 | 221 | 907 | 3,158 | 13,797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 7,814 | 579 | - | 40,579 | 48,972 |
| 주택도시기금 (National Housing & Urban Fund) | 354,565 | 3 | 413,595 | 285,839 | 1,054,003 |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 54,635 | 1,389 | 55,364 | - | 111,389 |
|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 83 | 6 | - | 10 | 98 |
| 청소년육성기금 (Youth Fostering Fund) | 1,563 | 0.4 | 52.0 | 91 | 1,707 |
|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 9,088 | 17 | 302 | 214 | 9,621 |
|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 5,360 | 93 | - | 1,198 | 6,651 |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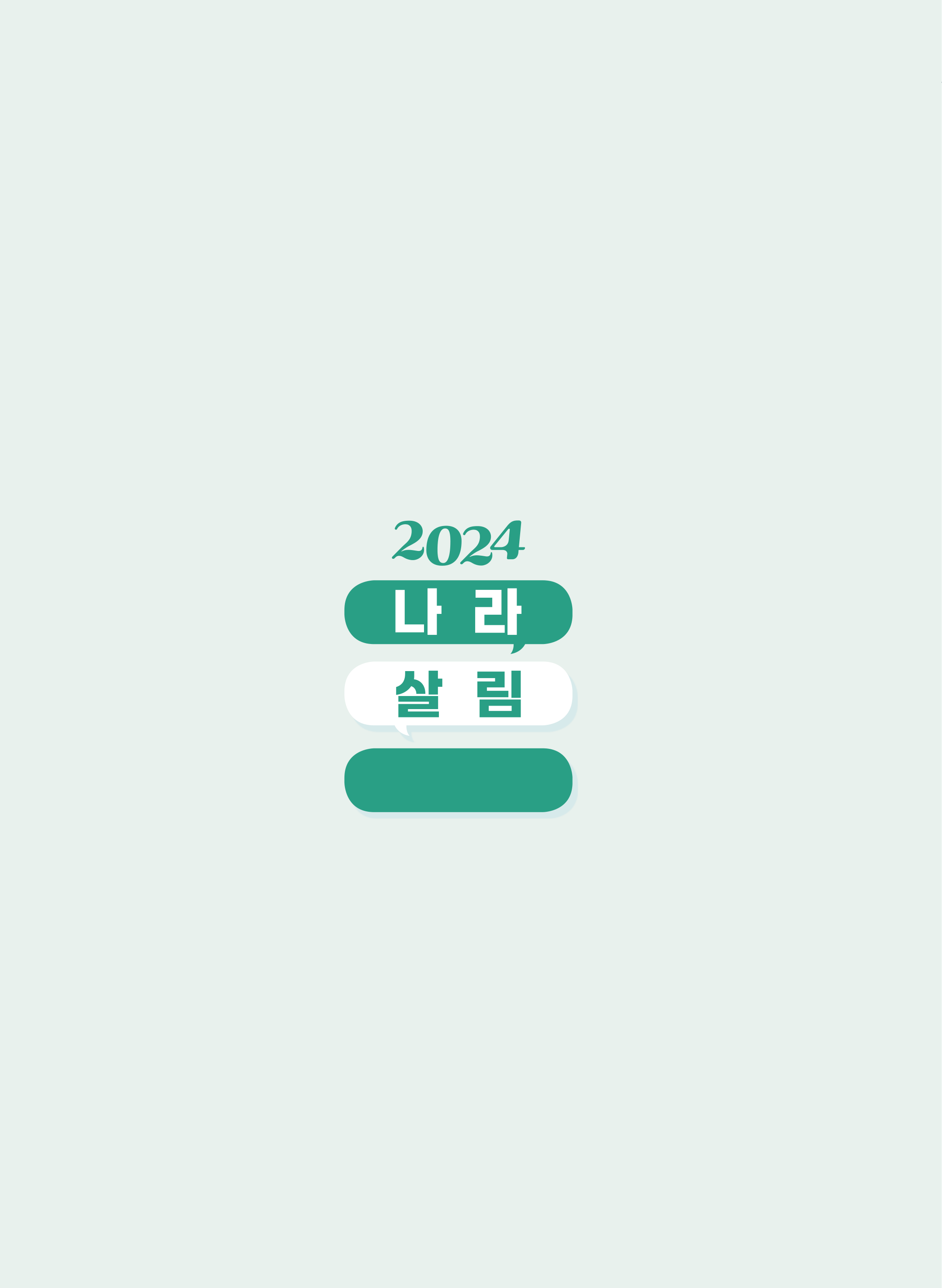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  |
| --- |
| | 별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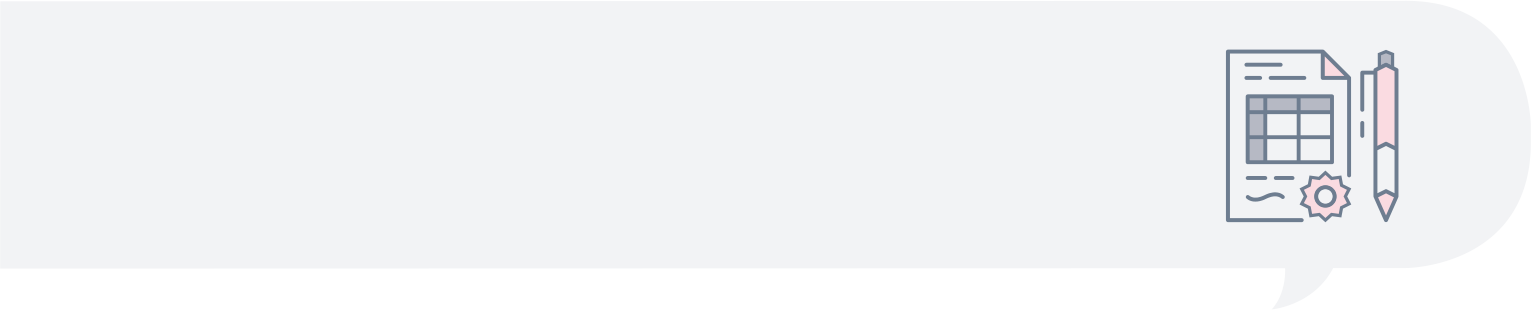
|  |
| --- |
| 작성자 및 |

|  |
| --- |
| 편집자 명단 |



예산개요

308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  |  |  |
| --- | --- | --- |
| 성 명 | 소속 및 직급 | 작성 부분 |
| 오지훈 | 예산관리과 과장 | 종합 편집 |
| 이홍섭 | 예산관리과 사무관 | ″ |
| 최규원 | 예산관리과 사무관 | ″ |
| 이혜인 | 예산관리과 주무관 | ″ |
| 장윤정 | 예산총괄과 과장 | 제2부 제1장 2023년도 나라살림 종합 |
| 류재현 | 예산총괄과 서기관 | ″ |
| 최현희 | 예산총괄과 사무관 | ″ |
| 이상후 | 예산총괄과 사무관 | ″ |
| 곽인수 | 예산총괄과 사무관 | ″ |
| 조승호 | 예산총괄과 사무관 | ″ |
| 문근기 | 예산총괄과 사무관 | ″ |
| 곽정환 | 예산총괄과 사무관 | ″ |
| 천혜린 | 예산총괄과 사무관 | 제3부 중 예산통계 |
| 이영임 | 예산총괄과 주무관 | ″ |
| 홍주연 | 예산총괄과 주무관 | ″ |
| 전광호 | 예산총괄과 주무관 | ″ |
| 김동현 | 예산총괄과 주무관 | ″ |
| 계강훈 | 예산정책과 과장 | 제2부 제1장 2023년도 나라살림 종합, 제2부 제2장 2023년도 재원배분 방향,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
| 원선재 | 예산정책과 서기관 | ″ |
| 최창선 | 예산정책과 사무관 | ″ |
| 김기문 | 예산정책과 사무관 | ″ |
| 구본녕 | 예산정책과 사무관 | ″ |
| 신지호 | 예산정책과 사무관 | ″ |
| 허장범 | 예산정책과 주무관 | ″ |
| 임종찬 | 예산정책과 주무관 | ″ |

309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  |  |  |
| --- | --- | --- |
| 성 명 | 소속 및 직급 | 작성 부분 |
| 권재관 | 예산기준과 과장 |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
| 유동훈 | 예산기준과 사무관 | ″ |
| 조기문 | 예산기준과 사무관 | ″ |
| 김진수 | 예산기준과 사무관 | ″ |
| 김재영 | 예산기준과 사무관 | ″ |
| 최항 | 예산기준과 주무관 | ″ |
| 노은실 | 예산기준과 주무관 | ″ |
| 최진광 | 인력예산팀 팀장 | ″ |
| 손우성 | 인력예산팀 사무관 | ″ |
| 문강기 | 인력예산팀 주무관 | ″ |
| 이민호 | 기금운용계획과 과장 | 제3부 제2장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기금통계 |
| 안재영 | 기금운용계획과 사무관 | ″ |
| 박근형 | 기금운용계획과 사무관 | ″ |
| 고상덕 | 기금운용계획과 사무관 | ″ |
| 이도회 | 기금운용계획과 사무관 | ″ |
| 진선홍 | 기금운용계획과 주무관 | ″ |
| 최성호 | 기금운용계획과 주무관 | ″ |
| 이진승 | 기금운용계획과 주무관 | ″ |
| 이지원 | 고용예산과 과장 | 제2부 제3장 일자리 분야 |
| 구정대 | 고용예산과 사무관 | ″ |
| 이상협 | 고용예산과 사무관 | ″ |
| 박진영 | 고용예산과 사무관 | ″ |
| 기도형 | 고용예산과 사무관 | ″ |
| 윤동형 | 고용예산과 주무관 | ″ |
| 김소연 | 고용예산과 주무관 | ″ |
| 김정애 | 교육예산과 과장 | 제2부 제3장 교육 분야 |
| 이국희 | 교육예산과 사무관 | ″ |
| 전유석 | 교육예산과 사무관 | ″ |
| 박주선 | 교육예산과 사무관 | ″ |
| 이숙경 | 교육예산과 사무관 | ″ |
| 연영민 | 교육예산과 주무관 | ″ |
| 고동성 | 교육예산과 주무관 | ″ |
| 이혜림 | 문화예산과 과장 | 제2부 제3장 문화·체육·관광분야 |

310



|  |  |  |
| --- | --- | --- |
| 성 명 | 소속 및 직급 | 작성 부분 |
| 조병규 | 문화예산과 사무관 | ″ |
| 주병욱 | 문화예산과 사무관 | ″ |
| 이승민 | 문화예산과 사무관 | ″ |
| 김유현 | 문화예산과 사무관 | ″ |
| 유승우 | 문화예산과 주무관 | ″ |
| 윤성경 | 문화예산과 주무관 | ″ |
| 강우진 | 기후환경예산과 과장 | 제2부 제3장 환경 분야 |
| 문성호 | 기후환경예산과 사무관 | ″ |
| 고영록 | 기후환경예산과 사무관 | ″ |
| 송옥현 | 기후환경예산과 사무관 | ″ |
| 홍현아 | 기후환경예산과 주무관 | ″ |
| 강윤정 | 기후환경예산과 주무관 | ″ |
| 박재형 | 국토교통예산과 과장 | 제2부 제3장 SOC분야 |
| 이은숙 | 국토교통예산과 서기관 | ″ |
| 이상헌 |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 |
| 이한결 |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 |
| 남동현 |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 |
| 이세환 |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 |
| 한연지 | 국토교통예산과 주무관 | ″ |
| 김상우 | 국토교통예산과 주무관 | ″ |
| 배미현 | 국토교통예산과 주무관 | ″ |
| 강경표 | 산업중소벤처예산과 과장 | 제2부 제3장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 정민철 |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사무관 | ″ |
| 남기인 |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사무관 | ″ |
| 유다빈 |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사무관 | ″ |
| 이동휘 |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사무관 | ″ |
| 김현후 |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주무관 | ″ |
| 장일영 |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주무관 | ″ |
| 박정민 | 농림해양예산과 과장 | 제2부 제3장 농림·수산·식품분야 |
| 김지수 |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 |
| 송기선 |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 |
| 김이현 |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 |
| 안승현 |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 |

311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  |  |  |
| --- | --- | --- |
| 성 명 | 소속 및 직급 | 작성 부분 |
| 황현 |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 |
| 최나은 | 농림해양예산과 주무관 | ″ |
| 조상우 | 농림해양예산과 주무관 | ″ |
| 김준철 | 연구개발예산과 과장 | 제2부 제3장 R&D분야 |
| 이정혁 |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 |
| 이동석 |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 |
| 최대선 |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 |
| 배준혜 |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 |
| 강민서 |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
| 조래혁 | 연구개발예산과 주무관 |  |
| 최진경 | 연구개발예산과 주무관 | ″ |
| 민경신 | 정보통신예산과 과장 |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
| 원봉희 | 정보통신예산과 사무관 | ″ |
| 김영수 | 정보통신예산과 사무관 | ″ |
| 박대열 | 정보통신예산과 사무관 | ″ |
| 서지연 | 정보통신예산과 사무관 | ″ |
| 박수현 | 정보통신예산과 주무관 | ″ |
| 김승하 | 정보통신예산과 주무관 | ″ |
| 김경국 | 복지예산과 과장 | 제2부 제3장 보건·복지분야 |
| 신경아 | 복지예산과 사무관 | ″ |
| 권혁순 | 복지예산과 사무관 | ″ |
| 김윤희 | 복지예산과 사무관 | ″ |
| 김정도 | 복지예산과 사무관 | ″ |
| 조성현 | 복지예산과 주무관 | ″ |
| 김광일 | 복지예산과 주무관 | ″ |
| 이정연 | 복지예산과 주무관 | ″ |
| 김완수 | 연금보건예산과 과장 |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
| 이미숙 | 연금보건예산과 사무관 | ″ |
| 박준영 | 연금보건예산과 사무관 | ″ |
| 최지애 | 연금보건예산과 사무관 | ″ |
| 이정학 | 연금보건예산과 주무관 | ″ |
| 배희정 | 연금보건예산과 주무관 | ″ |
| 오현경 | 지역예산과 과장 |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
| 이재철 | 지역예산과 사무관 | ″ |

312



|  |  |  |
| --- | --- | --- |
| 성 명 | 소속 및 직급 | 작성 부분 |
| 강도영 | 지역예산과 사무관 | ″ |
| 송준식 | 지역예산과 사무관 | ″ |
| 박선영 | 지역예산과 주무관 | ″ |
| 문상호 | 안전예산과 과장 | ″ |
| 강준이 | 안전예산과 사무관 | ″ |
| 김미선 | 안전예산과 사무관 | ″ |
| 김재오 | 안전예산과 사무관 | ″ |
| 조규산 | 법사예산과 과장 | 제2부 제3장 공공질서·안전 분야 |
| 김병철 | 법사예산과 사무관 | ″ |
| 박준수 | 법사예산과 사무관 | ″ |
| 이동각 | 법사예산과 사무관 | ″ |
| 김형준 | 법사예산과 사무관 | ″ |
| 정성구 | 법사예산과 주무관 | ″ |
| 황운정 | 법사예산과 주무관 | ″ |
| 권기정 | 행정예산과 과장 | 제2부 제3장 외교·통일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
| 하치승 | 행정예산과 사무관 | ″ |
| 옥지연 | 행정예산과 사무관 | ″ |
| 이홍석 | 행정예산과 사무관 | ″ |
| 이영광 | 행정예산과 사무관 | ″ |
| 김혜진 | 행정예산과 주무관 | ″ |
| 김현록 | 행정예산과 주무관 | ″ |
| 임대한 | 지방재정팀 팀장 |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
| 최동호 | 지방재정팀 사무관 | ″ |
| 김의영 | 국방예산과 과장 | 제2부 제3장 국방분야 |
| 신동호 | 국방예산과 사무관 | ″ |
| 이병호 | 국방예산과 사무관 | ″ |
| 김영욱 | 국방예산과 사무관 | ″ |
| 정혁주 | 국방예산과 사무관 | ″ |
| 문정민 | 국방예산과 사무관 | ″ |
| 이재현 | 국방예산과 주무관 | ″ |
| 이철규 | 방위사업예산과 과장 |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
| 오성태 | 방위사업예산과 사무관 | ″ |
| 채정목 | 방위사업예산과 사무관 | ″ |
| 조현 | 방위사업예산과 사무관 | ″ |
| 김동훈 | 방위사업예산과 주무관 | ″ |

313

|  |
| --- |
| • ‌예산개요의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개요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 나라살림**예산개요  •발간등록번호 11-1051000-000020-10•발 행 처 기획재정부 •발 행 인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발 행 일 2024년 2월 •연 락 처 Tel. 044-215-7192  Fax. 044-215-8041 |